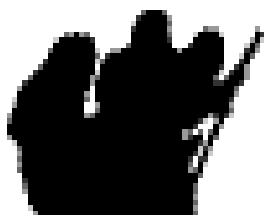


엠마오 길에서 만난 사람

The Stranger on the Road to Emmaus



존 크로스 지음 / 윤규석 옮김

엔.티.엠. 출판부

책 이 름 엠마오 길에서 만난 사람 / The Stranger on the Road to Emmaus

지 은 이 존 크로스 / John R. Cross

옮 기 이 윤규석

발 행 일 초 판 2006년 2월 15일
 제2판 2008년 4월 30일

발 행 처 엔티엠 출판부

발 행 인 윤규석

등 록 번 호 제 16-2878호
등 록 일 자 2002년 11월 29일

주 소 서울시 송파구 송파우체국 사서함 135호 (우) 138-600

대표전화/팩스 (02) 2040-6080 / 2040-6081

웹 사 이 트 www.ntmkorea.org

이 메 일 ntmkorea@unitel.co.kr

값 15,000 원

ISBN 978-89-953996-3-7 04230

(c) 2006, 2008 엔티엠 출판부

※이 책은 원 저작권자인 GoodSeed International의 허락을 받아 출판합니다.

성경이 위대한 책이라고 가르쳐 주신
존경하는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께,

그리고 끊임없이 돕고 격려해 준
사랑하는 나의 아내와 아이들에게

감사의 글

책 한 권을 쓰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열거해도 그 자체가 한 권의 훌륭한 책이 될 것입니다. 책이 한 권 출간되기 위해서는 저자 한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동원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나오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의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신 분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엔.티.엠. 부족선교회의 트레버 맥클웨인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하나의 커다란 진리의 흐름으로 볼 수 있도록 넓은 시야로 성경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가르침과 글로 큰 영향을 받았고, 이로 인해 저는 그분께 커다란 마음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또 그분은 이 책의 원고에 대해서도 대단히 유익한 비평과 충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낸시 에버슨 여사는 이 책과 같은 주제로 훌륭한 책을 두 권이나 쓴 바 있는데, 솔직한 비평과 특별한 격려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의 친 형님 데이빗 크로스, 그리고 마크 넬슨은 교리적 정확성을 위해 오류를 꼼꼼히 잡아주며 아주 철저한 검증을 해주셨습니다.

또 래윈 워브, 마이크 제이콥스, 티비 웨스트콧, 마가렛 헬튼은 문법과 교정 작업으로, 폴 험프리즈, 돈 달튼, 애이더 빅스와 이름을 밝히기를 꺼리는 한 분은 삽화 작업으로, 돈 피더슨, 켈럽 에드워즈, 그리고 바이 아이엇은 기술적 측면을 감독하는 작업으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이 책은 빛을 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힘을 아끼지 않고 도와주신 분들 중에는 교리적 명확성을 살피주신 분들, 문법적으로 정확하고 또 쉽고 매끄러운 글이 되도록 문장을 가다듬는 수고를 해주신 분들, 기타 컴퓨터 기술과 행정 분야에 도움을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은 이

이 책을 옮기며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 선입견과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 한 두 구절을 떠올리며 자신은 성경을 잘 안다고 합니다. 또 성경을 늘 가까이 두거나, 손에 들고 다니면서도 사실은 한 번도 제대로 읽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을 읽었다고 하면서도,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 성경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혹시 성경을 알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무엇부터 알아야 할지 막막해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을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 역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마음만 부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선교의 열정이 있다고 하면서 정작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준비는 전혀 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냉정히 돌아봐야 할 우리의 영적 현실입니다.

이러한 즘음에 이 책은 우리가 성경을 잘 알 수 있도록 밝혀주는 횃불과 같은 도구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저자 존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시는 또 다른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책보다 더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나, 신앙생활의 시작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곧 하나님을 더 잘 알려고 하는 모든 일에 이 책이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책을 보다 잘 옮기기 위해 임시로 3백 권의 책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목회자와 신학 교수까지, 초등학교 학력으로부터 박사 학위자까지 골고루 배포했습니다. 돌아온 반응은 대단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주로 많은 내용은, 진리가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되어서 충격이었다는 것과 성경의 기초지식을 잘 정리하게 되어 감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 과정을 통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고 정확하게 성경의 기초를 전하려는 이 책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이 우리말로 번역되어 출간되기까지 도와주신 많은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분들을 축복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옮긴이

목차

머리글

제 1 장	1 낯선 사람	5
	2 이야기 전에	6
	3 독특한 책	9
제 2 장	1 태초에 하나님이	15
	2 천사, 만군, 별들	20
제 3 장	1 하늘과 땅의 시작	25
	2 보시기에 좋았더라	30
	3 하나님의 형상	36
제 4 장	1 내가 ... 하리라	47
	2 하나님이 ... 하시더냐?	51
	3 네가 어디 있느냐?	57
	4 반드시 죽으리라	62
제 5 장	1 위대한 역설	71
	2 죄를 덮으라	74
	3 대재앙	84
	4 바벨의 탑	94
제 6 장	1 복을 받으리라	101
	2 믿음	104
	3 외아들	106
제 7 장	1 이스라엘과 그 후손	113
	2 모세	114
	3 유월절과 어린양	117
제 8 장	1 물과 양식	125
	2 십계명	128
	3 하나님의 법정	135

제 9 장	1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143
	2 이스라엘의 불신앙	152
	3 사사, 왕, 선지자	156
제 10 장	1 예언이 현실로	165
	2 예수	170
	3 선생들 사이에서	177
	4 세례(침례)	180
제 11 장	1 사탄의 시험	187
	2 능력과 명성	190
	3 다시 태어나라	192
	4 음모와 배척	195
	5 생명의 양식	199
제 12 장	1 더러운 누더기	203
	2 유일한 길	206
	3 다시 살아난 사람	208
	4 지옥의 현실	212
	5 환영과 배신	214
제 13 장	1 불공정한 재판	219
	2 십자가 처형	222
	3 무덤 그리고 부활	235
제 14 장	1 그 사람의 이야기	243
	2 아담에서 노아까지	246
	3 아브라함에서 율법까지	252
	4 성막에서 늦밤까지	260
	5 십자가와 부활까지	265
제 15 장	1 어찌하오리이까?	275
	2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291
부 록	어휘 설명	295
	성경의 선택	297
	참고 자료	299
	각주	301

인용한 성경번역판과 표시하는 약어는 다음과 같다.

• 성경전서 개역한글·개정판 (Korean Revised Version)	KRV
•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New Korean Standard Version)	KSV
• 현대어 성경 (Today's Korean Version Paraphrased)	TKV
• 현대인의 성경 (Korean Living Bible)	KLB
• 성경전서 흠정역 (King James Version)	KJV
• 쉬운 성경 (Agape Easy Bible)	AEB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 요한계시록 22:17-19

머리글

성경에 관한 책을 쓰는 사람은 완전히 객관적인 입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은 본질적으로 어떤 대답이 있기를 강력히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그 대답을 결정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종교적 열심을 내세우며 영적인 것으로 포장한 이야기와 함께 단편적인 성경 지식을 강요하는 사람들을 만난 불유쾌한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대개 그런 일을 한번 겪게 되면, 성경에 대해 막연한 오해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성경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으레 거부하는 쪽을 먼저 택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후에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한 채로 위태로운 중립지대에 서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첫째로 염두에 둔 일은,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흥미 있게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들에게 공연한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설교 조의 말투를 가급적 피했습니다. 그리고 읽는 사람이 스스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성경을 명확히 설명하는 일에만 힘을 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성경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객관성을 잃은 것이 아니냐고 추궁할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것이 책망 받을 일이라면, 저는 기꺼이 그 책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말하자면, 성경 스스로가 진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성경을 진리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과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결과가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성경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되, 좀 더 흥미롭고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뿐입니다.

제가 둘째로 마음을 쏟은 것은 성경의 진리의 내용을 조금도 희석시키지 않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이 어떤 선택을 요구할 때가 되면, 그 선택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하려고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매우 직설적이므로, 그 명확한 뜻이 조금이라도 모호해지면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 풍조를 따르다 보면, 성경의 참 뜻을 이해하는 일에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를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어를 선택할 때도, 오늘날 현대인들이 유행처럼 선호하는 두루뭉술한 중성적 표현을 가급적 배제하고, 우리 인류가 오랫동안 즐겨 사용하던 직설적 표현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책을 펴들고 처음 몇 쪽 읽다가 “이 책은 내 취향이 아니야” 하고 쉽게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의 내용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우선 이 책을 끝까지 꼭 읽어보기를 다시 한번 권합니다. 서양속담에 “목욕물을 내다 버리다가 야기까지 함께 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 역시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하마터면 그런 실수를 할 뻔 했습니다. 그때 마침 어떤 분이 저에게 한번 더 생각해 본 후 끝까지 읽어 볼 것을 간곡히 권해 주었습니다. 저는 책 중의 책, 성경을 끝까지 읽게 되었고, 그 후로 지금도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읽을 때마다 생명이 넘치는 말씀에 또다시 경탄을 하곤 합니다. 그런 기회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집니다. 지금 바로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지은 이



1장

1 낯선 사람

2 이야기 전에

3 독특한 책

1 낮선 사람

이 이야기는 약 2천 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다. 이 사건은 모든 사람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는 이 책 전반에 걸쳐 그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한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십여 km 떨어진 작은 도시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 라고 했다. 그들은 지난 며칠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 내용에서 얼핏 ‘슬픈 ...’이란 말이 들렸다.

그런데 그날 밤 그들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한밤중에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은 감격에 넘쳐 흥분해 있었는데, 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이야기를 그날 낮으로 되돌려 보자.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어떤 낮선 사람을 만나 동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 낮선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소?”

“아니, 책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일을 모른단 말이오?”

두 사람은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물어 보았다.

먼저 글로바가 지난 며칠 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 말을 하는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다. 그러자 그 사람이 자기 차례인 듯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오래 전에 기록된 어떤 책을 인용하며 세상의 시작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의 의미를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가르침이 있었다. 두 사람이 익히 알고 있던 수십 개의 사건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새롭게 정리되었다. 그들의 마음은 뜨겁게 달아올랐고, 속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희망이 솟구쳤다.

해질녘 엠마오에 도착하자, 그 낮선 사람은 떠나 버렸다. 두 사람은 도저히 엠마오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동료들도 이 이야기를 빨리 들어야 했기에, 그들은 한밤중에 밤길을 달려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낯선 사람은 대체 누구였으며, 무슨 이야기를 한 것일까? 그리고 지난 며칠 동안 예루살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들이 들었던 그 진리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들을 수 없을까?

우선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그 낯선 사람이 그 책에 있는 많은 내용을 ‘하나의 이야기’로 가르쳐 주었고, 두 사람은 바로 그 이야기를 통해 진리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오래된 책은 ‘성경’이라고 불리는 책이었다.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해주었기에 책 중의 책, 성경이 그토록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을까? 그 깨달음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도 한번 들어 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들이 들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 이야기를 들어 보자.

2 이야기 전에

우리는 성경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장 쉬운 방법으로 보게 될 것이다. 만일 몇 시간을 들여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알 수 있다면, 우리의 일생에서 이보다 더 귀하고 값진 시간이 어디 있겠는가? 이 몇 시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진정 지혜로운 사람일 것이다.

성경은 인생의 가장 기초, 곧 삶과 죽음의 문제로부터 생활의 현장에서 부딪치는 모든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 답을 가르쳐 준다. 우리는 그 답을 ‘진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바로 그 진리가 성경에 있는 것이다.

성경은 수 천 년에 걸쳐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이기도 하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도 그 겉표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도는 알고 있다. 혹시 누가 성경에 관해 좋지 않은 선입견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아마도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의 태도나 방법 때문일 것이다.

그동안 성경을 비판하고, 그 가치를 깎아 내리려고 시도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때로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성경을 공격하려 드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 무책임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잠시 살다 사라져 가곤 했지만, 성경은 그것이 기록될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조금도 변한 것이 없다. 어떤 비판이나 위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 보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나 자신의 삶과 죽음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나 자신의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위하여.

퍼즐을 잘 맞추는 방법

성경의 이해는 보물 찾기보다는 퍼즐 맞추기와 비슷한 면이 있다. 보물 찾기는 관찰력과 행운에 의존하지만, 퍼즐 맞추기는 퍼즐 그림 전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부터 차곡차곡 진행해야 한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성경 전체에 대한 올바른 파악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해와 학습 효과를 위한 네 가지 기본원칙이 있는데,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일에 이 원칙을 적용해 보기로 하자.

원칙 1 :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첫 번째 원칙은 어떤 새로운 것을 제대로 배우려면 기초부터 잘 닦으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원칙이다. 더 쉽게 설명하자면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차츰 어려운 것을 배우는 것이다. 수학을 배울 때 유치원 어린이들이 곱셈, 나눗셈부터 시작하지 않고 먼저 손가락으로 수를 세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과 같다. 단순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차 복잡한 것으로 진행하라는 원칙이다.

성경의 이해도 같은 이치이다. 기초를 무시하면 전체를 이해하는 일에 언제든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가끔 그런 혼란으로 인해 퍼즐 맞추기의 결과가 엉뚱한 그림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우리는 성경을 기초부터 시작하여 단계마다 새로운 지식을 쌓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다.

원칙 2 : 시간 순서대로

두 번째 원칙은 처음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시간의 순서대로 읽는 것이다. 이 원칙은 어떤 이야기나 역사를 읽을 때 특히 중요하다. 당연한 것 같은데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여기저기 조금씩 읽고 나서 정작 성경 전체의 흐름에 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사건을 이해하는 논리의 첫 단계는 먼저 그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파악하는 것이다.

우리는 마치 긴 줄에 빨래를 널듯이, 성경의 중요한 사건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설명할 것이다. 이 때 모든 사건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다룰 수는 없으므로, 때로는 빨래와 빨래 사이에 간격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전체 구도를 잘 이해한다면, 후에 얼마든지 그 간격을 메울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놀랍게도 성경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동시에 진리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이해될 것이다.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진리를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이 책의 역할이다.

원칙 3 : 한 번에 한 가지 주제씩

세 번째 원칙은, 혼동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한 번에 한 가지 주제에만’ 집중한다는 것이다.

성경은 여러 사건을 통해 다양한 주제를 보여 주고 있다. 그것은 마치 수많은 요리법이 기록되어 있는 요리책에 비교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는 성경의 주제를 하나님, 천사, 사람, 죄, 예언, 사랑, 율법, 은혜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 그것은 원래 좀 더 나은 이해를 위한 노력이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어떤 유사한 주제를 중심으로 성경의 여러 사건들을 결합시켜 버린 결과, 각 사건의 독특하고 선명한 의미가 뒤섞여 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요리책에서 ‘탕’ 자가 보였다고 해서 설렁탕과 매운탕을 한 솥에 섞어 끓여버리는 것과 같다. 그 새로운 탕이 참으로 먹을 만한 요리가 될 것인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 요리마다 고유한 맛을 내는 조리법에 충실할 때에 제 맛을 내는 좋은 요리가 만들어지는 법이다.

이처럼 주제가 비슷하다고 해서 이 사건과 저 사건의 의미를 섞어버리면 혼란이 발생한다. 그 결과 퍼즐은 맞추어질 수 없게 된다. 이런 혼란을 피하려면, 우선 각 사건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주제 하나하나에 집중해야 한다.

원칙 4 : 핵심 중의 핵심을

네 번째 원칙은, ‘핵심 중의 핵심’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익숙치 않은 것을 배울 때에 흔히 적용되는 원칙이다.

성경은 각 사건의 내용에서 여러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모든 주제가 똑같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분명히 더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주제가 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이 핵심 중의 핵심 주제를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는 보다 쉽게 진리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의 다양한 주제를 혼합해 버린 결과로 많은 종파와 교파들이 생겨났다.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제각기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제는 설렁탕과 매운탕을 한 솥에 끓인 것처럼 주제들을 섞어버린 데에 있다. 즉, 퍼즐이 뒤죽박죽되어 엉뚱한 그림이 나타난 것과 같다. 그 혼란이 작을 때는 별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혼란은 심각해져서 나중에는 전혀 동떨어진 주장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3 독특한 책

성경은 참으로 독특한 책이다. 본래 성경은 66권의 작은 책들을 하나로 엮은 것이다. 어떤 학자는 이 성경의 독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여기 이 책 성경은 :

1. 1천 5백 년 이상의 시간이 걸쳐 기록되었다.
2. 40세대 이상에 걸쳐 기록되었다.
3. 다양한 직업을 가진 40명 이상의 기록자들이 동원되었다. 그 중에는 왕과 농부도 있었다. 그리고 어부, 시인, 정치가, 군인, 학자도 있었다.
모세 : 이집트 궁정에서 최고의 지도자 교육을 받음
베드로 :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
아모스 : 양치는 목자
여호수아 : 나라 전체를 통솔하는 군대 장군
느헤미야 : 왕의 보좌관
다니엘 :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
누가 : 전직 의사인 선교사
솔로몬 : 나라의 왕
마태 : 세금 징수원
바울 :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
4. 다양한 장소에서 기록되었다.
모세는 광야에서, 예레미야는 지하 감옥에서,
다니엘은 왕궁에서, 바울은 감옥에서,
누가는 여행 중에, 요한은 유배지 밧모 섬에서,
또 어떤 이들은 살벌한 전쟁터에서 기록하였다.
5. 다양한 시기에 기록되었다.
다윗은 전쟁 중에, 솔로몬은 평화로운 때에 기록하였다.
6. 다양한 감정 중에 기록되었다.
어떤 이는 기쁨의 절정에서, 또 어떤 이는 깊은 슬픔과 절망의 고통 속에서 기록하였다.
7. 세 대륙에서 기록되었다 :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서.
8. 세 종류의 언어로 기록되었다 :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로.

9. 성경에는 얼핏 보기에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들이 더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치 한 사람이 말하는 것 같은 조화와 연속성을 갖고 있다. 이것은 성경이 바로 하나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책이기 때문이다.¹

그 ‘하나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진리’이다. 지금 우리는 어떤 딱딱한 신학적 전개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장 큰 특징인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디모테후서 3:16 AEB

‘모든 성경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²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고도 한다. 사람이 숨을 내쉴 때, 그 숨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나온다. 마찬가지로 모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나왔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부르는 데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다.

예언자

하나님은 자신의 깊은 뜻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고, 사람들은 그것을 손으로 기록했다. 그 사람들은 대개 선지자(예언자)라고 불리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히브리서 1:1 KRV

오늘날 예언자라는 말은 보통 미래를 점치는 자라는 뜻으로 쓰인다. 그러나 성경의 선지자들의 주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기록한 내용은 미래의 사실과 관련된 경우보다도 그 당시 사람들의 삶과 관련된 경우가 더 많았다.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하셨는데, 이 때 그들 각 사람의 고유한 성격과 문체를 사용하도록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잘못 기록되는 오류는 결단코 허용하지 않으셨다.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더할 수도, 혹은 자신의 희망사항을 끼워 넣을 수도 없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베드로후서 1:20,21 KRV

성경은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어떤 철학적, 문학적 창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책이다. ‘감동하심을 입었다’는 동사는 신약성경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들것에 ‘실려 왔다’고 했을 때 사용된 동사와 같다.³ 그 중풍병자가 자기 힘으로 걸을 수 없었듯이, 선지자들 또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기록할 수 없었다. 성경은 이 점에 대해 매우 분명히 말하고 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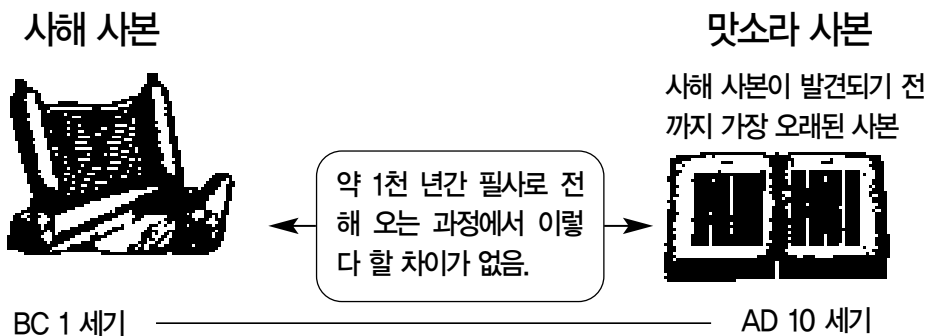
최고의 정확성으로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때, 대개 양 가죽이나 파피루스라는 갈대 종이를 사용했다. 이렇게 처음 씌어진 기록을 성경의 ‘원본’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 원본의 수명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었고, 또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 사본들이 계속 필요했다. 일일이 손으로 기록하여 사본을 만드는 일은 서기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맡았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경각심으로 역사상 가장 뛰어난 필사 작업을 해 왔다. 그 성경 필사 작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 있다.

“그들은 원문 기록의 정확한 전승을 위해 아무리 성가시고 고되다 할지라도 동원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우선 각 책마다 전체 글자수를 세어 기록하고, 그 중 한 가운데 있는 글자를 찾아 표를 하고 맞추어 보았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성경 전체에 기록된 단어의 총 숫자도 헤아려 두고, 그 중 가장 한 복판 단어에 표시를 하고 맞추어 보았습니다.”⁴

그들은 이렇게 꼼꼼히 원본과 필사본을 대조해 두 기록이 완전히 일치하는지를 확인했다. 이 서기관들의 작업이 얼마나 정밀했는지를 나타내는 증거를 보자. 1947년에 BC 1세기 경 기록으로 추정되는 ‘사해 사본’이 발견되었을 때, 학자들은 AD 10세기 경에 기록된 ‘맛소라 사본’과 대조해 보았다.⁵ 두 사본 사이에는 1천 년의 세월과 수십 번의 필사 작업이 있었을 것이 분명한데, 놀랍게도 두 기록 사이에는 이렇다 할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AD 1세기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신뢰해 왔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오랜 세월동안 누구도 감히 성경에서 획 하나도 글자 하나도 더하거나, 빼거나, 수정하는 시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신성히 여기는 것은 우리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본성과도 같은 것입니다.”⁶

유대인들은 성경 기록에 손을 대는 것을 하나님께 대한 간섭이요, 신성모독으로 여겼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성경 기록의 순수성을 지켜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선지자들이 처음 기록한 원본과 동일한 것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성경은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참으로 독특한 책이다.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빈번히 인용되었고,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가장 많은 부수가 출판되었고 또 가장 영향력이 컸던 책이다. 놀랍지 않은가?⁷

구약과 신약

성경에 대해 큰 그림의 이해를 갖기 위해 먼저 성경의 구조를 살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성경은 크게 두 부분, 곧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으로 나뉜다. 또 구약성경은 역사적으로 다음의 두 범주로 구분되어 왔다.⁸

1. 모세의 율법(‘모세 오경’ 또는 단순히 ‘율법서’라고 불린다.)
2. 선지서(후에 그 중에서 시와 노래를 분리해 ‘시가서’라고 한다.)

성경의 3/4의 분량을 구약성경이 차지한다. 성경에서 ‘율법과 예언’이라고 할 때는 대개 이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킨다. 나머지 1/4 분량을 신약성경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메시지

성경은 스스로를 가리켜 하나님 말씀, 곧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말한다. 또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다고 가르쳐 준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아무리 무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잠시 멈춰 귀를 기울여봐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

“여호와여, 주님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습니다.”

시편 119:89 TKV

진리란 무엇인가?

인류의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 헤맸다. 진리가 곧 사람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그 진리를 찾기 위해 책상머리에서 깊이 생각했고, 어떤 사람은 수십 년간 벽을 바라보며 명상을 했으며, 어떤 사람은 깊은 산 속에서 험한 고행을 하기도 했다. 진리를 찾는다고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닌 사람도 있었다. 그토록 애타게 찾았지만, 아무도 진리를 찾지 못했다.

진리는 완전하다. 진리는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이다.

진리는 선하다. 진리는 더할 수 없이 의롭고 거룩하다.

진리는 영원하다. 진리는 무한하며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진리는 가장 강하다. 진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불완전한 사람이 불완전할 수 밖에 없는 자신의 노력으로 과연 완전한 진리에 이를 수 있을까? 혹시 불완전함만 더 쌓아 올리는 것은 아닐까? 유한한 사람이 몇 십 년동안 수고했다고 해서 참으로 무한하고 영원한 진리에 이를 수 있을까? 탐욕이 가득 찬 사람이 잠시 고뇌한다고 해서 선(善) 중의 선(善)인 거룩한 진리를 만날 수 있을까?

진리가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이라면,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찾을 길이 없다. 그러나 다행히도 진리는 결코 숨어 있지 않다. 오히려 가장 잘 보이는 밝은 곳에 있다. 왜냐하면 진리는 가장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에, 어떤 어둠도 그것을 가릴 수 없기 때문이다.

진리가 무엇에 의해 가로막힌다면, 그것은 이미 진리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진리보다 더 강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 어느 것도, 그 무엇도 진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나 진리와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 자신이다. 곧 사람 자신이 스스로 진리를 외면하고 진리에 대해 자신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사람 자신이 진리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으므로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진리를 향해 돌이켜 마음을 열어 보라. 진리를 만날 것이다.



2장

1 태초에 하나님이

2 천사, 만군, 별들

1 태초에 하나님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로 시작한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세기 1:1 KRV

여기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어떤 시도도 없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처음부터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태초에 그 곳에 계셨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홀로 그 곳에 계셨다. 하나님은 식물과 동물과 사람 그리고 땅과 우주가 있기 전부터 존재하셨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과거로부터 항상 계셨고, 또한 영원한 미래에도 항상 계실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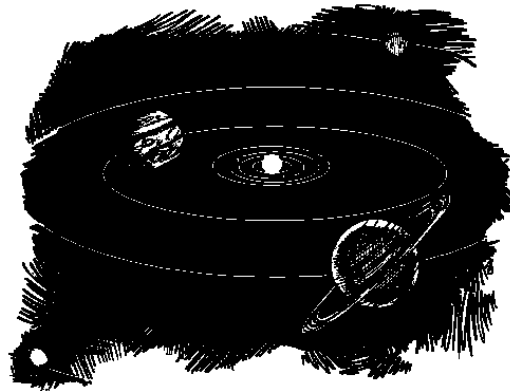
“산들이 생기기 전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시편 90:2 KJV

‘영원하신 하나님’의 개념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하기 힘들면 ‘불가사의(不可思議)’라는 딱지를 붙여 놓곤 한다. 이 영원함을 우주에 비교해 본다면, 그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태양계는 엄청난 크기로 태양과 각기 궤도를 따라 도는 행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오늘날 우리는 우주 탐사 기술로 태양계의 가장 먼 곳까지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우주를 한 번 측량해 보자. 우리가 빛의 속도로 여행한다면, 1초 동안에 지구를 일곱 바퀴 반 돌 수 있다. 같은 속도로 우주를 향해 나아가면, 달은 2초 만에, 화성은 4분 만에, 명왕성은 5시간 만에 지나간다. 그곳을 지나면 이제 겨우 은하계로 들어가게 된다.

우주의 광대함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듯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둘 다 명백한 사실이다. 영원하심은 하나님 고유의 특성이므로, 성경은 그 특성을 강조해 하나님의 이름에 붙이기도 한다.



‘주 곧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창세기 21:33 KJV

빛의 속도라면
지구를 1초에
일곱 바퀴 반
돌 수 있다.



태양계를 벗어나 빛의 속도로 계속 여행하면 가장 가까운 별까지 도달하는데 4.3년이 걸린다. 빛의 속도로 4.3년이라 ... 그럼 그 거리를 계산해 보자. 1초마다 30만 km를 비행하면 그 전체 거리는 40,682,300,000,000km (약 4십조 km)에 해당한다.

태양계는 은하계의 가장자리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비교해보면 태양계 전체가 이 조그만 네모 안에 들어간다.



은하계 ¹

밤하늘에 보이는 성운(별 무리)은 은하라고 부르는 거대한 성군의 일부이다. 빛의 속도로 여행한다면 은하계의 한 끝에서 다른 끝까지 약 10만 년이 걸릴 것이다. 우주에는 대략 1천억 개 가량의 은하계가 있다. 또 각 은하에는 수십억 개 별들이 있다. 그 은하는 다시 성단과 초성단을 구성한다. 한 성단에는 은하가 약 20 개 가량 있으므로, 초성단에는 수천 개의 은하가 있다.

별마다 이름을 붙여 보자. ²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 수대로 하면, 한 사람마다 16개의 은하에 이름을 지어 줄 수 있다. 이 말은 한 사람이 수십 억 개의 별들에 이름을 지어줄 수 있다는 뜻이다.

빛의 속도로 이동하면 가장 가까운 은하까지 약 2백만 년 걸린다.

자, 이 정도 왔으니... 이제 막 우주여행을 시작한 셈이다.

그 곳에서 다음으로 가까운 성단까지는 약 2천만 년 걸린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는 여러 가지 이름과 호칭이 있는데, 그 이름은 각기 하나님의 특성을 나타낸다. 그 중에서 세 가지만 살펴보자.

1) '스스로 있는 자' (I AM, 내나라)

하나님께서...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I AM)’ 나라.” 출애굽기 3:14 KJV

또 이르시되... “스스로 계신 이(I AM)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이 이름의 뜻에 가장 가까운 설명은 ‘내나라’ 또는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일 것이다.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능력으로 존재하신다.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음식, 물, 공기, 햇빛 등 필요한 것이 수없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치 않다! 하나님은 언제나 스스로의 능력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2) 주님 (主, The Lord)

‘스스로 있는 자’ 라는 이름은 그리 많이 쓰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그 의미가 ‘주’ 또는 ‘주님’ 이라는 명칭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님, 주와 같으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며, 주님의 이름은 크시고, 권능을 지니셨습니다.” 예레미야 10:6 KSV

‘주님’ 이라는 이름은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상태 뿐만 아니라, 모든 것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지위를 강조한다. 하나님은 모든 주(主) 중의 주(主)이시다.

3) 가장 높으신 분 (至尊者, The Most High)

이 이름은 절대적 권한의 전능하신 통치자의 역할을 강조하므로 ‘주님’ 이라는 이름과 연결된다.

“주의 이름이 여호와이신 줄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주만이 온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임을 알게 하소서.” 시편 83:18 AEB

한 왕국에는 그 영토를 다스리는 절대적 지도자, 곧 왕이 있듯이,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절대자이시요,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최고 통치자로서의 지위를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이라는 명칭의 사전적 의미 또한 가장 위대하신 분, 전능하신 인도자, 가

장 높으신 창조주를 뜻한다.

어떤 사람들은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높은 구름 위의 순금 보좌에 앉은 근엄한 노인의 모습을 상상하기도 한다. 그러나 성경은 그 어디에서 하나님을 노인으로 묘사하거나, 그 보좌가 구름 속에 있다고 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하늘의 거룩한 성전에 있다.

“주께서 성전에 계신다. 주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주님은 불꽃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굽어보시고, 사람을 살피보신다.”

시편 11:4 KJV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늘에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절대적 통치자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 (Only One God)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이름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위상을 가리킨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전에도, 앞으로도 다시 없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홀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사야 45:5 KJV

“나는 주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으며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나 이전에 지어진 신이 없었으며, 나 이후에도 없으리라.”

이사야 43:10 KJV

신화에서 볼 수 있는 신들의 계급 같은 것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 분 하나님 외에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44:6 KJV

성경은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심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영이신 하나님 (The Spirit)

성경은 하나님이 영, 곧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24 KJV

영은 살과 뼈로 된 육체의 존재가 아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죽은 친척이나 친구의 장례식을 생각해 보자. 관이 아직 열려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의 시신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육체는 그 자리에 있지만,

그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 사람의 영혼이 지금 그 곳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태까지 우리가 보았던 것은 다만 그가 사는 집, 곧 육체였다. 사람의 본체인 영혼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성경은 사람의 영혼이 특정한 시점을 시작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가르쳐 준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도 없으시며, 끝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과거로부터 영원한 미래까지 존재하시는 유일한 영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사람의 영원함이 다른 점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다.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시며, 만물을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항상 그러하시다.

태초에도 그러하셨다.

2 천사, 만군, 별들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 기록을 정리해서 창조에 관한 초보적 질문에 대답하는 것만으로도 방대한 작업이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한없는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니다. 성경은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어떤 흥미 있는 문제에 관해서는 침묵을 지키기도 한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적 존재들에 관한 경우가 그러한 예 중의 하나이다.

영적 존재의 이름

보통 '천사' 라고 하는 이 영적 존재를 성경은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천사, 천사장, 그룹, 스랍, 새벽별 등으로, 또 집합적 표현으로는 만군, 천군 또는 *별들로 나타내기도 한다.

*이 별들을 밤하늘의 별들과 혼동하지 말 것 앞뒤 문맥을 보면 그 뜻을 알 수 있다.

“수많은 하늘의 천사들이 주께 경배를 드립니다.” 느헤미야 9:6 KLB

천사마다 고유한 이름이 있는 경우도 있다. 성경에 언급된 것은 가브리엘과 미가엘 등 소수에 불과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셀 수 없다.

이 영적 존재 역시 살과 뼈로 된 육체가 없으므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다. 천사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든 있을 수 있는 존재다.

또 성경은 ‘수많은 천사들’이 있다고 한다.

히브리서 12:22 KSV

하나님의 보좌를 옹위하는 천사들의 수를 헤아릴 수 없다고도 한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왕좌와 ...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요한계시록 5:11 KJV

섬기는 종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기쁘게 해 드리기를 위해 창조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천사들을 ‘섬기는 영’이라고도 부른다.

시편 103:20, 21 KLB

“그의 명령을 수행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너희 능력 있는 천사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섬기며 그의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하늘의 군대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히브리서 1:14 KJV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들로서...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천사(Angel)라는 말은 ‘사자’ 또는 ‘종’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므로,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다. 그리고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성실히 수행해야 했다.

창조주와 소유주

만든 사람이 소유하는 사람 (창조주=소유주) 즉, 주인이라는 개념은 오늘날의 상품 경제사회에서는 다소 혼동을 일으킬 수도 있다.

어느 부족 마을을 방문했을 때, 원주민 한 사람에게 보트 한 척을 가리키며, “이 보트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고 물어보았다. 그는 즉시 그 보트의 주인이 아무개라고 대답했다. 내가 다시 어떻게 그 사람이 주인인 줄 아느냐고 묻자, 그는 의외라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그걸 만든 사람이 바로 주인이지요!” 그는 창조주가 곧 소유주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내가 그 보트를 부수어도 괜찮겠느냐고 질문하자,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걸 만든 사람과 싸우기 싫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거요. 그 사람이 주인이니깐요.” 나는 또 만약에 그 주인이 자기 보트를 부순다면 어떠냐고 질문해 보았다. 그는 어깨를 으쓱이며 대답했다. “만든 사람이 부서뜨리면 상관없겠지요. 자기가 그걸 만든 주인인걸요.”

이와 같이 천사들을 지으신 하나님은 그들의 주인이신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천사들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중,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했다. 이것은 고대 사회의 노예들과는 전혀 다르다. 게다가 하나님의 하늘에서는 강제 노역 같은 것도 없다. 천사들에게 가장 높으신 ‘하나님(창조주=소유주)’ 보다 더 좋은 주인은 있을 수 없다.

특별히 뛰어난 지혜와 능력

하나님은 자신의 지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천사들을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 중에는 특별히 더 뛰어난 천사도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악함이 없는 완전한 존재로 지어졌다. 완전한 존재란 로봇같이 자기 의지가 전혀 없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임을 말한다.³

사람과 비슷한 그러나 다른

사람과 천사는 어느 정도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나 지혜와 능력의 면에서 사람은 천사에 미치지 못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고 말한다.

시편 8:5 KJV

그러나 천사는 사람과 확실히 다른 존재다. 우선 천사에게는 육체의 죽음이 없다.⁴ 또 천사는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는다.⁵ 천사는 원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지만 어떤 특정한 임무를 수행할 때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사람과 대화할 때는 알아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기도 한다.

기름 부음 받은 ‘그룹’

그 천사들 중에 가장 지혜와 능력이 뛰어나고 아름다운 존재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루시퍼’라고 불리었는데,⁶ 그 이름을 직역하면 ‘빛나는 존재’라는 뜻이고, 때로는 ‘계명성(새벽별)’이라고 번역되기도 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계명성으로도 번역함] 이사야 14:12 KJV

‘루시퍼’는 기름 부음 받은 ‘그룹(cherub)’ 천사였다. ‘기름 부음’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구별해 특별한 임무를 맡기는 옛 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이 ‘기름 부음’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겨졌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그룹’이요,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네가 창조된 날부터 네 길들에서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에스겔 28:14,15 KJV

성경은 루시퍼의 직책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다고 한다. 아마도 그는 나머지 천사들을 대표했으며 또 주님(창조주=소유주)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다른 천사들을 인도하는 자였을 것이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천사 ‘루시퍼’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살펴볼 것이다.

경배

‘경배(예배: worship)’라는 말의 어원은 ‘가치(worth)’로서, 그 뜻은 ‘그의 높은 가치를 선언하다’는 뜻이다. 성경은 모든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말한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생명을 주시므로 수많은 하늘의 천사들이 주께 경배를 드립니다.”

느헤미야 9:6 KLB

곧 ‘경배(예배)’란 절대적 권한으로 다스리는 왕이신 하나님께 그 고귀하심의 가치가 합당하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람이 칭찬받을 때는, 그가 과연 칭찬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심받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런 의심이 필요없다. 성경은 하나님만이 모든 찬양으로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고 말한다.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심이 당연하시오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요, 만물이 주님의 뜻에 따라 생겨났고, 또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4:11 TKV

“주는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 오직 주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86:10 AEB

천사들이 기쁨으로 지켜보다.

드디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시작되었다. 모든 천군 천사들이 기뻐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은 천지창조의 위대한 예술 작업에 돌입하셨다.

하나님의 작업대 : 온 우주

하나님의 작업 내용 : 세상 만물 창조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네가 것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욥기 38:4-7 KSV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펴웠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의 주춧돌을 놓았느냐?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이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3장

1 하늘과 땅의 시작

2 보시기에 좋았더라

3 하나님의 형상

1 하늘과 땅의 시작

성경의 첫 번째 책을 ‘창세기’ 라고 부른다. 창세기(Genesis)란, 곧 ‘시작’을 뜻하는 말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창세기 1:1-5 KSV

무(無)로부터의 창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 만물의 창조보다 더 위대한 능력이 또 있을까? 하나님께서 ‘무(無)’의 상태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너무나 엄청난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사람이 무엇을 만든다고 할 때는 이미 있는 재료들을 사용해서 만들 뿐이다. 그림을 그리려면 물감과 종이가 있어야 하고, 집을 지으려면 벽돌과 나무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재료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능력만으로 하늘과 땅의 만물을 창조하셨다.

전능하심(全能)

어떤 재료나 누구의 도움도 없이, 또 특별한 도구도 없이 이 광대한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사람의 이해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천지창조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간단히 말할 뿐이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 하나님은 참으로 전능한 분이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권능이 크시고”

시편 147:5 KJV

모든 것을 아심(全知)

또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 그의 명철은 무한하시도다.”

시편 147:5 KJV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어떤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 다른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그 끝이 없다. 하나님은 창조를 위해 다른 이가 만든 설계도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분이시다.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심(무소부재: 無所不在)

사람이 어떤 것을 만들려면 공장이나 작업실이 필요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기 위해 따로 어떤 작업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신다고 말한다.

“내가 가까운 곳의 하나님이며, 먼 곳의 하나님은 아닌 줄 아느냐? 나 주의 말이다. 사람이 제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는다고 하여도, 그는 내 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하늘과 땅 어디에나 있는 줄을 모르느냐?”

예레미야 23:23,24 KSV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며,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신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세 가지 특성이 완전하게 결합됨으로써,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만물이 지어졌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시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으며, 그의 총명으로 하늘을 펴셨다.

예레미야 51:15 KLB

천사들 역시 지혜와 능력이 있는 존재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특성을 갖진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은 어떠한가? 우리는 이런 종류의 능력이거나 특성에 관해서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다.

우리는 간단한 물건을 하나 만들 때도 온갖 노력을 동원해야 한다. 교실에서 사용할 철제 의자를 하나 만들어 보자.

무엇이 필요할까? 먼저 철이 필요하다.

“여기에 쓸 만한 철을 어디서 구할 수 있나?”

아, 철은 철광석에서 나는 것이지.

“맞아, 철을 구하려면 먼저 철광석을 찾아야 해. 그런데 어디서 찾는단지?”

이때 철광석에 대해 전문지식이 있는 지질학자가 필요하다.

“철광석이 있는 곳을 찾았군. 이 광석을 캐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탐광기술자가 필요하다. 또 그것을 캐고 운반할 숙련된 광부도 필요하다.

“하지만 철광석만으로 의자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 그 광석을 녹여 철을 빼내야 할 텐데, 어디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제는 제철 공장과 기술 인력이 필요하다.

“제철 공장에 철을 빼내는 작업을 간신히 마쳤다. 이제 또 무엇을 하지?”

제철 공장에서 철광석을 녹여 뜨거운 쇳물로 만들어 주었다. 그 쇳물이 식어버리기 전에 빨리 철판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철판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구부리고 용접해야 한다.

“아니, 용접을 해야 한다고?”

“전기 용접이 좋을 것 같다. 그럼 얼른 전기 용접 기술자를 구해 오자”

이쯤 되면, 우리는 주저앉아 쉬고 싶은 생각 밖에 없을 것이다. 간단한 철제 의자 하나 만드는 것도 이처럼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 아직 플라스틱 만드는 작업이나 페인트칠하는 작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의자의 등받이는 무엇으로 할까?”

플라스틱으로 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좋을 듯하다.

“플라스틱이라고? 그것은 구하기가 더 쉬운가? 아니 더 어렵다고?”

플라스틱은 석유에서 뽑아서 합성한 제품이다.

“그럼, 석유를 찾기 위해 또 땅을 파보자. 힘을 내자. 자, 시작!”

원래 우리가 원한 것은 그저 쓸 만한 철제 의자였다. 이처럼 간단해 보이는 물건 하나 만드는 데도, 다양한 지식과 기술이 총동원되어야 한다. 어느 한 사람도 그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 없잖은가?

사람이든 천사든 모든 것을 아시고, 무(無)에서 만물을 지으시며,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시며, 자신의 뜻대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는 비교될 수 없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보다 위대하고 높으신 분이다.

“주 하나님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퍼신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사오니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예레미야 32:17 KJV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시다.

이 엄청난 창조 사역에 대한 설명은 의외로 짧고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경이적 사건에 대한 정보가 불과 몇 마디로 설명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방법에 대해서도 역시 간략하게 기록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실 때 손이나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 우주와 그 안의 만물에게 ‘있으라!’ 고 명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창세기 1:3 KSV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히브리서 11:3 KRV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은 우리의 상상력에 다시 한번 혼란을 일으킨다. 사람이 입으로 “철제 의자가 생겨라!”라고 아무리 외쳐 본들, 무슨 일이 생기겠는가?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하나님께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만물의 창조는 당연히 가능한 일이었다. 성경은 이 창조의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말해 준다.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입김으로 모든 별을 만드셨다. 온 땅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아, 주님을 경외하여라. 주님이 말씀하시어 모든 것이 생기고, 그가 명하시어 모든 것이 견고하게 제자리를 잡았다.

시편 33:6,8,9 KSV

그렇다. 모든 만물이 이렇게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리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부르셨다. 이렇게 해서 창조의 첫째 날이 끝났다.

성경의 내용은 과학과 일치한다.

불과 5백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지구가 편평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전혀 성경을 기초로 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 때 사람들이 성경을 좀 더 깊이 보았다면 지구의 모양을 제대로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성경은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지구의 둥근 모양을 설명하고 있다.

‘그분께서 땅의 원(circle) 위에 앉으시나니’

이사야 40:22 KJV

또 옛날 사람은 지구가 튼튼한 기둥 위에 놓여 있거나, 혹은 신화 속의 거인이 지구를 어깨로 받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한다.

‘지구를 공간에 매달아 놓으시고(suspends)’

욥기 26:7 KLB

AD 2세기 경 톨레미라는 천문학자가 별들을 1,022개로 분류해 표를 만들었다. 이 학설은 AD 17세기 경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발명할 때까지 가장 권위 있는 학설로 받아들여졌다. 실제로 사람의 육안으로는 최대 약 5천 개 정도의 별들을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성경은 별의 숫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창세기 22:17 KSV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신다(無所不在).

하나님의 특성이 모두 다 쉽게 이해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대체로 이해가 된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신다(無所不在)'는 뜻은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개념을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대단히 큰 위로를 받게 된다. 만약 내가 집을 떠나 여행을 한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내 가족과 함께 계시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를 바랄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때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시므로 나와 그리고 내 가족과도 얼마든지 함께 계실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이러한 특성은 대단히 두려운 것이기도 하다. 특히 내가 잘못했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 하나님을 피해 숨을 곳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한 왕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음의 말을 남겼다.

“내가 주의 눈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아침의 날개들을 취하여 바다 맨 끝 지역들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반드시 나를 덮으리라’ 할지라도 밤조차 나를 두르는 빛이 되리이다. 참으로 어둠이 주를 떠나 숨지 못하며 밤이 낮처럼 빛을 내나니, 주께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으시이다.” 시편 139:7-12 KJV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특성은 범신론의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 ‘범신론’을 간단히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 계시므로 ‘만물이 곧 하나님’이라는 논리이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만물 중의 한 부분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범신론자들처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떤 ‘기운’이나 능력, 또는 ‘철학적 존재’로 이해하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옳은 이해가 아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듣지도 못하였느냐? 여호와와는 영원하신 분이시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는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으며, 그의 깊은 생각은 헤아릴 수가 없다.” 이사야 40:28 KLB

2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의 드라마를 시작하셨다. 무대의 막이 올랐다. 천군 천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과 땅이 그 모습을 무대 위에 드러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마디로 빛이 생겼다. 조명을 켜신 것이다.

제 1 막이 끝났다. 첫째 날이 지나갔다.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드라마 ‘창조’의 남은 다섯 막이 계속 이어진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처음부터 너희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세워질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분께서 땅의 원 위에 앉으시나니, 땅에 거하는 자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분께서 하늘들을 휘장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장막같이 치셨고,”

이사야 40:21,22 KJV

성경은 지구를 장막, 곧 거처하는 장소라고 부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구는 우주 안에서 살기에 아주 특별한 곳, 즉 어떤 거처를 위한 공간으로 창조되었다. 지구라는 별에 쾌적한 거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아직 중요한 공사가 남아 있었다.

천사들도 이 창조의 드라마를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다. 제 2 막의 커튼이 올라가며, 둘째 날 “하늘”의 창조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하늘이라니? 그것은 대체 무엇인가?

둘째 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한 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서,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창공을 하늘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창세기 1:6-8 KSV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땅은 물로 덮여 있었다. 창조의 둘째 날에 처음 만들어진 세상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과 전혀 달랐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물을 두셨다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히 구름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지구를 둘러싼 수증기층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늘 위의 물의 상태와 상관없이 창조 당시의 기후는 지금의 기후와는 근본적으로 달랐음을 보여 주는 증거들이 있다.

그 당시는 대체로 온도 변화가 별로 없는 열대성 기후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늘 위의 물은 자외선을 비롯한 모든 유해한 우주 광선을 차단하고, 대기는 수증기를 더 많이 포함하고 있어 특별한 온실 효과를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중에 우리는 ‘그 어떤 사건’이 지구 위의 모든 것을 지금의 모습으로 변하게 만들었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하늘 위의 물’이라는 상황을 유의하여 기억해 두기 바란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하늘, 곧 창공*을 창조하셨다고 말한다.

*창공이란 말은 광활한 공간이란 말로서, 지구의 대기권 혹은 우주 공간에 해당된다.

셋째 날

셋째 날의 시작에는 창공(궁창) 아래의 물이 거대한 바다를 이루고 있으므로 마른 땅을 볼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하늘 아래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은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땅은 온갖 채소와 씨 맺는 식물과 열매 맺는 과일 나무들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땅이 온갖 채소와 씨 맺는 식물과 열매 맺는 과일 나무들을 그 종류대로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자, 이것이 셋째 날이었다.

창세기 1:9-13 KLB

셋째 날은 두 장면으로 나눌 수 있다. 첫 장면은 마른 땅이 드러나는 광경이다. 아마도 바다의 밑바닥이 가라앉으며 거대한 웅덩이가 형성되는 한편, 바다 깊은 곳에서 땅이 솟아오르며 그 모습을 드러냈을 것이다. 둘째 장면은 채소와 나무 등 다양한 식물이 창조되는 광경이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홀로 하나님이신 여호와, 땅의 기초를 굳게 놓으신 분, 땅을 황량하고 공허하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살 수 있도록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온 세계의 주인은 바로 나요, 나 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사야 45:18 TKV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세상을 각종 생물이 살 수 있는 장소로 차례차례 준비하셨다. 먼저 식물을 창조하심으로써 숨 쉴 공기, 먹을 양식 등 각종 생물의 육체를 위한 물리적 필요를 대비하셨다.

넷째 날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이 존재하도록 명하심으로 어둠의 커튼을 걷으셨다. 그리고 넷째 날에 이르러 해와 달과 별 등 각종 발광체들을 창조하셨다.¹

하나님이 “하늘에 광체가 나타나 땅을 비추고 낮과 밤을 나누어라. 그리고 날과 해와 계절을 구분하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은 두 개의 큰 광체를 만들어 큰 광체로 낮을, 작은 광체로 밤을 지배하게 하셨으며 또 별들도 만드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광체들을 하늘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고, 밤과 낮을 지배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구분하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자, 이것이 넷째 날이었다.

창세기 1:14-19

KLB

빛이 태양보다 먼저 창조되었다는 것이 다소 생소하게 들릴 것이다. 그러나 태양은 그 자체가 빛이 아니라 다만 빛을 공급하는 장치, 곧 전등과 같은 물체이다. 원래 빛이 존재했기 때문에, 비로소 전등이 그 빛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다.

빛을 창조하는 일이든, 해와 달을 창조하는 일이든 하나님께 더 힘들거나, 더 어려운 일이란 없다.

“내가 바로 만물을 창조한 주다 ... 혼자서 하늘을 뚫으며,”

이사야 44:24 KSV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심이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시편104:19 KRV

혼돈에서 질서로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설계하신 질서의 하나님의심을 보여 준다. 하나님은 우주에 질서의 법칙을 세우셨다. 우주는 원자시계보다 더 정밀한 수준으로 움직이는 완전한 기준이다. 그 정밀한 질서로 인해 우리는 몇 년 후의 밀물과 썰물의 주기표를 예측하여 만들 수 있다. 또 인공위성이 수백만 킬로미터 떨어진 행성의 궤도로 정확하게 진입하는 일도 가능하다.* 지구는 하루도 어김없이 해가 뜨고 지는 질서에 의존하고 있다. 만일 이러한 일정한 법칙이 없다면, 아무 것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나사(NASA)의 갈릴레오 우주탐사선은 무려 6년을 비행한 끝에 계획한 대로 목성에 정확히 도달했다.

우주의 질서는 만물에 적용되는 자연 법칙에서도 볼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질서의 법칙을 통해 생물학, 물리학, 화학, 천문학 등 다양한 종류의 과학을 연구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주의 물리적 법칙으로 질서를 세우셨고, 또

그것이 정확하게 유지되도록 다스리시므로 가능한 일이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
느니라.”

골로새서 1:17

KJV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의 자연 법칙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 자연 법칙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본 적조차 없다. 몇 초 동안 중력의 법칙이 중지 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자. 혼란과 파멸이 이 세상을 덮어버릴 것이다. 마치 네거리에서 신호등과 교통 안내판이 없어지면, 그 일대의 거리가 혼란으로 마비되는 것과 같다.

이 자연 법칙은 각기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각기 창조의 목적대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데 뚜렷한 질서가 있도록 하셨다. 또 하나님은 그 법칙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셨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시편 74:16,17 KRV

실제로 우리는 이런 자연 법칙에 대해 대단한 주의를 갖고 대하고 있다. 한 예로 우리는 절벽 가장자리를 걸을 때 매우 조심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발을 절벽 밖으로 내딛으면, 심각한 대가를 치를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모든 법칙은 지켜져야 한다. 그 법칙을 어기면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법칙을 소홀히 여기다가 그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주 만물의 체계와 법칙에는 하나님의 철저한 질서라는 본성이 반영되어 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다섯째 날

다섯째 날, 하나님의 창조는 하늘을 새들로, 바다를 각종 바다생물로 채우셨다. 이제 지구는 만화경같이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새들은 땅 위 하늘 창공으로 날아 다녀라”하셨다. 하나님이 커다란 바다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날개 달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 지났다.

창세기 1:20-23 KSV

여섯째 날의 시작

여섯째 날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절정이었다. 하나님은 땅 위의 동물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이 날을 시작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살아 있는 피조물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가축을 그것의 종류대로,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그것의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24,25 KJV

그 종류대로

셋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각종 동식물의 창조에서 ‘그 종류대로’ 번식하라는 말씀이 있다. 과연 ‘그 종류대로’란 말은 무슨 뜻일까? 간단히 말해서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고, 개는 개를 낳고, 코끼리는 코끼리를 낳는 질서를 의미한다. 이 얼마나 안심이 되는 질서인가! 어느 누구도 금붕어를 기르면서, 악어가 나올까봐 걱정하지 않는다. 혹은 백합의 뿌리를 심으면서, 선인장의 싹이 날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각종 동식물이 번식할 때 품종은 다양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같은 종류’ 내에서의 일이다.² 개를 그 예로 들어 보자. 발바리 애완견에서 셰퍼드 큰 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종이 있으나, 그것은 모두 개의 종류 중의 하나일 뿐이다. 여러 품종을 교배해 원래 품종과 다른 개를 만들었다 해도, 그것이 새로운 유전 정보로 만들어진 ‘다른 종류’는 아니다.

또한 동식물은 번식의 질서 자체가 같은 종류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농부는 혹시 자기 집 돼지와 옆집 조랑말이 몰래 교배해 이상한 동물이 나올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번식의 예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질서를 든든히 세우셨음을 다시 한 번 보게 된다.

완전하시다. 흠이 없으시다. 거룩하시다.

만물의 창조가 진행될 때, 성경은 반복해서 말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창세기 1:25 KLB

아주 간결하지만 대단히 깊은 의미가 담긴 말씀이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완전하게 지으셨다.

‘하나님의 길은 온전하시고, 그 말씀에 한 점 흠조차 없으시니’ 시편 18:30 TKV

우리 사람들은 100% 완벽한 것을 만들 수가 없다. 사람이 만든 것도 꽤 쓸만하긴 하지만 아무 결함 없이 완벽한 것이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만물을 아무 결함 없이 완벽하게 만드셨다. 성경은 하나님이 흠 없이 완전한 분이시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거룩함, 의로움 등의 표현이 함께 사용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시여.” 이사야 6:3 AEB

“주님이 하신 일은 장엄하고 영광스러우며, 주의 의로우심은 영원하다.”

시편 111:3KSV

“옳은 일을 행하심으로 ... 그의 거룩함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사야 5:16 KLB

우리는 이와 같이 다양하게 표현된 주제들을 점차 이해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흠이 없음’, ‘거룩하심’, ‘의로우심’ 등의 표현이 ‘완전하심’이라는 하나님의 특성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을 아는 단계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거룩하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주제이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결코 빠뜨리거나 소홀히 할 수 없다. 이 주제는 퍼즐 맞추기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조각이기도 하다. 진리에 관해 들을 때, 특히 이 주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 ‘완전하심’은 하나님의 특성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이 ‘완전하심’으로 인해 만물도 완전하게 지어질 수 있었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창조 세계는 급격히 변한다. 그러나 창조 당시에는 완전 그 자체였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는 완전했다.

세심하게 돌보신다.

하나님은 자연 세계와 각종 동식물을 단순히 흑백으로 지으실 수도 있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색으로 만물을 지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총천연색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의 눈도 함께 만드셨다.

하나님은 다양한 맛도 만드셨다. 하나님은 만물을 겨자처럼 매운 맛 한가지만 내도록 지으실 수도 있었다! 겨자맛을 좋아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 한 가지 뿐이라면 실망할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또 하나님은 맛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맛을 즐길 수 있는 미각을 사람의 혀에 주셨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꽃향기 등 다양한 냄새도 지으셨고, 또한 그 냄새를 즐길 수 있는 코와 후각을 사람에게 주셨다. 모든 것이 달걀 썩는 냄새가 나도록 하실 수도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간단하게 몇 종류의 식물로 이 세상을 채우실 수도 있었다. 사실 식물 몇 종류만 있어도 우리의 육체적 필요는 대강 채워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람 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보라! 엄청나게 다양한 식물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시는 분이시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디모테전서 6:17 KSV

하나님의 권세는 만물을 지으실 능력과 만물을 돌보시는 사랑이 하나가 된 완전한 것이었다. 하나님은 그 세심하게 돌보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다. 하나님의 사랑 또한 완전하다.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준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많은 부분들이 가려져 있었던 것은 순전히 사람의 인식 능력의 한계 때문이었다.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과학기술을 허락하셔서, 전자현미경, 원자가속기, 천체망원경 등 신기술이 개발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의 숨겨진 면을 더 깊이 볼 수 있게 되었다. 창조 세계의 심오한 부분이 계속 발견되면서, 우리는 더욱 더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발견을 거듭할수록, 사람들은 매혹되었고, 감동되었고, 모르던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한다.

시편 145:3 KJV

“주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지이다. 그분의 위대하심은 헤아릴 수 없도다.”

여섯째 날, 하나님의 우주 만물 창조가 마무리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창조가 하나 남아 있었다. 그것은 사람, 곧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는 일이었다.

3 하나님의 형상

하늘을 창조하신 주, 땅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 땅을 견고하게 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그 분은 땅을 혼돈 상태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드신 분이시다. “나는 주다. 나 밖에 다른 신은 없다.”

이사야 45:18 KSV

창조의 마지막 작품

여섯째 날에는 각종 동물의 창조가 진행되었다. 바야흐로 창조의 초점이 한 곳으로 모아지고 있다. 천사들도 하나님의 창조를 지켜보면서 무엇으로 끝맺음을 하실지 궁금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가장 마지막 작품으로

사람을 지으신 내용은 대단히 놀라운 것이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신 장면에서, 하나님은 대체 누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창세기 1:26,27 KSV

하나님과 사람의 형상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고 말한다.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을 그대로 복제한 것이라는 의미는 분명히 아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도 전능하거나, 모든 것을 알거나, 동시에 모든 곳에 있을 수 없다. 또 성경은 사람을 모형 같은 ‘작은 신(神)’이라고 하지도 않는다. 아마도 거울에 비친 것과 비슷한 존재라고 설명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거울은 어떤 사물의 형상을 그대로 비추지만, 그 사물의 실상은 아닌 것이다. 이런 개념을 갖고 하나님과 사람의 공통점을 보면 사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특성을 알 수 있다. 그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지적인 존재(知 : 생각하는 존재)로 지으셨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적 능력의 일부를 주셨다. 이런 지적 능력 때문에 사람은 이해하고, 기억하고, 연구하고, 나아가 창의적인 사고도 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지적 능력이 있다 해도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아는 존재일 수는 없다. 실제로 사람은 성장하면서 배움의 과정을 통해 모든 지식을 얻는다.

둘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감정적 존재(情 : 느낌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다.

감정이란 단어는 가끔 비이성적인 것을 나타내는 부정적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원래는 단순히 ‘느낌’이라는 뜻이다. 이 감정(느낌)은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보통 마음이라고 할 때는 이 감정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감정, 곧 느낌이 없다면, 사람은 로봇처럼 무정하고 계산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비하시며, 사랑이 많으시지만, 불의에 대해서는 진노하신다고 말한다. 사랑이 없고, 자비가 없는 무정한 신은 참으로 끔찍하고 잔인한 신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분노의 감정이 있는 분

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또한 감정이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

셋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적 존재(意: 뜻이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

의지란 의사 결정 능력을 말한다. 의지, 곧 무엇을 선택하는 의사 결정 능력이 우리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다양성을 제공해 주는지 모른다. 어떤 사람은 밥을 더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국수를 더 좋아한다. 또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일을 할지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의 선택은 무궁무진하다.

의지, 곧 선택하는 능력은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것은 선택 과정이 없이 오직 입력된 결정만 수행하는 로봇과 같은 종속 의지, 그리고 선택의 과정을 통해 그 결정을 수행하는 자유 의지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자유 의지를 주셨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성적으로 깨닫고, 감사의 감정을 갖고, 나아가 하나님을 따르기를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는 것이다. 이것이 자유 의지, 곧 참 자유의 모습이다.

바로 이 지성, 감정, 의지(지, 정, 의: 知, 情, 意)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습이다. 자,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본래 하던 이야기로 돌아가자.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창세기 2:7 KSV

‘생명의 기운’, 곧 ‘생명의 호흡’이라는 말은 사람의 ‘영’이라는 비물질적 부분과 관련이 있다. 이 부분은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해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우리가 알게 되었듯이, 영은 삶과 빠가 없으므로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영이 거주할 흙집, 곧 삶과 빠로 지어진 육체를 마련해 주셨다.

사람의 육체는 지어졌으나 다만 흙덩이 같은 존재로 아직 생명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그 흙덩이에게 영을 불어넣으신 후에야, 사람은 비로소 생명을 얻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천사나 어떤 다른 존재에게도 그런 능력은 없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과 확연히 구별되는 분이심을 보게 된다. 하나님은 만물보다 위대하신 분, 바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돕는 배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사람은 ‘아담’(Adam)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히브리 말로서 ‘남자’를 의미한다. 또 하나님은 곧이어 여자를 창조하셨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창세기 2:18 KSV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 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 때에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창세기 2:21-23,25 KSV

성경의 이 부분은 오랫동안 뜨거운 논쟁을 일으켜 왔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열등한 존재로 지으신 것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그것은 창조의 실상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의 옆구리에서 취하셨지, 그의 발바닥이나 뒤꿈치에서 취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도 여자를 남자의 노예로 지으실 의도가 없으셨다는 것을 나타낸다.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Eve)’ *라고 불렀는데, 그 이름은 ‘생명을 주는 자’라는 뜻이다.

* ‘하와’는 히브리어 발음을 따른 것이다. 영어식 발음은 ‘이브’이다.

완전한 곳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지으신 특별한 동산에 그들을 두셨다. 그 동산의 이름은 ‘에덴’이라고 불리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에덴 동쪽에 동산을 만들어 자기가 지은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갖가지 아름다운 나무가 자라 맛있는 과일이 맺히게 하셨는데, 그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창세기 2:8,9 KLB

세상에 있는 어떤 훌륭한 공원이나 동물원도 이 하나님의 동산과는 비교될 수 없다. 하나님의 동산은 화려한 꽃과 나뭇잎, 잔잔히 반짝이는 깨끗한 물,形形色색의 물고기 떼, 각종 친근한 동물 등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운 완전한 낙원이었다. 기후 또한 완벽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창세기 2:5,6 KRV

지금은 그 동산의 모습을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곳을 아담과 하와가 살기에 가장 적합하도록 지으셨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마련해 주셨다. 그 곳은 사람이 살기에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가장 이상적인 장소였다.

창조주 = 소유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동산에서 살기 원하는지를 묻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그들의 창조주이시며 동시에 그들의 소유주이시다. 소유주는 동의가 필요 없이 오직 자신의 뜻대로 그 소유권을 행사한다 (어떤 사람이 질그릇을 하나 만들면, 그는 소유주로서 그것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 가장 최선인지를 아셨고, 또 그렇게 해 주셨다.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역대상 29:11 KSV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와 것이요, 세계와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명체도 다 여호와와 것이다.” 시편 24:1 KLB

“여호와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임을 알아라. 주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는 주님의 것, 주님의 백성, 주께서 기르시는 양 떼라.” 시편 100:3 TKV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들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역시 그를 지으신 하나님의 소유이다.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직책을 주셨듯이 사람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지키는 관리인의 책임을 주셨다.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창세기 2:15 KJV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자유 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으셨다. 그런데 만약 사람이 그 의지로 선택할 대상이 없다면 자유 의지란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 아마도 연인간의 사랑에서의 자유 의지 같은 것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만약 선택할 대상이 없다면, 사랑을 선택할 의지가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랴? 하나님은 사람 앞에 특별한 나무 두 종류를 두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선택을 하게 하셨는데, 그 내용은 아주 단순했다.

그 동산 중앙에는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창세기 2:9 KLB

그 중 하나는 생명나무였다. 사람이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계속 영원히 살게 된다. 이 생명나무의 선택은 아무 문제될 것이 없었다. 그러나 다른 나무에는 ‘먹지 말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

아담과 하와는 '선', 곧 옳은 것에 대해서만 알았고, '악', 곧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그들은 완전하게 지어졌으므로, 그들 자신이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로서 악과는 일체 관련이 없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알았고, 또 그 선하심만을 경험하고 있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선' 뿐만 아니라 '악' 까지도 알게 될 것이라고 한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창세기 2:16,17 KSV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대해 이미 살펴보았다. 예를 들어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면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처럼 법칙을 어기면, 그 결과를 책임지는 원리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법칙에 적용된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간단한 명령을 주셨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 명령을 어겼을 때 사람은 결과를 책임지게 된다. 그 결과는 명확한 것이었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명령을 어기면 사람은 반드시 죽음으로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살펴보자.

여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한 그루의 나무가 사람이 정말 사람답게 되도록 구별해 주고 있다. 사람은 창조될 때에 선택의 자유 의지를 부여 받았다. 선택이란 무엇을 먹거나 혹은 먹지 않거나, 즉 순종하거나 혹은 순종하지 않거나 하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무슨 명령을 들으면 ‘무조건 시키는 대로 따르도록만’ 되어 있는 로봇이 아니었다. 로봇과 같은 종속 의지는 ‘따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꺼이 따르는’ 자유 의지와는 대단히 큰 차이가 있다.

사람은 그렇게 완전한 자유 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 이 자유 의지로 선택하고 행하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부른다. 순종은 그 관계를 진정한 사랑의 관계로 만든다.

최초의 사람에게 이 명령은 가혹함과 거리가 먼 것이었다. 동산에는 이 두 종류의 나무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만일 먹을 것이 부족했다면, 그 명령은 지키기 힘들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풍성했다.

‘주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를 그 땅에서 내어 자라게 하시니’

창세기 2:9 KJV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됨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택의 자유 의지를 주셨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고 하신 것은 아니었다.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도록 지음 받았다.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11 KSV

아들이 아버지께 기꺼이 순종하면, 그것이 곧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사람은 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어졌는데, 순종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로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또한 하나님께 그런 존경과 신뢰를 드리는 것은, 사람에게도 최고의 행복과 만족으로 돌아온다. 첫 사람 아담과 하와의 경우가 그러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28 KJV

사람 -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행복에 사랑과 관심을 쏟으셨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 주셨다.

창세기 1:29,30 KJV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맺는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생명이 있어 땅에서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동산에 오셔서 사람과 함께 거니셨다고 말한다.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었을 때, 즉 어떤 악이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산책할 수 있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의로움’이 있었기 때문이다.³

자,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있다. 그리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와 함께 동산을 산책한다! 사람에게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물을 지으셨는지를 친히 설명해

주시고, 아름다운 꽃들에 관해 가르쳐 주시며, 나무 꼭대기에 사는 새들을 불러 노래하게 하시고, 깊은 숲 속에서 쉬고 있는 동물들을 소개해 주신다. 하나님은 만물이 정확히 운행되는 질서의 법칙도 설명해 주셨을 것이다. 동산을 관리하는 일에 대해 누가 하나님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 태초의 세상은 사람들이 살기에 적합하고 완전한 장소였다.

하나님은 근엄하고 무뚝뚝한 대학교수 같은 분이 아니셨다. 창조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가장 좋은 친구였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상적인 가족 관계란,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고, 자녀는 사랑과 순종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관계이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그러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셨고, 그들은 사랑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피조물의 도리요, 사랑의 관계였다.



창조의 완성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옛날이 지났다.

창세기 1:31

KSV

우리는 어떤 일을 기세 등등하게 시작했다가도 중간에 미적거리다가 흐지부지 되는 적이 허다하다. 때로는 중요한 일감을 선반 위에 올려 놓고 미루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시작한 일을 반드시 완성하신다. 사람은 마음이 변해 계획을 바꾸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한번 정하시면 절대로 바꾸시는 적이 없다.

“여호와와의 계획은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으며, 주님의 마음 속 품으신 뜻은 세세토록 영원하리라.”

시편 33:11 TKV

이렇게 창조의 대역사가 완성되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말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치셨다는 뜻이 아니라, 창조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뜻이다. 이윽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기쁨으로 안식하시는 시간이 되었다.

진화론은 무엇인가?

성경에는 진화에 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창조론과 진화론은 많은 논쟁을 벌여 왔으며, 이 논쟁은 종교와 과학 간의 논쟁처럼 보이기도 했다. 이 책은 진화론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잠시 진화론 논쟁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료를 소개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진화론은 과학이요, 창조론은 종교에 속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그다지 인정받는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1859년 찰스 다윈이 처음으로 진화에 관한 책을 출판한 이후로, 다윈의 진화론은 ‘신 다윈론’과 ‘단속적 평형론’으로 갈라졌다. 이 두 이론은 서로 크게 다르다. 그리고 우주 만물의 기원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이렇다 할 합의를 이룬 적이 없다.

많은 학자들은 진화론 자체가 이미 종교적 핵심 영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 과학으로 볼 수 없다고 말한다. 즉, 진화론은 이미 ‘무엇을 믿느냐’ 하는 종교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 이유인즉, 진화론자들은 우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자신의 믿음을 ‘오랜 시간과 우연의 반복’에 두고 진화라는 가설적 결론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학자들은 진화론이 과학의 기본 법칙들을 철저히 위반했다고 지적한다.

이와 반대로, 창조론을 전적으로 종교적 영역에 두는 것도 합당한 일은 아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이 복잡한 우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의 설계자가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그 설계자가 바로 하나님일 수 있다고 했다. 그 증거로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구조나 조직도 그 속을 보면 말할 수 없이 정밀하고 복잡하다는 것이다.⁴ 그러한 우주적 복잡성과 정밀한 질서가 유지되려면,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되고 설계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한다. 즉, 계속되는 우주 질서의 존재 자체가 예측할 수 없는 우연의 반복에 의한 것이 아님을 증명한다는 것이다. 이들 중 많은 학자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받아들이고 있다. 왜냐하면 성경의 내용이 그들의 과학적 연구 결과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공룡의 예를 들며 창조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성경에 공룡에 대한 별도의 기록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을 창조하실 때, 공룡은 제외되었다고 비약할 이유는 전혀 없다. 오히려 성경에는 사람과 공룡이 같은 시대에 살았다는 간접적 증거들이 있다. 하늘 위의 물, 곧 수증기층이 기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면, 그런 큰 짐승들이 생존했으리라는 사실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또 우리는 잠시 후에 그들의 멸종을 불러온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도 보게 될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의 설명 가운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지구의 나이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도, 성경은 지구의 오랜 나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 등이다. 실제로 많은 과학자들이 천문학적 자료, 은하계 자료, 지질학적 자료, 생물학적 자료 등을 컴퓨터에 입력해 우주의 나이 혹은 지구의 나이를 측정하는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했다.⁵ 그러나 그 결과는, 연구하면 할수록 머리를 가우똥하게 하는 부분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다윈은 생물의 기원을 4억년 가량이라고 했다. 지금의 학자들은 46억년이라고 말한다. 어느 시계가 맞는 시계인가? 또 미래의 학자들은 앞으로 그 시간을 얼마나 더 늘일 것인가?

그렇다면 성경은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있는 그대로 성경을 인용하면, 하나님은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이미 완성품으로 지으셨다고 말한다. 과학자들은 현재 육안으로 관찰하는 사실을 토대로 과거의 모든 것을 결론지으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직접 창조의 일을 하신 설계자요 시공자이시다. 또 그 창조를 목격한 유일한 증인으로서 만물의 창조에 관한 비밀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 주신다. 더욱이 자연의 법칙 자체가 창조의 설명과 기막힌 조화를 이루고 있다.

자, 우주 만물을 지으시는 일이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몇 억년, 몇 십 억년 걸리는 몹시 힘든 일이었다고 생각하는가? 누구의 말을 믿는 것이 옳은가? 누구의 말이 과연 책임질 수 있는 말인가? 어떤 왕은 이 세상을 깊이 관찰하고 나서 이런 시를 남겼다.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규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깊이 생각하시오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이는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추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음이니이다.

또 주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아래 두셨사오니 참으로 모든 양과 소와 들짐승이며
공중의 날짐승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길들을 지나다니는 모든 것이니이다.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시편 8:3-9 KJV



4장

1 내가 ... 하리라

2 하나님이 ...하시더냐?

3 네가 어디 있느냐?

4 반드시 죽으리라

1 내가 ... 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 결과를 보시면서 “매우 좋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한 질서와 조화를 이루었다. 그곳에는 고통도, 질병도, 슬픔도, 다툼도 없었는데, 무엇보다도 죽음이 없었다. 하나님과 사람사이의 사랑이 넘치는 친밀한 관계였다. 에덴동산은 사람이 살기에 가장 이상적인 장소였으며, 사람은 이 곳에서 더 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세상은 고통과 질병과 숨가쁜 생존 경쟁이 지배하고 있다. 우리는 수 많은 문제들이 작은 다툼 정도에서 끝나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언제나 희망사항일 뿐이다. 빈곤과 재난, 테러와 전쟁이 세계 곳곳을 지배하고 있다. 이것저것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고, 그나마 있는 것은 어느새 낡아지고 망가진다. 사람의 세계에서 동물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사는 것 자체가 곧 쉬지 않는 투쟁이 되어버렸다. 아무리 봐도 지금의 세상은 살기에 별로 좋은 장소가 아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세상이 이렇게 변해버렸을까?

루시퍼

다시 루시퍼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성경은 루시퍼의 과거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에스겔 28:13 KLB

“네가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 있으면서 갖가지 보석으로 단장하였으니”

루시퍼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적 존재인 천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였다. ‘루시퍼’라는 이름은 ‘빛나는 존재’를 뜻하며, ‘계명성(새벽별)’을 나타내는 말로도 사용되었다. 루시퍼는 ‘그룹(Cherub)’이라는 종류의 천사에 속했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직책을 맡은 자였다.

“내가 너를 택하고 향유로 기름을 부어 지키는 그룹을 세웠다.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있었고”

에스겔 28:14 AEB

또한 루시퍼는 천사로서 완전하게 지어진 존재였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는 대단히 아름다웠으며 지혜로 가득했다고 한다.

“내가 창조된 날부터 네 길들에서 완전하더니”

에스겔 28:15 KJV

“너는 완전의 표본으로 지혜가 충만하고 나무랄 데 없이 아름다웠다.”

에스겔 28:12 KLB

교만

다음의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 대해서는, 그 사건이 천지창조 이전이라고 하는 주장과 그 직후라고 하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그 때 일어난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한다. 성경은 루시퍼의 교만이 그 사건의 발단이라고 말한다. 뛰어난 아름다움과 지혜와 능력이 천사 루시퍼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교만은 그가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던 탐욕을 품게 만들었다. 루시퍼는 다섯 번이나 “내가 ... 하리라”고 말했다. 이 루시퍼의 ‘내가 ... 하리라’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지만, 지금 여기서는 그 때 하늘에 있었던 반역의 사건에 국한해 알아보기로 한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이는 네가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오르리라),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쪽의 옆면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오르리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 (지존자: 至尊者), 곧 ‘가장 높으신 분’은 하나님의 여러 이름 중 하나이다.

이사야 14:12-14 KJV

루시퍼의 문제는 『내가』 하늘나라를 장악하려는 욕망, 곧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맞서려는 반역의 마음에서 나타났다. 그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의 지배자가 되려고 마음먹었다. 루시퍼의 마음 속 교만은 수그러들 수 없는 탐욕으로 달아올랐다.

그러나 루시퍼의 야심에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루시퍼의 반역은 감춰질 수 없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만을 미워하신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의 목록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교만이 첫째로 꼽힌다.

잠언 6:16, 17 KSV

‘주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이다. 교만한 눈과’

교만해진 루시퍼는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을 선택했다. 하나님은 천사를 지으실 때, 로봇같은 존재가 아니라 완전한 자유 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으셨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자기 의지로 순종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루시퍼의 교만함은 천사의 수준에서 만족하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선택하게 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루시퍼의 선택을 ‘죄’라고 하셨다.

심판

완전하신 하나님은 이러한 루시퍼의 죄를 용납하실 수 없으시다. 본질적으로 ‘완전함’이란 그 속에 ‘불완전함’이 조금도 없어야 함을 뜻한다. 앞으로 우리는 이 완전함의 진리를 계속 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안에는 ‘의롭지 못함(죄)’이 함께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는 일체의 죄가 용납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므로, 그 앞에 있는 죄를 그대로 두실 수 없다.

이것은 우주 안의 어떤 자연 법칙보다 더 분명한 하늘의 영적 법칙이다. 루시퍼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은 즉각적이었다. 하나님은 먼저 루시퍼를 그의 지위에서 추방하셨다.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네가 아름다우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우므로 네 지혜를 더럽혔음이어.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에스겔 28:16,17 KRV

루시퍼는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천사들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였고, 다른 천사들이 그를 우두머리로 해서 함께 반역에 가담했다. 성경에는 이 사건의 경위를 설명해 주는 대목이 여러 곳에 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

그 꼬리가 하늘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피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¹

요한계시록 12:3,4,7-9 KRV

마귀, 사탄 그리고 귀신들

성경은 천사들 중의 삼분의 일이 루시퍼를 따라 반역했다고 한다. 루시퍼는 다른 이름으로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이름은 각각 그의 성품을 나타낸다. ‘사탄’은 대적 또는 원수를 의미하고, ‘마귀’는 거짓말쟁이, 참소하는 자 또는 이간하는 자를 의미한다. 사탄을 따라 함께 반역한 부하 천사들은 ‘귀신들’ 또는 ‘악령들’이라고 불린다.

불 못

하늘에서 마귀와 귀신들을 추방한 것은 반역한 천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에 불과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장소를 가르쳐 준다.

마태복음 25:41 TKV

그곳은 '마귀와 그 부하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이다.

이 심판의 장소는 보통 '불 못' 또는 '지옥'이라고 불린다. 가끔 만화나 그림에서 사탄과 악령들이 뜨거운 불길 속에 앉아 악한 일을 모의하는 장면이 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사탄은 하늘에서 추방되었으나 아직 지옥 불 속에 던져지지 않았다. 사탄과 악령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영원한 불 못에 던져질 것이다. 장차 일어날 사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20:10 KRV

전쟁

사탄과 그 부하들은 하늘로부터 추방당했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대단한 지혜와 능력이 있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원수가 된 사탄의 세력은 이제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을 선택했다.

사탄은 하나님의 선한 모든 것,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에 대해 대적한다.

사탄은 끈적하고 추악한 전쟁을 할 것이다. 그 어떤 잔인한 것도 마다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악랄하게 발악할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사탄의 반역 직후에 일어난 상황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우선 분노와 증오에 휩싸인 사탄이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에 혹시 어떤 빈틈이 있지 않을까 하고 교활한 눈을 굴리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런 틈이 전혀 보이지 않아!”

“아냐, 그래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이 어딘가 있을지도 몰라.”

사탄은 눈길을 돌려 이 땅을 보았고 ... 거기서 '사람'의 존재를 발견했다.

그의 입가에 음흉한 웃음이 번졌다.

“아, 저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있구나!”

2 하나님이 ...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사람을 이 세상에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다. 동산으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모습을, 마치 사람이 친구를 대하는 친근한 모습처럼 묘사하고 있다. 아담과 하와는 창조주, 곧 그들의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으며,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돌봐주셨다.

속이는 자

그러나 사탄이 동산으로 슬며시 들어왔다. 사탄은 소리 높여 자신을 광고하지 않았다. 사탄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교활한 자였다. 성경은 사탄에 대해 ‘거짓의 아비’ 라고 말한다. 사탄은 거룩한 진리를 말할 능력이 없는, 늘 ‘속이는 자’ 이기 때문이다.

“그는(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으므로, 그가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것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8:44

KLB

성경의 원문에서 사용된 ‘거짓(pseudo)’ 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알고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속이는 것’ 을 뜻한다. 오늘날 이 단어는 주로 가짜, 모조품, 유사품 등을 표현하는 일에 사용된다.

가끔 몸은 시뻘겋고, 머리에는 뿔이 있으며, 꼬리는 길고 뾰족한 데다, 손에는 날이 시퍼렇게 선 쇠스랑을 든 흉측한 모습으로 사탄을 묘사한 그림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모습과 마주친다면, 누구라도 놀라 뒷걸음질을 칠 것이다. 성경에 따르면, 사탄의 그런 흉측한 모습은 실제 사실과 다른 묘사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변장하여 나타나는데’

고린도후서 11:14 TKV

사탄은 때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때로는 거룩하고 친근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어쩌면 사탄을 묘사할 때, 검은 양복에 로만칼라 셔츠를 입은 고상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그리는 것이 더 실제적일 수도 있다. 또 사탄은 종교로 위장하는 데도 대단히 능란해서 진리를 가장해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기까지 한다. 속이는 것이 사탄의 본성이며, 거짓으로 교묘하게 꾸미는 것이 그의 능력이다.

사탄은 사람들이 자기를 시뻘건 몸에 쇠스랑을 손에 든 흉측한 모습으로 묘사해 주기를 바랄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엉뚱한 쪽으로 잘못 알수록, 사탄의 속이는 작업은 훨씬 더 쉬워지기 때문이다.

또 사탄은 “많은 신학자들은 더 이상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주장에도 박수를 보낼 것이다. 이는 “이제 아무도 사탄, 곧 마귀의 존재를 경계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마귀의 존재를 신화 내지 허구라고 생각해 준다면,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는 데, 그보다 더 손쉬운 상황이 어디 있겠는가?

위장

사탄은 온갖 교활함으로 무장하고 동산에 숨어 들어왔다. 환영의 팡파르가 울린 것도 아니지만, 경고의 사이렌도 울리지 않았다. 사탄은 파충류인 뱀의 몸 속으로 들어갔다. 성경에는 귀신이 사람이나 동물의 몸 안에 들어가, 그를 통해 말을 하거나 비정상적 행동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께서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3:1 KRV

뱀이 말을 한다는 사실이 하와를 혼란에 빠지게 한 것 같진 않다. 하와는 당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매일 새롭게 발견하는 기쁨 속에 있었을 것이고, 이 뱀을 하나님의 창조물 중의 하나로 여겼을 것이다.

의문이 의심으로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 의문을 던졌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탄은 그 의문으로 하와가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일, 곧 피조물이 창조주를 의심하는 일을 하와의 마음 속에 심어 주고 있다. 사탄은 하와가 무엇을 몰라도 한참 모른다는 투로 질문했다. “하나님께서 그러셨단 말이지, 정말?”

사탄은 “말도 안 돼! 기가 막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것은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는 암시를 주고 있다. “너는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니? 혹시 하나님이 무언가 좋은 것을 네게 감추시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과연 네 생각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고 진실하실까?”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완전히 정직한 분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의 고리를 걸고 있다. 사탄은 사람을 염려하는 척, 마치 도움을 주는 척 했다.

사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슬쩍 모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사탄은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게 하는 데 성공했다.

더욱이 사탄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말씀을 불필요하게 과장했다.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먹는 것을 금지하신 적이 없다. 다만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을 금하셨을 뿐이다! 그런데 사탄의 과장은 지금 그가 원하는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창세기 3:2,3 KRV

하나님은 누구의 변호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그런데도 이때 하와는 자신이 하나님을 변호하려 들었다. 그런 열심이 지나쳐,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무엇인가를 더하고 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을 뿐이지, ‘만지지 말라’고하신 적은 없다. 하나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빼기 마련이다. 하와는 하나님을 실제 이상으로 엄격한 분으로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손상하고 있다. 성경의 말씀에다 무엇을 더하거나 빼도록 만드는 것은 사탄의 주특기이다.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무엇을 덧붙인 것은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사탄이 원했던 전부였다. 마치 저수지 독에 막금이 가기 시작한 것과 같았다.

부인

그때 뱀이 여자에게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다.” 하고 말하였다.

창세기 3:4,5 KLB

사탄은 하와를 속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갖게 하는 단계를 지나, 이제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대담하게도 그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그 나무 열매를 금지하신 이유는, 사람이 어떤 특별한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라고 속이고 있다.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버린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은 진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는 것은 허황된 거짓말이다. 또한 그들이 죽지 않으리라는 것 역시 거짓말이다.

사탄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다. 지금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멸망의 동반자로 삼아 영원한 불 못으로 함께 가려는 것이다.

불순종

여자가 그 나무의 과일을 보니, 먹음직스럽고 보기에 아름다우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 그래서 여자가 그 과일을 따서 먹고 자기 남편에게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창세기 3:6 KLB

드디어 사탄은 성공했다. 온 동산에 사탄의 소름끼치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듯하다. 언제나 그러했듯이, 사탄은 멸망과 파괴를 즐길 뿐이다. 성경은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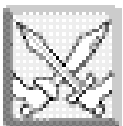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베드로전서 5:8 KLB

가끔 사탄은 사람에게 즐거움과 쾌락을 제공하는 존재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으로 그 마지막은 허망하고 무의미한 것들 뿐이다. 사탄이 끝까지 좋은 것을 주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 그가 주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뼈를 깎는 고통과 절망이다. 사탄은 악의에 찬 잔인한 이웃일 뿐이다. 이러한 사탄, 곧 마귀의 특성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이 사건을 두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먼저 불순종한 하와를 집중적으로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아담도 하와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 아담은 아내가 그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막는 동시에, 자신도 그 열매를 먹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 두 사람 모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다.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은 마치 어머니의 주의를 듣지 않고 차도에서 놀고 있는 어린아이와 흡사하다. 대개 불순종하는 아이를 보면, 안전함과 즐거움에 관해 자기가 어머니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도 선과 악에 대해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탄의 꾀임에 귀를 열었던 아담과 하와의 선택은 결국 그들의 불순종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지으신 창조주를 믿고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끝까지 신뢰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원수

아담과 하와는 사탄을 거부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는데도 오히려 사탄의 말을 믿는 편을 택했다. 그 결과, 그들은 사탄의 반역에 기꺼이 가담한 것이 되었다. 성경은 말한다.

*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서 4:4 KJV

* ‘세상’이란 사탄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조종하는 인간 중심적 세상을 가리킨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 편에 가담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한 명백한 거역이었다.

깨어진 친밀한 관계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우리는 법을 어기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을 보았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성경은 말한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거짓말을 믿었던 그 선택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엄청난 간격을 만들어 놓았다. 그 간격이란 완전한 ‘단절’을 뜻한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불완전한 충성심, 반쪽짜리 친밀함, 부분적인 신뢰 등을 용납하실 수 없다.

신뢰가 없으면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하나님과 사람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완전히 끝이 났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들 마음의 정욕대로 부정함에 내어 주사 자기 몸을 서로 욱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피조물(사탄)을 더 경배하고 섬겼음이라.”² 로마서 1:24,25 KJV



무화과 나뭇잎

창세기 3:7 TKV

그러자 갑자기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

아담과 하와는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을 즉각적으로 알게 되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불편한 감정, 곧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며 두려움을 느꼈다. 그들은 해결책을 찾으려고 두리번거리다 한 가지를 생각해 냈다.

그들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몸을 가렸다.

창세기 3:7 KLB

그들은 자신들의 걸모습을 가리면, 속에서 일어난 변화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뭇잎으로 걸모습을 가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이려고 했다. 이것은 이미 엮지러진 물을 어떻게든 다시 담아 보려는 사람의 첫 번째 시도였다.

그러나 나뭇잎 옷이 해결책이 되기에는 결정적인 결함이 있었다. 우선 그것은 잘못된 것을 회복시켜 놓을 능력이 없었다. 사람의 걸모습을 아무리 치장한다 해도, 그것으로 사람의 속까지 변화시킬 수는 없다. 속에서 올라오는 죄책감이 그들을 조이고 있을 뿐, 그들과 하나님의 사이는 여전히 끊어진 채로 있었다.



두 사람은 서늘한 바람이 부는 저녁 무렵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얼른 동산에 있는 나무들 사이에 몸을 숨겼다.

창세기 3:8 TKV

죄가 있는 사람만이 피하고 숨는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그들은 주님의 낫을 피해 숨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다.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간격, 곧 단절이 생겼다.

하나님께서 너무 편협하시다고?

간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것이 죄라고 해도 사실 별것 아니잖습니까? 기껏해야 열매 하나 먹은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다! 기껏해야 열매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람 앞에 커다란 장애물을 두신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이 시험이라고 한다면, 이 이상 더 쉬울 수도 없는 그런 시험이었다. 오히려 이 시험은 사람이 참으로 사람임을, 즉 자유롭게 선택할 의지가 있는 존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험이었다.

어떤 아가씨가 대단히 멋진 남자를 만났다. 그 남자는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한다고 했다. 아플 때는 위로해 주었고, 대화할 때는 함께 웃었고, 늘 사랑한다고 속삭여 주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가씨는 그만 그 남자가 정신적 장애인으로서 전혀 자기 선택의 의지가 없이 무조건 사랑한다고 말하도록 프로그램 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남자는 단지 주어진 것만 수행하는 로봇 같은 존재였다. 그 사랑은 조작된 것일 뿐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실망과 허탈감뿐이었다. 이렇듯이 사랑이란 완전한 선택의 자유, 바로 자유 의지를 전제로 한다.

3 네가 어디 있느냐?

사탄, 곧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라고 속였다. 그것은 마귀 자신이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던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지으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창세기 2:17 AEB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자,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그들에게 그대로 일어나고 만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바뀔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창세기 3:8 KSV

지금 사람에게에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다. 그 선택은 지극히 쉽고 단순한 것이었으나,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바로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영원히 죽느냐의 차이이다.

그 선택이란 : 먹느냐, 먹지 않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바로 이 선택의 자유때문에 피조물인 사람은 진정으로 사랑다울 수 있었다. 사람은 로봇이 아니다. 사람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존재이다. 아담과 하와의 사랑은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상대방을 위한 진정한 선택이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한 것은 그들이 자유롭게 선택한 진실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선택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서 불완전함이란 크고 작은 것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심 앞에는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용납될 수 없다. 성경은 불순종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불순종, 이것이 바로 ‘죄’이다.

*사무엘상 15:23 참조

아담과 하와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그들의 주님, 하나님께서 오시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자기가 던진 공에 옆집 창문이 깨지고, 그 집주인 아저씨가 화가 나 달려오고... 이런 일을 경험했던 사람은 그들의 두려움을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지금 아담과 하와는 실수로 옆집 아저씨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아니다.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요,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그것도 고의적으로 저지른 것이다. 주님께서 과연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어떻게 심판하실까?

그 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 물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9 KLB

휴우 다행이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 모르시는가 보다.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시잖아? 몰래 과자를 훔쳐 먹은 아이들처럼 두 사람은 머리를 슬며시 들고 짐짓 아무 일도 없는 체 했다. “아, 우리를 찾으셨어요?” 아담이 대답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
나이다.”

창세기 3:10 KJV

아담이 대답을 하긴 하지만 탄전을 피우고 있다. 그 전까지 아담은 한 번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었고, 자신의 벗은 몸에 신경을 써 본 일도 없었다. 마치 훔쳐 먹은 과자 부스러기가 얼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아담에게서 두려움과 수치심이 드러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알려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창세기 3:11 KSV

하나님의 질문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정말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숨어있는지 모르시는 걸까? 그들이 왜 벌거벗었다고 느끼는지 그 이유를 모르시는 걸까? 금지하신 열매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꼭 이 죄인들에게 물어보셔야 하나? 이 일의 진실을 말하자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모든 일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 그렇지만 지금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들의 범죄가 어떠한 것인지 분명히 깨닫도록 도와 주시는 중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했다!

이처럼 사람이 사물을 명확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질문하심으로 도와 주시는 장면이 성경에는 종종 나타난다.

하나님 잘못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하심으로 그들의 입으로 모든 문제를 고백할 기회를 주시고 있다.

그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곧 그 여자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3:12 KJV

이런! 아담은 불순종한 사실을 시인하긴 하지만 무언가 핑계를 갖다 붙이는 말투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었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는 지금 자신이 희생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일은 원래 하나님 잘못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지으시지 않았다면, 제게 그 열매를 줄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아하, 그는 잘못을 하나님께 슬쩍 떠넘기는구나!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속이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3:13 KJV

“옳지! 이제 진실이 밝혀지나 보다. 그럼 그렇지, 역시 뱀의 잘못이었다. 그리고 보니 하와도 희생자였구나. 하나님께서 뱀을 지으시지 않았더라면, 하와 역시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다. 이 문제의 핵심은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의지로 죄를 선택했다는 데 있다.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순전하게 시인할 기회를 주셨으나, 그들은 그 기회를 버렸다.

아담과 하와가 한 말	아담과 하와가 했어야 옳은 말
<p>“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도록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기에 내가 먹었나이다.”</p> <p>“그 뱀이 나를 속이므로 내가 먹었나이다.”</p>	<p>“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먹지 말라 하신 열매를 먹었습니다. 제가 진실로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p> <p>“저도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저희들의 관계를 이전처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p>
<p>남을 원망하고 비난한다. 피해 의식을 갖는다.</p>	<p>자기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찾는다.</p>

만약 우리가 판사나 형 집행인이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향하고 그들에게 처벌을 명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즉시 그들을 처벌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의 약속

첫 사람 아담의 죄는 그의 모든 자손, 곧 인류에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다. 아담과 하와가 보여 준 이 장면은 앞으로의 모든 인류의 운명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의 저주를 초래했으나, 이 순간 하나님은 놀라우신 사랑으로 그들 사람에게 중요한 약속을 해주셨다.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14,15 KS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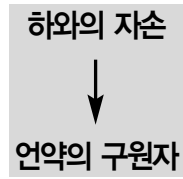
이 말씀은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단순히 여자와 뱀이 서로 혐오감을 가진다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마귀	여자의 자손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내가 너를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도 원수가 되게 하겠다.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여자와 여자의 자손과 여자의 자손은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장차 사람을 사탄으로부터 구하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다. 여자에게서 한 자손이 태어날 텐데, 그 여자의 자손은 사탄의 머리를 부수어 치명상을 입힐 것이다. 또 사탄도 그를 해칠 것이나, 그는 단지 발꿈치를 상하는 정도의 부상을 입을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사람 곧 죄인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이다. 여자의 자손,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불릴 것이라고 하셨다. ‘기름 부음’이란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위해 사람이나 물건을 택해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했던 옛 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이 선택된 자 곧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특별한 임무란 인류를 죄와 사탄의 지배로부터 구원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그는 ‘언약의 구원자’ 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아담과 하와는 이 약속에 더할 수 없이 기뻐했을 것이다.



이 구원자의 약속은 다른 이름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실 이’ 혹은 ‘구세주’ 라는 이름이다.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 나만이 의로운 하나님이며 구원자다.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 온 땅의 모든 사람들아, 내게 돌아와 구원을 받아라. 내가 하나님이다. 다른 하나님은 없다.”

이사야 45:21,22 AEB

죄의 결과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 예외는 없다. 마치 중력의 법칙을 어기면 다리가 부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의 죄를 그냥 용서하실 수는 없다. “너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었구나. 그 일은 원래 없었던 일로 해 주마.”, “이건 죄치곤 너무 작은데... 무시해도 좋겠군.” 이런 말씀은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아담과 하와는 죄인이 되었다. 벌써 죄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었다.

죄는 두려움과 수치심을 준다. 죄는 또 더 많은 죄를 이끌어 온다.

이제 사람의 죄로 인해, 이 땅과 그 위의 만물까지 저주로 고통받게 되었다. 모든 짐승, 바다 생물, 새 종류는 물론 땅 자체가 모두 저주의 영향 아래 놓였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더 이상 완벽한 곳이 아니다. 그 저주의 결과에 대해 성경은 ‘지금까지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신음하며 고통 당하는 것’ 이라고 한다.

로마서 8:22 KLB

그 후부터 사람은 출산의 고통과 함께 이 세상에 들어와서, 죽음의 고통과 함께 이 세상을 떠나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땀과 불의와 비참함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너는 밭의 채소를 먹을 것이다. 너는 먹기 위하여 얼굴에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마침내 흠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네가 흠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이다. 너는 흠이니, 흠으로 돌아갈 것이다.”

창세기 3:18,19 AEB

가시와 엉겅퀴는-그것이 실제이든 상징이든 간에-사람이 각자의 생존을 위해 고통 속에서 투쟁하도록 만들 것이며, 사람의 한평생이란 결국 슬픔과 고통의 여정이 될 것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죄의 가장 비참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경고하셨던 것, 바로 ‘죽음’ 이었다.

4 반드시 죽으리라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창세기 2:16,17 KSV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경고를 어긴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시험한 것과 같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일까? 사람은 정말 죽을까? 하나님께서 괜히 한번 겁주신 것은 아닐까? 여기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누가복음 16:17 KSV

“율법에서 한 획이 빠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죽음을 말하는 것이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니다. 사람들은 가능하면 죽음이란 말을 입에 올리기도 피하려고 한다. 이 세상의 어떤 나라나 민족도 죽음을 예찬하고 즐기는 문화가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대도시의 납골당이든, 깊은 밀림 속 무덤이든 간에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 모습만을 보여준다. 그것은 바로 슬픔에 잠긴 모습이다. 그 슬픔이란, 죽음이 가져오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사람이 갖는 절망의 표현이다.

그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란 바로 ‘단절’이 가져오는 상황을 말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하고, 이제 다시는 그를 만날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이 단절을 뼈저리게 느낀다. 사람이 필연적으로 경험하는 죽음, 바로 이 단절의 의미를 성경에서도 똑같이 사용한다. 성경은 ‘죽음’의 의미를 ‘단절’ 혹은 ‘분리’라고 가르쳐 준다. 흔히 죽음을 ‘없어지는 것’ 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죽음은 바로 단절이다.

또한 죽음은 죄로 인해 원래대로 회복될 수 없는 상태를 뜻한다. 성경은,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대가에 대해 가르쳐 주기를 ‘죄의 삯은 죽음’이라고 한다.

로마서 6:23 KSV

성경에서 ‘죽음’은 다음의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 육체의 죽음(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됨.)



죽음

육체의 죽음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 죽음에 대해 많이 보고 들어 익숙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육체의 죽음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야 할 부분이 있다.

먼저 이 죽음이 어떻게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는지를 알아 보자.

나무에서 가지 하나를 잘라내면, 그 가지는 금방 갈색으로 변하지 않고 꽤 오랫동안 푸른 색을 유지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것을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신 말씀은, 아담이 그 열매를 먹는 순간에 덜컥 숨이 멎고 흙으로 변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 말씀은, 아담이 생명의 근원에서 단절되었기 때문에 세월의 흐름과 함께 그의 육체는 말라지고 언젠가 기능도 정지될 것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육신이 ‘죽어 자기들의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라고 했다.

시편 104:29 KJV

그러나 사람의 육체는 그렇게 끝을 맺지만, 사람의 영혼은 끝없이 계속 존재한다. 육체를 잃은 영혼은 어디에서 영원히 머무를 것인가?

둘째, 관계의 죽음(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됨.)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특별한 사랑의 관계는 끊어졌다. 그러나 불순종의 결과가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들 ... 그 후로 태어나는 자녀들, 곧 이 세상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다. 그 관계는 완전히 종료되어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비록 사람이 아직은 육신으로 움직이고 있다 해도, 하나님은 사람을 ‘허물과 죄로 죽였다’고 보신다.

에베소서 2:1 KRV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므로, 이해를 돕기 위해 예화를 하나 들어 보자.

우리 가족은 선교 사역을 위해 오랫동안 열대 지방에서 살았다. 우리가 살던 집은 짧은 나무기둥 위에 마루를 깔 구조였다. 어느 날 큰 쥐 한 마리가 마루 밑으로 기어들어가 죽었는데, 바로 위에는 우리 부부의 침실이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썩는 냄새가 기어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마루와 땅 사이가 너무 비좁았기 때문에 죽은 쥐를 치울 수 없었다. 며칠 지나면 괜찮겠지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열대의 덥고 습한 날씨에 죽은 쥐 썩는 냄새가 어찌나 고약한지 우리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아들 앤드류의 방으로 이동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죽은 쥐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앤드류가 우리를 그 불행한 상황에서 구하겠노라고 하며 아주 긴 나무 작대기를 들고 나타났다. 그리고 마루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는 나무 작대기로 죽은 쥐를 아주 천천히 밖으로 조금씩 끌어냈다. 죽은 쥐가 손에 닿을 정도로 가까워지자, 앤드류가 갑자기 전속력으로 후퇴하는 것이었다.

“아빠! 쥐가 아예 구더기 덩어리예요!” 앤드류는 얼른 가서 비닐봉지 하나를 찾아왔다. 그는 비닐봉지에 손을 넣고 죽은 쥐의 꼬리를 잡고 살살 당기기 시작했다. 쥐의 시체가 끌려나왔다. 구더기로 덮여 있는 모습은 보기에도 끔찍했다. 그리고 앤드류는 그 죽은 쥐를 들고 마당을 가로질러 달리기 시작했다. 마당 끝에 이르자, 쥐를 크게 휘두른 다음 밀림을 향해 냅다 던졌다. 앤드류는 그 죽은 쥐를 1m라도 더 멀어지게 하려고 있는 힘을 다해 던져 버렸다.

만일 그 쥐가 살아 있어서 앤드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다면, 그가 자기를 대단히 싫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 싫어하는 정도를 우리는 ‘분노’라고 표현한다. 만일 그 죽은 쥐가 밀림 속으로 날아가며 앤드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확 꺼져버려!”하는 분노의 소리였을 것이다. 만일 그 쥐가 “얼마나 멀리요?” 하고 물어본다면, 앤드류의 대답은 “영원히! 아주 영원히 먼 곳으로!”일 것이다.

‘죽은 쥐’ 이야기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을 세 가지 측면으로 나타낸다.

1. 하나님은 죄에 대해 분노하신다. 하나님의 분노는 악의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화가 나서 이성을 잃으시는 적이 없다. 오히려 그 분노는 하나님의 순수하고 완전한 성품을 나타낸다.

우리가 죽은 쥐를 싫어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 분노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기 좋은 곳,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곳으로 지으셨건만, 죄는 모든 것을 못쓰게 만들어 버렸다.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다면, 그것은 죄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망쳐 놓았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한다. 고통, 슬픔, 탄식, 질병, 상처, 시기, 다툼, 기근, 전쟁, 지진, 해일 등 모든 재앙은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아니다.

죄는 맛있는 요리에 떨어진 청산가리 한 방울과 같다. 극히 적은 양이지만 전체를 완전히 못쓰게 만든다. 죄는 단지 법을 어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그러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고 말한다.

에베소서 5:6 KRV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것은 불순종으로 드러났다. 불순종은 죄의 가장 분명한 표현이다. 성경은 말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부터 나타나나니’

로마서 1:18 KRV

우리는 억울한 죄, 안타까운 죄, 해가 되는 죄, 해가 안 되는 죄, 큰 죄, 작은 죄 등 별의별 수식어를 붙이며 죄와 친숙해져 있다. 성경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죄의 양상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어떠한 죄도, 설령 그것이 아무리 작다 해도 하나님의 분노를 불러올 따름이다.

2. 하나님은 죄인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계신다. 마치 우리 부부가 죽은 쥐를 떠나 다른 방으로 간 것처럼, 또 앤드류가 그 죽은 쥐를 멀리멀리 던져버린 것처럼,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있어야 한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희의 죄악이 너희를 하나님과 갈라놓았다.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장벽처럼 쌓여’

이사야 59:2 TKV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서 멀리 계신가 봐. 그것도 아주 멀리 계신가 봐.” 그렇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아주 멀리 떨어져 버린 존재이다. 성경은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 라고 말한다.

골로새서 1:21 KRV



나는 어디로?

거룩함이란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사람이 선다는 것은, 마치 눈부시게 깨끗한 새 이불 위에 썩은 쥐가 뒹굴고 있는 것보다 더 흉측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닿은 흔적조차 다시는 예전처럼 깨끗하게 될 수 없다. 방 전체가 썩는 냄새, 죽음의 냄새로 진동할 것이다. 죄는 이것보다도 더 더럽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면전에서 죄를 일체 허용하실 수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며 또 차마 불법을 보지 못하시거늘’

히박국 1:13 KJV

3. 하나님과의 단절은 영원한 것이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오래 단절되어 있어야 한단 말인가? 그 대답은 간단하다. “영원히!” 죄로 인한 단절은 영원한 단절이다. 죽은 쥐와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아니 단 한 순간도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인을 한 순간도 그리고 영원히 용납하실 수 없다.

사람의 죄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이 듣기에 괴로운 소식임에 틀림 없다. 그러나 머지않아 기쁜 소식을 만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 보자. 지금 단계에서는 죄로 인한 단절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할 때는, 그것이 가장 심각한 의미로 표현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 단절되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다.

셋째, 영원한 고통 둘째 사망(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됨.)



영원한 형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을 위해 놀라운 장소를 준비하신다고 말한다. 그곳을 보통 천국이라고 부른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 계획하신 곳이다. 이처럼 사람에게 영원한 행복이 있고, 죄와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적인 일이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있듯이, 그 반대 편에는 영원한 죽음이 있다.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말을 쓸 때, 그것은 종종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원한 고통을 뜻하기도 한다. 성경은 이 죽음을 ‘둘째 사망’이라고도 부르는데, 그것은 아마도 육체의 죽음(첫째 사망) 이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 같다. 이 둘째 사망은 천국에 있을 수 없는 자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다. 성경은 그들이 ‘불 못’, 곧 영원한 불구덩이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 소름 끼치는 장소, 불 못은 원래 사탄과 그 부하들의 형벌 장소로 지어진 곳이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 못이라.

요한계시록 20:11-15

KRV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 못에 던져지리라.”

성경은 죽은 후에 ^a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질 것과 ^b영원토록 밤낮 처절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을 말한다. 그곳은 ^c절망과 애곡의 장소가 될 것이다. 성경은 ^d구더기도 타지 않는 곳, ^e어두움과 지독한 고통과 ^f타는 듯한 갈증이 있는 곳, 육체의 삶에 대한 회한으로 탄식하며 제발 아무도 그 불 못으로 들어오지 않기를 애원하는 곳 등으로 설명한다.

- a 요한계시록 19:20
육체는 죽어도 영은 계속 산다.
- b 요한계시록 20:10
- c 시편 116:3
- d 마가복음 9:48
- e 마태복음 8:12;
22:13; 25:30
- f 누가복음 16:24

그 곳은 각자 절규하며 고통 받는 장소일 뿐, 끼리끼리 모여 흥청거릴 수 있는 곳이 전혀 아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을 자기 몫으로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21:8 KJV

우리는 사람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살펴보게 될 것이다.

죄의 본성

죄와 죽음이 아담의 혈통을 따라 전해지면서 모든 인류를 지배하게 되었다. 모든 피조물에게는 같은 종류를 재생산하여 번식하는 법칙이 있다. 사과나무는 반드시 사과를 맺고, 고양이는 반드시 고양이를 낳는다. 마찬가지로 죄인은 죄인을 낳는다.

로마서 5:12 KJV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아담의 죄로 인해 그의 후손들은 모두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아담이 죽었던 것 같이 그 후손들 또한 모두 죽게 되었다.³

현상 수배 포스터를 보면, 그들이 어느 정도의 죄인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 죄인의 의미는 그런 범죄자들 이상으로 훨씬 더 끔찍한 개념을 갖고 있다. 범죄자들에 대한 심판에는 정해진 한계가 있지만, 성경의 죄인에 대한 심판은 그 한계가 없기 때문이다.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 ‘본성’이란 어떤 상태 또는 형편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의사가 심장병 환자를 진찰하고 상황을 설명해 주면, 그 환자는 자신의 심장의 ‘상태’를 알 수 있다. 심장병 환자가 계단을 오르고 나면 숨을 헉헉거리며 얼굴이 시뻘겋게 변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증상’이라고 한다. 즉 ‘상태’가 밖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증상’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은 죄의 상태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죄의 ‘본성’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그 죄의 본성, 곧 죄의 상태가 사람마다 죄를 짓는 범죄 행위, 곧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아담의 본성은 죄인이 되었다. 아담은 죽는다.



아담의 모든 후손도 죄의 본성을 갖게 되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정직하신 하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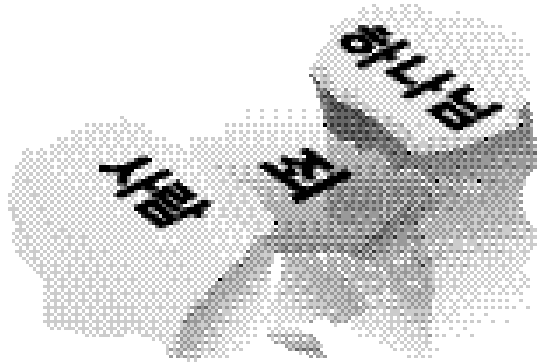
죄와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섬뜩한 것으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듣기 좋은 말씀만 하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요, 바로 있는 실상 그대로를 가르쳐 주신다. 모든 사람 중에서 죄와 사망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경이 죄와 사망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대할 것은, 무엇보다도 그 진리에 대해 잘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다.

요약 정리

태초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참으로 친밀한 사랑의 관계였다. 그 관계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완전한 세상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 때는 사람도 또한 완전한 상태였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을 믿고 따름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과 사람의 완전한 사랑의 관계는 끝나 버렸다. 그러자 온 세상이 변해버렸다. 세상은 죄와 슬픔과 탄식과 죽음이 가득 찬 곳으로 바뀌고 말았다.



죄를 범한 후에,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죄인 된 참모습을 가리려고 열심히 겉모양을 치장했다. 그들은 나뭇잎을 구해 스스로의 노력으로 죄인의 추악한 모습을 가려보려고 했지만, 그것은 소용없는 일이었다.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난 간격, 곧 단절은 그 무엇으로도 메워질 수 없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우리는 죄인의 본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게 된다. 자신의 방법으로 죄인임을 감추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시도, 곧 자기 노력으로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죄인 된 사람의 또다른 본성이다.

유전학자들이 찾아낸 것

“우리 인류는 비록 외모에는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개체들이 한 장소의 아주 가까운 단일 개체를 기원으로 하고 있다. 그것은 모든 인류가 이제까지 알려진 것보다 생물학적으로 훨씬 더 가까운 친족 관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뜻한다.” 이 내용은 하버드 대학교의 고고인류학자 스티븐 굴드 교수가 1988년 ‘뉴스위크’ 지 표지 기사 ‘아담과 하와를 찾아서’에서 발표한 것이다.⁴

그는 또 이 글에서 “분자생물학 연구를 하는 과학자들은 세계 인류의 유전자 분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인류의 조상으로 추정되는 한 여성의 DNA 흔적을 추출해냈다.”고 밝히며 “인종 간의 근본적 차이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내용과 관련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창세기 3:20 KSV

그 후 1995년 ‘타임’지는 아담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있다는 다음의 기사를 실었다.⁵ “아담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어떤 한 사람의 조상이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염색체 상의 유전 인자가 현재 지구 상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기 때문이다.”

같은 내용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다.

‘모든 인류의 조상인 한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서부터 인류를 온 세계에 퍼져’

사도행전 17:26 TKV

또한 인간 DNA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모든 인류가 동일한 남자와 여자로부터 나왔다고 결론을 짓는다. 물론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학자들도 있으며, 또 여기에 동의하는 학자라 해도 그 사람들을 바로 아담과 하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간에 그 연구 결과가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흥미 있는 일이다. 분자생물학 연구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내용들이, 모든 인류가 몇 천 년 전에 아주 가까운 가족 즉 동일한 부모로부터 시작했다고 하는 성경적 내용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다.



5장

1 위대한 역설

2 죄를 덮으라

3 대재앙

4 바벨의 탑

1 위대한 역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좀 알게 되었다. 이제 새로운 상황에 처한 사람과 이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살펴보자.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자연 법칙을 세우셨듯이, 하나님은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영적 법칙도 세우셨다. 사물에 대해 알려면 물리나 화학 같은 자연 법칙의 지식이 필요하지만, 사람의 삶과 죽음에 대해 알려면 영적 법칙을 잘 알아야 한다. 사람이 처한 상황을 알면 영적 법칙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먼저 사람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자.

사람이 직면한 문제

예로부터 중동지역에서는 어떤 사람이 빛을 지게 되면 그 빛이 얼마인지, 언제 갚을지 등을 기록한 ‘빛 문서’를 만들어 당사자들이 보관했다. 만일 빛을 진 사람이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그것은 곧 범죄로 간주되어 엄하게 처벌받았다. 이 때 그 ‘빛 문서’가 증거로 제시되었다.



빛 진자

성경에는 사람의 죄는 그 대가를 치뤄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반드시 치루어야 하는 대가를 ‘빛’이라고 부른다. 우리 앞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은 그 대가가 사망, 곧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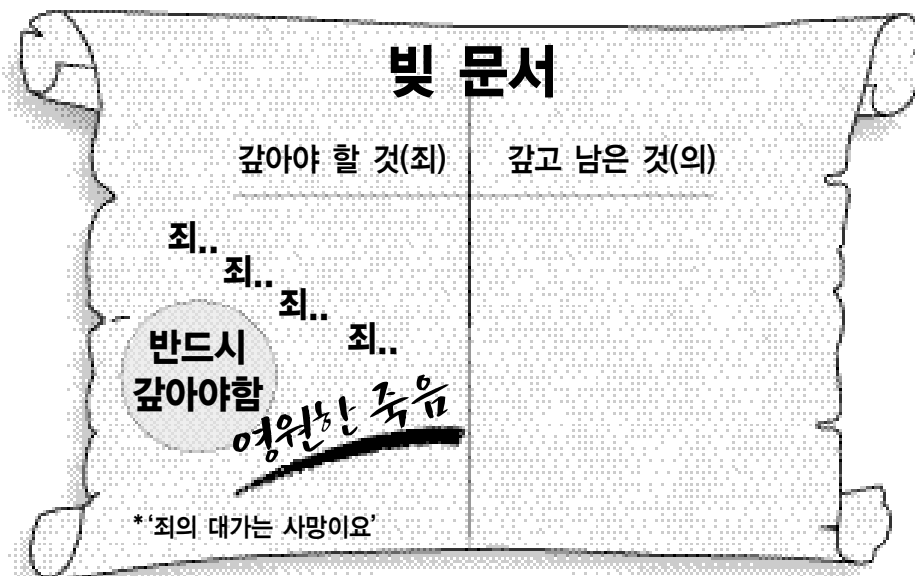
‘죄와 사망의 법’

로마서 8:2 KRV

그 법은 이렇게 말한다.

“죄를 짓는 바로 그 사람이 죽을 것이다.”

에스겔 18:20 AEB



*로마서 6장 23절을 그림으로 설명한 것



사람이 어떻게 그 빛을 갚을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뿐이다. 오직 사망, 곧 죽음으로 갚아야 한다. 그러나 그 죽음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라면, 사람이 빛을 갚을 수 있는 날은 절대로 올 수 없다. 사람은 죽음의 세 가지 의미를 전부 영원히 감당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빛을 갚겠다고 나설 수가 없다. “그런데 어찌할꼬?” 이 빛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 죄로 인한 빛 앞에서 사람은 깊은 딜레마에 빠졌다.

동전의 양면 : 사람이 처한 딜레마

사람이 처한 딜레마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다.



❖ 사람이 끔찍이 싫어하면서도 항상 지니고 있는 것. 바로 ‘죄(罪)’이다. 죄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한 고통, 수치심, 죄책감 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된다.



❖ 사람이 절실히 필요로 하면서도 결코 가질 수 없는 것. 바로 ‘의(義)’이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면, 합당한 수준의 완전한 의로움이 필요하다.

당연히 두 가지 질문이 발생한다. 첫째, 사람은 어떻게 해야 죄를 벗을 수 있을까? 둘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완전한 의로움을 가질 수 있을까?

즉, 사람은 원래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의로운 존재로 지음 받았으나,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완전히 타락해 의로운 본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게 되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 의로움을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질문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을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본성 두 가지를 알아야 한다.

첫째,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이시다. 하나님은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시다. 죄가 없다는 말은 정의롭고 공평하다는 뜻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公義)’라고 말한다.

“그분은 반석이시요.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이는 그분의 길이 다 공의롭기 때문이라. 그분은 진실하고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이니 의로우시고 진실하시도다.”

신명기 32:4 KJV

하나님은 완전하신 재판관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준을 공정하게 적용하신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죄를 숨기거나, 거짓으로 증거를 꾸미거나 혹은 숨어 지낼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범죄자도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은 그것이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지금은 비록 숨겨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전도서 12:14 TKV

공의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본성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사편 89:14 KRV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 감사한다. 하지만 슬픈 일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는 죄의 대가를 요구한다. 죄에 대한 형벌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성경은 사람의 죄 값을 반드시 사망, 곧 죽음으로 갚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죽음이란, 죽음의 세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슬픈 소식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의 성품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

둘째,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공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또한 완전하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다.

❖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깊은 관심과 배려로 사람을 지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 하나님은 더 깊은 사랑을 사람에게 보여 주신다. 곧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사랑은 종종 은혜, 자비, 친절, 긍휼 등으로 표현된다. 우리 사람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보다 더 크고 완전한 사랑을 나타낼 수는 없다.

모순

여기에서 우리는 커다란 모순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 죄의 빛을 갚으라고 요구하신다. 이 죄의 빛 때문에 우리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러나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영원히 죽는 것을 바라보기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 두 성품은 똑같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공의를 무시하고 사랑만을 앞세울 수 없다.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공의를 지키시는 동시에 자신의 사랑을 베푸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로 사람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 심판으로 인해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사무엘하 14:14 KJV

‘우리는 반드시 죽으리니 마치 땅에 쏟으면 다시 모이지 못하는 물과 같사오나’

그러나 하나님의 또다른 성품, 즉 완전한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사무엘하 14:14

KRV

우리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영혼이 영원한 사망을 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죄를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구원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형벌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죄를 형벌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 해답을 준비해 두셨다.

교만

한 가지를 더 짚고 가자.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한 원인은 바로 그의 ‘교만’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때로는 교만을 자존심이라고 부르며 긍정적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성경은 이 교만이야말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주범이라고 말한다. 세상에는 자신의 교만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5 KRV

2 죄를 덮으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 그들이 처음으로 한 일은 스스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은 것이었다. 그러나 아담은 나뭇잎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자신이 벌거벗었다’, 곧 ‘드러나 있다’고 했다. 성경은 하나님의 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여호와와는 마음을 본다.”

사무엘상 16:7 AEB

그들은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겉모습을 가리려 했지만, 죄로 가득 찬 속마음을 가릴 수는 없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속까지 다 들여다보시므로 그들의 나뭇잎 옷을 인정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했다.

무엇으로 덮는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죄를 덮어 가리기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 하나님은 짐승을 죽여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그들에게 입혀 주셨다.

창세기 3:21 KJV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이것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영적 법칙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청각 교육이었다. 이 세상 처음으로 죽음을 목격한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끔찍한 경험이었을 것이다. 짐승이 피를 땅에 쏟으며 마지막 숨을 헐떡이다가 그 눈에서 광채가 사라진다. 이 장면에서 그들은 죽음이 무엇인지 확연히 깨달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죽음의 참혹한 현실, 그리고 사람의 죄를 가리려면 누군가 대신 죽어야 하는 법칙을 가르쳐 주셨다.

사람이 추방당하다

만약 그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면 죄인인 채로 영원히 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 내셨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된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흠에서 나왔으므로 흠을 갈게 하셨다.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창세기 3:22-24 KSV

*'우리' 라는 말에 주목하자.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말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 라고 하셨다. 왜 한 분 하나님이 '우리' 로 표현되는가? 또 하나님은 누구와 대화를 나누시는 것인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또다른 자비였다. 만일 사람이 죄인인 채로 영원히 살게 된다면? 창세로부터 오늘날까지 모든 죄인들이 죽지 않고 여태 살아 있다면? 생각만해도 끔찍한 일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동산 밖으로 쫓아내 육체적 죽음을 허락하신 것이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 죽음 너머의 일도 이미 생각하셨다. 하나님은 사람을 둘째 사망에서 구원하실 계획, 곧 영원한 불 못에서 구출해낼 길을 계획하신 것이다.

가인과 아벨 (162-163쪽의 계보 참조)

아담이 아내 하와와 함께 잠자리에 들어 하와가 아이를 가졌다. 그가 가인을 낳고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내가 사내아이를 얻었구나.” 하며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다. 그 뒤 하와는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창세기 4:1,2 TKV

가인과 아벨은 에덴동산 밖에서 죄인 아담과 하와의 자녀로서 죄인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다. 그들은 이미 태어날때부터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법을 어김없이 집행하시므로, 그들도 역시 자신들의 죄로 인해 죽어야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므로, 자비를 베푸셔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하셨다. 그 길은 동전의 앞뒤와 같이 두 가지 측면을 가졌다.



마음의 상태 : 하나님을 믿음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진리임을 믿어야 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구세주가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죄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정말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그것이 진실인가? 가인과 아벨은 각자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다.



나타난 증거 : 믿음의 증거를 보임

또 그들은 자기 죄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믿는지를 증명해야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믿음의 증거를 생생하게 나타내보이라고 말씀하셨다.

성경을 깊이 보면, 누군가가 가인과 아벨에게 짐승을 죽여 그 피를 *제단에 바칠 것을 가르쳐 주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짐승을 죽여 희생제물로 바친다는 것 자체가 끔찍한 이야기처럼 들린다.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지시하셨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제단은 돌이나 흙을 쌓아 만들었는데, 그 위에 희생 제물을 놓고 바치는 곳이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22 KRV

사람의 죄 값은 반드시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였다. 그러나 왜 꼭 피를 흘려야만 하는가?

“모든 생물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이것을 단에 뿌림으로써 너의 생명을 속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이 피가 죄를 속하는 것이다.”

레위기 17:11 KLB

피의 제사의 개념을 두 가지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첫째, 형벌을 대신함 - 대속(代贖/Substitution) :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해 죽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래에 있을 '어떤 사건' 을 기억하도록 하시며, 그때까지는 사람의 죽음 대신 짐승의 죽음을 받아주시겠다고 하셨다. 이것이 '대속' 이다. 그것은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하는 법, 즉 죄인을 대신해 어떤 짐승이 죽는 희생 제사를 의미했다. 희생 제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었음을 나타낸다.

그런데 왜 희생 제사는 꼭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를테면, 그 짐승을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면 안 되는가?

둘째, 죄를 덮음 - 속죄(贖罪/Atonement) : 하나님은 피로써 죄의 값을 대신 갚는다고 하셨다. '속죄' 란 말의 원래 의미는 '죄를 덮어 가린다' 는 뜻이다. 그 피가 사람의 죄를 덮어 가리면,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더 이상 죄를 찾지 않으신다. 그 때 사람은 의로운 자로 여겨져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된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회복된다. 물론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여전히 죽겠지만, 죄의 결과로 둘째 사망(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지옥 '불 못')은 당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사망을 대신하는 '대속' 과 죄를 덮어 '속죄' 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사람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된다.

속죄 : 죄를 덮어 가림

'속죄(죄를 덮어 가린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의 법은 죄에 대한 형벌로서 죽음을 요구한다. 하나님은 흠 없는 완전한 희생제물의 죽음을 보실 때 자신의 법이 공의롭게 집행되었음에 만족하신다.

그러나 짐승의 희생이 과연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다. 사람은 여전히 죄인인 채로 남아 있다. 그렇다면 그 희생제물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그것은 죄의 용서를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과 피흘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피흘림은 속죄, 즉 죄를 덮어 가리는 것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아담과 하와를 가죽 옷으로 가려 주신 것은, 그 죄가 피로 덮어질 때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 그 짐승의 피를 보실 때 하나님은 속죄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죄가 가려진 것으로 여겨주신다. 그래서 그들은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짐승의 제사를 통해 그들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했다.

하나님의 요구와 지시사항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었다면, 이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로 돌아가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 보자.

두 가지 다른 제물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창세기 4:2-4 KRV

가인과 아벨이 각자 하나님께 제물을 갖고 나아왔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두 사람 다 제물을 가져 왔지만 각기 다른 것을 가져 온 것이다.

아벨은 짐승을 잡아서 그 피와 기름을 가져왔다. 아벨은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들은 그대로 옳게 행했다. 그러나 가인은 땅에서 자란 결실을 가져왔다. 식물은 피를 흘릴 수 없다. 가인은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고 합당하지 않은 것을 가져왔다.¹ 가인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했다. 가인의 자기 방식은 아담이 처음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던 것과 같은 것이었다.



하나님의 거절

여호와께서는 아벨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으나,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다.

창세기 4:4,5 KLB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가인은 두 가지 잘못을 저질렀다.

첫째, 가인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다. 바로 그가 가져온 제물이 그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둘째, 가인은 자기 방식으로 행동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른 관계를 맺는 일에 관해 사람의 생각을 인정하지 않으신다. 비록 좋은 의도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람의 방식을 받지 않으신다. 죄인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메울 수 없다.



우리는 대개 독립적인 사고방식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독립성에서 취할 좋은 점들도 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독립적 사고방식은 대개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이다. 어떤 관계든지 “내 방식대로” 라는 생각이 개입되면, 그 관계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 왜냐하면 내 방식으로는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서며, ‘내가’ 더 큰 이익을 취하려 들기 때문이다. 내 방식대로 어떤 관계를 만들면, 그 관계는 좋은 관계로 발전하기 어렵다.

가인은 자기 생각, 즉 “내 방식대로” 행했다. 그는 하나님께 무엇을 갖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의 받으심

아벨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물을 갖고 나아왔다. 그는 양의 첫 새끼를 죽여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아벨이 자기의 죽음을 대신하는 희생제물을 드린 것은, 죄의 형벌에서 자신을 구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증거였다. 아벨이 그 약속의 구원자가 언제 오실지,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실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죄 문제의 해결에 관해 확실히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점이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1:4 KRV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왔을 때, 그의 제물은 속죄, 곧 죄를 덮어 가리는 일을 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보실 때 그의 죄를 보지 않으셨다. 더 적절한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그의 죄에 대해 눈을 감으셨다. 그 때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너그러우신 하나님

이 일로 인해 가인은 하나님께 대해 몹시 불만을 품게 되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색이 변하였다. 주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색이 변하는 까닭이 무엇이나?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을 펴지 못하느냐? 그러나 네가 옳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창세기 4:5-7 KSV

하나님은 가인이 스스로 화를 자초했으며, 죄의 본성이 그를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친절히 설명해 주셨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올바르게 해야 함을 분명히 일러 주셨다. 여기서 우리는 가인이 어떻게 대답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의 안색이 불만에 차 있었던 것은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질문 또 질문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고 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죽이고 말았다. 그 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 4:8,9 KLB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계속되는 질문을 던지셨던 것처럼 가인에게도 계속 질문을 던지셨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히 아셨다. 다만 가인에게 그의 입으로 모든 것을 고백할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러나 가인의 대답은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그의 속마음을 드러냈다.

가인 : “나는 모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 :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동생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

창세기 4:9,10 KLB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길 수 없다. 그러나 가인은 자기가 살인한 사실을 고백하기보다는 교묘히 빠져나가 보려고 했다. 하나님은 가인을 지목하셨다. “네가 그랬다!” 이 대목에서 가인이 조금이라도 자책감을 느꼈다는 기록은 없다. 하나님은 가인을 즉시 심판하실 수도 있었지만, 너그

렵게도 그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 주셨다. 하나님의 계속되는 자비였다.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수치스러운 사건으로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다시 주신 아들, 셋 (162-163쪽의 계보 참고)

아담의 아내는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하나님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나에게 다른 아들을 주셨다.' 하며 그 이름을 '셋' 이라고 지었다.

셋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창세기 4:25,26 KLB

'셋' 도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긴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셋은 아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하나님은 셋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 구원자를 보내실 계획이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사람의 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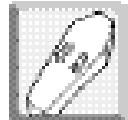
이제 아담의 이야기가 끝날 때가 되었다. 성경은 아담이 대가족을 이루고 오래 살았다고 말한다. 어떤 학자들은 당시 지구는 온실과 같은 상태로 자외선과 같은 해로운 광선을 차단해 퇴행성 돌연변이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며, 그로 인해 사람은 매우 오래 살았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러한 이론들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져,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사람의 유전적 생존 한계, 곧 사람의 수명이 옛날에는 훨씬 길었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즉 원래는 사람 수명의 시계가 지금보다 훨씬 더 길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럼 무엇이 사람의 수명을 줄이는 변화를 가져 왔을까? 그것은 바로 다음에 살펴 볼 것이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이 아담에게서 실현되었다.

아담이 셋을 낳은 뒤의 생애는 팔백 년이었으며, 그가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아담의 전 생애는 구백삼십 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창세기 5:4,5 KJV



죽음

셋과 가인은 누구와 결혼했나?

성경은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아들딸들이 여럿 있었다고 말한다. 당시는 형제와 자매가 서로 결혼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때는 사람들의 동일 유전자로 인해 유해한 돌연변이 인자가 별로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아직 근친결혼으로 인한 이렇다 할 해로운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후에 성경은 근친결혼을 엄격히 금지했다.

(레위기 18장 참고)

아벨은 죽은 후에 어디로 갔을까?

아벨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은 어디로 갔을까? 이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은 없지만, 우리는 성경의 다른 부분을 통해 ‘낙원’이라는 곳으로 갔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당시의 시점에서 ‘낙원’과 ‘천국’은 같은 장소가 아니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 이 두 곳이 같은 장소라는 데는 의견이 일치한다.

성경은 천국에 대해 많은 설명을 하지는 않는다. 아마 한 치 앞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우리 사람의 머리로는 천국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일지 모른다. 하나님은 성경의 기록자 한 사람에게 천국을 보여 주셨는데, 그는 천국을 이 세상 글로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어 매우 상징적으로 묘사했다. 성경은 천국을 사람들이 영원히 살게 될 실제적 장소라고 말한다. 그 천국에서는 어떤 죄의 본성도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다.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만드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27 KJV

천국에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로움을 입게 될 것이다. 어느 성경 기록자가 그 날을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17:15 KRV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의 특별한 사랑의 관계도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요한계시록 21:3 AEB

또 우리 인생에 속한 모든 것들이 완전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음이라.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요한계시록 21:4,5 KJV

천국에서는 장례식의 오염도, 깨어진 인간관계도, 상처를 주고 받는 일도, 병원에 가는 일도, 집 없이 떠도는 일도, 육신의 고통도, 목발이나 지팡이의 불편함도 없을 것이다. 천국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장소일 것이다.

“주의 눈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11 KJV

천국에서 우리의 영원한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을 것이다. 또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알던 사람들을 천국에서도 알아본다고 가르쳐 주고 있다.

천국에는 큰 도시로 표현되는 곳이 있다. 성경에 기록된 수치대로 계산하면, 그 도시의 25%만 사용한다 해도 줄잡아 2백억 명이 그 도시에서 살 수 있다. 그 도시의 이름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린다.

“천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매우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는 내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둘러싸여, 귀한 보석과 수정과도 같이 맑은 벽옥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성에는 열두 대문이 있는 높고 큰 벽이 둘러싸여 있었고, 각 문에는 열 두 천사가 지키고 있었고,”

요한계시록 21:10-12 AEB

“그 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성문이 닫히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25 KLB

“열두 대문은 각각 한 개의 커다란 진주로 만들어졌고, 성의 거리는 유리처럼 맑은 순금으로 ...”

요한계시록 21:21 AEB

“그 천사는 또 내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 나와,”

요한계시록 22:1 AEB

이 하늘 나라의 도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도시와도 다른 곳이다. 공해도 없고, 도둑이나 범죄, 공포도 없는 완벽한 도시다. 모든 천국 시민들이 영원히 그 곳에서 살 것이다.



영원한 생명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무궁 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5 KSV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시편 23:6 AE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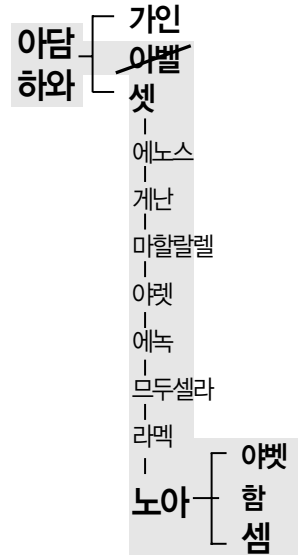
이 천국에 대해서는 후에 또 보기로 하자. 다음의 성경 구절은 천국을 직접 설명하는 대목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늠은 할 수 있게 해 준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고린도전서 2:9 KSV

3 대재앙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기록을 놀라운 기적의 연속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에서도 기적은 예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수백 년 동안 이렇다 할 사건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열 세대가 지났을 때,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는 사람의 수명이 길었으므로 인구도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졌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그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자.



오랜 세월이 지나갔으나,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 주신다는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 또 각 세대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세상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난 데 비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수는 많지 않았다. 성경은 소수를 제외하고는 그 시대 사람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다고 말한다.

악해지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역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생각과 힘으로 온갖 쾌락을 누리며 사탄을 따르고 있었다. 성경의 기록을 보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땅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이 당시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악하고 부패하여 세상은 온통 죄로 가득 차 있었다.

창세기 6:5,11,12 KLB

오늘날 TV에서 방영되는 뉴스는 불안, 혼란, 전쟁, 폭력 같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 그 당시 사회도 또한 그랬던 것으로 보인다. 성경은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것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한다. 죄악이 깊어지고, 타락과 혼란이 더해가면서 세상은 사람이 살기 힘든 사악한 곳이 되어 갔다.

이기적인 삶

또한 성경은 그 당시 사람들은 이기적인 삶에만 몰두했다고 한다.²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더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사

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하나님의 계획을 비웃으며,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도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외면하려는 사람의 악한 생각은 더해갔다. 하나님과 사람사이의 무너진 간격을 회복시키려는 시도도 찾기 힘들어졌다. 사람의 마음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지면서, 죄는 인생에서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요, 또 스스로 지혜 있다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 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들 마음의 정욕대로 부정함에 내어 주사 자기 몸을 서로 욱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음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런 애정에 내어 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으며,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욱정이 불 일 듯 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음이니라.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 주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들은 곧 온갖 불의와 음행과 사악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 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을 꾸미는 자요, 부모를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타고난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³

로마서 1:21-32 KJV

한 마디로 이 시대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죄에 팔아버리는 삶을 살았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죄에는 반드시 그 결과가 따른다. 이것은 변치 않는 영적 법칙이다.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면 다리가 부러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묵인하지 않으신다. 아니, 묵인하실 수가 없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악함을 한탄하셨다고 말한다.

그 결과 하나님은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고 결정하셨다.’

창세기 6:7 KSV

하나님을 외면한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어떠한 논리와 철학을 만든다 해도, 또 어떠한 이유와 핑계를 마련한다 해도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

노아 (162-163쪽 계보 참고)

그러나 당시에든 죄악에 물든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노아였다.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썸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다.

창세기 6:8-10 KSV

노아는 올바른 삶을 살고 있었다. 노아 역시 죄와 사망의 법칙에 따라 당연히 자기 죄 값으로 죽어야 하는 죄인이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이것은 그가 죄로 인한 형벌, 곧 자신의 죽음을 대신할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고 믿었던 증거로 보인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믿었다.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고 한다. 이렇듯 노아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었고,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타낸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 하여라.”

창세기 6:13,14 KSV

구원의 길을 주심

하나님은 노아에게 배를 한 척 지으라고 말씀하셨다. 이 배는 항해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 배는 오늘날의 2~3만 톤급 화물선과 비슷한 크기의 큰 배였다. 거기에는 삼 층 갑판과 환기를 위한 창문 그리고 출입문이 있었다. 특이한 것은, 그 배의 문이 오직 하나뿐이었다는 점이다. 배의 안쪽은 송진으로 방수처리를 해 물 새는 곳이 없도록 완벽하게 만들었다.⁴

이 배는 길다란 사각형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방주(方舟)'라고 불렸다. 이 방주는 1844년 '그레이트 브리튼' 호를 지어 똑같은 크기로 방주를 재현해 볼 때까지 역사상 사람이 지은 배 중에서 가장 큰 배였다. 이 방주의 안전성은 치수와 비율에서 지금도 대형 선박의 이상적인 설계로 여겨지고 있다. 이 방주의 목적은 빨리 항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만 잘 떠 있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쓸어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언약 : 합의, 약속, 또는 계약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짐승도 수컷과 암컷으로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 남게 하여라. 새도 그 종류대로, 짐짐승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온갖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모두 두 마리씩 너에게로 올 터이니 살아 남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먹을 거리를 가져다가 쌓아 두어라. 이것은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창세기 6:17-22 KSV

믿음은 순종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다. 하나님의 지시를 이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선 노아는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었고, 더욱이 이런 초대형 선박은 구경해 본 적조차 없었다. 게다가 이웃들에게 세상을 휩쓸 홍수가 닥친다고 어떻게 설명한단 말인가?

하나님은 1백 2십 년후에 대홍수가 닥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⁵ 노아는 그 동안 배 짓는 작업을 계속하며 다가올 심판을 사람들에게 경고했다.⁶

한편, 대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대개 수백 세가 되도록 살았다고 한다. 사람들이 것처럼 장수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측들이 있다.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고 다만 실제 있었던 사실만 기록되어 있다. 당시 사람들의 긴 수명을 고려한다면, 방주를 짓는 데 소요된 1백 2십 년은 그리 긴 기간이 아니었다. 그러나 홍수가 끝난 뒤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히 단축되어 90세 정도면 아주 노인으로 여겨졌다.

대홍수가 사람의 수명과 지구의 기후 및 지리에 미친 영향이라든지, 방주에 실린 생물들이 어떻게 생존했는지를 연구한 자료들이 많이 있다. 대개는 성경의 설명과 과학적 관찰에 기초를 두고 연구한 것들이다. 그러나 그런 연구 자료를 소개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은 아니므로, 여기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고 부록에서 참고자료를 소개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모든 가족과 함께 배로 들어가거라. 이 세대에서 네가 의로운 자임을 내가 보았다.”

창세기 7:1 KLB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하였다.

창세기 7:5 KLB

바로 그 날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그들과 함께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집짐승이 그 종류대로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이 그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이 그 종류대로 방주로 들어갔다.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의 수컷과 암컷이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께서 문소 문을 닫으셨다.

창세기 7:13-16 KSV

단 하나의 문

모든 생물을 방주에 싣는 데 7일이 걸렸다.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생물이 종류마다 한 쌍씩 방주 안으로 들어왔다. 현재 멸종된 종류의 동물까지 다 싣는다 해도 그 방주의 60% 정도 공간이면 충분했을 것이다.⁷ 나머지 공간에는 동물들의 먹이를 적재했다. 덩치가 큰 짐승의 경우는 어린 새끼를 싣었을 것이며, 그렇다면 공간은 더욱 여유가 있었을 것이다. 급격히 낮아진 온도로 인해 어떤 짐승은 동면을 하므로 식량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선택하신 생물들의 생명이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하셨다.

방주에 싣는 일이 끝나자,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 드디어 대홍수가 시작되었다.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고, 땅에서도 물이 솟구쳐

올라 왔다. 밖에서 아무리 방주의 문을 두드려도, 노아는 그 방주의 문을 열 수 없었다. 반면에 그 엄청난 홍수 속에서도 방주의 문이 열리거나 부서질까 봐 걱정할 필요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친히 방주의 문을 닫으신 이상 문 안쪽에 있는 그들은 절대적으로 안전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그 하나뿐인 문을 통해 방주 안으로 들이셨고, 거역한 사람들을 문 밖에 버려 두셨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1백 2십 년의 말미를 주셨다. 사람들에게는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노아 가족을 비웃고 조롱했다. 선택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사람들은 때때로 위협만 하고 그 위협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

노아가 육백 살 되는 해의 둘째 달, 그 달 열이렛날 바로 그 날에 땅 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 문들이 열려서 사십 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로 쏟아졌다.

창세기 7:11,12 KSV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들

폭풍우 속에서 한 노인이 나룻배 위에서 짐승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림을 본 적이 있다. 이것은 아마 노아와 방주에 대한 묘사로 보이는데, 이런 장면은 실제 상황과는 거리가 있다. 그 때 혹시 누가 방주 바깥에 나와 있었다면, 온 세상을 강타한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칠 때 곧바로 떨어져 죽거나 정신을 잃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땅이 갈라지며 엄청난 양의 물이 뿜어져 올라왔다. 성경은 땅 속 깊은 샘들이 터져 나왔다고 말한다. 엄청난 압력이 땅속의 물을 땅 위로 밀어 올렸던 것으로 보인다. 하늘에서는 대기층의 물이 쏟아져 내렸다. 지구 표면이 여기저기 터지면서 거대한 화산 활동도 일어났을 것이다. 이 지각 변동으로 인해 대륙 이동이라는 엄청난 사건도 일어났을 수 있다. 판구조론을 연구하는 어느 지질학자는 대륙 이동의 과정을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삼차원 모델로 발표했다.⁸ 거대한 균열이 일어나는 동시에 지구 표면의 일부가 내부 깊숙이 밀려들어가 해저와 대륙을 뒤집어 놓았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에서 홍수를 나타내는 히브리어는 특별한 ‘대홍수 재앙’을 뜻한다. 히브리 성경에서 이 단어는 오직 한 번 노아 때의 홍수를 설명하는 경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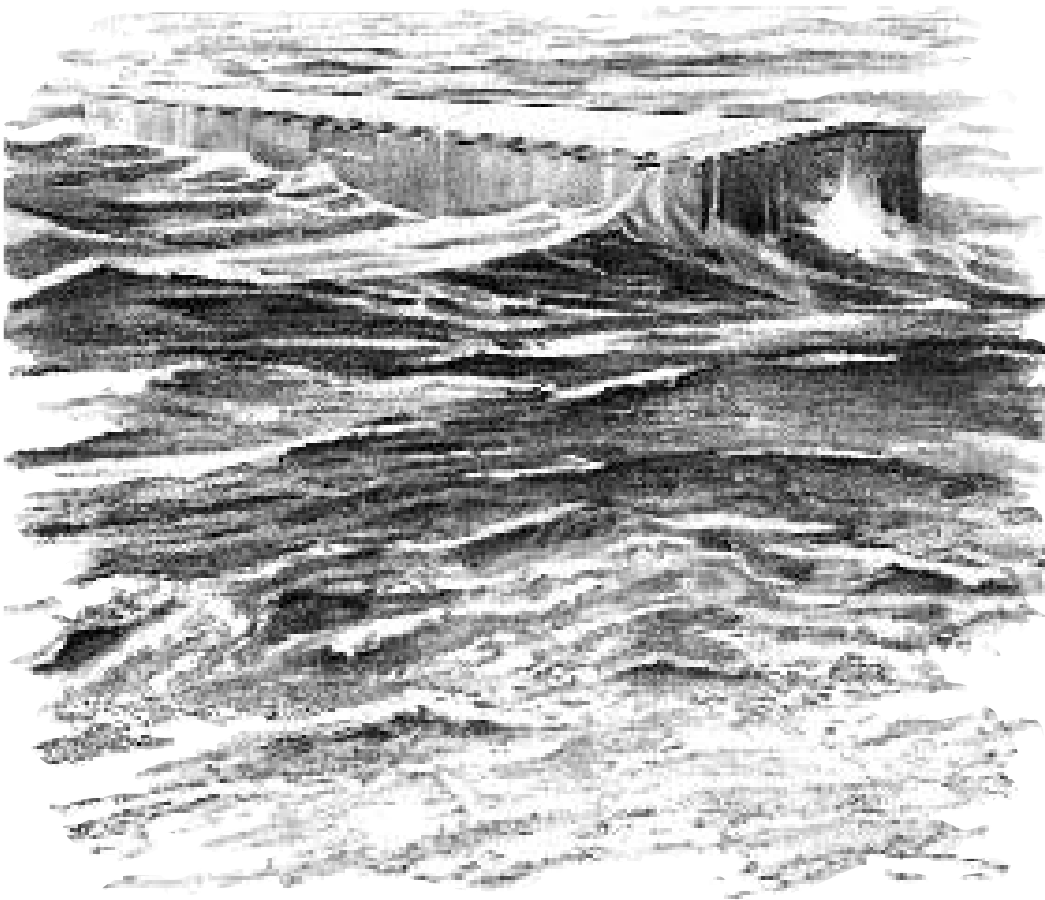
한정해 사용되었다. 이것과 견줄 만한 또 다른 홍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대홍수와 관련해 과학적인 설명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먼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큰 홍수를 내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이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대홍수는 40일 동안 지속되었다. 성경의 기록으로는 땅 속의 깊음의 샘들로부터 1백 5십일 동안 계속 물이 뿜어져 나왔다고 한다.

땅 위에서는, 홍수가 사십 일 동안 계속되었다. 물이 불어나서 방주가 땅에서 높이 떠올랐다. 물이 불어나서 땅에 크게 넘치니 방주가 물 위로 떠다녔다. 땅에 물이 크게 불어나서 온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 물에 잠겼다.

창세기 7:17-19 KSV

마른 땅 위에서 코로 숨을 쉬며 사는 것들이 모두 죽었다. 이렇게 주께서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을 없애 버리셨다. 사람을 비롯하여 짐승까지, 길짐



승과 공중의 새에 이르기까지 땅 위에서 모두 없애 버리셨다. 다만, 노아와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짐승들만이 살아 남았다. 창세기 7:22,23 KSV

그 때에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땅 속의 깊은 샘들과 하늘의 홍수 문들이 닫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그쳤다. 땅에서 물이 줄어들고 또 줄어들어서 백오십 일이 지나니 물이 많이 빠졌다.

창세기 8:1-3 KSV

대홍수 이전에는 산들이 지금처럼 높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오늘날 지구 표면을 골고루 편평하게 다듬을 수 있다면, 물이 대략 3km 정도 높이로 지구 전체를 덮을 수 있다고 한다. 아마 대홍수 때에 산들이 높이 솟아올랐고, 골짜기들이 가라앉아 깊은 해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웃을 입히듯이 깊은 물로 땅을 입히시니 물이 산들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들이 물러갔습니다. 물들이 산들을 넘어 물러가 계곡으로 내려갔습니다. 주께서 정해 주신 곳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주께서 바닷물의 경계선을 정하사 물이 넘치지 못하게 하시고 다시는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104:6-9 AEB

달라진 지구

대홍수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친히 열어 주셨다. 그 때까지 노아와 그 가족은 371일 동안 방주 안에 있었다. 물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하고, 방주는 산기슭에 걸려 있었다. 그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땅은 말라 있었고, 식물은 다시 열매를 맺고 있었다. 그 때의 땅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모든 육체 중에서 너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날짐승과 가축과 땅 위에서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 내어 그들로 하여금 땅에서 풍성히 번식하며 땅에서 다산하고 번성하게 하라.” 하시니, 노아가 자기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나갔고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날짐승 중에서 취하여 제단 위에 번제 헌물을 드렸더니 주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창세기 8:15-18,20,21 KJV

하나님의 언약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처음으로 한 일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흠 없는 짐

승을 잡아 피의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다. 물론 피의 제사가 사람의 죄를 없애지는 못한다. 그러나 이 희생 제사는 사람의 죄 값을 치르기 위해 반드시 피흘림(죽음)이 필요한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것은 노아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 그와 그의 가족을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믿었다는 분명한 증거였다. 하나님은 그러한 노아에 대해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창세기 9:1 KLB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창세기 9:9,11-13 KSV

하나님은 다시는 이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 또 비가 올 때마다 나타나는 무지개가 그 약속의 징표라고 하셨다. 대홍수 이후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 오셨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 되었다.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인데, 이들에게서 인류가 나와서 온 땅 위에 퍼져 나갔다.

창세기 9:18,19 KSV

이제 인류는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고 있었다.

노아는 모두 구백 오십년을 살고 죽었다.

창세기 9:29 KSV

공룡, 화석, 석탄, 석유 등은 어떻게 나타난 것인가?

성경에서는 공룡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는다. 이 단어는 그다지 오래된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1841년 영국의 한 해부학자가 이 공룡이란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구약성경에는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동물들이 여러 군데 출현한다. 성경에 언급된 두 가지 거대 동물은 흥미롭게도 근래에 발견되는 화석 자료와 일맥상통하고 있다.⁹

성경의 내용대로라면 하나님께서 공룡을 지으셨으며, 그 공룡은 사람과 함께 존재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공룡은 파충류의 일종으로 보이는데, 대부분의 파충류는 죽을 때까지 성장을 계속하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그 당시 공룡도 사람들처럼 *긴 수명을 가졌다고 본다면, 그 거대한 덩치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9백년 이상 살았다.

성경은 땅 위의 모든 생물이 종류대로 두 마리씩 방주 안으로 들어왔다고 말한다. 공간을 아끼고 번식 기간을 최대한 길게 하기 위해, 주로 어린 새끼들이 들어왔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공룡 종류의 평균 크기는 작은 망아지 정도이다. 그 때 큰 공룡일지라도 갓 태어난 것은 축구공보다 크지 않았을 것이므로 방주에는 생물을 위한 공간이 넉넉했다.

그 공룡이 왜 멸종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추측이 있다. 최근 몇 십 년 동안에도 많은 생명체가 멸종되었지만, 우리는 그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하물며 수천 년 전의 일이라면 더욱 난감하다. 대홍수 후에 기후가 급격히 변했다면, 아마도 공룡과 같은 거대 동물은 생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대홍수는 지금 우리가 자연 세계에 대해 갖는 많은 의문에 해답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대홍수로 인해 생겨난 엄청난 양의 퇴적물, 깊은 물의 높은 수압, 방대한 양의 침식 현상 등은 석탄이나 석유 그리고 화석의 형성 과정을 설명해 준다. 많은 종류의 화석은 그것이 지각의 변동 때 순간적으로 매장되었을 가능성을 나타내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하다. 물고기 화석처럼 잘 보존된 것은, 그것이 부패균, 박테리아 등에 의해 서서히 파괴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묻혀, 곧이어 뒤덮은 퇴적층이 신속히 거대한 압력을 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4 바벨의 탑

창세기 제10장에는 민족과 국가 형성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민족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밝혀 준다. 그런 후 창세기 제10장은 다음과 같이 끝난다.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노아의 후손들이며 이들은 홍수 후에 여러 나라와 민족으로 나누어졌다.

창세기 10:32 KLB

또다시 수백 년이 지났고, 지구상의 인구도 상당히 늘어났다. 역사가들이 문명의 요람이라고 부르는 지역으로 이동해 보자. 그곳은 ‘바벨’이라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에 해당한다.



처음에 온 세상은 하나의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바빌로니아에 있는 한 평야에 이르러 거기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들은 “자,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하고 서로 말하며 돌 대신 벽돌을 사용하고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하였다.

그들은 또 “자, 성을 건축하고 하늘에 닿을 탑을 쌓아 우리 이름을 떨치고, 우리가 사방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하고 외쳤다.

창세기 11:1-4 KLB

사람들의 계획

대홍수가 끝난 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창세기 9:1 KLB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려 들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자기들의 계획을 추가하려고 했다.

첫째,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 살면서 큰 도시를 건설하려고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었다. 다시 한 번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듯이, 사람은 ‘순종’에 관한 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따로 가르친 적이 없는데도, 어린 아이들이 아빠 엄마에게 불순

종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배웠을까? 그것을 궁금하게 여긴 적은 없는가?

사람의 불순종은 지극히 자연스럽게 시작된다. 불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자연본성이기 때문이다. 본성적으로 사람은 누구의 지시를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한다. 바로 이것이 바벨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문제였다.

둘째, 사람들은 도시를 건설할 뿐 아니라 탑을 쌓아 스스로 영광을 누리려 했다. 그들은 '우리 이름을 떨치고' 싶다고 했다. 창세기 11:4 KL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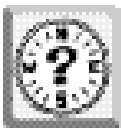
우리도 사탄의 은밀한 속삭임에 저항하기 힘든 순간을 많이 경험한다. 바로 그것이 사탄의 속임수인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그들의 계획이 하나님 앞에 전혀 옳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자! 사람이 스스로 대단한 존재가 되려 하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 할 때는 언제나 '교만'이라는 죄의 본성이 그 뒤에 도사리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오히려 편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마음 속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사람이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는 시도를 하기는 상당히 괴롭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시도만큼 우스꽝스러운 일도 없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셔야 마땅하다고 말한다.

사람의 계획은 그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다. 사람은 또다시 가장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기를 시도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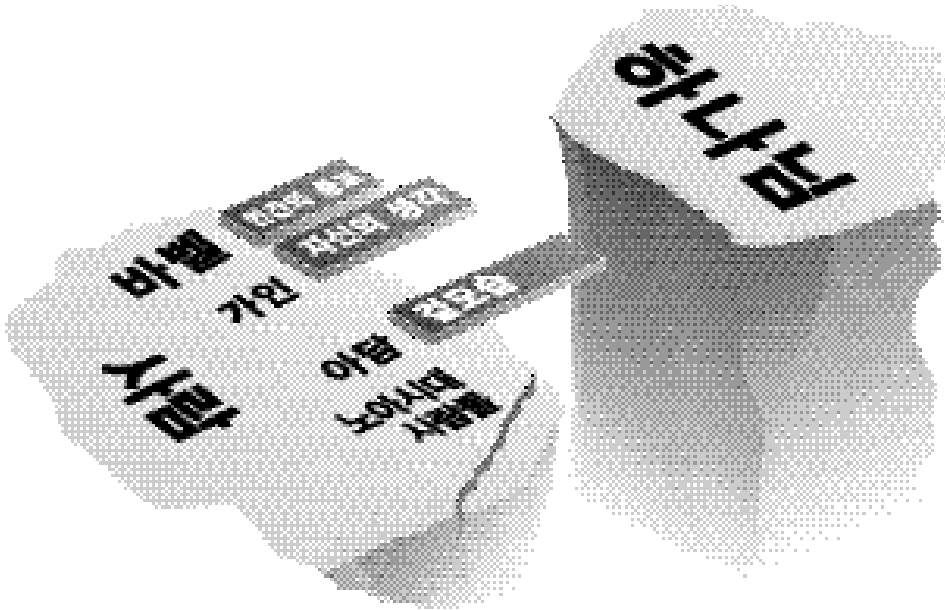


바벨의 사건은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종교를 만들기 시작한 첫 번째 사건이었다. 바벨은 '바빌론'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이름은 교만한 사람들의 '종교적 노력'에 대한 예화로 종종 등장한다. 바벨에서 사람들은 탑을 하늘 높이 쌓아 올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사람의 방법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시도였다. 사람들이 뜨거운 불벌 더위 아래 진흙을 개어 벽돌을 굽고 타르를 발라붙이며 땀을 뻘뻘 흘리는 장면을 상상해 보라! 하늘에 도달하려는 그들의 노력은 사람이 동원 가능한 모든 능력이 투입된 대단한 역사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일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길을 잃음

'종교'라는 단어의 적절한 정의는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사람 스스로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은 본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본성 또한 매우 종교적일 수밖에 없다.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이르고자 지속적으로 새로운 종교적 노력을 시도한다. 그러나 그 모든 시도는 결국 이루어질 수 없는 일로 끝나고 만다.



영적으로 볼 때 사람은 광야에서 길을 잃은 자들이요, 자기 힘으로는 집으로 돌아갈 길, 곧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다. 즉 사람 스스로는 죄를 벗어 버릴 수가 없으며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종교들’과는 대조적으로, 성경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오직 한 길’이요, 그 길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실 것이라고 한다. 곧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사람들에게 오셔서 죄의 형벌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다고 가르쳐 준다.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 한분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진정한 구세주가 되실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방책을 베푸셔서, 비록 내어쫓긴 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신다고 말한다.

사무엘하 14:14 KSV

바벨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노력을 동원해 탑을 쌓아올리고 도시를 건설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요란스런 작업이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바벨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미 다 아셨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이 쌓는 성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셔서¹⁰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들은 한 민족이며 하나의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저들이 이런 일을 시작하였으니 앞으로 마음만 먹으면 해내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창세기 11:5,6 KLB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 곧 한 가지 언어로 의사소통을 할 때에 사람의 기술진보가 훨씬 빨라진다는 사실을 잘 아셨다. 또 그 결과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도 아셨다. 즉 기술이 진보하고 살기가 편해질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유 의지를 사람에게 주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택해 살라는 뜻이 아니다.

사람들이 흩어지다

이 이야기 속에 인간 역사의 모든 것이 잘 설명되어 있다. 사람의 반항에 대해 하나님께서 무슨 행동을 취하셨는지 알아보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 *우리가 가서 저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세상에 흩어 버리시므로 그들은 성 쌓던 일을 중단하였다.

창세기 11:7,8 KLB

*다시 한 번 ‘우리’라는 말에 유의하라. 성경은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심을 분명히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 ‘우리’란 과연 누구인가?

아메리카 인디안 종족들이 아시아로부터 알류산 열도의 좁은 해협을 통해 이주해 왔다는 이론이 있다. 학자들은 일부 언어의 연관성을 근거로 이러한 이론을 주장한다. 그러나 언어학 연구를 통해 종족 집단 간의 어떤 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북극권 그린랜드로부터 아마존 정글 오지에 이르기까지 언어학적으로 고립된 작은 집단이 무수히 발견되는데, 왜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이 그토록 멀리 떨어진 곳까지 흩어지게 되었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데 언어학적 연구만으로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해 성경은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셨기 때문에, 인류는 역사 속에서 세계 각지로 흩어져 간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공급해 주셨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좁은 해협을 건넜든지 혹은 다른 길로 갔든지, 하나님은 새로운 언어를 주셔서 사람들을 흩으셨다. 하나님은 그 일을 완벽하게 진행하셨다. 다른 언어를 한 번 배워 본 사람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게 된다. 하물며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 내는 일은 얼마나 더 힘든 일인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어떤 언어는 너무 복잡해서 숙련된 언어학자라도 몇 년을 소비해야 간신히 윤곽을 파악하는 정도이다. 또 설령 파악했다 하더라도 그 언어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또다른 작업이다.

사람들이 건설하던 그 도시의 유적은 지금도 남아 있다. 그 도시의 이름 ‘바벨’의 뜻은 ‘혼잡함’이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세상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 버리셨기 때문에 그 곳을 ‘바벨’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창세기 11:9 KLB

인종은 어떻게 나뉘었을까? ¹¹

어떤 의미에서 인종은 오직 하나, 인류 그 자체이다. 성경은 인류를 민족이나 종족으로 분류하지, 피부색이나 신체적 특징에 따라 분류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피부색의 차이나 신체적 차이는 엄연히 존재하는 사실이다. 어떻게 된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피부 자체에 여러가지 색깔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피부는 본질적으로 한 가지 색깔로 되어 있다. 다만 피부에 포함된 멜라닌의 양이 다를 뿐이다. 멜라닌의 분비가 적으면 흰색 피부가 되고, 멜라닌이 많으면 검은색 피부가 된다. 물론 멜라닌 외에도 피부색을 결정짓는 몇 가지 요인들이 더 있다. 그러나 그 요인들이 어떤 특정 인종에게만 유일하게 나타나는 적은 없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흑인이 백인과 결혼하면, 1대 자녀는 갈색 피부를 갖는 것이 보통이다. 그 자녀들끼리 결혼하면, 그 다음 2대 자녀는 예측할 수 없다. 검은색 피부일 수도 있고, 흰색 피부일 수도 있으며 혹은 갈색 피부일 수도 있다. 왜 그럴까? 그 자녀들은 부모들로 인해 이제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색깔을 낼 수 있는 유전자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만일 2대 자녀 중 검은색 피부의 자녀가 역시 검은색 피부를 가진 사람과 결혼한 다음, 흰색 피부 사람들을 전혀 만날 수 없는 지역으로 이주해서 계속 대를 이어갔다고 하자. 그 다음 세대들은 항상 검은색 피부만을 갖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제 흰색 피부의 유전자가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반대편 흰색 피부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들도 같은 원리로 이제 더 이상 검은색 피부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유전자가 없게 된다. 이렇게 고정된 유전자는 새로운 유전자가 더해지지 않는 한, 같은 색의 피부만을 계속 유전하게 된다.

이와 같이 유전자 형질이 고정되는 현상은 불과 몇 세대 만에 발생할 수 있다. 위의 설명은 아주 간단히 요약된 것인데 피부색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개입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에는 충분할 것이다. 지금 피부색을 예로 들었지만, 눈이나 코의 모양, 머리결의 특징, 몸의 크기와 골격 등의 차이도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된 것은, 세상의 모든 민족이 노아와 그 아들들로부터 다시 시작된 사실이다. 그들의 피부색이나 신체적 특징이 어떠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들에게 피부색 등 신체적 특징을 나타내는 공통 유전자가 있었다는 점이다.



6장

1 복을 받으리라

2 믿음

3 외아들

1 복을 받으리라

세상 사람들의 언어가 혼잡케 된 이후로 여러 세대가 지나갔다.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로 한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셨으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 약속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러나 각 세대마다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브람’과 ‘사래’라 하는 부부가 있었다.

창세기 11:30 KLB

사래는 아이를 낳지 못해 자식이 없었다.

아브람의 고향은 바벨의 남쪽에 있는 ‘우르’라는 도시였다. 여기에서 아브람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옮겨갔다. 이 때 조카 롯도 함께 갔다. 하란에서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사무엘하 14:14 KS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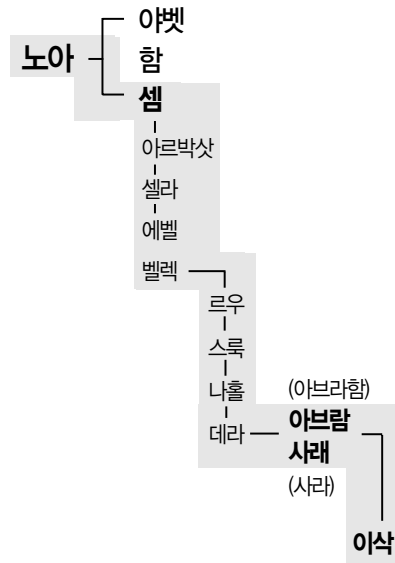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그래서 아브람은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대로 롯과 함께 하란을 떠났는데, 그 때 그의 나이는 75세였다.¹

이 여정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었다. 당시에는 지도책도 없었고, 안내하는 여행사도 없었다. 더욱이 아브람은 이 여행의 목적지조차 알지 못했다. 아브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했다. 나중에 알게 된 그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 오늘날의 이스라엘 지역이었다.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 아브람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창세기 12:5,7 KSV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죄의 심판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자신의 죄를 가리는 속죄 제사를 드린 것이다. 그 제사는 아브람이 자신의 죽음을 대신할 죽음이 필요함을 믿고 있다는 증거였다. 아벨과 노아 등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이 그랬듯이, 아브람, 그도 역시 하나님을 믿었다.



당시 사람들은 반(半)유목 생활을 하는 아브람을 ‘히브리(하비루)’ 사람이라고 불렀다. 그 말은 ‘방랑자’ 또는 ‘정처없는 사람’을 뜻한다. 한 때 아브람이 오래 머무른 장소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지역을 ‘헤브론’이라고 불렀다. 그 후 히브리사람은 아브람과 그 후손을 가리키는 명칭이 되었다.

네 가지 약속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다음의 네 가지 약속을 하셨다.

1.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²
2.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³
3.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⁴
4.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12:2,3 KSV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은, 특별한 사랑과 행복한 삶을 주시겠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것은, 큰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뜻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 중 첫 번째 것은 아브람에게 대단히 기쁜 소식이었다.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려면 우선 자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게다가 아내 사래는 출산 적령기를 한참 지난 나이였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궁금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

네 번째 약속은 첫 번째 약속의 성취 여부에 달려 있었는데, 사실 이 약속은 앞으로 보내주실 구원자를 가리키는 말씀이었다. 하나님은 아브람의 후손 중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실 것이며, 그로 인해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셨다. 성경은 아브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확실히 믿었는지, 그는 오실 그 구원자를 바라보는 생각만으로도 기뻐했다고 한다.⁵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람아, 두려워 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네가 받을 보상은 매우 크다.” 아브람이 여쭙었다.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주께서 아브람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 보아라.” 그리고는 주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람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는 아브람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1,2,5,6 KSV

이 이야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뜻이 담겨 있다. 이 중에 특히 의미 있는 단어 세 가지가 있다. 이 세 단어는 ‘의로’, ‘여기시고’, ‘믿으니’이다. 그 중에서도 ‘믿으니’라는 단어는 특별히 중요한 것이다. 이 ‘믿음’에 대해서는 잠시 후 좀 더 깊이 살펴보기로 하자.

“의(義)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표현할 때, ‘의(義)’란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의(義), 곧 ‘의로움’이란 아무 결함이 없으며, 거룩하며, 성결하고, 순수하며 흠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한다.

“여기셨다”

‘여기셨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빛을 다 갚아 채무상황이 완료된 것을 표현할 때도 사용되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는 ‘지불 완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대출기록에 ‘지불 완료’의 도장이 찍히면 대단히 기뻐하는데, 그것은 이제 빛이 하나도 없다는 선포이기 때문이다. 그 단어가 성경에서도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창세기 15:6 KS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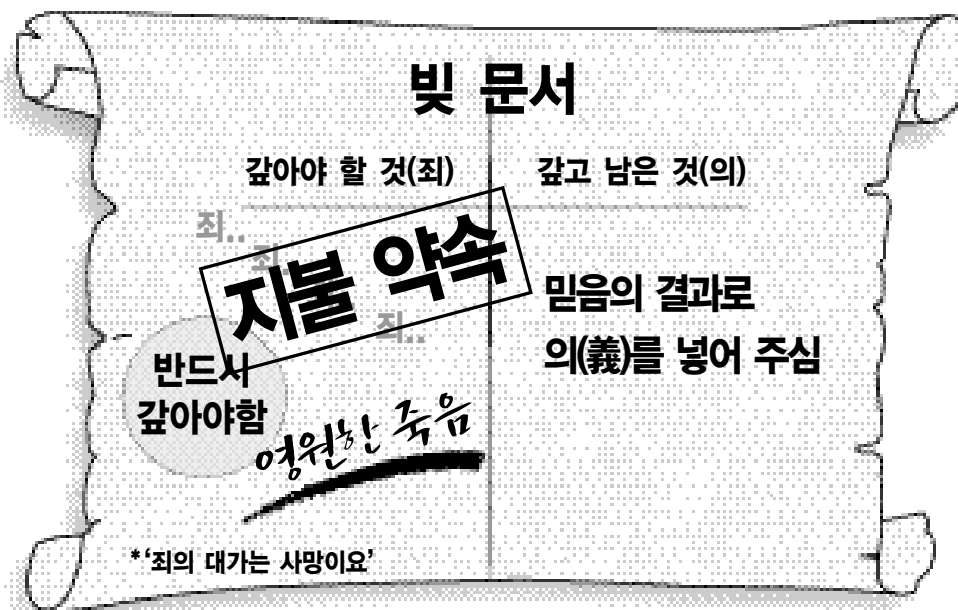
아브람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는 아브람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모든 사람이 죄의 결과로 갖게 된 빛 문서를 기억하는가? 그렇다. 아브람도 역시 죄 값 때문에 빛진자요, 빛 문서에 매여 있었다. 그런데 아브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의(義)’를 넣어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했다. “아브람아, 네 믿음을 보고 빛 문서에 나의 의(義)로 지불 약속을 해주겠다. 나의 의로움은 완전하므로 너의 빛을 다 갚



빛진자



*로마서 6장 23절을 그림으로 설명한 것

고도 남는다. 네 모든 죄의 빛을 다 갚아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 것이다. 너는 네 죄의 빛이 모두 다 갚아진 것으로 알면 된다. 또 이 의(義)는 네가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사는 데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믿었다. 성경은 아브람의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히브리서 11:10 KRV

아브람도 육체로는 언젠가 죽게 되겠지만, 둘째 사망이라는 무시무시한 형벌에 처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아브람은 천국에서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딜레마를 살펴보았다. “어떻게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을까?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완전한 의(義)를 얻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아브람에게 그 대답은 간단했다. “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실 때, 모든 것이 해결된다.”

2 믿음

“믿음을”

세 번째 단어인 ‘믿음’은 자칫 오해를 불러오기 쉽기 때문에, 먼저 성경을 통해 믿음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믿음’, ‘신뢰’, ‘확신’, ‘의지함’ 등은 종종 같은 뜻으로 쓰인다

아브람이 주님을 믿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아브람이 주님을 신뢰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알았다.
아브람이 주님을 의지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했다.
아브람이 주님을 확신했다.	그는 분명한 확신을 하나님께 두었다.

❖ 진실한 믿음은 각자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명백한 객관적 ‘사실’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우리가 의자에 앉는 것은, 그 의자가 몸을 지탱해 주리라는 객관적 사실을 믿기 때문이다. 그 의자에 대해 특별한 느낌이나 애정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는 의자가 튼튼한지를 잠깐 살펴보고, 견고하다는 사실에 확신이 있을 때 의자에 앉는다. 이와 같이 아

브람의 믿음은 '사실'에 근거를 두었다. 그에게 있어 사실이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이것은 간단한 산수 문제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진실'만을 말씀하신다.

= 아브람이 '아들을 갖게 될 것'은 '진실'이다.

- ❖ 문제는 믿음의 분량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이다.⁶ 아브람의 믿음도 처음부터 완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마침내 하나님께 대한 견고한 믿음을 뿌리내렸다.
- ❖ 성경적으로 볼 때, 믿음이란 어떤 사실에 관해 이성적으로 납득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동의의 수준이 아니라 움직일 수 없는 확신을 갖는 것이다. 동의의 수준은 아직 진정한 믿음과는 거리가 있다.

믿음의 수준을 설명하는 예를 하나 들어보자. 두 친구가 놀이동산에 놀러 갔다.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물었다. “저 청룡열차가 궤도에서 탈선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니?” 다른 친구가 대답했다. “응, 믿고말고!” 그러자 먼저 물었던 친구가 제안했다. “좋아. 그럼 우리 한번 타보자.” 이 때 만일 다른 친구가 자기는 타지 않겠노라고 한다면, 그가 정말 믿고 있는지를 의심해 봐야 한다. 그는 그 사실에 대해 단지 생각으로 동의만 할 뿐이지, 마음속으로 확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믿음은 그 증거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려는 요점은 믿음이 바로 행동을 지배한다는 단순한 논리이다. 아브람의 믿음은 이성적으로 동의하는 차원 이상의 것이었다. 아브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자신의 목숨과 명성의 모든 것을 걸었다. 아브람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해서 목적지를 알지 못한 채로 떠날 수 있었다. 아브람은 바로 그 믿음 때문에 희생 제사를 드렸다.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 주실 것을 믿었다.

아브람의 순종은 그의 믿음의 진실성을 내보이기 위한 과장된 행동이 결코 아니었다. 아브람의 순종은 그의 믿음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씀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

그 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람'의 이름을 '많은 나라의 아버지'를 뜻하는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사래'의 이름 역시 '많은 나라의 어머니'를 뜻하는 '사라'로 바꾸어 주셨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 새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것을 보여 주시는 또 다른 표현이었다.

3 외아들

주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 준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창세기 21:1-3 KSV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대단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데,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기꺼이 행하시기도 한다.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네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네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 주는 산들 가운데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엮고, 자기 청년들 가운데 두 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곳으로 가더니,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무르라. 나는 아이와 함께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취하여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를 보시거니와 번제 헌물로 드릴 어린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 헌물의 어린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그 두 사람이 함께 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르니,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가지런히 나무를 놓고는,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의 나무 위에 놓고, 자기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므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네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이는 네가 네 아들, 곧 네 유일한 아들이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이제야 비로소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알기 때문이니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보라, 뿔이 덩불에 걸린 숫양 한 마리가 자기 뒤에 있으므로 이에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 헌물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 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하더라.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였노니, 이는 네가 이 일을 행하여 네 아들 곧 네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네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 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네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또 네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주의 천사 :
이 경우에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갖고 왔으므로, 하나님과 같은 의미로 쓰였다.
창세기 22:15,16과 비교해 보라.

창세기 22:1-18 KJV

이 이야기에는 좀 더 깊은 뜻이 담겨 있다. 이 이야기는 얼핏 들으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행위를 인정하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 보면,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아브라함의 독자

이 장면은 그리 복잡한 상황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신 상황이다.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라고 하신 것이다. 그 명령은 간단해 보이지만 그대로 시행하기란 전혀 간단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그의 외아들임을 상기시키셨다. 이 외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 얻은 아들이요, 창대한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 받은 후손이었다. 게다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여러 번 확인해 주셨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고 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진단 말인가?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을 잠시 당황하게 했을 수 있다. 아브라함은 당시 다른 나라에서 아이를 죽여 제사하던 풍습에 대해서도 들었을 것이다. 사람을 제물로 쓰는 것은,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길 때 하는 행위였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가 알고 있던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맞지 않아 보였을지도 모른다.

더욱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수많은 후손을 약속하시지 않았던가? 이미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조화시킬 방법은 없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일관성이 없으시단 말인가?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조금도 요동함이 없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여 제사 도구를 나귀 등에 실은 다음, 아들 이삭을 데리고 길을 나섰다. 그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걸음은, 후에 알겠지만, 우리 인류를 위한 위대한 걸음이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선하신 하나님께 절대적인 믿음을 보여드렸다.

성경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나름대로 추측하도록 놔두지 않고,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명확히 가르쳐 주고 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있었다고 말한다. 곧 자신이 이삭을 죽여 제물로 바친다 해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 주실 것으로 확신했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11:17,19 KRV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다. 그 시험은 하나 뿐인 후손 이삭을 통해 언약의 구원자가 올 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외아들을 죽여야 하는 이 결정적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였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모리아 산으로 향했다. 산에 가까이 이르자, 아브라함과 이삭은 종들을 떼어 놓고 계속 길을 갔다. 장작을 짊어진 이삭이 얼마쯤 길을 가다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이삭은 평소에 희생 제사를 많이 보아왔는데, 지금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희생제물이 그들에게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도대체 제물로 쓸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를 보시거니와 번제 헌물로 드릴 어린양은 어디 있나이까?”

창세기 22:7 KJV

이삭도 이방 종교에서 어린아이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렸을지도 모른다. 이삭 역시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의 믿음도 결코 작지는 않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희생양을 마련하실 것이라고 대답했고, 이삭은 기꺼이 계속하여 그 길을 갔다. 성경은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모리아 산 위에 제단을 쌓을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셨다. 오랜 후에 유대 성전이 그 산 위에 세워졌는데, 그 성전 자리가 바로 이삭을 바쳤던 장소로 추정된다.

제단 위에서

창세기 22:9 TKV

이제 두 사람은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까지 다다랐다. 아브라함은 그 곳에 제단을 쌓아 올리고 그 위에 장작을 포개 놓았다. 그리고 나서 아들 이삭을 푹푹 묶어서는 제단 위에 차곡차곡 쌓아 놓은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았다.

이삭은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아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군대 갈 정도의 젊은 남자까지 포함하는 단어이다. 이삭은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나이였고, 반면에 아브라함은 늙어서 힘이 그리 세지 못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충돌이 있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혹시 이삭의 저항이 있었다면, 이 이야기는 그 대목에서 끝났을 것이다.

그러나 이삭은 기꺼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다.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곧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들로서 절대적 신뢰를 보여 준 행동이었다. 이삭은 묶인 채로 제단 위에 놓여져 아무 힘도 쓸 수 없었다. 그의 운명은 죽음을 지시하신 하나님의 명령 아래 놓여 있었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길은 전혀 없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드디어 손을 내밀어 칼을 잡았다고 말한다. 노인의 손이 가늘게 떨리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



이삭은 그의 외아들이 아닌가! 아브라함이 느꼈을 중압감을 말로 표현 할 수 있을까? 그의 팔이 떨리면서 천천히 올라갔고, 칼날은 차갑게 파란 빛을 뿜었다. 그가 마음을 가다듬고 칼을 내리치는 순간 ...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황급히 소리쳐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창세기 22:12 KSV

아버지와 아들이 껴안고 말할 수 없는 기쁨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눈에 선하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사형 집행이 정지되었다! 이삭의 죽음은 사라졌다. 그러나 그 곳에는 아직 누군가의 죽음이 있어야 했다.

대속물

성경은 하나님께서 숫양 한 마리를 준비하셨다고 말한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수풀 속에 숫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

창세기 22:13 KSV

이렇게 뿔이 걸리면, 숫양은 몸을 굽히는 일이 없어 흠 없이 잡히게 된다.

아브라함이 ... 가서 숫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창세기 22:13 KSV



그 곳에는 분명히 죽음이 있어야 했는데, 그것은 이삭의 죽음을 대신한 숫양의 죽음이였다. 숫양이 대신 죽었을 때 이삭은 비로소 생명의 자유를 얻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속물을 직접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두고두고 기억 하려고 특별히 그 산의 이름을 지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다.”는 뜻으로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이러한 까닭에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산에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주신다.”고 말하게 되었다.^{창세기 22:14 TKV}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진정한 구원자로 오실 것을 알았다.

‘환난 때의 구원자이시여’

예레미야 14:8 KLB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그 약속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또 그 약속에는 장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 중에 오실 것이 들어 있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백성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주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창세기 22:16,18}

KSV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이 사건은 일생에 한 번, 아니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진리를, 곧 죄의 심판과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 그리고 대속의 죽음을 통한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사망의 명령 아래 이삭이 놓여 있었듯이, 우리 모든 사람은 똑같이 죄로 인한 사형 선고 아래 놓여 있다.⁷ 이삭이 스스로 자신을 구할 수 없었듯이, 우리 역시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이삭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려서라도-약속을 지키시리라고 믿었다.

그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대속물을 통해 죽음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다. 아벨이 자신의 죽음 대신으로 희생제물을 드렸듯이, 이삭 대신으로 숫양이 희생제물로 드려졌다. 생명이 생명을 대신하듯이, 죄 없는 짐승의 피가 죄로 가득 찬 사람을 대신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벨이 가져온 제물을 올바른 제물로 받아 주셨듯이, 이삭 대신 숫양을 올바른 제물로 받아 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와야 하는 것을



7장

1 이스라엘

2 모세

3 유월절과 어린양

1 이스라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에게 그들의 후손 중에서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두 사람 모두 장수하다 세상을 떠났다.

에서와 야곱

이삭에게는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다. 에서는 자기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었다. 에서는 자기 생각을 좇아 산다는 점에서 가인을 닮았다. 반면에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셨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세우고 ...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창세기 35:7 KJV

야곱은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를 따랐다. 그 믿음의 원리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것이다. 히브리서 9:22 KRV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레위기 17 : 11 KSV

야곱은 그의 삶 속에서 여러 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 주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믿음만은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 이기었다”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다. 후에 야곱의 자손들은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 약속을 야곱에게 다시 주셨다.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 땅 위의 모든 민족들이 너와 네 자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28:13,14 AEB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야곱의 후손으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언약의 구원자가 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야곱의 열두 아들로부터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시작되었다.¹ 야곱은 죽기 전에 그 열두 아들 하나하나를 축복했는데, 그 때 아들 ‘유다’의 후손을 통해 언약의 구원자가 오실 것을 예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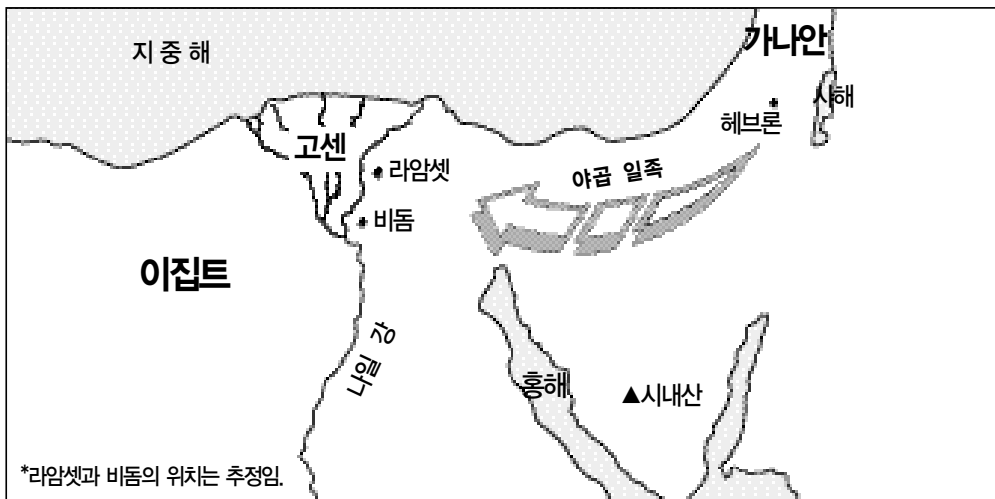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가나안 지역(오늘날의 이스라엘)에서 반쯤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야곱의 말년에 극심한 가뭄으로 기근이 들자, 그는 온 가족과 함께 이집트로 이주했다. 그 때 야곱의 가족 70명은 이집트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고 그들은 서로 좋은 관계로 지냈다.

그로부터 3백 5십 년 후 야곱의 후손들은 여전히 이집트에 살고 있었는데, 그 숫자는 엄청나게 늘어나, 추정컨대 적어도 2백 5십만 명 정도가 되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실로 창대한 민족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지역이지 이집트가 아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이 기근을 피해 가나안을 떠날 때에 이렇게 약속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 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창세기 28:15 KSV



2 모세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무시할 수 없는 큰 민족이 되었다. 그 동안 이집트의 왕조 또한 바뀌었는데, 이 새로운 왕조는 이스라엘을 강압적으로 다스렸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 왕이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하여야 한다. 그렇

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욱 늘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두어서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는 일에 끌려 나갔다.

출애굽기 1:8-11 KSV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 고된 일을 하며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이 번성하여 그 수가 늘어가자,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더욱 혹독한 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히며 진흙을 이겨 벽돌을 굽게 하고, 여러 가지 고된 농사일로 그들을 잔인하게 혹사시켰다.

출애굽기 1:12-14 KLB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이집트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 생활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노예 생활로 인하여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가 올라와 하나님께 이르니라.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음하는 것을 듣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니라.

출애굽기 2:23-25 KJV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가 다가왔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모세’ 라고 하는 지도자를 준비하셨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 중의 어떤 부부가 아주 잘 생긴 남자 아기를 낳았다. 당시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아기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 부부는 아기를 바구니에 담아 나일 강의 갈대 사이에 두었는데, 이집트의 공주가 그 아기를 물에서 건져내어 아들로 길렀다. 공주는 아기 이름을 ‘모세’ 라고 지었다. 모세는 이집트 왕족과 함께 교육받으며 성장했다. 그가 받은 교육은 당시 세계 최고의 지도자 교육이었다.

그가 40세가 된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을 편들다가 그만 이집트 사람 한 사람을 죽였다. 모세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 즉시 광야로 도망쳤고, 그 곳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일을 하며 양 떼를 인도하는 일을 익혔다. 이 기간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지도자 교육과정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가 양 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렘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 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출애굽기 3:1,2 KSV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쩌서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 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하고 그를 부르셨다.

출애굽기 3:3,4 KSV

나무가 말을 하다니! 모세는 온통 땀에 젖은 채 주위를 둘러 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분명히 불타는 나무가 그를 불렀다. 모세의 대답으로 불타는 떨기나무앞에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이르시되,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출애굽기 3:4-6 KJV

하나님이라는 말에 모세는 등골이 오싹했을 것이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요, 만물의 주인이심을 알고 있었다. 모세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죄로 인해 단절되었으며,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모를 수 없는 것이, 그는 살인자였기 때문이다.

모세가 자기 얼굴을 숨기니, 이는 그가 하나님 뵈기를 두려워하였음이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자기들의 작업 감독들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들었나니, 이는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알기 때문이니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내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출애굽기 3:6,7,10 KJV

휴우! 모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나님은 지금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떤 임무를 주시려고 오신 것 아닌가!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그 임무가 늙은 양치기 모세가 맡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것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사람들은 모세에게 도대체 누가 보냈느냐고 물어 볼 것이 틀림없다.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들이 믿어줄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하지?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출애굽기 3:13,14 KSV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계신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스스로 있는 나’, 곧 ‘내나라(I AM).’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에서 스스로 존재

하심을, 오직 자신의 능력으로 존재하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셨다.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 놓고 그들에게 일러라.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하고 말하면서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너희 처지를 생각한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는 일을 똑똑히 보았으니,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너희를 내가 이끌어 내어 ...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하였다 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출애굽기 3:15-18 KSV

모세가 아직도 두려움에 싸여 있었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히 믿고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이다. 믿음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 이집트로 향했다. 또한 하나님은 모세를 도와 줄 대변인으로 그의 형 아론을 붙여 주셨다.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 그러자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믿었으며,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돌아보시고 자기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 머리를 숙여 경배하였다.

출애굽기 4:29-31 KLB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이 그대로 일어났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었으며 모두 함께 하나님을 경배했다.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지켜졌다.

3 유월절과 어린양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랐다. 그러나 그 약속을 ‘파라오’ (이집트 왕의 명칭)까지 납득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었다.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서 파라오에게 고하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하여 명절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니 파라오가 이르되, “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가게 하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5:1,2

KJV

그렇다. 파라오의 대답은 그의 입장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당시 이집트에는 태양의 신, 나일 강의 신 등

각종 신들이 많이 있었다. 그 신들은 태양, 강, 뱀, 개구리 등의 다양한 상징으로 표현되었는데, 심지어 파라오 자신도 살아있는 신으로 불리었다. 이집트 사람들은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다.

파라오는 하나님에 대해 도무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자신이 누리는 권력과 지위의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이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는 것은 무임금 노동력의 상실로 인한 이집트 경제의 붕괴를 뜻하기도 했다. 출애굽기 6:1,6 KJV 파라오는 모세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파라오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속박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또 편 팔과 큰 심판들로 너희를 구속하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일러 주셨다. 그런 재앙이 닥쳐야만, 파라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이런 결정에는 좀 당혹스러운 면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면, 혹시 파라오가 복수하려 들지는 않을까? 이때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을 격려하셨다.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주다.”

출애굽기 6:7,8 KSV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기 원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겠다는 뜻이다. 온 세계가 해야 할 일은 다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지켜보는 것이다. 세상은 하나님과 모든 인류와의 관계에 대해 아주 생생한 시청각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이집트에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셨다. 또 그 재앙들을 통해, 이스라엘과 이집트 모두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이 배워야 할 것은,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에게 강제로 시키는 힘든 일에서 너희를 구해 낼 너희의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6:7 KSV

여기서 이집트 사람이 배워야 할 것은,

“내가 나의 큰 능력으로 이집트에 벌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에야 비로소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출애굽기 7:5 AEB

여기서 두 나라가 모두 배워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神)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침에 너는 파라오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너는 강둑에 서서 ...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들의 주 하나님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며 이르시되, ‘내 백성을 가게 하라 ...’ 하였으나, 보소서, 지금까지 왕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주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보소서, 내가 내 손의 막대기로 강에 있는 물들을 치면 그것들이 피로 변하며 강의 물고기가 죽고 강이 악취가 나리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심히 싫어하리이다.”

출애굽기 7:15-18 KJV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그대로 일어났다. 하나님은 이집트 신들 중의 하나인 나일 강을 피로 변하게 하심으로써 이집트 종교의 심장부를 치셨다. 이집트의 신에게서 썩는 악취가 진동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나일 강을 혐오스러운 것으로 만드셨지만, 파라오는 아직도 마음을 바꾸지 않고 있었다.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출애굽기 7:22 KJV

하나님과 이집트의 신들

하나님은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하신다. 파라오는 안 된다고 대답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각종 신들을 겨냥해 재앙을 내리신다. 이렇듯 파라오의 대적과 하나님의 재앙은 같은 모양으로 반복되었다.

나일 강을 비롯해 이집트의 모든 강물이 피로 변했다.

개구리 떼가 나타나 이집트 전역에 들끓었다. 음식에, 침실에, 도처에서 개구리가 떼를 지어 마구 달려 들었다.

그리고 이 떼가 사람들의 몸 위를 뒤덮고 스멀스멀 기어다녔다.²

파리 떼가 얼마나 많았는지, 사람들이 입을 벌리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갑자기 치명적인 가축 전염병이 퍼져, 많은 가축들이 폐죽음을 당했다. 뒤이어 악성 종기가 유행해 이집트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괴롭혔다. 엄청난 우박이 이집트의 모든 농작물을 망쳐 놓았다. 살아남은 농작물은 메뚜기 떼가 달려 들어 다 먹어치웠다. 하나님은 또한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태양을 가려 이집트 전역을 사흘 동안 캄캄한 암흑으로 덮어버리셨다. 이 때까지 하나님은 아홉 가지 재앙을 내리셨다. 이제 가장 무서운 열 번째 재앙을 내리실 차례였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파라오와 이집트 위에 더 내린 뒤에야 비로소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가게 하리라 ... 자정이 될 즈음에 내가 이집트 한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이집트 땅의 처음 난 것은 왕좌에 앉은 파라오의 처음 난 자로부터 멧돌 위에 있는 여종의 처음 난 자까지 다 죽을 것이요, 짐승의 처음 난 것도 다 죽을 것이니라.”

출애굽기 11:1,4,5 KJV

마지막 재앙은 대단히 끔찍한 것으로, 이집트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 할 것 없이 이집트 전역에 똑같이 내려졌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므로 죄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리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은혜로우시므로 그 심판을 피할 방법을 마련해 주시는 자비를 베푸신다. 그 방법은 다음의 지시사항을 따르는 것이었다.

어린양을 준비하라.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달 십일에 너희 각 사람이 어린양을 취하되, 자기 조상 집에 따라 한 집에 어린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

출애굽기 12:1,3 KJV

흠 없는 숫양이어야 한다. 그 양은 하나님 앞에 아무 흠 없이 완전해야 한다.

“흠이 없는 일 년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라.”

출애굽기 12:5 KSV

그날 저녁에 그 양을 죽여라.

“이 달 십 사일까지 그 양을 잘 지켰다가, 어두워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것을 잡도록 하여라.”

출애굽기 12:6 AEB

그 피를 문 좌우와 윗 부분에 칠하라.

“그 피는 받아다가 잠은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출애굽기 12:7 KSV

아침까지 집 안에 머물러 있으라.

“아침까지 한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출애굽기 12:22 KRV

어떤 뼈도 꺾지 말라.

“어느 집이든지, 고기는 한 집에서 먹어야 하며, 그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서는 안된다. 뼈는 하나라도 꺾어서는 안된다.”

출애굽기 12:46 KSV

그때 죽음이 너희를 지나쳐 넘어가리라.

출애굽기 12:12,13 KSV

“그 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멸하겠다. 나는 주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 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내에 있는 모든 만아들을 죽여 심판하실 때, 양의 피가 칠해져 있는 집은 그냥 지나쳐 “넘어 가실(逾越: 유월)”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가서 곧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출애굽기 12:28 TKV

그들의 순종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참된 말씀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밖으로 내보인 증거였다.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면

만약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속으로 “이건 너무 아까운 일이야. 제일 좋은 어린양을 죽이다니. 찢뜩거리는 양을 죽이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다면, 그 날 밤 어떤 일이 그에게 일어났을까?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들을 불러 “어이, 여보게들! 너무들 긴장하고 있군 그래. 밖에서 대화를 나누며 긴장을 좀 풀어 보세요.”하고 집 밖에 나가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또 만약 누가 “절대로 내 문에 피를 바를 수는 없어. 피비린내는 너무 끔찍해. 피를 뒷마당에다 버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 때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 가셨을까? 아니다. 설령 그것이 나쁜 의도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가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순전히 자기 생각을 따르는 것일 뿐이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대적하는 이집트 사람들과 똑같이 심판하실 것이다.

반면에 만약 어떤 이집트 사람이 우연히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정말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 같다. 그들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생각했다고 하자. 그래서 그 날 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유월절 지시사항을 그대로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넘어가 주실까?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 그렇다, 그는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방법, 즉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한밤중에 주께서 이집트 땅의 처음 난 것 곧 왕좌에 앉은 파라오의 처음 난 자로부터 옥에 갇힌 자의 처음 난 자까지 다 치시고, 또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그 밤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온 이집트 사람들이 다 일어나고 이집트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곳에서 사람이 죽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라.

밤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가 말한 대로 가서 주를 섬기고,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 떼도 소 떼도 가져가고 또 나를 축복하라.”

이집트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고도다.” 하며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급히 내보내려 하므로 바로 그 날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출애굽기 12:29-33,51 KJV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파라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기회를 여러 차례 주셨지만, 그는 계속해서 거부했다. 파라오는 오히려 점점 교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기까지 이르렀다. 하나님은 이집트에 대한 심판을 계속 경고하셨고, 반드시 경고하신 그대로 행하셨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같지 않으시다. 우리는 무엇을 결심하고 또 다짐도 해 보지만 도중에 흐지부지 되는 일이 허다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입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면서, 약속대로 피가 칠해져 있는 집은 지나쳐 넘어가셨다.

그 날 밤 이스라엘의 집마다 맏아들이 살아남은 것은 바로 어린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이었다. 성경은 처음부터 죄와 사망의 법, 곧 누군가 대신 죽어야 한다는 원칙을 일관성 있게 가르쳐 준다. 하나님은 아벨이 가져온 희생제물을 아벨의 죄값, 곧 그의 죽음 대신 받으셨다. 이삭이 죽어야 할 자리에서 숫양이 대신 죽은 것이다. 그리고 그 날 밤에는 맏아들 대신 어린양이 죽었다.

이렇게 그들이 희생제물을 드린 것은 하나님께 대해 자신의 구원의 믿음을 내보이는 증거와도 같았다. 그들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해마다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며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했다.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켜야 한다.”

출애굽기 12:14 KSV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파라오의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았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다.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났다.



8장

1 물과 양식

2 십계명

3 하나님의 법정

1 물과 양식

이집트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오합지졸과 같은 군중이었다. 이집트 사람들은 엄청난 재앙의 충격에 자기들의 귀중품을 내주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발 떠나주기를 재촉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대로 짐을 꾸릴 여유도 없이 가축을 몰고 황급히 이집트를 떠났다. 대략 2백 5십만 명으로 추산되는 군중의 행렬은 혼란 그 자체였을 것이다.

그들의 지도자는 물론 모세였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이 많은 군중을 향해 “이쪽으로! 저쪽으로!”하고 외칠 수 있단 말인가? 사람들이 제 아무리 목을 길게 뻗다 해도, 모세가 어디 있는지 찾는 것부터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 곤란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비추셔서 밤낮 나아갈 수 있게 하셨으므로’ 출애굽기 13:21 KLB

그들은 앞에서 길을 밝혀 주는 신호를 따라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믿고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따라가면 되었다. 이 거대한 행렬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신호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있는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시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후회하고 이집트로 되돌아갈까 염려하노라.” 하셨음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 길을 통해 백성을 인도하시니’ 출애굽기 13:17,18

KJV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겁을 집어 먹을까 봐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시내 광야로 인도하셨다. 그 황량한 광야에는 위험한 적들도 없었지만 먹을 양식과 물도 없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대규모 불평 군중집회를 가졌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 때에, 누가 우리를 주의 손에 넘겨 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 하였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다!” 출애굽기 16:2,3 KSV

그들의 불평과 원망은 급기야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고 선동하기에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밤낮으로 돌보신 것을 생각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참으로 서글픈 일이다. 그들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양식과 물을 겸손하게 구했어야 했다.

먹을 양식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너희는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여라.”

그 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진 진 곳을 뒤덮었고, 다음날 아침에는 진진 곳 둘레에 안개가 자욱하였다. 안개가 걷히고 나니, 이럴 수가!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의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싸라기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냐?”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다.”

*이것이 ‘만나’인데, 그 말 뜻이 바로 ‘이게 무엇이냐?’이다.

출애굽기 16:11-15 KSV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양식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 그들은 양식을 얻기 위해 따로 일할 필요가 없었다. 만나는 그들로 하여금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했다. 그들은 자신이 불평을 했던 사실에 대해 잠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교훈 하나를 더 가르치셨다.

간단한 교훈

만나에는 먹을 양식을 공급하는 것 이상의 목적이 있었다.

출애굽기 16:4 KLB

“나는 이것으로 그들이 내 지시에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하루 먹을 만큼의 양만 줍도록 하셨다. 아주 간단한 지시사항을 명령으로 주셨다. 그것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얼마나 잘 따르는지 시험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 두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에 보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분노하였다.

출애굽기 16:20 KLB

이 지시사항은 아주 간단한 것이었고, 이로 인해 해를 당한 사람도 없었다. 그들은 이 간단한 명령을 통해,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배워야 했다. 불순종은 아주 위험한 시도이다.

불평과 원망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 광야를 떠나서 주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 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느냐?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느냐?”하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모세가 주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7:1-4 KSV

과거의 잘못을 통해 배우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불평하는 잘못을 반복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마실 물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무리에 앞서 가거라. 손에는 나일 강물을 내리치던 네 지팡이를 들고 가야 한다. 내가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에게 나타나리라. 너는 그 바위를 내리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솟아 나와 백성이 그 물을 마실 수 있으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였다.

출애굽기 17:5,6 TKV

마실 물

이 장면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목마른 군중의 수가 엄청나게 많았고, 또 가축 떼도 물을 마셔야 했다. 그 때 모세가 손에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쳤고, 바위 한가운데서 엄청난 물줄기가 용솟음치며 쏟아져 나왔다. 그 물은 졸졸 흐르는 시냇물 정도가 아니라 큰 강을 이루며 흘러갔다.

시편 105:41 KSV

반석을 갈라서 물이 흐르게 하셨고, 마른 땅에 강물이 흐르게 하셨다.

다시 한 번 하나님은 도무지 받을 자격조차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를 채워 주셨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불평을 늘어 놓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은 즉시 그들에게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묻는 대신 오래 참으시며 너그럽게 대해 주셨다.

2 십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나의 택한 백성’ 이라고 하셨다.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의 모범을 보여야 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워야 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일은 계속되었는데, 이제 곧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중요한 계시가 있을 것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떠난 후 3월 1일에 시나이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은... 시내산 앞에 천막을 쳤다.

모세가 여호와를 만나려고 산으로 올라가자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 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행한 일을 보았고 또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내가 너희를 보호하여 나에게 인도한 것을 다 보았다. 만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소중한 백성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특별히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출애굽기 19:1-6 KLB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나는 너희를 받아주겠고, 또 너희는 다른 모든 나라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리라.” 한 가지 조건이 큰 표어처럼 걸려 있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이스라엘의 성적표를 보면 아주 형편없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당부하셨는데도, 그들은 필요 이상의 만사를 모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먼저 불평과 원망을 터뜨렸다. 그들이 만일 정직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기대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우리를 받아주신다면 우리는 도저히 가망이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모세가 온 백성을 소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묻자,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백성이 일제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출애굽기 19:8 TKV

그들은 하나같이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우리는 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제사장 나라가 되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껏 보신 나라들 중에서 가장 의로운 나라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약간 꾸며 본 것이지만, 적어도 그 상황만은 분명히 그러했다. 사실을 말하자면, 그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함’이나 ‘의로움’에 대해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시청각 교육

하나님의 가르침은 시청각 교육으로 시작되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라. 그들이 옷을 빨아 입고서 셋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라. 바로 이 셋째 날에 나 주가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시내산에 내려가겠다.”

출애굽기 19:10,11 KSV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히 하라’, 곧 ‘구별되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의 현장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에 접촉하지 말아야 함을 깨닫게 해 주시는 생생한 시청각 교육 그 자체였다. 옷을 깨끗이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 즉 영적 순결이 필요함을 말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올 때, 영적 순결이 중요한 것임을 다시 일깨워 주셨다.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은 계속되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의 둘레에 경계선을 정해 주어, 백성이 그 경계선을 넘어오지 않도록 하여라. 백성에게 ‘산으로 올라가지도 말고, 산기슭을 밟지도 말라’고 일러라. 누구든지 산기슭을 밟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출애굽기 19:12 AEB

이 경계선은 죄로 말미암아 생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단절을 나타낸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께 사람이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경고로서, 죄인은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었다. 그 경계선은 죄를 범하면 죽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영에 있는 온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백성을 데리고 진영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섰더라.

시내산은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서 그 위로 내려오셨음이라...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출애굽기 19:16-19 KJV

하나님의 그 다음 시청각 교육은 충격적인 것이었다. 천둥, 번개, 뻑뻑한 구름, 큰 나팔 소리, 연기, 불, 진동하는 산 등이 그것이었다. 온 백성이 그 앞에서 부들부들 떨었다. 죄 많은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저 떨고 있을 수 밖에 없다. 하나님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점을 정리해 주셨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 커다란 전환점으로 다가가고 있다. 하나님은 거룩함과 의로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들리지 않는가? “나 하나님이 너희를 언제나 돌보는 것을 너희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내가 이런 일을 전에 행한 적도 없었고, 또 모든 것을 이처럼 명백히 드러낸 적도 없었다. 이제 나 하나님의 계명에 너희가 순종하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 곧 내게 속한 특별한 백성이 될 것이다. 또 너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지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나라가 너희를 보고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¹

하나님께서 열 가지 계명(십계명)을 주시기 시작했다.

첫째 계명



“나는 ...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출애굽기 20:2,3 KJV

사람이 절대로 다른 존재를 예배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으며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45:5 KJV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어떤 신을 택하느냐가 아니라 참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문제의 본질이다. 누구든지 의롭게 되기를 갈망한다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무신론자들은 자신이 아무런 신도 섬기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이 계명을 잘 지키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계명이 함축하는 의미는 이러하다. 돈이나 지위, 외모, 직장, 가정 또는 자기 자신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대상으로 여겼다면, 그 사람은 바로 이 계명을 어긴 것이다.

둘째 계명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출애굽기 20:4,5 KJV

첫째 계명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고, 둘째 계명에서는 어떤 신이나 사람이나 물건의 형상을 만들어 경배하지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자신을 상징하는 형상이나 조각이나 그림에게 경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눈에 보이는 형체가 없으시다.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형상은 단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일 뿐이다. 사람의 생각으로 만든 형상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경배할 가치가 없다. 오직 참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다.

“나는 여호와다. 이것이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것에게 주지 않겠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들에게 받게 하지 않겠다.” 이사야 42:8 AEB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 위한 또다른 조건은 어떤 신이나 피조물의 조각이나 그림 등의 형상에 절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셋째 계명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나 여호와와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출애굽기 20:7 AEB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나 높임을 받으셔야 하며 함부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만물의 창조주, 세상의 심판주이신 하나님은 지극한 공경의 대상이시다. 사람은 자신의 왕이시며 주님이신 하나님께 가장 큰 경외감을 가져야 한다. 셋째 계명은 명확하다. 사람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높여 드려야 한다.

현대 사회의 문화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무례함이 넓게 퍼져 있다. 정치 연설에서, 상업광고에서, 영화 포스터에서, TV의 개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저속하게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들의 대화에도 농담이나 우스개 소리를 하는 데도 하나님의 이름이 마구 사용되기도 한다. 설령 어떤 사람이 무심코 하나님의 이름을 무례히 사용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이미 이 셋째 계명을 어긴 것이다.

넷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이렛날은 네 하나님 나 여호와와의 안식일이므로 ... 일을 해서 는 안된다.” 출애굽기 20:8-10 TKV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여 쉴 것을 명하셨다. 이 날은 하나님의 완전한 천지창조를 통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기억하는 날이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은 안식일이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계약의 표가 되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출애굽기 31:12,13 KLB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안식일을 하나님의 특별한 날로 지켜 존중해야 했다.

다섯째 계명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12 KLB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다. ‘가정’ 이라는 곳은 갈등과 적대감이 만나는 곳이 아니라 화목과 평화를 이루는 곳이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부모들 또한 가정의 중요성을 잘 알고 돌봐야 할 책임이 있다.

하나님은 모든 자녀 된 사람에게 거룩해지려면, 먼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가르치셨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가정이 혼란과 분노가 쌓인 곳이 아니라 질서와 기쁨이 가득 찬 곳이 되기를 원하셨다.

부모에 대한 말대꾸, 무시하기, 언쟁하기, 비죽거림, 의도적인 목살, 뒤에서 이죽거리기 등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 죄를 범하는 것이다.

여섯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출애굽기 20:13 KRV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과 같다. 더욱이 하나님은 살인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배후에 있는 동기까지 문제 삼으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피조물이 하나도 없고, 오직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별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브리 4:12,13 KJV

마음 속까지 보시는 하나님은 살인의 동기가 미움과 시기와 다툼 등으로 인한 분노에 있다고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의 분노를 살인과 똑같이 여기신다.

“옛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받을 것이다’ 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를 모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의회에 불러 갈 것이요, 자기 형제나 자매를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 불 속에 던짐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5:21-22 KSV

하나님의 의(義)의 기준에 이르려면 정당한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분을 터뜨려서도 안 된다.

일곱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출애굽기 20:14 KRV

하나님은 혼인 관계에서만 성적인 관계를 가져야 합당하다고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단계 더 말씀하신다.

“간음하지 마라”는 계명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란한 생각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마음 속으로 그 여인을 간음한 것이다.”

마태복음 5:27,28 AEB

자신과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 성적 욕구를 갖고 바라보는 일 역시 이 계명을 어긴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순결한 행동 뿐만 아니라 순결한 마음까지 지키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속을 보시며 언제 그 죄악의 생각을 시작했는지도 아신다.

여덟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출애굽기 20:15 KRV

하나님은 무단히 남의 소유를 취하는 일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만물의 소유주로서 각 사람에게 소유할 권한을 나눠 주셨다. 도둑질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권한에 대한 도전이며 불순종이다. 도둑질한 자는 절대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

도둑질에는 물론 사기도 포함된다 (시험 볼 때의 커닝, 표절, 세금의 탈세 등도 포함된다.).



아홉째 계명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출애굽기 20:16 KRV

사람은 정직해야 한다. 하나님은 속임수와는 일체 상관이 없으시다. 우리는 사탄이 모든 거짓말의 원조이며, 사탄은 속이는 자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하나님은 그와 정반대이시다.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온 진실을 우리는 진리라고 부른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이시다. 디도서 1:2 KRV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결코 거짓으로 약속하지 않으시며, 거짓 맹세도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6:18 KLB

모든 거짓말은 진실하신 하나님께 무례와 모욕이 된다. 거짓을 말하는 것은 모든 거짓의 아버지인 사탄의 의도를 따르는 것이다. 음모, 비방, 중상, 쑥덕 거림 등의 모든 거짓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는 죄다.



열째 계명

“이웃집을 탐내지 마라.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그 밖에 이웃의 어떠한 것도 탐내지 마라.”

출애굽기 20:17

AEB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소유나, 능력이나, 외모나 그 밖의 어떤 소유물이라도 탐내지 말아야 한다. 탐심의 뿌리는 교만에 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면서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이 되리라’ 고 했다. 탐내고 시기하는 것은 죄이므로,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는

우리 사회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계명에 도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때로는 그것이 매우 교묘하게 이루어지기도 한다. 사람들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자기 자신을 꾸며 위장한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억지를 부리며, 자신의 탐욕을 스스로 합리화하기도 한다. 그것은 사람의 교만이, 또다른 범죄이다.

다. 탐심은 바로 사탄의 교만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었다.

이제는 알겠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 주셨다. 이 돌판은 하나님의 법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표현이기도 했다.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정도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율법은 한 번도 약화되거나 변한 적이 없다. 그런 안일한 생각 자체가 큰 잘못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죄로 여기시는지를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다. 성경의 기록자 한 사람이 율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로마서 7:7 KRV

그러나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하나님은 이 계명을 어느 정도까지 적용하실 것인가? 모든 것을 잘 지키다가 혹시 계명 하나를 어기는 경우는 어떠한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그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시는가?

3 하나님의 법정

십계명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오히려 막연한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혹시 예외는 없는가? 오래 전에 딱 한 번 거짓말을 한 사람도 영원한 죄인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그런 엄격한 율법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그 적용 원칙이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면, 계명 중의 어느 하나라도 어기지 않고 모두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갈라디아서 5:3 KRV



또 마음에 드는 계명 몇 가지만 지키고, 나머지 계명을 무시할 수도 없다. 이 점에 관해,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다. 우리가 모든 계명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고 하신 것이다.

야고보서 2:10 KJV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만약 우리가 계명 하나를 어긴다면-그것이 딱 한 번이라 할지라도-계명 모두를 어긴 것과 같다. 그때부터 우리는 명백히 불완전한 존재가 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런 불완전한 사람을 받아주실 수 없다. 사람이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우심에 이르지 못하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더욱이 우리는 자신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도 책임을 진다. 죄는 알고 범해도 죄이고, 모르고 범해도 죄이다. 죄는 오직 죄일 뿐이다.

“누구든지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해서 죄를 지었다면, 그가 그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허물이 있는 것이니, 그는 자기 죄 값을 치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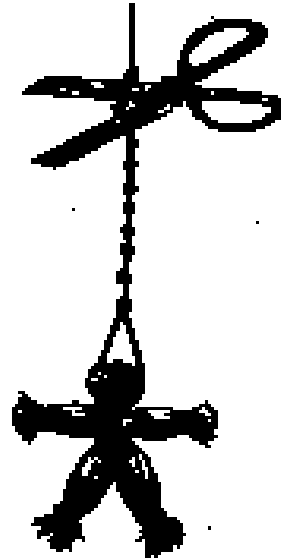
레위기 5:17 AEB

어떤 젊은 청년 그룹에서 이 주제에 대해 가르친 적이 있었다. 율법의 문제에 이르자, 한 청년이 주먹으로 책상을 팡! 치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섞어 욕을 했다. (그러자, 한 아가씨가 그 청년에게 지금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하나 더 범했다고 나무랐다.) 그가 말했다. “하나님은 너무하십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길이 이 길뿐이라면...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저는 그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는 좌절하고 있었다.

죄를 알라

사람이 모든 계명을 도저히 지킬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는가? 다 아신다.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의도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무엇이든지 율법이 말하는 바는 ...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3:19 KJV



십계명은 열 개의 매듭이 있는 밧줄에 비유할 수 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은 매듭을 자르는 것과 같다. 매듭에서 한 군데만 잘라도 그 밧줄 전체는 끊어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율법을 하나만 범해도, 율법 전체, 곧 선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규범 전체를 범한 것이다.

이 구절이 뜻하는 바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하나님의 율법은 자신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큰 소리치는 사람을 잠잠하게 만든다. 누구든지 십계명을 정직한 마음으로 들여다보면 자신이 죄로 가득 찬 존재임을 깨닫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율법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뚜렷하게 보여 준다. 태초에 사람은 선하고 거룩하며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였다. 모든 악에 대해서도 흠 없이 순결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했다. 그 때 하나님은 친구로서의 옷을 벗어버리고 재판관의 옷으로 갈아 입으셨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의 친구가 아니라 사람을 피고석에 세운 재판관이다. 더욱이 사람을 변호하기 위해 나설 어떤 변호사도 없었다. 제 아무리 똑똑한 변호사가 있다 해도 전지전능자 앞에서 교묘하게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낼 수는 없다. 만물의 소유자에게 뇌물이 통할 리도 없다. 드디어 완전하신 재판관의 말씀으로 판결이 내려졌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에 대해 “유죄!” 라는 선언이었다.



유죄 선언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기 때문이니라.”

로마서 3:20 KJV

십계명, 곧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죄로 가득 찬 우리 모습을 드러내 준다. 십계명은 환자의 체온을 재는 온도계와 같다. 온도계는 환자가 아프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 주지만 그 환자를 치료하지는 못 한다.

죄를 비추는 거울

십계명은 자신의 더러운 얼굴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과 같다. 내가 내 얼굴이 깨끗한지 더러운지를 스스로 알 수는 없다. 누군가 나에게 “얼굴이 참 더럽군요.”라고 말하면, 나는 “그럴 리가 없소. 왜 공연히 생트집입니까?” 하고 부인할 수 있다. 더구나 내가 스스로 얼굴이 깨끗하다고 믿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거울을 본다면, 내 얼굴이 더럽다는 사실-더러운 얼굴-을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고 입을 다물 것이다.

율법과 죄인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까지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십계명, 곧 율법이 오자, 거울에 얼굴의 더러움이 비추어 보이듯이, 율법에 우리의 죄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그제서야 우리는 비로소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

십계명의 참 목적은, 사람이 계명을 잘 지키므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고 십계명을 주시지 않았다.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는 것은 마치 거울을 문질러 얼굴의 더러움을 씻으려는 것과 같다. 거울은 얼굴을 비추어 보는 도구이지 얼굴을 씻는 도구가 아니다. 거울로 얼굴을 씻으려다가는 공연히 깨끗한 거울만 더럽히고 못쓰게 만들기 십상이다. 마찬가지로 율법을 지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은 대개 율법을 어지럽히는 것으로 끝을 내고 만다. 그런 사람들은 그 율법을 수정하거나 혹은 그 의미를 최소화해서 자신이 죄인으로 보이지 않게 하려는 시도를 한다.

하나님의 관점

전에 들었던 비유 한 가지를 아직 기억하는가? 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을 죽은 쥐를 보는 우리의 시각에 비유한 적이 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노력은 썩은 냄새를 없애 보려고 죽은 쥐 위에 향수를 뿌리는 것과 같다. 아무리 향수를 뿌려도, 죽은 쥐는 여전히 썩은 냄새를 피울 뿐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명을 아무리 잘 지켜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다. 우리는 여전히 더러운 죄인일 뿐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를 다시 확인해 준다.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7:13 KRV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죄-가장 추악한 것, 혐오스러운 것, 구역질나는 것, 악의적인 것, 징그러운 것, 파멸뿐인 것, 죽음의 냄새-로 가득 찬 존재로 깨닫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사람이 절대로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에 있다. 사람의 삶에서 아무리 선한 순간이 있다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를 수는 없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근처에도 미칠 수 없다.

단절의 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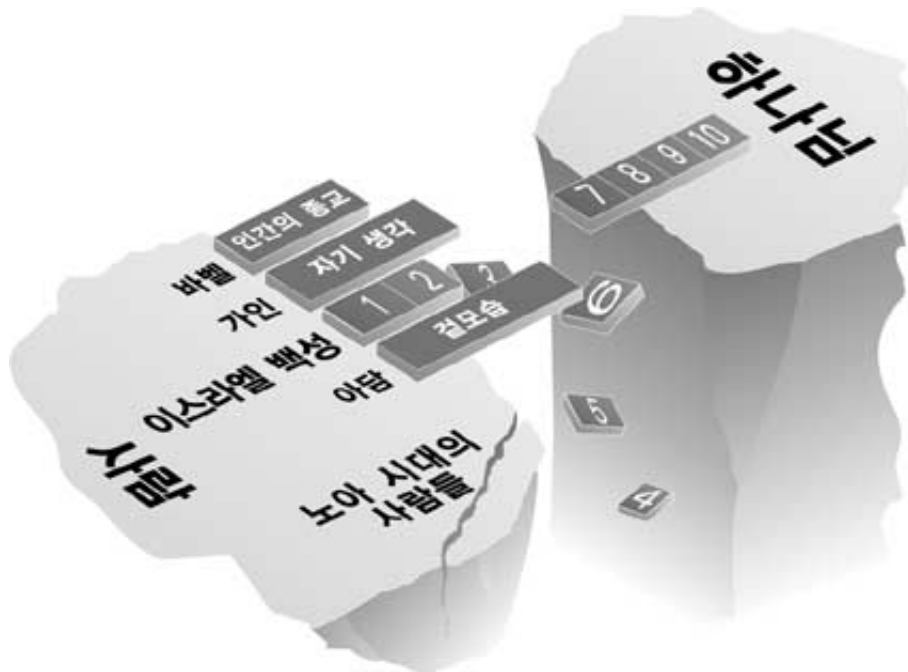
어떤 사람은 자신이 선한 사람이므로,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얼마든지 그런 착각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영적 진실에 대해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신다. 그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이라는 사실이다.

시편 51:5 KRV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제 사람은 자신이 참으로 죄인인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곧 의로우심의 영역은 사

람이 절대로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깊은 골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 골의 간격은 상상할 수 없이 넓다. 또 이 세상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그 간격을 메우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두 부류의 사람들

십계명을 처음 들은 이스라엘 사람의 반응은 오늘날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다. 성경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으로 떨었다고 말하는데,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천둥과 번개에 놀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무시무시한 장면, 곧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에 압도된 나머지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들은 십계명에 대해서도 아직 그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십계명을 지키는 것 정도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반응을 보인다. 밖으로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진정한 뜻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義)의 기준을 깨달은 사람도 없지는 않았다. 그들은 '거룩함'이란, 곧 '죄 없음'과 같다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도 두려움에 빠지긴 했지만, 그 이유는 전혀 달랐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임을 처음부터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 해결 방법을 구했다.

이런 연유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두려움에 떨었다고 말한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출애굽기 20:19 KRV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와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기록한 돌 판들과 율법과 명령들을 네게 주리니, 이것은 너로 하여금 그들을 가르치게 하려 함이라.”

출애굽기 24:12 KJV

이때부터 십계명은 그 효력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십계명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마련해주실 것을 믿었다.

열 가지 윤리규범이라고?

십계명은 윤리적, 도덕적 행위와 관련이 있어 보이므로, 때로 ‘윤리 규범’의 표준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우리가 이미 알게 되었듯이, ‘윤리 규범’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깨진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윤리 규범’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말은 더욱 아니다. 이 ‘규범’은 실제로 인류 역사에 중요한 영향을 끼쳐 왔다.

마치 자연 법칙이 우주 만물을 통제하는 질서인 것처럼, 영적 질서 역시 한 나라와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요하다. 많은 나라들이 윤리적으로 중립 사회임을 표방하는데, 이것은 성경적 규범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 회색 시대 같은 모호한 문화는 대단히 위험하다. 실제로 그런 윤리적 중립 사회는 존재하지도 않으며, 그런 모호한 국가와 문명은 역사에서 살아남지 못했다. 아무 편에도 서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느 한 쪽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즉, 그것은 곧 악의 편을 드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성경의 절대기준을 거부한 결과는 ‘옳고 그름’, ‘선과 악’의 개념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세대가 바뀌면서 죄에 대한 거부감도 없어져 가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견잡을 수 없는 혼란을 초래했고, 급기야 사회 전체가 파국을 맞이하곤 했다. 성경의 사건들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명백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느 정도의 죄인’이라는 사실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자기가 ‘구제 불능의 죄인’이라는 사실에 기꺼이 동의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견해에는 대단히 큰 차이가 있다.

‘어느 정도의 죄인’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 자기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계명도 어느 정도 잘 지킨다. 그리고 종교적 생활을 하거나, 기도나 수양을 하거나, 자선사업을 하거나, 이웃에게 친절하게 대함으로써 하나님을 어느 정도 기쁘시게 했다고 생각한다.

한 사람의 ‘선’의 양이 ‘악’의 양보다 많으면, 하나님께서 받아 주신다는 생각은 성경과는 거리가 멀다. 선을 행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말은 아니다.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사람의 행위 중 그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깨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각자 죄에 갇혀 있다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성경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

‘구제 불능의 죄인’은 자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안다. 그는 자신이 썩어가는 죽은 쥐와 같으며, 자신이 그 죄를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오히려 문제 해결에 한 발짝 다가서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구제 불능의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우리를 바람 같이 몰아가 나이다.”

이사야 64:6 KJV

우리의 가장 선함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우리의 의롭다고 하는 행위라고 해 봐야 죽은 쥐 위에 뿌리는 향수와 같다고나 할까? 죄인은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저 더럽고 추악한 존재일 뿐이다.



9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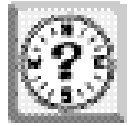
1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2 이스라엘의 불신앙

3 사사, 왕, 선지자

1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앞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들은 멸망의 길을 택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 주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



길을 잃음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다(옳다)’고 여기시도록 하려면,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치실 강의를 만드신다면 어떤 내용부터 시작하실까? 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

강의안 - 핵심 찾기

사례 연구 : 어떤 사람이 강을 건너다가 물에 빠졌다. 그는 허우적거리며 도움을 요청했다. 강둑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구해줄 사람이 없었다. 그 때 인명구조원 한 사람이 나타났다.

사람들은 그 인명구조원에게 물에 빠진 사람을 빨리 구하라고 재촉했다. 그러나 그는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었다. 물에 빠진 사람은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다가 마침내 탈진해서 물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바로 그 때, 인명구조원이 물 속으로 뛰어 들었다. 그는 부지런히 헤엄을 쳐서 물에 빠진 사람을 강가로 끌고 나왔다.

사람들은 인명구조원이 빨리 구조에 나서지 않았던 것을 나무랐다. 그는 말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절대로 그에게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아주 위험하지요. 그 사람이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는 몸부림마저 그칠때에야 비로소 그에게 다가가 건져낼 수 있습니다.”¹

결론 :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단계는 자신이 어떻게 해 볼래야 해 볼 수 없는 죄인, 곧 ‘구제 불능의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다. 누구도 자신을 죄로부터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며, 따라서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미리 이 강의를 보았다면, 그들은 놀라서 비명을 질렀을 것이다.

“하나님! 그 점은 저희들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을 것이다. “그렇다. 나도 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내가 너희로 하여금 반드시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다. 자신이 아무런 소망조차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너희가 내게 나아오는 첫걸음이다. 나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기를 포기한 자들만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은 강의는 상상으로 그려 본 것이지만, 그 적용만큼은 사실이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다. 다음 단계로 가보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리나라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출애굽기 25:1,2,8 KSV

시청각 교재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이라고 부르는 거룩한 장소, 곧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곳을 지어야 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하신 것은 집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정교한 시청각 교재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앞으로 성막이라는 시청각 교재의 의미를 설명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해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성급하게 다음 장으로 건너뛰지 말자. 성막은 전체 퍼즐 맞추기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 성막 구조를 교회 건물과 혼동하면 안 된다. 성막과 교회가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성막 건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건축을 위한 물품의 준비를 명하시면서 시작되었다. 하나님은 자발적인 것, 마음에서 우리나라와 바친 물품만 받으실 것이라고 하셨다. 헌금을 위한 호소나 강요 같은 것도 없었고, 무엇을 바치든 그것은 각 사람의 마음에 달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한 가지만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보여 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서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출애굽기 25:9 KSV

성막의 기본 설계도*

성막은 해체와 이동이 가능해야 했다. 성막은 천막으로 된 튼튼한 벽과 융단으로 된 덮개 지붕이 있었다. 성막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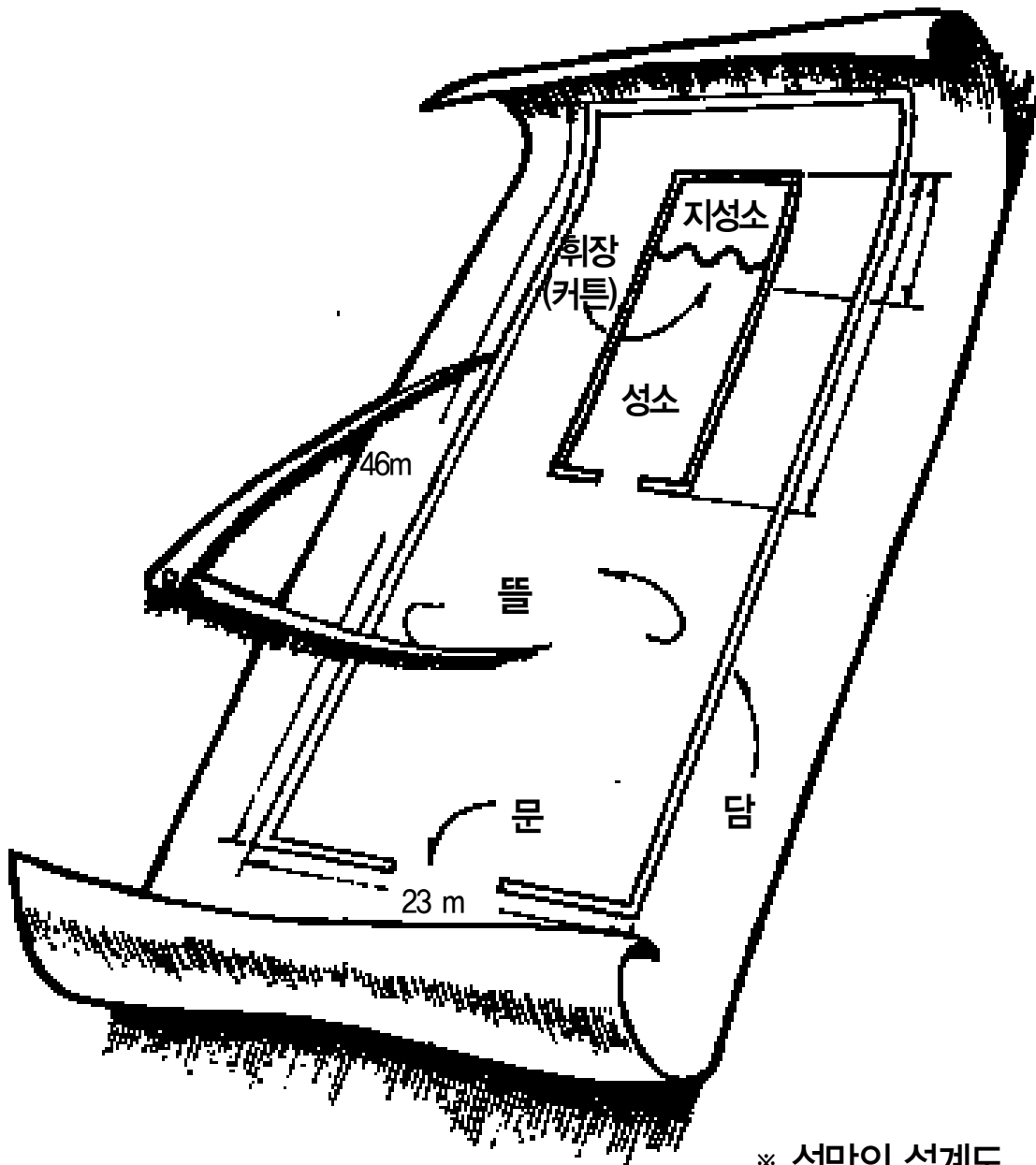
성막의 1/3은 지성소 즉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부르는 방이며, 2/3는 성소라고 부르는 방이다. 이 두 방은 두터운 휘장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 휘장은 바깥의 빛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했다.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이다.”

출애굽기 26:33 AEB

성소의 바깥 부분은 뜰인데, 이 바깥 뜰은 높이가 2m 가량 되는 담으로 둘러쳐져 있다. 그런데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단 하나 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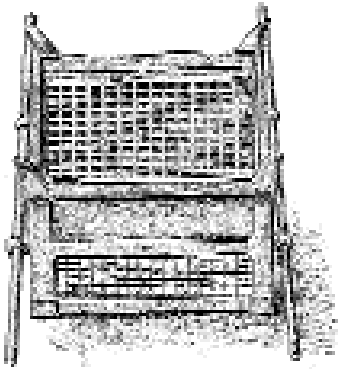
성막 안쪽 뜰에는 중요한 기구 일곱 가지가 놓여 있었다.²



뜯

① 낫제단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낫제단을 만나게 된다. 이 기구는 변제를 드릴 때 쓰는데 낫을 입힌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상당히 컸다. 네 모퉁이마다 뿔이 있었고, 또 양 옆에 긴 채(막대) 두 개가 있어, 그것으로 메어 운반할 수 있었다.



② 물두멍

낫제단과 성소 사이 한 복판에 위치했다. 이 물두멍에는 물이 항상 가득히 채워져 있는데, 제사장들은 여기서 손을 깨끗하게 씻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성결해야 함을 상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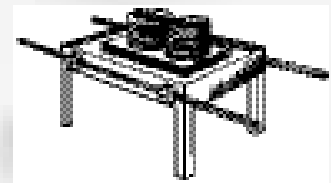
③ 등대

등대는 가운데 가지를 중심으로 좌우에 세 가지씩 모두 일곱 가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등대는 순금으로 만들어졌다.



④ 진설병 상

이 특별한 상 위에는 각각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나타내는 진설병(빵) 열두 개가 놓여 있었다.



⑤ 분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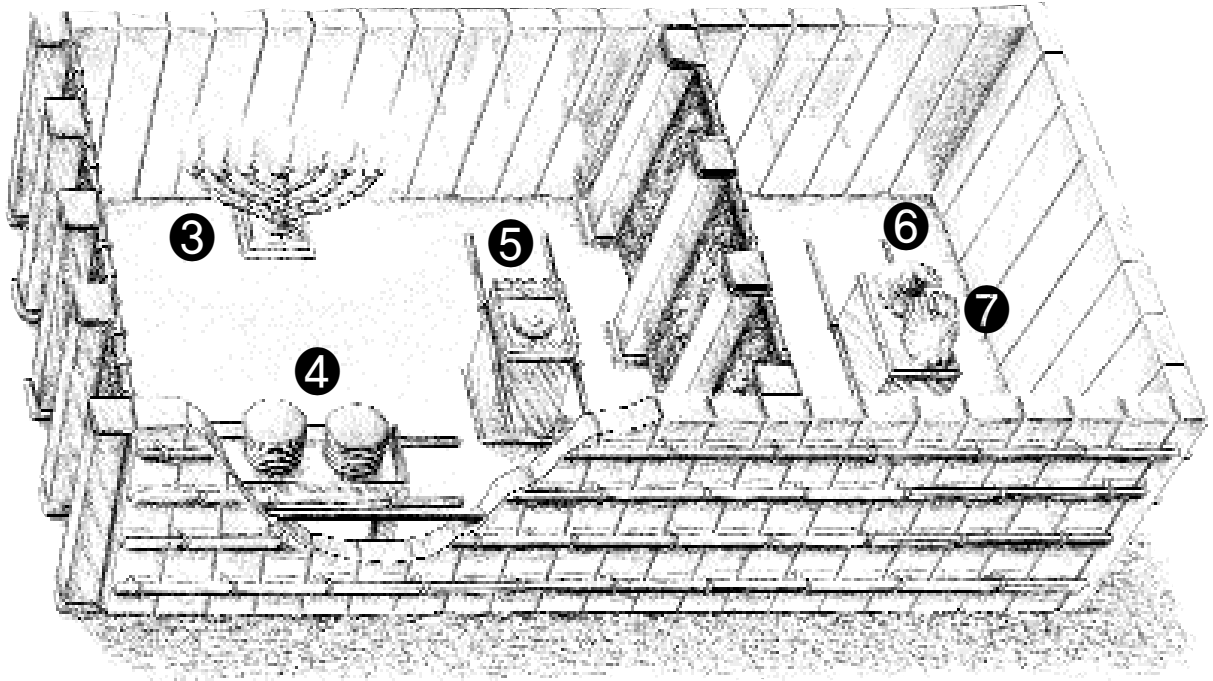
이 분향단은 지성소와 성소를 분리하는 휘장 바로 앞에 놓여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밖에 모여 기도하는 시간에 이 단 위에 향을 피웠다. 하늘로 향을 올려보내는 것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의 상징이었다.



성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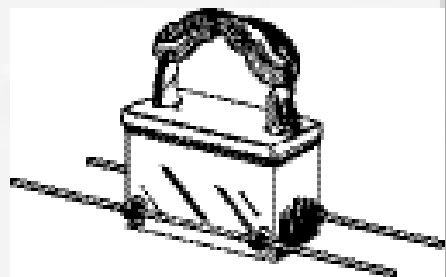
휘장(커튼)

지성소



⑥ 언약궤 (증거궤, 법궤)

순금을 입힌 이 나무 상자는 물건을 담아 두는 궤로 설계되었다. 그 안에는 두 가지 물건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돌판 두 개, 그리고 광야에서 공급하셨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것이었다 (후에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신 아론의 지팡이가 추가되었다). 언약궤를 메고 운반할 수 있도록, 양쪽에 긴 채(막대)가 고리로 궤어져 있었다.



⑦ 속죄소 (속죄판, 시은좌)

언약궤 위에는 순금으로 된 덮개가 있었고, 이 덮개 위에는 날개를 편 두 ‘그룹(천사)’이 놓여 있었다.

언약궤와 속죄소는 지성소 안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출애굽기 25:22 KSV

제사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을 불러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겨라.”

출애굽기 28:1 KSV

하나님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다. 그리고 모세에게 아론의 아들들을 성막에서 대제사장을 돕는 제사장들로 지명하라고 지시하셨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는데, 그것은 그들이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잡다한 사람들이 성막을 어수선하게 만드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지명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받들도록 특별히 훈련을 받았다. 또 그들은 광야에서 이동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성막을 돌보는 관리자 역할도 맡았다.

성막이 완성되다.

이스라엘이 시내 산에 도착한 지 아홉 달만에 성막 전체 구조물이 완성되었다.

모세가 그 모든 것을 점검해 보니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만들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축복하였다.

출애굽기 39:43 KLB

그들이 이집트를 떠난 지 2년째가 되는 해 정월 초하룻날에 성막이 세워졌다.

출애굽기 40:17 KLB

성막이 완성되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지성소 위에 머물렀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셨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러자 구름이 성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성막을 가득 채웠다. 모세는 ... 그 영광의 광채 때문에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출애굽기 40:34,35 KL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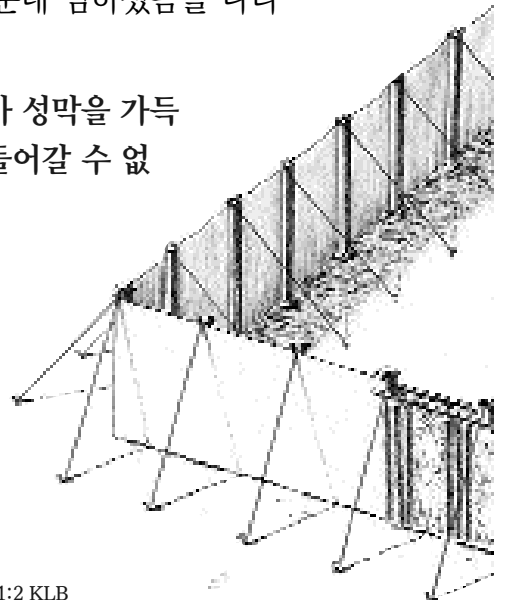
시청각 교재의 활용

성막 전체가 자리를 잡게 되자, 이 거대한 시청각 교재를 활용할 때가 다가왔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 여호와에게 제물을 드리고자 하거든 너희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을 바쳐라.”

레위기 1:2 KLB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들이 번제로 드릴 짐승을 성막으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을”

레위기 1:2 KLB

제물로는 소와 양 또는 염소가 드려졌고, 돼지나 말 같은 짐승은 부정한 것으로 분류되어 제물로 쓸 수 없었다.

“흠 없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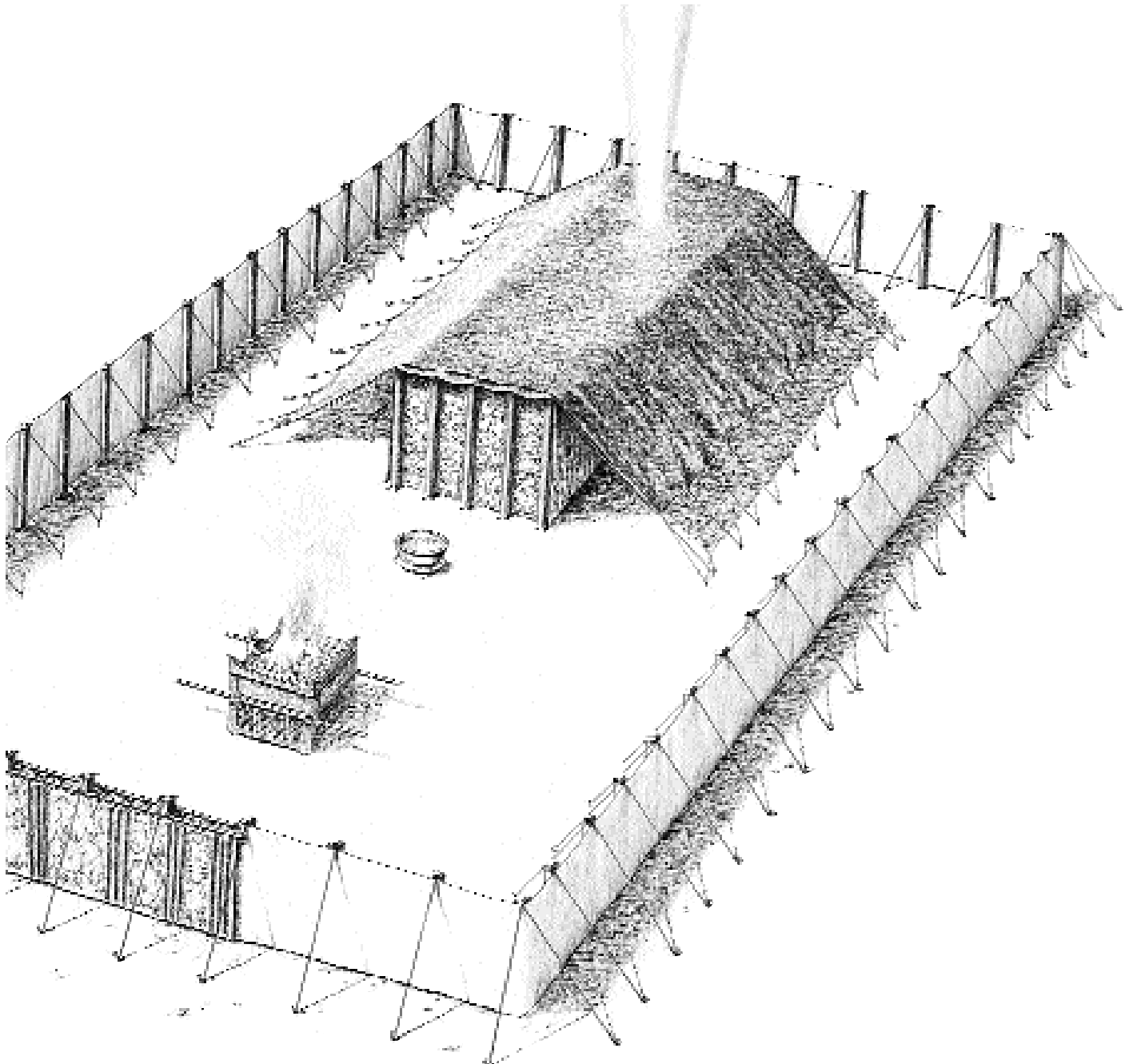
레위기 1:3 KSV

“수컷을 골라서”

레위기 1:3 KSV

그 제물은 수컷이어야 했으며 병든 것과 불구인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회막 어귀에서 드리되, 주께서 그것을 기꺼이 받으시게 하여라.” 레위기 1:3 KSV



그 번제는 뜰에 있는 *놋제단 위에서 드러졌다. 이것은 자신이 구제 불능의 죄인임을 깨닫는 것과 더불어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단계를 의미했다. 희생제물을 가져오는 사람은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놋'은 죄에 대한 심판의 뜻과 연결되어 쓰인다.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으면, 내가 그것을 그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희생의 제물로 받을 것이다.”

레위기 1:4 KLB

사람이 번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는 것은 자기 자신을 그 희생제물과 동일시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며, 자신의 죄가 그 제물로 옮겨가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제 그 제물은 그 사람의 죄를 갖게 되었으므로 반드시 죽어야 한다. 죄에 대한 형벌은 죽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희생제물을 죽이는 것은, 그 죽음이 순전히 자기의 죄로 인한 것임을 최종적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죄 없는 희생제물이 죄인을 대신해 죽었으므로 이것을 ‘대속(代贖)’이라고 하며, 희생제물로 쓰인 그 짐승을 ‘대속물’이라고 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대속물의 죽음을 그 사람의 죽음 대신 받아 주셨다고 선언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희생 제사는 매우 익숙한 것이었다. 그들의 조상들은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 그들은 계속 희생 제사를 드려야 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드렸다.



의로우신 구세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셨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기억하게 했다.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

이사야 45:21 KRV

사람들은 대속물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 보였다. 죄의 대가는 죽음으로 치뤄야 하는데, 희생 제사는 죄인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도 없다.”

히브리서 9:22 AEB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레위기 17:11 KSV

하나님께서 대속물의 죽음을 보셨을 때, 죄와 사망의 법이 완전히 충족된 것으로 여기셨다. 그 죽음은 죄의 대가는 사망임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죄의 빛 때문에 그를 거부하지 않으신다. 죄의 영원한 형벌이 더 이상 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을 존귀하게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신다. 하나님께서 바로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것을 기억하는가?



빛진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로마서 4:3 KLB

이것은 새로운 길이 아니었다. 이 길은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시대마다 의로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왔던 믿음의 길이였다.

속죄일

제사장들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성막 내를 자유롭게 다니며 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성소 안으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었다.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는 상징적인 장소이다. 죄인은 누구도 그 방에 들어갈 수 없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걸려 있는 두꺼운 휘장은 모든 호기심 어린 눈길을 차단했다. 휘장은 가장 거룩한 곳을 보호하고 있었다. 지성소 안으로는 대제사장인 아론만이 일 년에 단 한 번, 그것도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다. 그 때 대제사장은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다.³

‘오직 둘째 성막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해마다 한 번씩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잘못으로 인하여 주께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나니’

히브리서 9:7 KJV

누구라도 이 지시사항을 어기는 자는 목숨을 잃었다.

레위기 16:2 KLB

“너는 네 형 아론에게 경고하여 성소의 휘장 뒤 법궤와 그 법궤의 뚜껑인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그 속죄소 위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속죄일 제사는 해마다 한 번 치르는 제사로 기록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죄가 덮어 가려져야 함을 기억하게 했다. 이 제사가 해마다 반복된 이유는, 짐승의 피가 실제로 사람의 죄를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이었다. 짐승의 피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심판을 연기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었다. 결국 속죄 제사는 ‘임시’로 죄를 가리는 것에 불과했다.

성막, 성막의 기구들, 제사장, 희생 제사, 속죄일 등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정교한 시청각 교재였다. 이 교재들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무엇을 하실지, 그 계획을 설명해 주시는 일에 사용되고 있었다.

2 이스라엘의 불신앙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워가고 있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양식과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공급해 주셨다. 심지어 그들의 신발과 의복까지도 헤치지 않게 해 주셨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도덕률도 갖게 되었다. 물론 십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계명은 그들을 하나로 연합하게 하는 올바른 삶의 기준이 되었다. 또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심으로 다시 한 번 자비를 베푸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베푸신 모든 일에 대해 이스라엘이 두고두고 감사했을 것 같지만,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진정한 감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들은 또다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고 여긴다. 나라면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이스라엘은 어째서 이다지 완악한가 하며 혀를 찬다. 그러나 나도 그들처럼 연약한 존재요,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상 인류 전체를 대표하고 있었다. 해가 갈수록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고, 그들의 책임도 그만큼 커져 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누구든지 많이 받은 사람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며, 많이 맡은 사람에게 많이 내놓으라고 할 것이다.”

누가복음 12:48 KLB

이제 이스라엘은 세상 어느 나라보다 하나님에 대해 잘 아는 민족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 땅을 돌아가려고 호르산을 떠나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갔다. 그런데 길을 돌아가는 고생을 참지 못해,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려 하시요?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지 않소? 이제 이 지겨운 만나도 신물이 나서 못 먹겠소!” 하고 모세에게 불평하였다.

민수기 21:4,5 KLB



이들의 원망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완전한 공급자로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부족함 없이 채워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자신들이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고 불평했다. 그들은 거짓으로 과장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법칙을 무시하면 중력으로 인해 다리가 부러지듯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 법칙을 위반하면 역시 그 결과를 책임지게 된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오랫동안 관대하게 묵인해 주셨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창조주=소유주와의 관계에서 더 이상 초보자가 아니다. 그들은 십계명을 알게 되었으며 지식이 늘어난 만큼 책임도 무거워졌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모른 채 외면하시고, “자, 잊어버리자. 그런 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치자”라고 하실 수 없다. 죄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른다.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영적 법칙이다.

*하나님은 일정 기간 참아 주신다. 그러나 결국 모든 죄를 심판하신다.
사도행전 17:30 참조

주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민수기 21:6 KSV

하나님의 진리는, 죄에는 반드시 죽음이 따른다는 것이다. 여기서 죽음이란 육체의 마감, 관계의 단절, 그리고 영원한 불 못의 고통을 포함한다. 그 후대를 이어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는 모습을 통해, 진리는 생생하게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했고,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에서 자신들을 구해주실 수 있을 뿐, 그 외에는 도움을 얻을 곳이 전혀 없음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나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하고 죄를 지었사오니, 주께 기도하여 이 뱀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민수기 21:7 KJV

하나님의 심판의 참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근본적인 태도 곧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었다. 성경은 이 변화를 다른 말로 ‘회개’ 라고 표현한다. 인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육체를 떠난 후, 죄인이 심판의 불 못 속에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도 그때는 너무 늦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해 주소서!” 하고 간청했다. 죽음 앞에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민수기 21:8,9 KJV

장대 위의 뱀은 무슨 부적이나 심리 치료 같은 것이 아니었다. 이는 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 드릴 기회를 주신 것이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 눈을 들어 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죽음의 맹독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바라보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있음을 보여 드린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불뱀에 물리고도 끝내 뱀을 바라보지 않았다고 하자. “모세 늙은이가 진짜 돌았나봐. 뱀을 만들어 걸어 놓고, 그것을 쳐다보면 낫는다고 하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난 절대로 쳐다보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며 그 뱀을 외면했다면, 그는 반드시 죽었을 것이다. 그 때 그가 죽은 진정한 이유는 불뱀에 물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믿지 않는 불신앙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사람마다 각자 하나님에 대해 알고 믿는 바를 책임지게 된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잘 준비해야 하지 않겠는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히스기야왕이 그 뱀을 부숴 버렸다. 그때까지 7백 년이 넘도록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우상숭배였으며, 그들은 계속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기고 있었다(열왕기하 18:4).

복습 : 죽 음 이 란?

성경은 죽음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 뜻으로 말하고 있다.

1. 육체의 마감 - 사람의 영혼과 육체의 분리.
2. 관계의 상실 - 사람의 영혼과 하나님의 단절.
3. 영원한 고통 - 사람의 영혼이 영원한 불 못에 갇혀 고통 받으며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됨.

‘죄의 값은 사망이요’

로마서 6:23 KRV

3 사사, 왕, 선지자

이제 우리는 몇 세기에 걸친 사건들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 볼 것이다. 평소 역사 공부를 지루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조차 관심이 되도록 대단히 간략하다(각 단락의 제목을 162-163쪽에 있는 도표와 비교하면, 그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 걸렸다. 모세는 가나안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유능한 장군이 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지휘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완전히 정착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 땅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 분배되었다. 각 지파는 야곱(이스라엘)의 열두 아들의 후손들이다.

사사들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한동안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진리에서 떠나 또 우상을 만들고 거짓 신들을 섬겼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징벌로,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압제하고 수탈하도록 하셨다. 그 때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고, 자신들을 압제자들로부터 구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일으켜 이방 정복자들을 내쫓게 하셨다. 이 지도자들을 '사사'라고 불렀다. 이러한 일은 약 3백 년 동안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일어났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에는 15명의 '사사'들이 일어났다.



왕들의 시대

하나님께서서 몸소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왕이 되어 주실 때 이스라엘은 세상 모든 나라들 중 가장 행복한 나라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의 정치 제도 곧 왕의 통치를 부러워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달라고 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다.

이스라엘에는 대를 이어 여러 왕들이 나왔다. 그 중 몇몇 왕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들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다만 이스라엘의 지도 체제가 사사들로부터 왕들로 바뀌었을 뿐이다.

왕들 중에 주목할 만한 왕이 한 사람 있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다. 다윗왕은 다른 왕들과 달리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리라고 믿었고, 그 믿음으로 주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 라고 불렀다.

다윗왕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한 위대한 선지자이기도 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는 많은 시를 지었는데, 특히 언약의 구원자에 대한 시를 많이 썼다. 또 하나님은 '기름부음 받은 자', 즉 구세주가 그의 후손 중에서 나오리라고 약속하셨다.⁴

다윗왕은 성막을 성전이라는 항구적인 건축물로 대체할 뜻을 갖고 있었다. 성전의 기본 구조는 성막과 같았다. 다윗은 자신이 수도 예루살렘에 그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지 않으셨다. 다윗왕은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해 놓았고, 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왕이 그 성전 건축을 완성했다.


솔로몬왕은 두 가지 사실로 유명하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뛰어난 지혜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이다. 이 장엄한 성전은 모리아산 위에 건설되었는데, 그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던 곳과 동일한 장소로 추정된다.

솔로몬이 죽은 후, 나라는 둘로 분열되었다. 북쪽의 열 지파는 '이스라엘' 왕국으로 불리었고, 남쪽의 두 지파는 '유다' 왕국으로 불리었다. 이 분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첫 단계였다. 북쪽 지파들이 먼저 멀어져 갔다. 남과 북의 백성들이 모두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듯이 보였으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다.

어떤 사람은 아무것이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믿으면, 곧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런 신념의 배후에는, 모든 길은 결국 하나님께로 통한다는 범신론적 사고방식이 자리잡고 있다. 이것은 성경적 가르침이 전혀 아니다. 성경은 세상에 수많은 거짓 신들이 있는데, 참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짓 신들을 섬겼을 때, 그들은 영락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선지자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셨다. 선지자들은 백성의 갈팡질팡하는 양심에 맞서 설교하는 동시에 다가오는 심판을 경고했다.

 선지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성경을 기록했다. 그 중 어떤 것은 앞으로 오실 '언약의 구원자'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예언한 내용도 있었다.

대개의 경우,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왕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했다. 왜냐하면, 참된 선지자들은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를 전했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선지자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 뿐이다.”

이사야 29:13 KSV

백성들은 대개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무시했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했다. 그들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설상가상으로 악한 영을 받은 거짓 선지자들이 큰 혼란을 일으켰다. 하나님께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지침을 주셨건만, 백성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더 듣고 싶어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거짓 선지자들이 더 인기가 있었다.

먼저 멸망한 북 이스라엘 왕국

마침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다. 앗시리아 왕국이 북쪽 지파 이스라엘 왕국을 침략해서 그들의 대부분을 포로로 잡아갔다(BC 722년). 이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는 기록은 없다.



포로로 끌려 간 남 유다 왕국

그 후에도 남쪽 두 지파는 유다 왕국으로 남아 있었으나, *바빌론 왕국이 예루살렘을 침략해 성전을 파괴하고, 유다 왕국 사람 대부분을 포로로 잡아갔다(BC 586년).

| *바벨 탑이 있던 지역에서 일어난 나라

포로로 있는 동안에 그들은 '유대인' 이라고 불리었는데, 이는 그들 대부분이 유다 지파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비록 성전은 없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장소를 절실히 필요로 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역마다 **회당(Synagogue)을 만들어 각종 예배모임과 성경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장소로 사용했다.

| **'모임'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그들은 수십 년 동안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 있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을 재건했다(BC 536년). 성전도 솔로몬왕 때의 규모에는 못 미쳤지만 재건축되었고, 율법과 제사가 다시 지켜지기 시작했다.

그리스의 영향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더 이상 보내 주시지 않았고, 성경을 기록하는 일도 중단되었다. 대략 4세기 동안의 조용한 침묵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역사 자체가 정지된 것은 아니다. 그리스의 뛰어난 장수 알렉산더 대왕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 세계를 통일했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도 점령했다. 알렉산더는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에서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게 했고, 그 후 몇 세기 동안 그리스 문화는 높은 신분의 상징처럼 자리 잡게 되었다.



유대인 중에서도 그리스 문화를 기꺼이 받아들여, 그 문화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결합시킨 사람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이라고 불리었다. 그들의 수는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부와 영향력을 쥐고 있는 계층이었다. 그들의 부와 영향력은 대제사장도 조종할 수 있을 만큼 막강했다. 불행하게도 그들 중에는 성경의 일부를 진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결과적으로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인가를 빼는** 일을 했다.

약 2백 년 동안 유대인들은 그리스에서 일어난 한 왕국의 속국으로 있다가 독립을 위한 봉기를 일으켰다(BC 166년). ‘유다 마카비’가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 다시 독립의 시대를 열었다.

이 기간 중에 ‘바리새인’이라 불리는 종교적 열심이 있는 계파가 등장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거부하고,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 매달렸다. 그들은 종교적 열정으로 모세의 율법 위에 다른 법과 규례들을 만들어 더했다. 원래의 율법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막을 둘러싼 셈이었다. 그러나 나중에 더해진 이 법과 규례들은 그 자체로 권위가 생겨 모세의 율법과 대등한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는** 일을 했다.

유대인 사회의 또다른 중요한 세력으로는 ‘서기관’이 있었다. 서기관들은 기본적으로 복사기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인쇄술이 등장하기 전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극도로 신중하게 필사해서 보존했다. 그래서 서기관이라는 말은 종교와 교육의 열정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말이 되었다. 이 명칭은 종교나 정치적 계파라기보다는 직업을 나타내는 명칭이었다.



로마

마카비의 통치 아래 유대인이 누린 독립의 시대는 1백 년을 채 넘기지 못했다.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예루살렘에 입성함으로써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에 놓이게 되었다(BC 67년).

로마는 유대인들이 세금을 잘 내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 한, 유대인들의 종교에 대해서는 관대한 정책을 폈다. 당시 로마 제국이 통일한 세계는 불안한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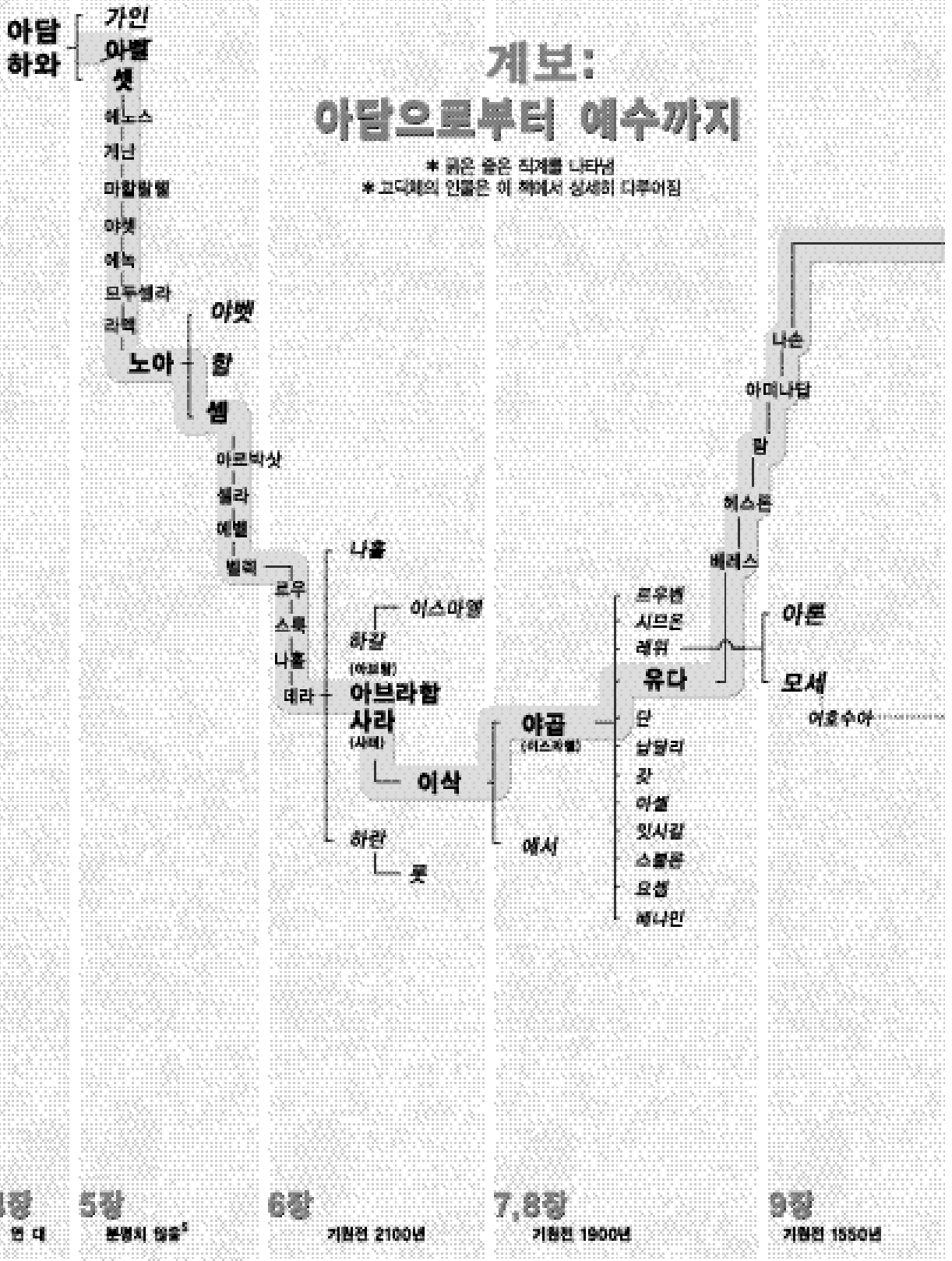
로마 제국은 직접 통치하기에는 그 영토가 너무 광범위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역을 분할해 지도자를 세워 통치하도록 했다. 유대 지역에서는 ‘헤롯’이 꼭두각시 왕으로 지명되었다. 헤롯은 일반적으로 헤롯대왕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인한 사람이었다. 그는 표면상으로만 유대교의 추종자였다. 헤롯왕과 그 자손들은 유대 사회를 1백 년 이상 다스렸다. 그 때 유대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세주, 곧 자기들을 구해 줄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부르짖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언약의 구세주가 나올 것을 약속하신지 어느새 2천 년이 지나갔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세대마다 이어졌다. 그들은 약속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다. 로마가 다스리기 시작하던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약속이 실현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약속의 때가 다가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작 이 때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바로 그 때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 무대에서는 다시 막이 올라가고, 드라마의 새로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다. 하늘의 천사들도 숨을 죽이고 있다. 사탄은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것이다. 과연 누가 이 언약의 구원자가 될 것인가?

계보: 아담으로부터 예수까지

* 굵은 줄은 직계를 나타냄
* 고대어의 인물은 이 책에서 상세히 다루어짐



북이스라엘-북쪽 열 개의
지파로 구성되었으며, 기원전
722년에 앗시리아에 의해
포로로 잡혀감.

북이스라엘의 10 지파

- 호세아
- 헤가
- 실론
- 스기라
- 여로보암2세
- 요이스
- 여호아하스
- 여호
- 여호람
- 아하시야
- 아합
- 다보니와 오므리
- 시므리
- 벨라
- 바아사
- 니담
- 여로보람

환상표는 선지자가
살았던 시기를 나타냄

살몬
라합
보아스
룻
오벳
에새

다윗 - 솔로몬

남유다의 11 지파

- 드호보암
- 아비아
- 아사
- 여호사밧
- 요람
- 아하시야*
- 아달라야람*
- 요아스*
- 아마시야*
- 웃시아
- 요담
- 아하스
- 히스기야
- 므낫세
- 아몬
- 요시아
- 여호아하스
- 여호야킴
- 여호야긴
- 시드기야

남유다-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로
구성되었으며, 기원전 586년에
바빌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감.

**성전 파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
70년간 포로생활

바빌론-페르시아-그리스-로마

세례(침례) 요한
열두사도

마리아 - 예수

요셉
아골
맛단
엘리아셀
엘리웃
아립

바울
(사울)

*성전은 지도자의
순서를 나타냄.

여호수아
호니엘
엘후
삼갈
드보라와 비박
기드온
줄라
야일
압다
압산
압돈
압돈
삼손
엘라
사무엘

기원전 1400년

기원전 1000년

기원전 500년

10-14장

기원전 4년

기원후 30년

15장

기원후 50년

*마태복음의 예수와 계보에 기록되지 않은 왕들



10장

1 예언이 현실로

2 예수

3 선생들 사이에서

4 세례(침례)

1 예언이 현실로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언약의 구원자를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먼저 이 일을 선포할 특사를 그들에게 보낼 계획을 세우셨다. 하늘에서 천사들은 누가 이 좋은 소식의 특사로 선택될 것인지 궁금해 했을 것이다. “우리 천사들 중의 하나일까?” 그 때 또다른 긴급 뉴스가 들려 왔다. 그것은 언약의 구원자의 신상과 관련된 것이었다. 온 하늘나라가 숨을 죽였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아 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였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다.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제사장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그 때에 주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다. 그는 천사를 보고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간구를 주께서 들어주셨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은 네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의 선구자로 먼저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


누가복음 1:5-17 KSV

천사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할 사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뉴스는 듣기에도 기대감이 드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마지막 뉴스는 하늘나라를 뒤흔드는 충격이었다. 하나님-주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오신다! 주님께서 몸소 언약의 구원자가 되신다! 모두가 경탄할 만한 소식이었다. 그러나 사탄은 이 소식에 경악했을 것이다.

사가랴는 이 일이 어찌된 일인지 이해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것이다. 그 당시에도 천사를 본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었다. 몇백 년 전의 옛날이야기 같은 일이 현실로 나타나다니! 아내 엘리사벳이 늙은 나이에 아들을 갖게 된다니! 사가랴는 명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의 구원자로 오신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사가랴는 선지자들의 글을 잘 알고 있었다.

사가랴보다 4백 년 전에 태어난 선지자 말라기는 이 일이 있을 것을 예언한 바 있었다.

말라기 3:1 KRV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주(主)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사가랴는 생각했을 것이다. ‘왜 이 말씀의 뜻을 진작 깨닫지 못했을까?’ 이 말씀은 명백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의 앞에서 길을 준비할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하셨다! 결국 하나님 자신께서 친히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신다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자가 다름 아닌 자기 아들 요한이라니!

엘리사벳의 수태

사가랴는 말 못하는 병어리가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모두 정확히 지키셨고, 천사가 일러준 모든 일이 그대로 일어났다.

그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기를 갖게 되어 다섯 달 동안 집안에만 있었다. 엘리사벳은 “이제 아기를 낳지 못하던 내 수치를 벗겨 주시니 주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냐!”하고 말하였다.

누가복음 1:24,25 TKV

사가랴의 마음 속에는 계속 궁금한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빛나는 갑옷을 입은 천군 천사들이 호위하고, 일곱 마리 백마가 끄는 황금 전차를 타고 오실까? 또 언제 로마사람들을 내쫓고 헤롯왕을 끌어 내리실까? 그러나 천사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마리아

장면이 바뀌어, 천사가 이번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의 처녀를 방문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사는 다윗의 후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보내셨다.

누가복음 1:26,27 KLB

‘요셉’과 ‘마리아’는 당시 유대 관습에 따라 정혼한 상태였다. 성경은 요셉과 마리아 양쪽 다 다윗왕의 직계 후손이라고 말한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은혜를 입은 사람아, 기뻐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몹시 놀라 ‘이 인사말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고 생각하였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누가복음 1:28-31 KSV

“오! 주님...” 이번에는 마리아가 말문이 막힐 차례였다. 이윽고 말문이 열리자, 마리아는 매우 논리적인 질문을 던졌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누가복음 1:34,35 KSV

마리아가 바로 언약의 구원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제 모든 일의 윤곽이 선명해졌다. 마리아는 어렸을 때부터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이 ‘언약의 구원자’가 될 것을 약속하셨다. 그 때 하나님은 ‘남자의 후손’ 또는 ‘그들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으셨다.

태초의 그 약속이 막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이제 한 아기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텐데, 그 아기가 바로 여자의 후손이었다. 그 아기는 육신의 아버지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이었다. 늘 들어오던 예언의 말씀이 지금 마리아의 눈앞에서 현실로 나타났다.

이 역사적 사건의 내용은 짧지만, 그 속에는 대단히 심오한 뜻을 담고 있었다. 이 아기는 사람의 씨로 잉태되는 것이 아니므로 혈통으로는 아담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아담의 모든 후손은 아담의 본성, 곧 죄의 본성을 물려받아 이 세상에 태어난다.¹ 그러나 이제 태어날 아기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므로 죄의 본성을 물려받지 않았다. 성경에 따르면,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분이라고 했다. 천사가 그 아기를 가리켜 ‘거룩한 분’이라고 말한 것도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므로, 그 아들 또한 죄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 그 아기는 잉태될 때부터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였다. 그 아기의 이름은 ‘예수’였다.

또 하나님의 아들은 화려한 모습으로 웅장한 행렬을 이끌고 오시지 않았다.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과정을 똑같이 겪으며 오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시다니! 천사가 말했다.

“보라, 네 사촌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수태하였느니라. 수태하지 못한다고 하던 그녀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그녀를 떠나가니라.

누가복음 1:36-38 KJV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기에는 너무 늙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면, 처녀가 아기를 낳는 일도 가능한 일일 것이다. 결국 마리아의 선택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다.

요한

엘리사벳은 해산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누가복음 1:57 KJV

요한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태어났다. 그 시대에 결혼한 사람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큰 수치인데, 하나님께서 그들 부부에게 아기를 주신 것이다.

사가랴의 말문이 다시 터지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전율했다. 그가 드린 찬양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주신 약속, 곧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훑어보는 간추린 역사와 같았다. 사가랴가 자신의 아기 요한을 자랑스럽게 높이 쳐들고 기쁨에 넘친 눈으로 바라보았다.

요한은 언약의 구원자께서 곧 세상에 오심을 선포하는 사자가 될 것이다.


“아이야, 너는 가장 높으신 이의 대언자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 까닭은 네가 주 앞에 가서 그분의 길들을 예비하고,”

누가복음 1:76 KJV

이름의 의미

예수께서 오시기 훨씬 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의 탄생에 대해 예언했다. 성경에 있는 이 예언들은 모두가 놀랄 만큼 정확한 것이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백 년 전에 이렇게 기록했다.

 한 아기가 태어났으니 우리에게 주신 아들이다. 그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실 것이니 그 이름은 ‘위대한 스승’,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하리라. 이사야 9:6

그 아기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기록된 사실에 유의하자. 그 밖에도 주 하나님의 특성을 나타내는 다른 이름들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 : 이 이름은 은유적 표현을 담고 있다. 아담의 후손이 죄의 본성을 지닌 것과 대비해 예수께서 하나님의 본성을 지닌 것을 확실하게 표현한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히브리서 1:3 KRV

사람의 아들(인자/人子) : 이 이름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의 인성(人性)과 그 직분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이 이름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곧 어떤 직책이 있음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한다.²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 이 두 이름이 하나가 될 때, 사람들은 다음의 성경 말씀이 완벽하게 설명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디모데전서 3:16 KJV

말씀 :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내셨는데, 이제 드디어 그 ‘모습’을 세상에 나타내셨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제부터는 ‘우리와 함께 계신’ 말씀이 되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요한복음 1:1,14 KSV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이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비유를 생각해 보자. 불도저가 새로운 길을 내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길가에는 개미집이 하나 있다. 그 개미들이 모두 죽게 될텐데, 만일 우리가 그들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해답은 이렇다. 우리 중 하나가 개미가 되어, 그들이 위험을 경고할 때 사용하는 방식으로 곧 닥칠 재앙을 그들에게 경고해 주는 것이다.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디모데전서 1:15 TKV

2 예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밴 것이 드러났더니, 그때에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사람들 앞의 본보기로 삼고자 하지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먹었으나, 마태복음 1:18,19 KJV

유대인의 정혼 개념은 오늘날의 약혼보다 훨씬 더 강한 결합을 의미한다. 정혼한 커플은 거의 모든 상황에서 결혼한 부부와 똑같이 여겨졌다. 다만 두 사람이 아직 함께 살고 있지 않을 뿐이었다.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으로 불리었고, 마리아는 당연히 요셉의 아내로 불리었다. 그러므로 그 정혼을 파기하려면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 때 요셉이 느꼈을 감정을 상상해 보자. 요셉은 대단히 괴로워했다. 자신과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는데, 그 아기는 명백히 자기 아기가 아니다. 공개적으로 이 사실을 밝히면, 마리아는 간음한 여자로 고발되어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 마리아의 말로는 천사가 나타났다고도 하고, 성령으로 잉태했다고도 하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핑계로 들린다. 그가 보기에는 이 불쌍한 여자가 제 정신이 아닌 것 같다. 요셉은 자기를 속이는 여자와 결혼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마리아와 조용히 헤어져야겠다고 생각했다.

요셉이 이 일을 꼼꼼히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하였다.

“다윗의 후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라. 그녀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마태복음 1:20-23 KLB

천사의 말은 요셉에게 대단히 큰 충격이었다. 마리아가 정말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가졌다니! 게다가 아기의 이름도 구원자, 즉 구세주를 뜻하는 ‘예수’라고 이미 정해져 있었다. 이 예수는 사람들을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천사는 예수의 다른 이름도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께서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의 이름이었다. 예수는 사람의 육체로 오셔서 세상 사람들 중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이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미 7백 년 전에 이 일에 대해 미리 기록해 놓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직접 너희에게 표적을 주실 것이다. 처녀가 임신 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요셉은 자리에서 튕겨나듯이 벌떡 일어났다.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 그대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상관없다! 이제 요셉 그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뿐,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는 것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 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마태복음 1:24,25 KSV

인구 조사

그 때에 *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온 세계가 호적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누가복음 2:1 KSV

*아우구스투스는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였다

당시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더 많은 국고 수입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정확하게 인구 조사를 하면, 세금 낼 사람이 더 많아질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제국 내의 모든 사람이 본적지로 돌아가 호적을 정리할 것을 명했다. 요셉이 이 일을 반가워했을 리가 없다. 우선 아내 마리아가 만삭이다. “지금 가족을 데리고 본적지 베들레헴으로 가야 한다니.” 요셉은 1천 년 전 다윗왕의 후손이고, 그곳 베들레헴은 다윗왕의 고향이다. 당장 출산할지도 모르는 아내를 나귀에 태워 120km 이상 여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정말 난처한 일이군.’ 그러나 로마 당국이 명령을 바꿀 리는 없다.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떠났다.

모든 사람이 호적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동네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 때에 마리아는 임신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2:3-7 KSV



요셉과 마리아는 여행 끝에 베들레헴에 도착했다. 그 때 그 작은 도시는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그들은 도저히 여관을 구할 수가 없어 간신히 목을 곳을 하나 구했는데, 그 곳은 마구간이었다. 예수는 그 곳에서 태어나셨다. 또 예수의 첫 침대는 가축을 먹이는 구유였다. “베들레헴! 그것도 하필이면 귀퉁이 마구간에서...” 그러나 아기를 바라보는 요셉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정말 모든 일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마태복음 1:25 KSV

목자들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오고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두루 비치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니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이 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하매,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그 천사와 함께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8-14 KJV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곳인데, 이곳은 성전에서 희생제물로 쓸 양을 기르는 지역이었다. 그 날도 목자들은 여느 때와 같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 전하는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서로 말했다. “자네도 들었나?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 주님이시라고?”

그리스도 / 메시아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메시아’와 똑같은 뜻으로 쓰인다. 이 말은 본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한다. 옛날부터 메시아라는 이름은 ‘언약의 구원자’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천사는 오시는 분이 ‘기름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메시아)이신 ‘주님’ 이시라고 말했다.³ 이 주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것이다.*

* ‘주님’ (Lord)이라는 말은 본래 선지자들이 구세주를 가리킬 때 쓰던 말이었다.

누가복음 2:15-17 TKV

그 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늘로 되돌아가자 목자들이 말하였다. “어서 베들레헴으로 갑시다. 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봅시다.” 그들은 서둘러 동네로 달려갔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냈다. 과연 아기는 구유 안에 누워 있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있었던 일과 천사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말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알렸다.

목자들은 대개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말하자면, 왕의 탄생을 기념하는 자리에 초대받을 만한 신분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그 자리에 초대 받았다. 그런데 목자들 외에 예수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

동방의 박사들

마태복음 2:1,2 KSV

헤롯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였다.

*성탄절 카드에는 대개 세 명의 동방 박사가 등장한다. 그러나 성경은 박사들이 몇 명이었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다. 다만 그들이 가져온 선물이 세 가지였다. 그 박사들은 아라비아 또는 그보다 먼 동쪽에서 온 점성가들로 유대인은 아니었을 것이다.

동방의 박사들은 부와 지위를 지닌 사람들로써 직접 왕을 방문해 만나 볼 정도의 위치에 있었다. 당시 헤롯이 유대 지역의 왕이었는데, 그는 박사들의 방문을 받고 큰 위협을 느꼈다. 그러나 박사들이 군대를 끌고 온 것도 아니므로, 헤롯왕이 위협을 느낀 것은 그들의 방문 자체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질문에서였음을 알 수 있다.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헤롯왕은 이 말을 듣고 매우 불안해했으며,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이 소문을 듣고 술렁거렸다.

마태복음 2:3 TKV


이 한 마디 질문이 헤롯왕을 뒤흔들어 놓았다. 헤롯은 자신의 왕권에 도전하는 자는, 그가 누구이든 간에 인정사정없이 제거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아마 예루살렘 성 전체에 약간의 동요가 일어난 듯했다. 헤롯은 자기 백성들에게도 잔인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다. 특히 그가 기분이 나빠 있을 때는 더욱 심했다. 헤롯은 즉시 종교 자문관들을 불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다 모아 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 보았다.

마태복음 2:4 KSV

예언

한 서기관이 두루마리에서 먼지를 털어내며 무엇인가를 읽고 있다. 동료 서기관들이 갈대종이를 놓고 몸을 굽혀 침침한 눈으로 글을 훑어본다. 그들에게서 약간 당황하는 기색이 보였다. 그들은 그 기록이 오래 전에 선지자가 쓴 것임을 헤롯이 이해해주기를 바라는 표정이었다.

 그것은 미가 선지자가 약 7백 년 전에 기록한 예언이었다. 한 서기관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두루마리의 한 부분을 가리킨다.

헤롯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서기관들에게 어서 읽기를 재촉한다. 서기관 한 사람이 “흠! 흠!” 목을 가다듬고 읽기 시작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⁴ 너는 유다에서 가장 작은 마을 중의 하나이지만,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는 영원 전부터 있는 자이다.”

미가 5:2 KLB

여기에 이스라엘의 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말 때문에 가뜩이나 심란한 헤롯은 눈썹을 더 치켜 올렸을 것이다.) 헤롯은 선지자 미가가 예언한 것이 또 있는지 빨리 알고 싶어 했다. 미가의 예언의 기록은 더 있었다! 그 기록에 따르면, 오실 그 왕은 태초부터 계셨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헤롯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기로 오신다니? 더구나 베들레헴 같이 보잘 것 없는 시골에? 하나님께서 오신다면, 우리 같은 나팔 소리와 함께 불전차를 이끌고 아마도 예루살렘으로 오시지 않겠는가? 아하! 서기관들이 머리를 써서 나 헤롯왕을 놀라게 하려고 일을 꾸미는지도 모르겠구나. “그렇다면...” 헤롯은 새

왕이 어떤 종류의 경배를 받게 될지 한번 본때를 보여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서기관들을 물러가도록 했다.

그 때 헤롯은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캐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알려 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하겠소.” 하였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나가는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다시 나타나 그들 보다 앞서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멈췄다. 그 별을 보고 박사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한 후,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렸다.⁵

마태복음 2:7-11 KLB

경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께 경배했다. 하나님의 율법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셔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한다. 요셉과 마리아도 십계명을 잘 알았지만, 지금 박사들이 예수께 경배하는 것을 말리지 않았다. 그들은 박사들이 지금 하나님, 곧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고, 내가 네게 일러줄 때까지 그 곳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 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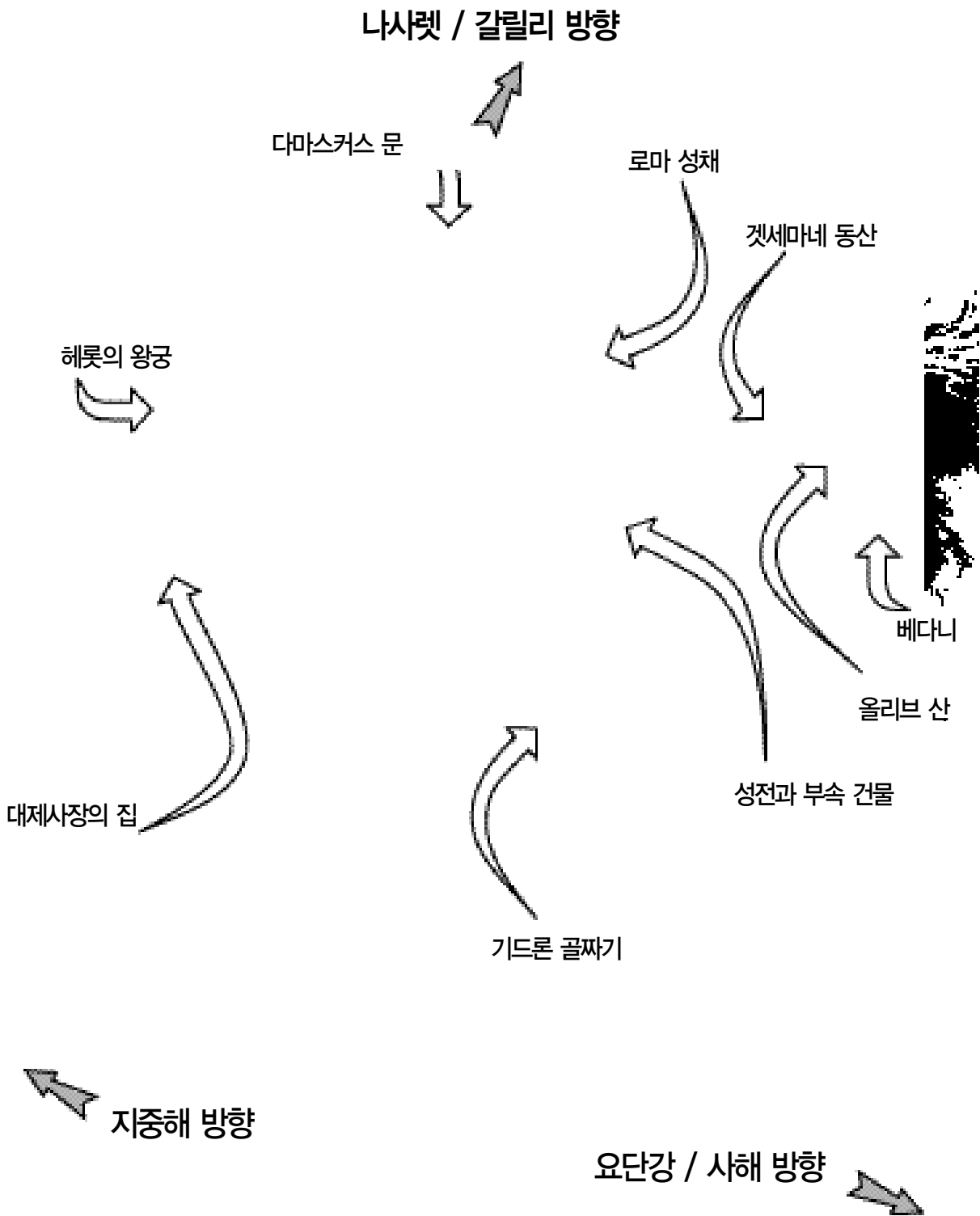
마태복음 2:12-15 KSV

헤롯에 관해서는 역사적 자료가 많이 남아 있다. 그 내용은 성경의 기록과 그대로 일치한다. 헤롯은 예수를 죽이려고 그 일대의 아기들을 다 죽이는 방법까지 동원했지만, 예수는 이미 이집트로 안전하게 대피해 있었다. 세월이 지나 헤롯이 죽자,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는 나사렛으로 돌아왔고, 요셉은 목수 일을 계속했다.

아기는 날로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자랐으며 지혜가 뛰어났다. 하나님께서 늘 보살피신 까닭이다.

누가복음 2:40 TKV

예루살렘과 주변 지역



3 선생들 사이에서

예수는 하나님이지만, 사람의 아기로 태어나는 길을 선택하셨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아기를 기르는 일은 아주 특별한 일이었을 것이다. 예수는 죄 없이 태어나, 죄 없이 사셨다. 예수는 짜증을 내거나, 말대꾸를 하거나 화를 낸 적도 없었다. 예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는데, 열두 살 때 이야기 하나가 기록에 남아 있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갔다. 예수가 열두 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갔다. 누가복음 2:41,42 KSV

유대 관습으로는 아이가 자라 청소년이 되면 일정한 의식을 거쳐 유대 종교적 공동체의 정식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젊은 남자의 권리와 의무가 부과되었다.* 요셉과 마리아는 종교적 관습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순례 여행을 하며 예수가 성인이 되고 있음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⁶

*그 청소년은 언약의 아들이 되는데, 이 관습은 오늘날에도 '바 미츠바' 예식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집으로 오는 길에서

예루살렘에서의 유월절 행사가 끝나자 모두들 귀향길에 올랐다. 성경은 이 여행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진 않았지만,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상상해 볼 수 있다. 나사렛에서 온 사람들끼리 길동무 삼아, 또 안전을 위해 함께 여행했을 것이다. 여자들과 아이들은 걸음이 느리므로 남자 어른 몇 명과 함께 아침 일찍 출발했다. 나머지 남자들은 여행의 마무리를 하고 좀 늦게 떠나, 앞선 일행을 따라 잡으려고 걸음을 재촉했다.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는데,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다음에, 누가복음 2:43,44 KSV

해 뜰 무렵 길을 떠날 때 마리아는 예수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놀랄 일은 아니었다. 예수는 이미 청년이 되어가고 있으므로 다른 어른들과 함께 성전에 다시 한 번 들렀을 것이다. 거기에는 분명히 요셉이 함께 있었을 것이다. 마리아는 오히려 예수가 뒤에 남아 성전에서 선생들의 말씀을 잠시 더 듣는다는 사실에 마음이 기뻐했다.

어두워질 무렵, 요셉과 다른 어른들이 대열에 합류했다. 그들은 성전에서 선생들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가치 있게 보냈다는 생각으로 행복한 표정이었다. 그들은 앞선 일행을 따라잡기 위해 서두르면서 그들이 들었던 가르침에 대해 토론하기도 했다.

그런데 요셉이 아쉽게 여긴 것이 한 가지 있었다. 예수도 이제 곧 젊은 남자의 의무를 감당해야 할 나이가 될 것 아닌가!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요셉은 예수가 분명히 마리아와 함께 먼저 떠났다고 알고 있었다. 예수를 만나면, 이제 그도 다 컸다는 것을 알려 줘야겠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쯤 마리아가 눈에 들어왔다. 두 사람은 서로 반갑게 웃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어땠어요? 좋았나요?”

“아무렴, 좋았고 말고, 대단히 좋았소.”

“예수도 좋아하던가요?”

“예수 ... ?”

요셉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아니, 난 예수가 당신과 함께...?”

“맙소사, 예수가 당신과 함께 있지 않았나요?”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은 그를 찾으려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

누가복음 2:44,45 KSV

아이를 찾습니다!

그들은 놀라서 예수를 찾아 헤맸다. “이를 어찌면 좋담. 하나님의 아들을 잃어버렸으니.” 그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있을 만한 곳은 다 찾아 보았다. 시장에서 가게마다 들러 보았고, 동네마다 샅샅이 뒤졌다. 이들이 지나도록 그렇게 찾았다. 사흘 째 되는 날, 지친 요셉은 예수를 마지막으로 본 곳에 다시 들러보기로 했다. 그 곳은 성전이였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았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누가복음 2:46,47 KSV

예수는 성전, 곧 자신이 있어야 할 그 곳에 있었다. 예수는 성전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원했던 바로 그 일, 곧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었다.

사실을 말하자면, 예수께서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정확히 설명하자면, 예수께서 그 자리에서 가르칠 자격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예수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들과 심오한 뜻이 담긴 대답에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다.

성전의 선생들이 예수의 한 마디 한 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성경은 그 때 성전의 선생들이 ‘놀랍게’ 여겼다고 말한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이다. 만물의 창조주와 더불어 토론하는 마당에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놀란 사람은 선생들만이 아니었다. 요셉과 마리아도 놀랐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누가복음 2:48 KSV

그의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랐다. 어머니가 예수에게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예수께서 반문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대답이었다.).

“왜 나를 그렇게 찾아 다니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인 성전에 있으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49 TKV

그가 있어야 할 곳

예수의 반문은 건방진 말대꾸와는 전혀 달랐다. 예수는 아버지의 집을 비유로 자신이 당연히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말한 것뿐이었다.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언급한 아버지는 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 땅의 부모에게 분명하게 말했다는 사실이다.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에 돌아와서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누가복음 2:50-52 KSV

4 세레(침례)

대략 서른 살이 되자, 예수는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셨다. 한편 사가랴의 아들 요한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미 오신 것을 선포하면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그 때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귀를 기울였으며, 그의 말은 유대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 무렵에 세레자(침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였다. 그는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말하였다. 마태복음 3:1,2 KSV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레(침례)를 많이 베푸는 까닭에 그는 '세레자(침례자)'라는 이름으로 불리었다. 세레(침례) 의식은 당시의 중동지역 사람들에게는 드문 일이 아니었다. 세레(침례) 의식은 분명한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그 의미는 동일시하는 것과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었다.

동일시하다.

'세레(침례)'는 '동일시' 되는 것을 의미한다. 세레(침례)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는 당시 옷감의 염색 작업에서 유래한 것이었다. 옷감을 염색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옷감을 염료 통에 담그면 물감이 배어들어 동일한 색깔로 착색된다. 그때 그 옷감과 물감은 색깔이란 측면에서 완전히 동일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요한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람의 생각을 따르는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탈선을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회개' 해야 했다. 그 때 세레(침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요한이 전한 회개의 메시지와 자신을 동일하게 받아들인 것이다.

그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강 부근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레(침례)를 받았다.

요한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이 많이들 세레(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마태복음 3:5-8 KSV

회개하라 - 마음을 돌이키라.

요한은 모여든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는 것을 보았다. 우리가 기억하는 바로는, 그들은 성경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혹은 성경에서 무엇인가를 빼는 사람들이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피차 서로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이 보통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교만해서 사람이 감당치 못할 엄한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에는 강요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그대로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을 향해 ‘독사의 무리’라고 부르면서 “회개하라!”, 즉 “마음을 돌이키라!”고 외쳤다.

예수의 세례(침례)

그 때에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침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 강으로 요한을 찾아오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하고 말하면서 말했다.

마태복음 3:13,14 KSV

요한은 예수를 보자마자,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았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셨다. 예수는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므로 회개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요한은 세례(침례)를 받아야 할 사람은 예수가 아니라 바로 요한 자신이라고 말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마태복음 3:15 KSV

예수는 요한이 전한 의로운 삶의 메시지와 자신을 동일하게 하는 뜻으로 자신에게 세례(침례)를 베풀라고 하셨다. 이렇게 예수는 요한이 전한 메시지가 진리인 것을 확인해 주셨다.

예수님은 세례(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마태복음 3:16 KLB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17 KJV

하나님의 어린양

요한복음 1:29,30 KLB

이튿날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양이시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보다 위대한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요한은 예수를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갈 언약의 구세주와 동일시했다. 요한은 예수께서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라고 했다. 요한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그것을 보고 이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34 KLB

이런 일이 있었다. 한 젊은 부부에게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가르친 적이 있었다. 어느 날 바로 이 장면에 이르렀을 때였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로다!” 이 요한의 외침을 들었을 때, 그 부인의 머릿속에서 번갯불처럼 번쩍 스치는 것이 있었다.

부인이 다소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양! 어린양이라면 ...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배운 그 양들과 연관이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믿기 어려울 정도로 모든 것이 하나로 일치되는 것을 알 것입니다.”

파푸아뉴기니아의 어느 부족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들은 세례(침례)를 받으면 그들의 죄가 씻겨 나간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번 세례(침례)를 받으면, 다시는 그 장소에 가지 않았다. 세례(침례)받은 장소에 갔다가 혹시 씻겨 나갔던 죄가 도로 묻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성경은 사람들이 세례(침례)를 통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한다. 세례(침례)는 내적으로 일어난 변화를 외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에 불과한 것이다. 요한의 세례(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요한이 선포하는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과 자신을 동일시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신학’은 세례(침례)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 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나님의 혼잣말?

성경의 초반부에는 하나님께서 마치 혼잣말을 하시는 것 같은 독특한 표현이 있다. 사람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창세기 1:26 KSV

또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가운데 하나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창세기 3:22 KJV

그리고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에게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우리가 가서 저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역호와께서 그들을 온 세상에 흩어 버리시므로 ...

창세기 11:7,8 KLB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우리’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천사가 마리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누가복음 1:35 KSV

지금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로서 ‘성령’, ‘가장 높으신 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한 구절에 모두 언급된 것을 본다. 물론 우리는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을 알고 있다. 또 우리는 예수가 사람의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들었다. 그런데 그 모두가 한 분이며 같은 분이란 말인가? 그리고 또 성령은 누구신가? 앞서 본 구절을 다시 한 번 살펴보자.

예수님은 세례(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마태복음 3:16 KLB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17 KJV

여기에 세 인격이 등장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하늘에서의 음성’이다. 혼란스러운가? 기본적 개념들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다음의 이야기가 이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성경은 그것을 반복하여 강조한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마가복음12:29 KSV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 전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성 중에는 우리의 이성과 논리의 한계를 넘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들이 있다. 예를 들어, 영원하심에 대한 개념도 완전히 소화하기가 쉽지 않다. 모든 시간에 모든 곳에 계시는 개념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훨씬 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을 마주하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 독립적인 세 인격이 영원히 동등하신 한 분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진리이다. 곧 하나님은 세 분의 인격, 즉 ‘삼위’ 이시며, 동시에 한 분, 즉 ‘일체’ 이시다.

삼위일체의 진리를 효과적으로 설명해 보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다.

1. 달걀 : 달걀은 흰자, 노른자, 껍질을 갖고 있다. 세 개의 영역으로 구별되지만 결국 한 개의 달걀이다.
2. 차원 : 상자는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있다. 이 셋이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분리될 수도 없는 하나의 상자를 형성한다.
3. 곱셈 : $1 \times 1 \times 1 = 1$

위의 예화 중에는 이해에 약간의 도움을 주는 것도 있지만, 그 어느 것도 완전한 이해를 이끌어 내기에는 미흡하다. 삼위일체의 개념이란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틀림없이, 내가 너희와 같은 줄로 잘못 생각했구나.” 시편 50:21 KSV

어린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실들이 있다. 예를 들어 전기란 무엇인가? “플러그를 소켓에서 빼버리면, 왜 더 이상 전기가 흐르지 않는가?” 어린아이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전기 기구에 손을 대면 갑자기 ‘찌릿’ 하면서 큰 통증이 올 때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어린아이가 전기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전기라는 존재가 없다고 할 수 있는가? 마찬가지로, 사람의 이해 능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어른이 되면 세상을 이해하는 폭이 좀 더 넓어진다. 또 수천 년간 사람들

이 이해하지 못했으나, 현대의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는 것들도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진리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다. 눈으로 뵈히 보이는 우주의 대부분이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일백 년 후의 사람들이 지금의 우리를 돌아본다면, 명확한 사실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우스운 사람들로 평가할지도 모를 일이다. 혹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사람들이 삼위일체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때가 곧 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때가 온다 할지라도 사람의 추론 능력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사람의 생각에 끼워 맞출 수는 없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경이로운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잠시 생각해 보자(눈을 감아도 좋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시간에 모든 곳에 계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세 인격의 한 분, 특성과 능력에서 동등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우리는 하나님의 깊이와 높이를 감히 헤아릴 수가 없다! 우리 사람은 이 모든 개념을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한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실, 그것이 곧 진리다.

신명기 29:29 KS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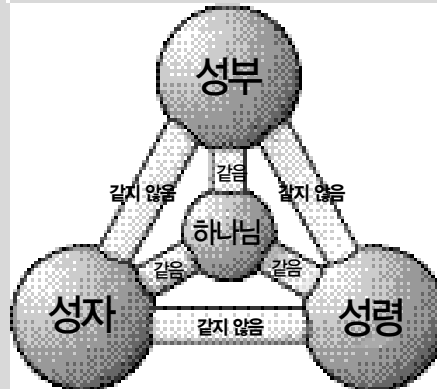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다. 그것은 주님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이다.”

하나님이란 단어 자체가 삼위일체이심을 나타내고 있다. 히브리어에서는 하나를 나타내는 명사, 둘을 나타내는 명사, 그리고 셋 이상을 나타내는 명사가 각기 다르다. 매우 독특한 문법이다.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 중 ‘엘로힘(Elohim)’이란 단어는 문법적으로 셋 이상을 나타내는 복수 명사이면서 단수 형태로 사용되었다. 세 분의 인격이 곧 한 분 하나님이심을 단어 그 자체로 설명하는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여러가지 다양한 표현이 쓰이는데, 삼위의 독립적 인격을 표현할 때 다음과 같은 표현들이 있다.

- 지극히 높으신 분 = 성부 하나님
- 예수 그리스도 = 성자 하나님
- 성령 (성신) = 성령 하나님

오른쪽 그림은 지난 수백 년 동안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11장

1 사탄의 시험

2 능력과 명성

3 다시 태어나라

4 음모와 배척

5 생명의 양식

1 사탄의 시험

우리는 교만해진 루시퍼가 하나님의 지위를 탐내어 반역했던 태초의 사건을 기억한다. 이제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하늘의 영광과 위엄을 떠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나 사람이신 예수는, 사탄이 보기에 한번 상대해 볼 만한 존재로 보였을 것이다. 만일 예수를 시험하여 굴복시킨다면, 그것은 사탄에게 어마어마한 승리가 된다. 반면에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사탄의 시험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 또다른 강의 시간이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로 *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나가셨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여 몹시 시달리셨다.

마태복음 4:1,2 KLB

*마귀는 사탄과 같은 존재로서 그 뜻은 이간하는 자, 침소하는 자를 뜻한다.

예수는 40일 동안의 금식을 막 끝내셨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이시지만, 동시에 육체의 연약함을 지닌 '사람' 이셨다.

시험하는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빵이 되게 하라.”

마태복음 4:3 KLB

마귀의 시험

마귀라고 불리기도 하는 사탄은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만한 일, 즉 급박한 육체적 필요를 돌보라는 제안으로 예수를 시험했다. 그 제안은 예수께서 자신이 참으로 누구신지를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같이 보였다. 예수가 참으로 하나님이시라면, 그는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아니신가? 돌덩이를 먹을 양식으로 만드는 정도는 힘든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사탄의 함정이 있었다. 만일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그것은 사탄의 명령에 굴복하는 것이 된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마태복음 4:4 KSV

예수께서 성경을 인용하심

예수께서 성경, 곧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사탄에게 대응하셨다. 사람에게 육체의 필요보다 더 중요한 일은 먼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육체적 필요에 몰두한 나머지 그 근본인 영적 필요를 잊고 사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 준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마가복음 8:36 KLB

사탄도 성경 구절을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네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쓰여 있다.”

마태복음 4:5,6 KLB

이제 사탄의 도전이 뻔뻔스러워졌다. “증명해 보라!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해 주시지 않겠는가?”

지금 사탄은 성경에서 시편의 한 구절을 인용했다. 사탄은 종교적 색채를 아주 교묘히 이용한다. 그 중에서도 성경구절을 인용하는 것은, 사탄이 아주 즐겨 쓰는 속임수 중 하나이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인용하지 않고 자기 목적에 맞는 부분만을 골라 슬쩍 그 뜻이 바뀌도록 만든다. 사탄은 옛적에 아담과 하와에게 사용했던 방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인용해 속이던 그 방법을 지금 예수께도 사용하고 있다.

예수께서 또 성경을 인용하심

예수는 다시 한 번 성경의 기록된 말씀을 올바르게 인용함으로써 사탄의 시험에 대응했다. 예수는 다른 방법으로 자신을 증명하실 필요가 없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성경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다.” 라고 대답하셨다.

마태복음 4:7 KLB

예수께서 또다시 성경을 인용하심

다시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아주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 주면서, 예수님께 “네가 만일 엎드려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하였다.

마태복음 4:8,9 KLB

사탄은* 예수께 자신을 경배하면 세상을 모두 주겠다고 제안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 바로 이것이 원래 예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던가? 그러나 예수는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다. 이 때 사탄이 언급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사탄에게 경배하는 것은, 곧 사탄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사실이다. 예배와 섬김은 언제나 함께 있는 것으로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 사탄의 계략은 통하지 않았고, 예수는 또다시 성경의 기록된 말씀으로 대답하셨다.

*사탄이란 이름은 원수, 대적하는 자를 뜻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사탄아, 썩 물러가거라. 성경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고 쓰여 있다.” 그러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시중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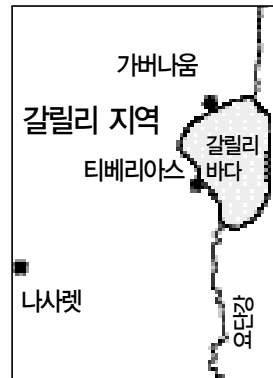
마태복음 4:10,11 KLB

사탄은 교활한 속임수로 예수를 시험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예수는 조금도 흠 잡히지 않았고, 사탄의 시험에 일체 타협함이 없이 물리치셨다. 사탄은 잠시 물러갔다. 그러나 예수를 공격할 의도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

사탄의 시각에서 보면, 어느 정도 성공한 일도 있었다. 그것은 바로 요한을 옥에 갇히게 만든 사건이다.¹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그리고 나사렛을 떠나...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마태복음 4:12,13 KSV



죄가 없으신 분

선과 악의 싸움은 대등한 싸움이 아니다. 예수 곧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피조물인 사탄의 능력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 예수는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으나, 그 시험을 이기셨다. 예수는 완전하시다.

지금까지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났지만, 누구도 자신이 죄가 없다고 주장한 사람은 없었다. 성경에는 죄인으로 밝혀진 사람들, 혹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한다. 그러나 예수는 죄인으로 밝혀진 적도,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신 적도 없다. 성경에서 예수께서 죄를 지었다거나, 혹은 사죄했다거나 하는 내용을 찾는 것은 공연한 헛수고이다. 예수를 깊이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증언했다.

베드로전서 2:22 KJV

‘그분께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예수께서 받으신 시험은, 자신이 사람이심을 나타내신 하나의 증거였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때,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저는 그저 연약한 흙덩어리일 뿐입니다. 저를 보고 죄인이라니요? 저는 마귀의 시험에 진 것뿐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하나님은 마귀의 시험이 무엇인지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저를 심판하십니까? 하나님도 한번 당해보세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께서 사람으로서 시험을 당하시고, 사람으로서 그 시험을 모두 이기셨다고 말한다.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히브리서 4:15 KJV

예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문을 제기할 수가 없다.

2 능력과 명성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마가복음 1:14,15 KSV

예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다. 이 말씀을 접한 사람들은 좀 어리둥절했을 것이다. “저 예수의 고향이 나사렛이라지? 저 사람 아버지는 목수라면서?” 당시 왕들은 걷는 법이 없었다. 그가 정말 왕이라면 준마를 타고, 전차와 군대를 이끌고 곧바로 헤롯의 궁으로 향해야 했다. 그리고 왕국을 선언하는 칙서와 함께 도전하는 세력에 대해 선전포고를 해야 했다. 그러나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예수의 메시지에서는 그런 것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다. 예수는 다만 하늘나라가 가까웠다고 회개하라고 외치실 뿐이었다. 도대체 어떤 왕이 그런 말을 하는가? 사람들이 속덕거렸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수를 조롱한 것은 아니었다. 회개는 마음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그의 나라를 시작하려고 하셨다. 실제로 예수를 만나 본 사람들은 그가 보통의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았다. 예수의 말씀에는 발걸음을 멈추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었다.

어느 날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시다가 어부인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은 그 자리에서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

조금 더 길을 가시다가, 예수께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그물 잡고 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도 즉시 아버지 세베대와 샹꾼들을 배에 남겨 두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 마가복음 1:16-20 TKV

권세 있는 새 교훈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1:21,22 KSV

예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무언가 범상치 않은 것을 발견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듣고 있다. 또 예수는 권세 있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나타내 보이셨다.

그 때에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마가복음 1:23,24 KSV

이것은 귀신 들린 사람의 경우인데, 사탄의 타락한 천사들 중 하나가 이 사람 안에서 살고 있었다. 그 귀신은 예수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즉시 예수를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라고 불렀다.

마가복음 1:25 KSV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거라.”

귀신은 언제나 진리를 왜곡하므로, 예수는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 귀신에게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도록 명하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임을 나타내셨다.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나?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은 곧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마가복음 1:26-28 KSV

이런저런 소문이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예수의 엄청난 말씀과 능력은 지방 언론의 첫 번째 뉴스로 보도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였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 그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한다. 깨끗이 나아라.”

하고 말씀하시자, 즉시 그의 문둥병이 나았다.

마가복음 1:40-42 KLB

옛날에는 문둥병이 치료불가능한 병이었다. 사람이 이 병에 걸리면 끔찍한 불구가 된 채 서서히 죽어 갔다. 성경은 예수께서 문둥병은 물론 온갖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낫게 하셨다고 말한다. 절름발이도, 앞은뱅이도 예수 앞에 나오면 낫게 되었다. 병이 낫지 않아 그냥 돌아간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려 내셨다.

예수는 병든 사람을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말씀이 모두 하늘나라로부터 온 것임을 나타내셨다. 그렇다. 예수는 위엄 있는 행렬도, 전차도, 군대도 필요 없었다. 오직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 예수는 하나님이셨다.

3 다시 태어나라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아와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랍비는 유대의 종교 교사를 부르는 이름이다. 랍비라고 부를 때는 존경의 의미가 담겨 있다.

요한복음 3:1-3 KJV

다시 태어나라고?

니고데모는 지위가 높은 관원이었다. 그는 로마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던 유대 최고 회의인 산헤드린의 일원이었고, 바리새인으로서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 왔으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도 있었다. 그의 출생에 관한 사항은 어느 것 하나 문제될 것이 없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무엇보다 먼저 그의 출생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셨다. 그에게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좋은 답변을 기대했던 니고데모에게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대답이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어디 가능한 일인가?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또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요한복음 3:4-7 KJV

예수께서 사람이 어머니 뱃속으로 돌아가 다시 육체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곧 ‘거듭남’을 말씀하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영적 생명의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표현이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새롭게 생명을 얻어야 한다. 이것을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인가? 예수의 말씀은 계속 되었다.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사람들 위에 쳐든 것같이 인자도 나무 위에 높이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3:14,15 TKV

예수께서 다시 태어나는 의미를,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사람이 살아났던 사건에 비유해 가르쳐 주셨다. 그들이 불뱀에 물린 것을 고했던 것처럼, 니고데모는 먼저 자신이 영원히 죽을 죄인임을 인정해야 했다. 출생 신분과 사회적 지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다만 예수께서 그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어야 했다. 니고데모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께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믿음=객관적 사실+확신+표현(증거)

‘믿음’이라는 말은 ‘생각으로 동의하는 것’ 이상을 요구한다. 불뱀에 물린 사람이 모세의 뿔뿔을 바라보면 나으리라고 속으로 믿었다 할지라도, 그 뿔뿔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그는 분명히 죽었을 것이다. 믿음의 성경적 의미는 그 마음이 행위로 표현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신’, 또는 ‘신뢰’와 동의어이다.

믿음의 대상 역시 중요하다. 오래전에 어떤 고약한 사람이 해열진통제에 독약을 넣은 사건이 있었다. 몇몇 사람이 그 약을 믿고 먹었다가 죽었다. 그 약이 해열진통제라는 그들의 믿음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 믿음의 ‘대상’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UFO(미확인 비행물체)가 자신을 죄에서 구원해 준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이 아무리 진실하고 간절하다 해도 그 믿음은 무의미하다. 그 믿음의 대상이 잘못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아주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3:16 AEB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영원한 생명

예수는 니고데모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아들의 이름을 ‘예수’로 지으라고 명한 바 있는데, 그 이름은 ‘구원자’, 즉 ‘구세주’ 이심을 의미했다. 이제 예수께서 자신이 사람들을 죄의 대가, 곧 지옥 불 못에서 받을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영원한 생명

요한복음 3:17 AEB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었다. 오히려 죄와 사탄과 사망이 초래한 온갖 비극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3:18 KSV

중간 지대는 없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인으로 심판받지 않는다고 하셨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모두 심판받은 것이라고 하셨다. 중간 지대는 없다. 돌아 갈 다른 길도 없다. “생각해 보겠다”며 회색 지대에서 머무를 수도 없다. 길은 오직 하나뿐이다. 믿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 마냥 버티고 있는 것은 사실은 믿지 않기를 택한 것과 같다.



영원한 형벌

또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운명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 죽을 때까지 궁금해 하며 기다릴 필요는 없다. 예수께서 그것에 관해 확실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구원자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영원한 불 못 입구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부터 그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약속하신 진리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요한복음 5:24 AEB

예수의 말씀은 모두가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한다는 뜻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지는 않을 것을 아신다. 많은 사람이 끝까지 이러저러한 이유로 믿지 않기로 선택할 것이다.

“심판의 근거는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바로 그것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요한복음 3:19,20 KLB

예수는 영적인 빛과 영적인 어두움에 대해 말씀하셨다. 빛이 죄를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빛을 싫어할 것이라고 하셨다. 아무도 자기가 죄인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듯이, 사람들은 죄를 감추거나 남에게 책임을 미룬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 어두움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 빛은 과연 무엇일까?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8:12 KSV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을 지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밤중에도 빛만 있으면 길을 찾아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길을 보여 주시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8:12 KSV

4 음모와 배척

떠칠 후 예수님은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 예수님이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문 앞까지 꽉 차서 발 들여놓을 틈도 없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 이때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왔다.

마가복음 2:1-3 KLB

중풍병자

이것은 예수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 예수께서 모습을 나타내시는 곳마다 병자와 장애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지금 네 사람의 친구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들것에 싣고 왔다.

마가복음 2:4 KSV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의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 있는 자리를 달아 내렸다.

당시의 집들은 대개 지붕이 편평했다. 지붕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 저녁에는 사람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 쉬기도 했다. 이 네 사람은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께로 접근하기 힘이 들자,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들것 채 달아 내렸다. 지붕에 쌓인 먼지와 진흙덩이가 집안으로 쏟아져 내렸을 것이다. 예수의 가르침이 잠시 중단되고, 모두들 천장을 바라보며 무슨 일인가 의아해 했을 것이다. 터진 지붕으로 네 사람의 계면쩍은 표정이 눈에 들어올 때 사람들은 큰 소리로 말했을 것이다. “이런, 이 사람들이야! 도대체 무슨 짓이야? 왜 남의 집 지붕을 부수는 거야?” 그러나 예수의 시각은 달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아들아,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마가복음 2:5 KSV

사람의 마음

예수는 무엇보다도 속사람, 곧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 예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중에 섞여 있던 서기관 몇 명은 그것을 용납하기 어려웠다. 그들은 입 밖으로 말을 내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하고 있었다.

그러자 거기 앉아 있던 몇몇 율법학자들은 속으로 “이 사람이 어째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하고 생각하였다.

마가복음 2:6,7 KLB

그들의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그것은 분명히 옳은 생각이다.

마가복음 2:8 KSV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 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대로 말씀하셨다. 속마음을 들킨 서기관들의 당황하는 모습이 보인다.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속 생각을 정확히 읽으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셨다.

“이 중풍병자에게 네 죄는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쉬우냐, 그자리에서 들것을 가지고 일어나라고 말하는 것이 더 쉬우냐?”

마가복음 2:9 TKV

예수의 질문

어떤 변호사도 이보다 더 어려운 질문을 생각해낼 수는 없을 것이다. 서기관들은 머리를 쥐어짤 것이다. “이 사람은 분명히 중풍병자다. 그리고 그의 마비된 사지를 지금 회복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치료하실 수 있잖은가? 그런데 예수가 저 말라 비틀어진 팔다리에 힘을 불어넣는다면 ... 그렇다면 예수가 메시아? 아니야, 그건 말도 안 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저런 모습으로 오실 리가 없어. 참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네 ... 골치 아프군. 이 사람은 도대체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건가?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인가?”

예수는 머뭇거리려는 그들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말씀하셨다.

“인자는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 중풍병자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셨다. “들것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네 병이 나았다.”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들것을 가지고 걸어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다 깜짝 놀라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들은 “일찍이 이런 일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서로 말하였다.

마가복음 2:10-12 TKV

이 놀라운 기적의 목적은 무슨 희한한 것을 보여 주려는 것이 아니었다. 이 기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구제 불능의 죄인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패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마가복음 2:13,14 KSV

레위는 유대인이면서도 로마를 위해 세금 징수원(세리)으로 일했다. 대개 세금 징수원들은 과도한 세금을 인정사정없이 거두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었다. 그들은 세금을 높이 매기고 몰래 돈을 챙겼다. 그들은 로마를 위해 일하며 유대인 동족의 피를 빠는 거머리 같은 존재로 경멸과 증오의 대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세금 징수원인 레위를 불러 자신의 제자로 따를 것을 명하셨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 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듣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가복음 2:15-17 KSV

예수는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사람만을 도우실 수 있다. 구제 불능의 죄인임을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길의 첫 단계이다.

안식일에 일하심

예수의 계속된 질책에 바리새인들은 화가 났을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체면은 구겨졌다. 그들은 혹시 예수의 범죄 현장을 잡을 수 있을까 하고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그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면 고발하려고 지켜보고 있었다.

마가복음 3:1,2 KLB

율법에 따르면, 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큰 죄였다.



바리새인의 생각으론 의사의 진료 행위도 일에 포함되었다. 율법에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죄라고 규정하지 않았지만, 그들 나름대로 새로운 법을 더해 놓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과 같은 권위를 두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누구를 고치는가를 엿보았다. 그를 고친다면 예수는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예수는 율법의 참 목적을 완전히 아시는 분이였다. 예수는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바리새인들의 음모를 이미 아셨다. 그래서 그들의 계교를 피하실 수 있었으나, 예수는 피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하고 말씀 하셨다.

마가복음 3:4 KSV

예수께서 자신을 고발할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을 조용히 응시하셨다. 그리고 입을 여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마가복음 3:3 KSV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꿰뚫는 질문을 또 던지셨다. 바리새인들은 화가 났다. 종교 지도자로서 그들의 신뢰성에 오점이 생긴 것이다.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라” 하고 말씀 하셨다.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마가복음 3:4, 5 KSV

정치와 음모

“옳지! 예수가 걸려들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시는 현장을 목격한 것이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 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마가복음 3:6 KSV

보통 때면 바리새인과 헤롯당원의 이러한 협조는 상상할 수도 없었다. 헤롯 당은 헤롯과 로마의 통치를 지지하는 정치집단이였다. 바리새인들은 로마 를 미워했으나 지금은 예수를 더 미워하고 있었다.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면 로마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배척했다. 그들이 아무리 보아도 예수는 언약의 구 원자일 수 없었다.

열두 제자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다시 가시자, 갈릴리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뒤따랐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신 일을 듣고 몰려왔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모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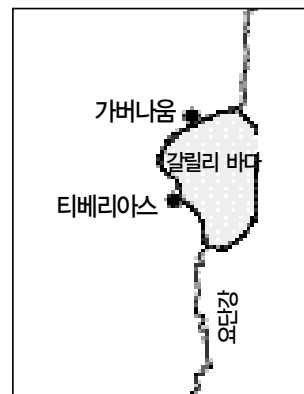
예수님이 뽑아 세운 이 열 두 제자는 이렇다: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은) 시몬,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 이란 이름을 받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매, 마태, 도마,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다대오, 가나안 사람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판 가롯 사람 유다였다. 마가복음 3:7,8,13,16-19 KLB

예수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열두 명의 제자를 택해 늘 함께 있도록 하셨다. 그 제자들은 로마를 위해 일하는 세금 징수원으로부터 로마에 대항하기로 서약한 열심당원에 이르기까지 여러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그 중에는 어부 출신도 있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거칠고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유지하실 수 있었다. 배경이야 어떻든 간에, 이 열두 제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를 따르기로 굳게 결심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 열두 명 중의 하나만은 예외였다.

5 생명의 양식

그 후 예수님은 디베라 바다라고도 하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병든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왔다. 요한복음 6:1-5 KLB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이 자기에게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먹일 만한 빵을 우리가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6:6,7 KLB

사실 예수님은 하실 일을 미리 다 알고 계시면서도, 빌립의 마음을 떠보려고 이렇게 물으신 것이다. 빌립은 예수님께 “한 사람에게 조금씩 나누어 준다고 해도, 200테나리온 어치의 빵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6:8,9 KSV

안드레는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께 살짝 귀뽀하는 것처럼 예수께 말씀드리고 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해 주실 것을 기대 했을까?”

예수께서 “사람들을 앉혀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 곳에는 잔디가 많았다. 사람들이 앉았는데 그 수가 오천 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리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요한복음 6:10,11 KSV

성경의 설명이 너무 사실적이라서 오히려 실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어리둥절할 정도이다. 예수께서 한 소년의 도시락으로 수많은 군중을 먹이셨다. 이것은 제곱, 세제곱으로 계산해도 이해가 안 된다. 예수는 열두 제자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셨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다시 5천 명에게 분배했다. 이 숫자에는 여자와 어린아이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것은 지금까지 들어 본 적이 없는 기적의 식량 생산의 현상이었다. 예수는 인색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먹고 남은 것이 넘쳐 제자들마다 한 바구니씩 들고 갈 수 있을 정도였다.

예수님이 베푸신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이 분이야말로 세상에 오실 바로 그 예언자이시다!” 하고 외쳤다.

요한복음 6:14 KLB

예수를 왕으로 모시자!

이 기적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너무나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왕으로 세우기로 마음 먹었다. 그러나 예수는 자신의 왕국을 이 땅 위에 세우는 일에는 관심이 없으셨다.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그들이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하였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6:15,25,26 KSV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렇다. 예수는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유가 단지 물질적 필요를 얻기 위한 것임을 아셨다. 그들은 이 기적들이 예수가 언약의 구원자이심을 드러낸다는 사실에는 관심이 없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여라. 그 양식은 인자(人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人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6:27 KSV

그들이 먹은 음식은 육체의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다 해도,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죽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그들이 정작 추구해야 할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라고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요한복음 6:28,29 KLB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했다. 예수는 그들에게 ‘믿으면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어야 했다. 그것은 너무나 간단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당신이 보여 줄 만한 기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30 KLB

이것은 또 무엇인가? 그들은 예수께 그가 하나님이심을 입증할 증거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빵 다섯 개로 5천 명을 먹인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말인가? 안타깝게도 그들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그저 또 한 번의 배부른 식사, 곧 한 조각의 빵이었다.

참된 양식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 하늘에서부터 참된 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주리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6:32-35 KSV



12장

1 더러운 누더기

2 유일한 길

3 다시 살아난 사람

4 지옥의 현실

5 환영과 배신

1 더러운 누더기

예수는 요점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다. 비유로는 대개 한 가지 내용을 담은 단순한 이야기가 동원되었다. 다음의 비유는, 자신이 충분히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대한 것이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세리다.

누가복음 18:9,10 KSV

그 당시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의로운 사람으로 존경받는 반면, 세리(세금 징수원)는 질 나쁜 도둑 정도로 취급되었다. 당시 윤리적 기준으로 볼 때 양 극단에 있는 두 사람이 한 장소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바리새인의 자랑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토색하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또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십일조를 바칩니다.”

누가복음 18:11,12 KSV

*그는 금식하면서 기도에 힘썼을 것이다. 그는 또 소득의 십일조를 성실히 냈다.

이 바리새인은 자기의 행위 몇 가지를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늘어 놓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행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기도 내용에 나타난 그의 태도였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고 있었다.

가슴을 치는 세리

누가복음 18:13 KSV

그런데 세리는 떨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반면에 세리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죄책감을 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하게 구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 죄로 인해 하나님의 자비를 간청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누가복음 18:14 AEB

* ‘의롭다 하심’이란 올바른 자로 선포하셨다는 뜻이다.

회개와 겸손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예수께서 회개를 겸손과 연결시킨 점이다. 성경은 사탄의 타락이 교만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사람이 자신을 죄인으로 시인하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 교만 때문이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율법을 지키고 선행에 힘쓴다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는 바로 그러한 교만 때문에 자신에게 정작 필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사야가 너희와 같은 위선자들에 대하여 쓴 것이 옳구나.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헛되이 내게 예배를 드리고 사람의 훈계를 교리인 양 가르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은 무시하고 사람의 전통만 지키는구나.”

마가복음 7:6-8 AEB

속에서 나오는 것

바리새인들은 겉은 대단히 의로운 것처럼 꾸몄지만, 그 속은 죄로 가득 차 있었다. 또 그들은 원래의 율법에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꾸 덧붙여 십계명의 참뜻을 훼손하고 있었다.

“너희는 그런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였으며, 이 밖에도 그와 같은 짓을 많이 하고 있다.”

마가복음 7:13 KLB



바리새인은 종교적 관습과 선한 행위와 유대인 혈통 등으로 인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믿었다.

예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가복음 7:23 KRV

곧 성경은 선행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다고 말한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이사야 64:6 KJV

죄의 종

가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마치 완전함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한다. 로마서 6:16 KRV

죄는 모든 사람을 사슬로 묶어 버렸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고 가르쳐 준다.

요한복음 8:34 KJV

사람들은 선한 삶을 살아 보려고 하지만, 그 때마다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한다. 삶의 한 쪽을 올바르게 세웠다 싶으면 다른 한쪽이 무너지는 것을 발견한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죄의 본성은 사람들이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노력과는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게 만든다. 새해를 맞을 때마다 옳게 살아 보겠다고 새로운 다짐을 하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성경은 사탄이 사람을 노예로 삼았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무슨 마법의 힘으로 사람을 얽어맨다는 뜻은 아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이끌어 가려고 각종 탐욕과 교만으로 교묘하게 조종한다. 실제로 사탄은 사람들이 천성적으로 선하다고 믿게 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쓴다. 이에 대해 성경은 사람에게 참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



죄의 종

‘마귀에게 사로잡혀 죄에 종노릇 하던 그들이 제정신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될 것’

디모테후서 2:26 KLB

사람이 죄와 사탄의 종이라는 사실이 그가 죄악에 물들어 사는 핑계가 될 수는 없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선택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 그러므로 사람이 마귀의 종이 된 것은 이미 큰 문제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이 완전하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면 완전한 의로움이 필요하지만,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 의로움을 결코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질문은 인류의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어떻게 사람이 자신의 죄를 없애고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모태 신앙에 관해

‘그리스도인(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 또는 ‘그리스도의 무리에 속한 사람’을 의미한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 단어의 의미는 대단히 왜곡되고 혼란스러워졌다. ‘그리스도인’의 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모태 신앙’이란 말은 그다지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

어떤 아기가 의사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곧 그가 의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누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의 출생을 중심으로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게 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누구든지 자신의 뜻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선택해야만 한다.

그리스도인이란 호칭은 각 사람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에만 부를 수 있는 이름이다.

2 유일한 길

예수는 일상 생활 속의 예화를 들어 영적 진리를 가르치셨다. 한번은 양을 가두는 우리를 예화로 말씀하셨다. 양 우리의 울타리는 돌로 둘러쌓았고, 그 울타리 위를 가시나무 넝쿨로 덮어 들짐승이나 도둑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했다. 양 우리에는 출입구가 단 하나만 있었다.

목자가 낮에는 양떼를 초원으로 이끌고 가서 풀을 뜯도록 하다가, 밤이 되면 양떼를 우리로 몰아넣고 자신은 문 앞에서 잠을 잤다. 그래서 누구라도 문을 지키는 목자를 거치지 않고는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반대로 우리 안에 있는 양들도 목자를 거치지 않고는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목자의 몸 자체가 말 그대로 양 우리의 문이 된 것이다.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10:7 KRV



예수는 자신을 믿는 사람은 양 우리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 양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문이다. 나를 통해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10:9 AEB

오직 예수 자신만이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문은 전혀 없으며, 양은 오직 그 문 안에 있을 때 안전할 수 있다. 그렇다, 사람들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왔다.” 요한복음 10:10 AEB

도둑이 양을 돌볼 리가 없다. 성경은 그들을 거짓 교사라고도 부른다. 그들은 자기의 권위를 세우거나 혹은 세상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기까지 한다. 도둑은 겉으로 선한 길이나 영생을 얻는 길로 위장하지만, 그 길의 마지막은 영적인 멸망이요 죽음 뿐이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것 같지만 결국은 죽음에 이르고 만다.”

잠언 14:12 KLB



이와 반대로, 예수는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생명, 곧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주려고 오셨다.

요한복음 14:6 TKV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

예수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나의 모든 말은 **참 진리**이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내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예수께서 어느 누구도 다른 길로는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다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를 거치는 것이 양 우리로 통하는 유일한 문이듯이, 바로 예수 자신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3 다시 살아난 사람

어떤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동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주님, 보십시오,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하고 말하였다. 요한복음 11:1,3 KSV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인 베다니에 살고 있었다. 이 때 예수는 요단강 건너편에 머물러 계셨다. 그곳은 베다니에서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였다.



요한복음 11:5,6 KSV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신 그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몹시 아픈 친구가 있는데 늑장을 부리시다니... 예수는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셨다. 무슨 생각이셨을까?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로 가자.”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려 치려고 했는데 다시 그리로 가지려고 합니까?”하였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가 잠이 들어 쉬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다.”

요한복음 11:7,8,13,14 KSV

죽은 지 나흘이 된 사람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안에 있는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가 조금 넘는 가까운 곳인데, 많은 유대 사람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버니의 일로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이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요한복음 11:17-22 KSV

그 때 마르다가 예수께 무엇을 기대했는지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마르다가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은 알 수 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요한복음 11:23,24 KSV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모두 부활한다는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에 별로 놀라지 않았다. 그것은 세상의 마지막 때, 즉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 받을 때 일어날 일 아닌가?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요한복음 11:25,26 KSV

이 말씀은 참으로 권세가 담겨 있는 말씀이다. 예수는 나사로가 지금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는 생명을 주는 분이시요, 나사로의 생명을 회복시킬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마르다는 과연 예수를 믿었을까?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요한복음 11:27 KSV

마르다는 예수를 믿었다. 그뿐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곧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하매,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요한복음 11:34,35 KJV

성경은 왜 예수께서 우셨는지에 대해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다. 어떤 사람은 죄와 사망으로 희생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셨다고 한다. 또 어떤 사람은 나사로를 하늘나라로부터 죄와 슬픔이 가득 찬 이 세상으로 다시 불러 올 것을 불쌍히 여겨 우셨다고 한다. 어찌 됐든, 눈물을 흘리셨다는 사실은 바로 예수께서 사람의 감정을 똑같이 느끼시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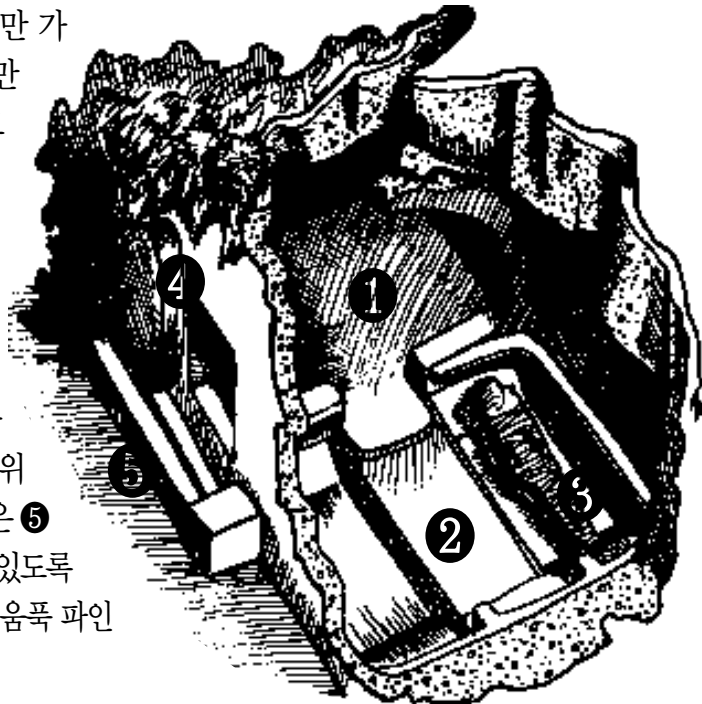
그 때 유대인들은 “저것 보시오. 나사로를 무척이나 사랑했던 모양이오.” 하였고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그가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던가?” 하였다.

예수님은 다시 탄식하시며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이었으며 입구는 돌로 막혀 있었다.

요한복음 11:36-38 KLB

유대인의 전통적인 장례 풍습은 시신을 무덤에 그냥 안치하는 것이었다. 그 무덤은 대를 물려가며 사용되곤 했다.

대개는 천연 동굴을 사용했지만 가끔 바위를 깎아내어 무덤을 만들기도 했다. 그 무덤의 규모는 상당히 커서 ① ‘애곡실’에서는 똑바로 설 수 있는 정도였다. ② ‘시신 안치실’에는 깎아 만든 ③ 선반이 있어 그 위에 시신을 안치했다. 그 무덤의 입구는 무게가 몇 톤 되는 ④ 바퀴 모양의 바위로 문을 해 막았다. 입구 바닥은 ⑤ 호를 파서 바위 문을 굴릴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바위 문을 닫으면 움푹 파인 곳에서 문이 고정되도록 했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큰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여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 주어서 가게 하여라.”하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1:39-44 KSV

“나사로야...!” 하고 부르신 것은 참 잘하신 일이었다. 만약 예수께서 그냥 “나오라!”고만 하셨다면, 묘지 속에 있던 죽은 사람들이 모두 살아 났을지도 모를 일이다.

“앗! 나사로가 살아났다!” 나사로의 친구들이 다시 살아난 그가 제대로 걸을 수 있도록 긴 수의를 벗겨 냈다. 그 곳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예수께서 행하신 이 엄청난 기적을 두 눈으로 목격했다.

마리아를 위로하러 왔다가 이 광경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하였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의회를 소집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많은 기적을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소? 이대로 내버려 두면 모두 그를 믿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로마사람들이 와서 우리 성전을 파괴하고 우리 민족을 짓밟을 것이요.”

*당시 유대인의 최고 의회인 산헤드린을 말한다.

그 날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요한복음 11:45-48, 53 KLB

이 기적의 현장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눈으로 목격한 기적조차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다. 교만한 그들에게는 권력과 지위 등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 그들은 루시퍼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었다.

환생

성경의 ‘다시 태어남(거듭남)’은 각종 종교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환생’과는 그 뜻이 전혀 다르다. ‘다시 태어남’은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환생’은 세상을 떠난 영혼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나 짐승의 모습으로 태어나 계속 살 것이라는 사상이다.

성경은 ‘환생’과 같은 생각이나 개념에 대해 가르치는 적이 없다. 오히려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각 사람의 생명은 하나이며, 삶의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

히브리서 9:27 KJV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구름이 소멸되어 사라짐같이 무덤에 내려간 자도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리니, 그가 다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는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욥기 7:9,10 KJV

4 지옥의 현실

예수는 약 3년 동안 듣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의 가르침은 위로에서 질책까지, 비유에서 실제 사건까지 청중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가르쳐 주셨다. 지금 예수께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 하나를 들려 주시고 있다.

어떤 부자가 있었다. 이 사람은 언제나 가장 비싼 옷을 입고 매일 호화스럽게 살았다. 한편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한 가난한 사람이 누워 있었는데, 몸에는 부스럼 투성이었다. 그가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주린 배를 채우기를 원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부스러기를 핥았다.

누가복음 16:19-21 AEB

천국에 있는 거지

어느 날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이끌려 아브라함의 팔에 안겼다.

누가복음 16:22 AEB



영원한 생명

여기의 ‘아브라함의 팔’은 천국을 가리켜 말한 것으로 가끔 ‘낙원’이라고도 불린다. 이 사건에 등장하는 나사로는 다시 살아난 나사로와는 다른 사람이다. 또 나사로가 낙원에 간 것은 그가 가난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지옥에 있는 부자

부자도 죽어 땅에 묻혔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 그가 눈을 뜨어 보았다.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나사로가 그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소리쳐 말했다. “아버지 아브라함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혀를 적실 수 있도록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게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22,24 AEB

부자가 지옥에 간 것 또한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기 때문이었다. 이제 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간청하고 있다.



영원한 형벌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했다. “얘야, 네가 살아 있을 때 좋은 것을 마음껏 누렸고, 나사로는 온갖 나쁜 것을 겪은 것을 기억하여라.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이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어느 누구도 너희를 돕기 위해 건너갈 수 없고, 아무도 그 곳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 없다.”

누가복음 16:25,26 AEB

기회는 더 이상 없다.

성경은 이 이야기에서 사람은 오직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만 회개할 수 있다고-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고-분명히 말하고 있다.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 지옥 형벌에 들어가기 때문에 천국으로 갈 기회는 전혀 없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영원히 지옥 불 못에 있게 된다. 또 지옥에서는 영원한 고통을 잠시만 줄여 달라고 이 부자처럼 애원해도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다. 은혜와 자비는 오직 이 세상에 있을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부자는 계속해서 간청한다.

그러자 부자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 주십시오. 내 형제가 다섯인데, 나사로를 보내 그들에게 경고하여, 내 형제 들만이라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하고 애원하였다.

누가복음 16:27,28 KLB

이 부자는 끔찍한 고통 속에 있지만 세상에서의 삶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로 하여금 세상에 있는 자신의 다섯 형제에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도록 경고해 주기를 간청하고 있다.

지옥도 지내다 보면 익숙해지고 견딜만 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성경과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이다. 실제로 지옥은, 생전에 미워한 원수라 할지라도 그가 지옥에 오기를 차마 바랄 수 없는 그런 곳이다.

누가복음 16:29-31 KLB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때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며, 그렇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으나, 아브라함은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앞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이야기를 들었다. 이 위대한 부활의 기적을 보고서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았다. 오히려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기에 더 바빠졌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한다.

“비록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누가복음 16:31 KLB

지옥에 대한 묘사는 바로 영원한 불 못에 관한 것이다. 성경은 지옥 불 못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영원한 형벌의 시작이라고 말한다.¹

5 환영과 배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운 감람산 기슭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거라. 거기에 가면 아무도 타 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마가복음 11:1,2 KLB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겹옷을 그 위에 걸쳐 두었다. 예수님이 나귀에 올라타시자, 많은 사람들이 겹옷을 벗어 길에 펴기도 하고 들에서 푸른 나뭇가지를 꺾어다 길에 깔기도 하였다. 그리고 예수님을 앞뒤로 에워싸고 가는 군중들은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찬양을! 앞으로 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환호성을 올렸다.

마가복음 11:7-10 KLB

“호산나”라는 말은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다. 지금 예수를 맞이하는 군중이 개선장군을 환영하는 로마식 퍼레이드를 즉흥적으로 펼치며 열광하고 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로마의 압제자들을 축출하고, 이스라엘을 세울 것이라는 기대로 환호하고 찬양하며 영접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5백 년 전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었다. 선지자 스가라는 예수께서 그런 영접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장면을 미리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았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네 왕이 네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스가라 9:9 KSV

예수께서 자신을 성대히 환영하도록 허용하신 것은 오직 이 때 한번 뿐이다. 그것은 자신을 죽이기 원하는 사람들의 손길을 재촉하시는 것이기도 했다. 군중의 환호와 함께 그들의 마음도 급해지고 있었다.

이들이 지나면 유월절과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명절이었다.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교묘하게 잡아죽일 방법을 의논하다가 “군중들이 난동을 일으킬지도 모르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였다.

마가복음 14:1,2 KLB

환호하며 예수를 영접하는 군중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그 때가 예수께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선포하셔야 할 절정의 순간이었다.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던 유대인 지도자들에게는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었다. 예수를 없애 버리기 위해 당장 움직이고 싶었겠지만, 그들은 군중의 반발이 두려웠다.

예루살렘은 유월절을 맞아 각처에서 온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로마인들을 쫓아낼 것이라는 기대로 주목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새로운 왕국에 대한 공식 선포는 들리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자, 군중은 실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실망은 분노로 바뀌고 있었다.


유월절 만찬

예수는 두 제자를 보내 유월절을 위해 방을 준비하라고 하셨다.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열두 제자와 함께 가셨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 줄 것이다.” 그들은 근심에 싸여 “나는 아니지요?”하고 예수께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그는 열둘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마가복음 14:17-20 KSV

예수께서 3년 전에 열두 제자를 선택하셨을 때, 이미 그들 중 하나가 반역자가 될 것을 아셨다.

 1천 년 전에 다윗 왕은 이 배신을 예언했는데, 그 일을 당하는 구세주의 시각에서 미래의 상황을 자세히 묘사한 바 있었다.

“참으로 내가 신뢰하던 나의 친한 친구 곧 내 빵을 먹은 나의 친구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시편 41:9 KJV

배신

배신자는 가룟 사람인 ‘유다’ 였다. 유다는 회계를 맡았는데, 후에 다른 제자가 말하기를 그는 도둑이었다고 했다. 유다는 순전히 자기 야심을 위해 예수를 따라다녔고, 한편으로는 다른 제자들 모르게 부당한 수입을 챙겼다. 예수는 그것을 다 아셨다.

유다에게 배신의 생각을 불어 넣은 것은 바로 사탄이었다. 사탄은 예수를 없앨 수 있는 기회, 곧 언약의 구원자를 처치할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찾고 있었다. 이제 사탄이 호시탐탐 노리던 기회가 다가왔다. 예수께서 유월절 빵을 나누실 때, 드디어 사탄이 유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가 빵조각을 받은 뒤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누가복음 22:4,5 TKV

그 때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그러나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도 예수께서 그에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수비대장들을 찾아가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 줄 방법을 상의하였다. 그들은 매우 좋아하며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요한복음 13:27,28 KSV

예수의 살과 피

이 배신의 극중에서 유다가 맡은 장면은 만찬 중에 일어났다. 배신자가 마귀의 지시대로 움직이는데도, 예수는 식사를 계속하셨다. 이 마지막 식사에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마가복음 14:22 KSV

물론 제자들도 실제로 예수의 살을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매우 당황했을 것이다. 예수는 유월절 빵을 찢어 나누시며, 그 빵이 자신의 몸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전에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 유월절 빵과 관련이 있는 않을까?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마가복음 14:23,24

KSV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같은 내용을 말씀하셨다. 많은 사람들, 곧 모든 인류를 위해 예수의 피가 흘려질 것이다. 예수께서 흘리실 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된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서 올리브 산으로 갔다. 마가복음 14:26 KS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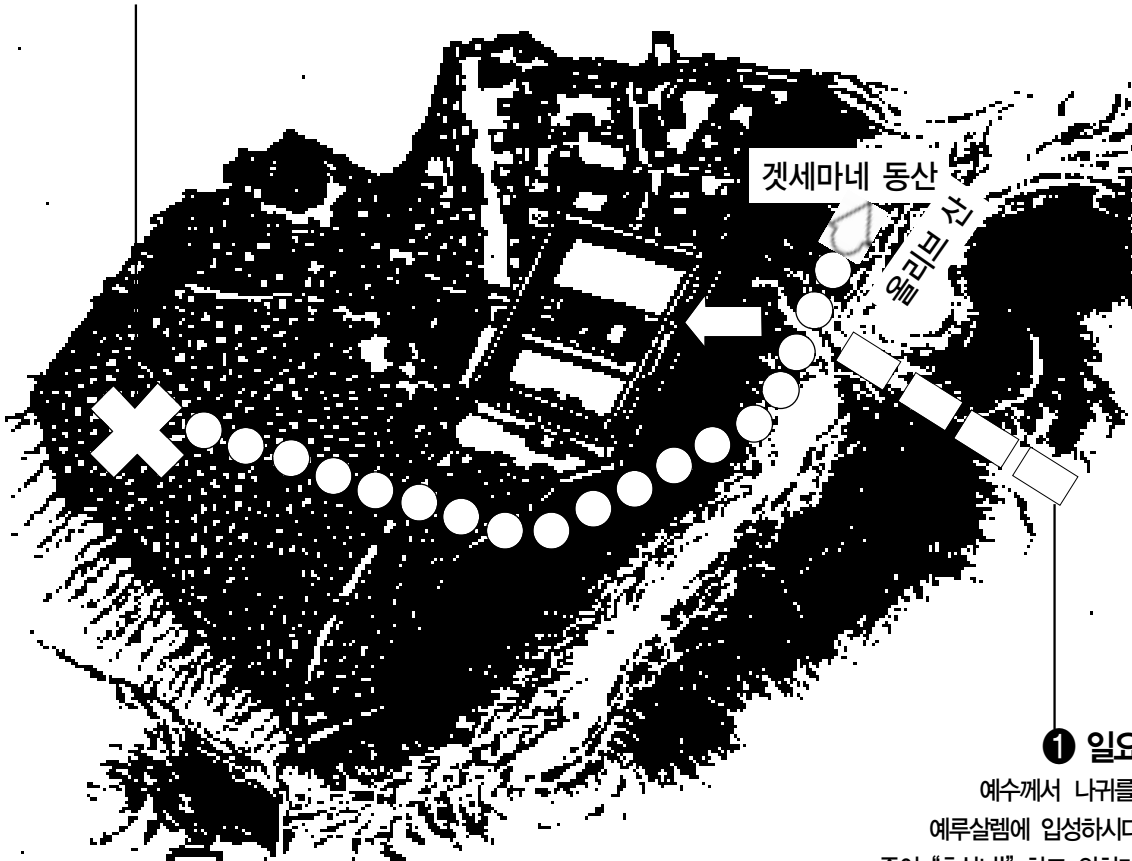
마지막 주간 -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행적

②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

예수와 열두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베다니 주변에서 머무시다.

③ 목요일 밤 :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을 기념하시다. 찬미를 마친 후에 올리브산 기슭의 겿세마네 동산으로 떠나시다.



① 일요일 :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 군중이 “호산나!” 하고 외치며 환영하다.



13장

1 불공정한 재판

2 십자가 처형

3 무덤 그리고 부활

1 불공정한 재판

저희가 겟세마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빠와 비슷한 애칭.

마가복음 14:32-36 KRV

예수는 사람이시다 (人性)

예수가 참 하나님임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잊기 쉬운 것이 있다. 그것은 그가 또한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사람이신 예수께 고난은 닦선 것이 아니었다. 예수는 사람의 고통이 무엇인지 아셨고 또 경험하셨다. 또한 예수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고통이 어떤 것인지도 아셨다. 그래서 오직 아들만이 아버지에게 쓸 수 있는 친밀한 표현으로 “아바(아빠), 다른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하셨다. 그러나 곧 사람으로서의 자기 생각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하셨다.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대제사장과 율법학자와 장로들이 보낸 일당과 함께 그곳에 나타났다. 그들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다.

유다는 미리 그들에게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실수 없이 그를 붙잡으시오.”하고 말해 두었으므로 ...

마가복음 14:43,44 TKV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

요한복음 18:4,5 KRV

“내로라 (I AM <he>)”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성경의 그리스어 원전에는 <he>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는데, 번역하는 과정에서 문법상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삽입되었다.

예수의 대답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예수께서 “내로라(I AM)”하고 단호하게 대답하셨는데,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뜻이다.¹ ‘내로라’ 하는 말은 곧 ‘스스로 있는 자(I AM)’라고 번역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권능으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 이름은 아무나 입에 올릴 수 없는 것인데, 예수는 하나님이시므로 친히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신 것이다. 그 대답을 들은 유대인들은 충격을 감당하기 힘들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놀라서 뒤로 물러서다가 땅에 넘어졌다.

요한복음 18:6 TKV

그들은 그냥 엎드린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나며 엎어졌다. 예수께서 그 위엄의 극히 일부분만 나타내신 것인데도 그들은 놀라 엎어졌다. 놀란 무리가 정신을 추스리고 일어나 먼지를 털어냈다.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나사렛 예수요” 하고 대답하였다.

요한복음 18:7 KLB

그 곳에 모인 무리를 휩싸고 있는 두려움이 느껴지는 듯하다. 명색이 누구를 체포하러 왔다는 사람들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기들끼리만 약속한 신호를 예수가 알고 있다니... 자기들끼리의 신뢰도 무너질 참이었다.

마가복음 14:45 KSV

유다가 와서 예수께로 곧 다가가서 “랍비님!”하고 말하고서,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 주려고 하느냐?”

누가복음 22:48 KSV

상황을 파악한 열한 제자들이 놀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 중에서 시몬 베드로에게는 칼이 있었다.

그 때에 예수의 일행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들어 자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랐다.

마태복음 26:51 KSV

잘라진 귀를 고쳐 주심

누가복음 22:51 KSV

예수께서는 “그만 해 두어라!” 하시고, 그 사람의 귀를 만져서 고쳐 주셨다.

이 충격과 긴장의 순간에서도 예수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셨다. 예수는 대제사장의 종이 입은 상처를 치료해 주셨다. 베드로는 자기 능력으로 어떻게든 사태를 돌파해 보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러나 그들과 겨루기에는 제자들의 숫자가 크게 모자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용기를 내보였다. 적어도 무엇인가를 시도했다!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어부였던 그에게는 칼보다 그물이 훨씬 알맞는 도구인 것 같다. 상대방의 머리를 겨냥했으나 본래 정작 잘라낸 것은 귀였다.

질문 또 질문

그 때 예수께서 잡으러 온 무리에게 질문을 하셨다. 그들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질문이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마가복음 14:48,49 KSV

하나님의 질문은 언제나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속마음을 훤히 들여다 보시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이 잠시라도 생각해 보았다면 자기들 행동에 일관성이 없음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를 없애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한 나머지, 그들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경외감 같은 것은 까맣게 잊고 있었다.

한편 제자들은 목숨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에 떨며 어둠 속으로 도망쳤다.

그 사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쳐 버렸다.

마가복음 14:50 KLB

로마 군인들과 그들의 지휘관과 유대인의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잡아 묶어서,

요한복음 18:12 KLB

이 장면은 무엇인가 조화를 잃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예수는 그저 한 사람의 평범한 남자 어른에 불과했다. 그런데 예수를 체포하러 온 무리는 적어도 3백 명 내지 많게는 1천 명 정도로 추산되는 군인들이었다. 게다가 유대 관원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그들의 하인들까지 총동원되었다. 한 사람을 잡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인원인데도, 그들은 속으로 힘의 부족을 느꼈던 것 같다. 그들이 예수에게 달려들어 결박을 해 끌고 갔다. 이 때 사탄은 또다시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었을 것이다.

법정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자, 다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 학자들이 모두 모였다.

마가복음 14:53 KLB

성전의 법정은 원래 밤에 열리는 적이 없었다. 71명으로 구성된 유대인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회의가 한밤중에 것처럼 신속히 모일 수 있었다는 것은, 이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음모였다는 증거이다. 그리고 사람들을 피해 한밤중에 열리는 재판은 그들의 율법으로도 엄연한 불법 행위였다. “그러나 뭐라 해도 상관없다. 율법은 잠깐 잊어버리자.”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오로지 예수의 죽음이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의회에서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증거를 찾았으나, 전혀 찾지 못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였으나, 그들의 말도 서로 맞지 않았다.

이 때 대제사장이 일어나 예수님께 “이들이 네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데도, 왜 대답이 없는가?” 하고 물었다. 그래도 예수님이 침묵을 지키시고 대답을 하시지 않자,

마가복음 14:55,56,60,61 KLB

네가 하나님이나?

마가복음 14:61 KRV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질문은 흑백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다. “네가 과연 하나님이나 아니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마가복음 14:62-64 KRV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의 대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예수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 이런 신성모독이... 감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니...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불경죄를 저지르다니!” 그러나 예수는 사람에게 불과한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셨다.

가야바나 다른 유대인 지도자들 누구도 예수의 대답을 믿지 않았고, 예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었다. 산헤드린은 사형 선고를 내릴 권한이 없고, 오직 로마 정부만이 그 권한을 갖고 있었다.

2 십자가 처형

한밤중의 재판은 불법이었으므로 산헤드린 회의는 해가 뜨자마자 예수에 대한 재판 절차를 다시 진행시켰다. 예수는 밤새 주무시지 못했다. 산헤드린 회의는 자기들의 위세를 과시하려는 듯이 예수를 심하게 매질했다.

그들 온 무리가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누가복음 23:1 KSV

본디오 빌라도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제국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었다. 유대인의 법정은 사형을 부과할 수 없어 로마 총독의 허가를 얻어야 했다. 빌라도는 대체적으로 유대인 지도자들 편을 들어 주긴 했지만, 유대인들은 그가 의심이 많은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설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예수를 고소하기 시작했는데,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하였다.

누가복음 23:2 KSV

예수는 누구에게도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었고 오히려 그 반대로 말씀하셨다. 이것은 로마 관리들을 자극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꾸민 거짓말이었다. 이미 정당한 절차가 무시된 판국에 그런 정도를 부담스럽게 느낄 사람들이 아니었다. 예수께서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누가복음 23:3 KLB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18:36 KSV

예수의 나라는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예수께 세상에서의 정치적 야망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

“그렇다면 네가 왕이란 말이냐?”

“그렇다. 네 말대로 나는 왕이다. 사실 나는 진리를 증거하려고 왔으며, 이것을 위해 세상에 왔다. 누구든지 진리의 편에 선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그때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하였다.

요한복음 18:37,38 KLB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을 던진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나 빌라도는 대답을 듣자고 던진 질문이 아니었다.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았다.

그리고서 그는 다시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요한복음 18:38 KLB

빌라도 역시 속으로는 유대인 제사장들을 믿지 않고 있었다. 그는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 총독인 자기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유대인 제사장들이 절대로 로마 황제를 위해 좋은 일을 할 리가 없지.” 그는 산헤드린 회의가 예수를 죽이려 하는 데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목도 찾지 못하겠소”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강경하게 “그 사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를 누비며 가르치면서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하고 말하였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서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오?”하고 물었다. 그는 예수가 헤롯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서 그를 헤롯에게 보냈는데, 마침 그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누가복음 23:4-7 KSV

빌라도는 정상적 절차를 거쳐 예수를 심문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 지금 예수는 백성들의 반란을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었다. ‘만일 예수가 폭동을 선동한 것이 사실이라면 로마 정부에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 잠깐, 이 골칫덩이를 차라리 헤롯에게 넘기는 것이 좋겠다. 어차피 그와는 진정한 친구도 아니지 않은가?’ 결국 빌라도는 헤롯왕에게 이 책임을 떠넘기기로 했다.

금요일 해 뜰 무렵 : ②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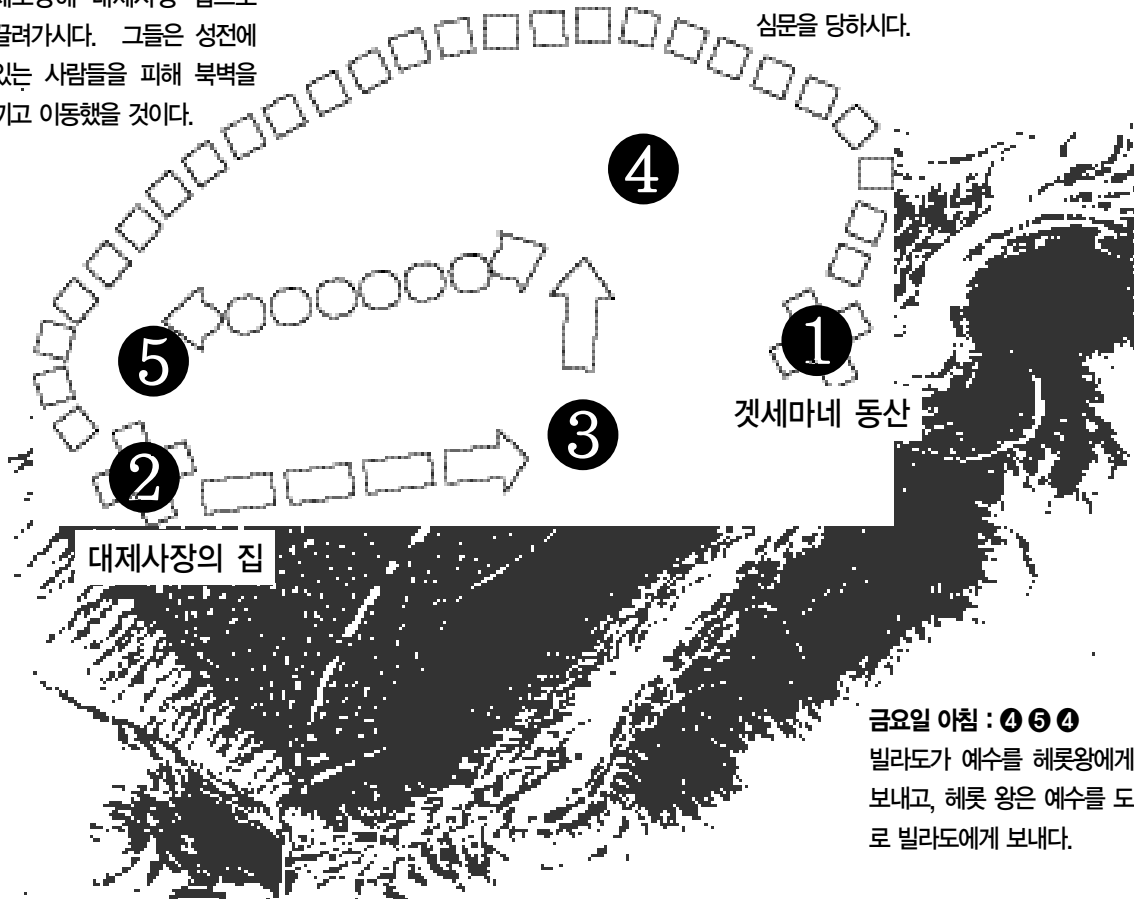
한밤중에 안나스와 대제사장 가야바의 산헤드린 회의에서 심문을 당하시고 성전으로 끌려가시다. 다시 산헤드린 회의에서 약식 심문을 받으시다. 산헤드린 회의가 다시 열린 것은 합법화를 위한 절차였다.

금요일 이른 아침 : ③ ④

로마의 성채로 끌려가 빌라도 총독 앞에서 심문을 당하시다.

목요일 밤 : ① ②

예수께서 겐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해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시다. 그들은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피해 북벽을 끼고 이동했을 것이다.



금요일 아침 : ④ ⑤ ④

빌라도가 예수를 헤롯왕에게 보내고, 헤롯 왕은 예수를 도로 빌라도에게 보낸다.

헤롯 안디바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는 로마 제국의 꼭두각시로서 예수의 고향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다. 이 때 그가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것은 유월절 행사 때문이었다.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오래 전부터 예수를 보고자 하였고, 또 예수가 일으키는 일에서 어떤 표적을 보고 싶어하였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 여러 말로 물어 보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누가복음 23:8,9 KSV

침묵을 지키시다.

헤롯은 진실을 가려내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고, 소문으로만 들던 기적을 한번 구경해 보자는 마음으로 예수를 대했다. 예수는 그것을 아셨다. 헤롯은 예수를 아주 무례하게 대했다. 예수는 다만 침묵을 지키셨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거기 서서 악착같이 예수님을 고소하자, 헤롯은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한 후,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처럼 지냈으나, 바로 그 날 서로 다정한 친구가 되었다.

누가복음 23:10-12 KLB

십자가에 못박으라!

체포된 이후, 예수는 그 날 하루 동안에 다섯 번이나 법정에 세워졌다. 세 번은 유대인의 법정이었고, 두 번은 로마인의 법정이었다. 곧 여섯 번째 재판이 시작될 차례였다. 이 무렵 온 성에 소문이 두루 퍼졌다. 이제는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회의만 예수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었다. 며칠 전만 해도 “호산나!”*하고 외치며 예수를 환영하던 군중이 지금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격렬하게 부르짖고 있었다. 빌라도는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예수를 대하면 대할수록, 이 사람에게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모아 놓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이 사람이 백성을 오도한다고 하여 내게로 끌어 왔으나, 보 다시피 내가 당신들 앞에서 친히 심문해 보았지만, 당신들이 고소한 것과 같은 죄목은 아무것도 이 사람에게서 찾지 못하였소. 헤롯도 또한 그것을 찾지 못하고 그를 우리에게 도로 돌려보낸 것이 오. 이 사람은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을 매질이나 해서 놓아 주겠소.”

누가복음 23:13-16 KSV

*‘호산나’의 말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이다.

헤롯이나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사형에 해당되는 어떤 죄목도 찾지 못했다. 어느 누구도 예수의 죄목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 때 빌라도는 흥분한 군중을 만족시키고자 교묘한 타협안 하나를 생각해 냈다. 그 타협안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예수를 채찍질 하겠노라.

그것은 일반적인 채찍질이 아니었다. 이 채찍은 가죽줄 끝에 나비 모양의 날카로운 쇠 조각이나 뼈 조각을 매단 것이었다. 죄수의 두 팔은 결박 당한 채 머리 위로 올려져 기둥에 묶이고, 등이 완전히 드러난 상태에서 채찍질을 당했다. 형 집행자가 채찍을 내려치면 쇠 조각과 뼈 조각이 살에 박혔고, 채찍을 들어올리면 살점이 함께 찢겨나갔다. 이런 채찍질은 너무나 가혹한 것이어서 채찍질만으로도 죽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채찍질은 유죄가 확정된 죄수에게만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빌라도는 자기 입으로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했다. 아마도 그는 끔찍한 로마식 채찍질 정도의 형벌이라면 군중의 마음이 가라앉을 것이고, 그 후에는 군중이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둘째, 예수를 놓아 주겠노라.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려는 로마의 시도로써,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중죄인 한 명을 놓아 주는 관례가 있었다. 빌라도는 예수를 채찍질한 후에 놓아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 때 군중은 일제히 흥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러자 군중은 일제히 큰 소리로 “그 사람은 죽이고 우리에게 바라바를 석방해 주시오!”하고 외쳤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 주고 싶어서 군중들에게 다시 말했으나, 그들은 계속 소리를 지르며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하고 외쳤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세 번째 말하였다. “이유가 무엇이오?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으므로 매질이나 해서 놓아 주겠소.”

누가복음 23:18,20-22 KLB

빌라도는 예수의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등을 내리칠 것을 명령하였다.
요한복음 19:1 TKV
군인들은 그런 잔혹한 채찍질에 만족하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조롱하고 창피를 주었다.

군인들은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힌 다음, 예수님께 바짝 다가서서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조롱하며 예수님의 뺨을 후려쳤다.
요한복음 19:2,3 KL
자색 옷은 왕이 입는 옷 색상이었고, 가시 면류관은 왕관을 잔인하게 풍자한 것이었다. 더할 수 없는 조롱이었다.

 7백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이미 이 일이 있을 것을 예언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으며 ...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사야 53:3 AEB

그 때에 빌라도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들 앞에 데려 오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 주기를 바라오.”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신 채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시오, 이 사람이오.”하고 말하였다.
요한복음 19:4,5 KSV

빌라도는 죄가 없는 사람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채찍질로 온 몸에 심한 상처를 입고 가시 면류관을 쓴 채 피를 흘리는 예수의 모습이 군중의 동정심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 것 같았다.
요한복음 19:6 KSV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이 예수를 보고서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십자가에 못박으시오!”하고 외쳤다.
요한복음 19:7-9 KSV

그러자 빌라도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하고 말하였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유대인 법정은 사형 선고를 내릴 권한이 없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아들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다시 공관 안으로 들어가서 “네가 어디서 왔느냐?”하고,
요한복음 19:7-9 KSV



빌라도는 예수가 갈릴리 출신인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유로 예수를 헤롯 왕에게 보낸 바 있었다. 그 빌라도가 또다시 예수에게 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었다. 빌라도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에 대해 상당히 긴장한 것이 틀림없다.

그리스나 로마 사람들은 신들이 사람들과 교제하려고 가끔 산에서 내려온다고 믿었다. 빌라도는 예수가 혹시 그런 신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을 법하다. 반면에 예수는 평온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빌라도를 더욱 불안하게 했다. ‘예수여, 참으로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예수님께 이르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하되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에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게는 너를 십자가에 못박을 권한도 있고 놓아줄 권한도 있음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네게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네게 있지 아니하였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라.

이때부터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려고 애를 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당신이 만일 이 사람을 놓아주면,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니니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왕이라 하면 카이사르를 대적하여 말하는 것이니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돌로 포장한 곳이라고 히브리어로는 ‘갑바다’ 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으니라. 이 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여섯 시쯤이더라.

요한복음 19:9-14 KJV

‘유월절 예비일’은 유월절 주간의 안식일 전 날 제사에 쓸 어린양을 잡는 날이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여러분의 왕이 여기 있소.” 하자, 요한복음 19:14,15 KLB 그들은 큰 소리로 “죽여 버리시오!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하며 외쳤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박으란 말이요?” 하자, 대제사장들이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 장면은 예수가 그들의 왕이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택을 보여 주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 로마 황제를 선택했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 주었다. 그들은 예수를 넘겨 받았다.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를 메시고 해골이라 하는

데로 가셨다. 그 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였다.²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를 가운데로 하여 좌우에 세웠다. 요한복음 19:16-18 KSV

십자가 처형

십자가 처형은 로마에서 노예 또는 흉악한 범죄자를 사형시키는 방법이었다. 이
십자가 처형은 역사적으로 악명 높은 사형집행 방식으로 수백 명이 한꺼번에 십
자가에 처형된 기록도 남아 있다. 십자가 형에는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 형태가 있
었다.



서있는 나무 - 사형수의 등을 나무에 대고 세워 놓고, 양 손을 가지에
다 못박는다. AD 1세기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로마 병사들이
포로들을 특이한 자세로 못박아 죽이기를 즐겼다고 기록하고 있다.³



(I)형태 십자가 - 큰 기둥을 세우고 손을 머리 위로 뻗히도록 하고 손
에 못을 박았다.



(X)형태 십자가 - 통나무 두 개를 엇갈려 설치하고 손과 발을 벌려 네
귀퉁이에 못박았다.



(T)형태 십자가 - '서있는 나무'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방법으로 추
정된다. T자 모양에 따라 팔을 좌우로 벌려 손과 발에 못박았다.



(†)형태 십자가 -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사용되었는데 십자가
꼭대기에 '죄목'을 붙였다. 예수는 이 형태의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

보통 사형수는 벌거벗긴 채 팔을 좌우로 벌리도록 한 다음, 손목과 발목에
못을 박아 손발을 고정시켰다.

예수의 십자가 처형 1천 년 전에 하나님은 다윗왕에게 예수께서 당할 죽음을
미리 보여 주셨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을 시로 예언하여 적었다:⁴

“그들이 내 손과 다리를 마구 찢렸습니다. 뼈마디가 드러나 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따갑게 쳐다보며 빈정댑니다.” 시편 22:16,17 AEB

이 시는 로마 제국이 생기기도 훨씬 전에, 그리고 로마에서 십자가 처형을
사형 방법으로 채택하기 약 8백 년 전에 기록된 것이다.

이 십자가 처형은 역사상 가장 잔혹한 사형 방법 중의 하나였다. 죽는 시간
이 오래 걸려 때로는 며칠씩 걸리기도 했다. 십자가 처형 방법은 결국 호흡
곤란으로 죽게 된다. 숨을 쉬려면 팔로 끌어 올리고 발로 밀어서 몸을 위로
들어 올려야 한다. 그런데 손목과 발목에는 이미 굵은 못이 박혀 있기 때문

에 손으로 몸을 끌어 올리고 발로 미는 일은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 팔을 뻗친 상태로 계속 매달려 있으면 횡경막이 압박을 받아 숨을 쉬기 힘들어진다. 이윽고 탈진과 쇼크가 찾아와 몸을 들어 올릴 수 없게 되면 더이상 숨을 쉬지 못하게 되고, 죄수는 드디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손발에 박힌 못과 숨 쉬는 데 따르는 통증만이 고통의 전부는 아니었다. 타는 듯한 갈증과 별거벗은 것에 대한 수치심 또한 큰 고통을 주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구경하며 조롱했다.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라는 죄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신 곳이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죄패를 읽었는데 그 죄패는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었다.

요한복음 19:19 KLB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통째로 짠 것이므로,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의 것이 될지 제비를 뽑자”하고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요한복음 19:23,24 KSV

병사들의 제비뽑기는 피비린내 나는 임무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오락거리였다. 예수의 십자가 밑에 앉아서 제비를 뽑고 있는 병사들은 지금 자신이 옛 예언을 성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것이다.

이는 “그들이 내 겹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내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요한복음 19:24 KSV (시 22:18 참고)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도 비웃으며 말하기를,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고 택하심을 받은 자이거나 구원하라지.”하였다.

누가복음 23:35 KSV

 다윗왕은 이 언약의 구원자가 조롱당할 것을 예언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나를 쳐다보는 사람마다 깔보고 머리를 흔들며 빈정댑니다.”

시편 22:6,7 AEB

다윗왕은 심지어 조롱하는 내용까지 예언했고,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여호와를 의지하니, 그가 구원해 줄거야. 도와 달라고 부탁해 보지. 그가 너를 사랑하시니 아마 너를 구출해 줄 거야.”

시편 22:8 AEB

군인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 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기를 “네가 유대인의 왕이거든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하였다. 예수와 함께 달린 죄수 가운데 한 죄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기를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하였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 분은 아무것도 잘못된 일이 없다.”

그런 다음에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누가복음 23:44 KJV

예수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강도에게 그가 죽은 후 낙원에 있을 것을 선언하셨다. 그 강도는 예수께서 죄의 결과, 곧 영원한 형벌로부터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고, 예수는 그의 믿음이 진실한 것임을 아셨다.

낮 열두 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아홉 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여, 나의 하나님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말이다.

시편 22:1 KJV

다윗왕은 메시아가 십자가 위에서 이 말씀을 하실 것까지 예언했다.

“나의 하나님여, 나의 하나님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가복음 15:34 KJV



예수께서 이처럼 큰 소리로 부르짖으신 이유를 다음 장에서 그 의미와 함께 살펴 볼 것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마지막 순간의 의미는 말할 수 없이 크다. 성경은 그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큰소리로 부르짖으시고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누가복음 23:46, 그리고 요한복음 19:30 KSV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마가복음 15:38 TKV

예수께서 숨을 거두셨다. 악의 세계 전체가 기뻐 날뛰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⁵ 사탄과 그 부하들은 자기들이 기대하던 것 이상을 얻었다. 그들의 시각에서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을 죽였다. “자, 언약의 구원자가 죽었다!” “그러나...” 사탄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몇 가지 일이 일어났다. 왜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을까? 왜 예수는 것처럼 장렬하게 “다 이루었다!”고 외쳤을까?

휘장이 찢어지다.

성전은 ‘성막’이 그대로 재현된 것이었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것으로,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다.

첫째, 휘장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성소를 들여다 볼 수 없게 차단했다. 사람이 휘장 안을 들여다보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 형 아론에게 경고하여 성소의 휘장 뒤 법궤와 그 법궤의 뚜껑인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그 속죄소 위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레위기 16:2 KLB

둘째, 가만히 있는 휘장이 찢어지는 일 자체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없었다. 이 휘장은 높이가 18m, 너비는 9m, 그리고 두께는 약 10cm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⁶

셋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 한 가지 경우에만 가능했다. 즉,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셨다는 것이다.

유대인의 시간 계산에 따르면 예수는 제 9시에 숨을 거두셨다. 지금의 오후 3시에 해당한다. 그 시간에 성전은 각종 일을 수행하는 제사장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때는 저녁 제사를 위해 희생양을 잡는 시간이었다. 게다가 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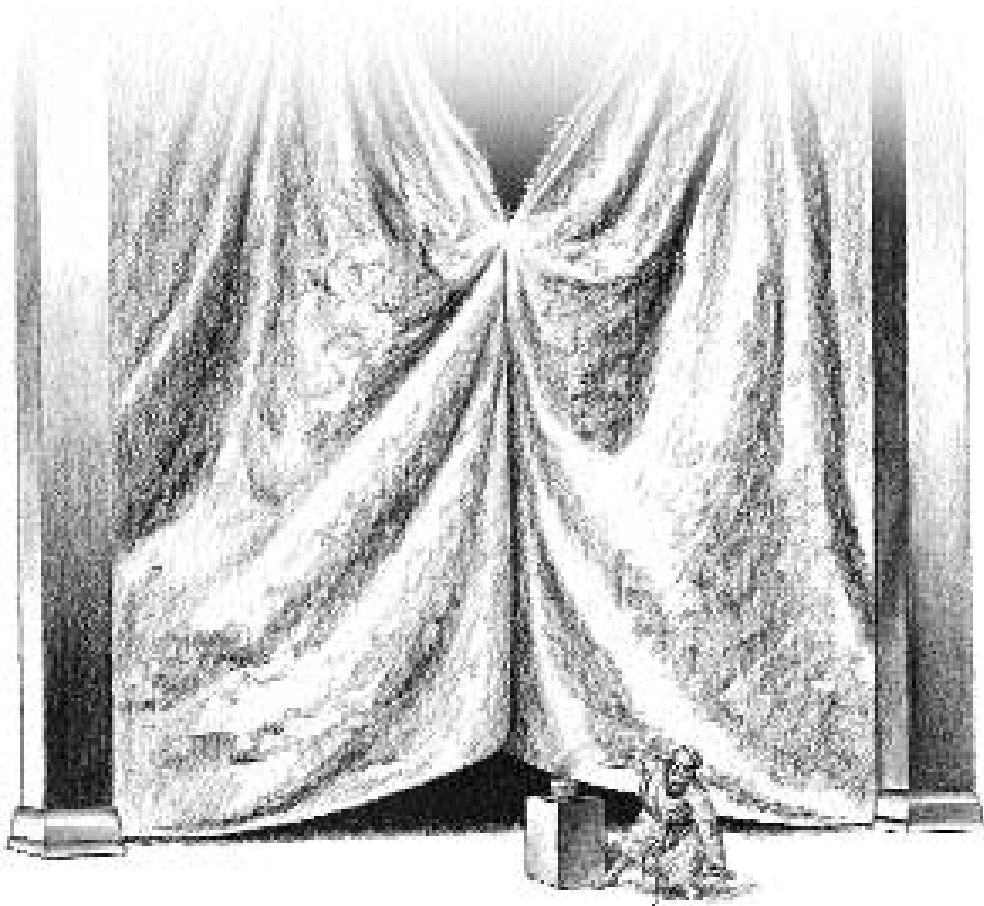
로는 일 년 중 가장 붐비는 유월절이었다. 찢어진 휘장 사건은 도저히 감출
래야 감출 수 없는 소식이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있었고, 그 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도대체 그 휘장은 왜 찢어졌을까? 그것을 알아 보기로 하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tetelestai)’ 라는 그리스어는 다양한 용도에 쓰였는데, 다음 세
가지의 의미가 이 사건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⁷

1. 이 말은 종이 임무를 끝마치고 주인에게 보고할 때 쓰던 단어이다.
“주인님이 시키신 일을 다 끝냈습니다.”
2. 또 이 말은 널리 쓰이던 상업 용어로서 빚을 완전히 갚아 금전거래가
완료된 것을 나타냈다. 마지막 남은 빚을 지불할 때 빚을 다 갚았다
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 단어는 ‘지불 완료되었음!’ 을 기록한 고대
의 세금 영수증에서 발견되었다.
3. 성전 제물로 쓰기 위한 희생양을 고르는 일은 언제나 중요한 일이었
다. 제사장들이 양떼를 조사해서 흠 없는 어린양을 찾아내면 “제사
양을 찾았다!”고 외칠 때 이 단어를 사용하였다.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신 말씀은 이 세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아버지께서 제게 맡기신 일을 끝냈습니다! 빛을 다 갚았습니다! 희생 제사에 쓸 어린양을 찾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께서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다고 말한 것이다.

백부장이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하였다.

누가복음 23:47 KSV

예수의 외침에 대해 즉각적으로 자기 의견을 말한 사람이 백부장(부하 1백명을 거느린 로마군대의 장교)이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군인으로서 패배의 신음소리와 승리의 외침을 구별할 줄 알았던 것이다.

유대 사람들은 그 날이 유월절 준비일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빌라도에게 그 시체들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 안식일은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9:31 KSV

다리를 꺾지 않았다.

당시는 유월절 주간이었고, 또 이 날은 행사 절정으로 어린양을 잡는 날이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의 사형 집행을 속히 마무리해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기를 원했으므로 군병들에게 예수의 다리를 부러뜨릴 것을 요구했다. 다리가 부러지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자기 몸을 밀어 올릴 수 없어 숨을 쉬지 못해 이내 질식사할 것이다. 물론 다리가 부러지는 충격으로 인해 훨씬 더 빨리 죽을 수도 있었다.

그래서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첫째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한 사람의 다리를 꺾고 나서, 예수께 와서는 이미 숨을 거두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러나 병사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 사실은 목격자가 본 대로 증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여러분들도 믿게 하려고 증언하였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또 성경에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 볼 것이다 한 말씀도 있다.

요한복음 19:32-37 KSV

3 무덤 그리고 부활

금요일 : 늦은 오후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가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또 일찍이 예수를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에 침향을 섞은 것을 백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를 바르고 고운 베로 감았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에 동산이 있고, 그 동산에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다. 그 날은 유대 사람의 준비일이고 또 무덤이 가까우므로, 그들은 예수를 거기에 모셨다. 요한복음 19:38-42 KSV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은 거기까지 와서 무덤과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모셔 두었는가를 봐 두고 집으로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계명에 따라 안식일에 쉬었다. 누가복음 23:55,56 KLB

비록 요셉과 니고데모는 유대인 최고 회의 산헤드린의 회원이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를 배척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관례에 따라 예수의 시신을 약 34kg의 향료가 섞인 긴 수의로 싸서 무덤에 안치했다. 그리고 바퀴 모양의 큰 돌(최대 2톤)을 굴러 무덤 입구를 막았다. 여자들은 계속 지켜보다 돌아가 장례의 마지막 절차를 준비했다. 때는 금요일 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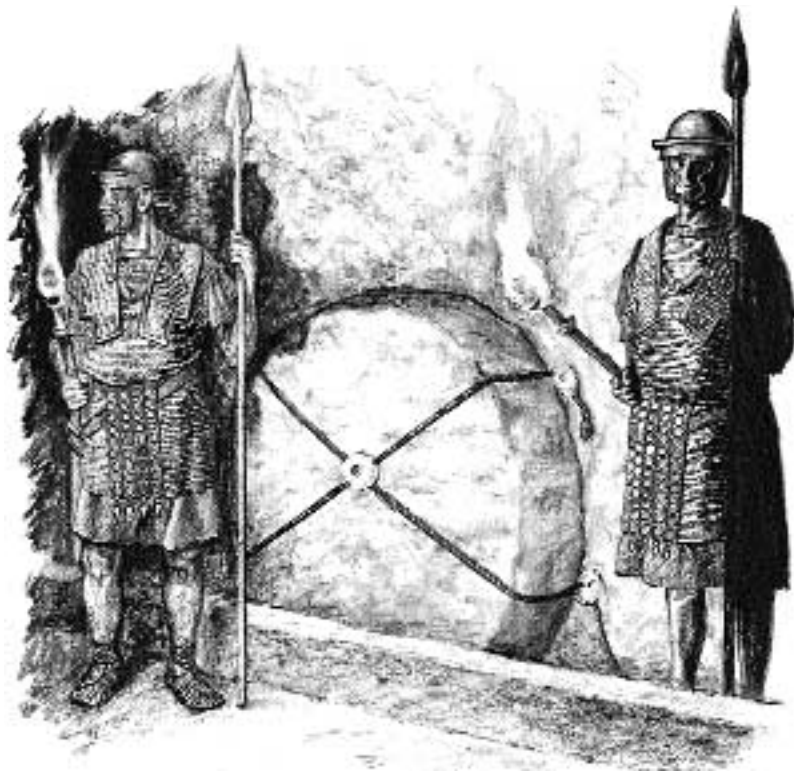
토요일

이튿날 곧 준비일 다음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물러가서 말하였다.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 있을 때에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난다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 가고 백성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경비병을 내줄 터이니 물러가서 재주껏 지키십시오.”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마태복음 27:62-66 KSV

무덤을 지키기 위해 파견된 군병들은 오합지졸이 아니었다. 로마의 경비부대는 한 단위가 4명에서 16명으로 구성되며, 한 사람이 약 2m 정도의 구역을 목숨을 걸고 지키도록 훈련받았다. 이들이 힘을 합쳐 싸우면 꽤 큰 규모의 공격도 상당한 시간 방어할 능력이 있었다.⁸

로마 총독 빌라도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무덤을 봉하라고 명령했다. 그 방법은 무덤을 막은 큰 돌에 밧줄을 십자로 매고 진흙을 발라 고정시킨 다음, 그 위에 봉인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누가 돌에 손을 댈 경우 금방 알 수 있게 된다.



일요일

유대인의 안식일인 토요일에 무덤을 경비할 병력이 즉시 배치되었다. 그리고 일요일이 되었다. 아직 어두운 새벽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다. 천사의 모양은 번개처럼 빛났고 옷은 눈같이 희었다.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천사를 보고 무서워 기절하고 말았다. 마태복음 28:2-4 KLB

그들은 용감한 군인이었지만,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천사를 당해 낼 수 없

다는 것을 한 눈에 알아 차렸다. 그들은 놀람과 두려움에 기절할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 두려움에 떨 것은 경비병들뿐만이 아니었다.

악의 세계 전체가 극도의 공황 상태에 빠졌을 것이다.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을지 한 번 상상할 수 있겠는가! 사탄은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마구잡이로 명령을 내리고, 귀신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댔을 것이다.

얼마나 큰 충격인가! 무덤이 비어 있게 될 줄을 누가 꿈엔들 생각했을까?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눈앞에서 일어난 것이다.

부활의 목격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 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래서 이레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을 때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입구에서 굴러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러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마가복음 16:1-4 KSV

‘막달라 마리아’는 열린 무덤을 보고 충격과 낙담 속에 돌아섰을 것이다. 아마도 그녀는 누가 예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막달라 마리아는 울면서 제자들에게 달려갔다. 그러나 다른 마리아와 ‘살로메’는 무덤 속으로 들어가 보았다.

그들이 돌무덤에 들어가, 긴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분께서는 일어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그분을 두었던 곳을 보라.”

“그런즉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알리기를,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뵈리라 하라.” 하니라.

마가복음 16:5-7 KJV

그래서 그 여자들은 두려우면서도 기쁨에 넘쳐 무덤을 급히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뛰어갔다.

그 때 갑자기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 “잘 있었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자,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여라.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셨다.

마태복음 28:8-10 KLB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성경을 읽다보면, 우리도 그 날 아침에 들려 온 소식 때문에 일어난 혼란과 흥분을 느낄 수 있다.⁹ 예수의 죽음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은 이 흥분한 여인들이 전해 주는 소식을 듣고 크게 의심했을 것이다. 그들이 처음에 보인 반응은 이런 것이었다.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누가복음 24:11 KSV

가장 먼저 베드로가 무덤을 살피러 달려왔다. 요한도 달리기를 시작해 도중에 베드로를 앞섰지만 무덤에 도착해서는 밖에서 기다렸다. 요한복음 20:6,7 KLB

그 때 뒤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 보니 모시 천이 놓여 있었고 예수님의 머리를 찼던 수건은 모시 천과 함께 놓이지 않고 따로 개켜져 있었다.

이것은 약탈당한 무덤의 모습이 아니었다. 시신을 찼던 긴 수의는 여전히 시신을 감싼 모양으로 그대로 있었으나, 그 속은 텅 빈 채 함몰되어 있었다. 시신이 수의에서 그대로 빠져나온 것이었다. 시신의 머리를 찼던 수건은 단정하게 개켜져 있었다.

성경에 베드로는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고, 요한은 ‘보고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요한은 예수께서 살아나신 사실을 아무 의심 없이 그대로 믿은 것 같다. 그러나 베드로의 머리는 바쁘게 회전했다. 그에게는 생각해봐야 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했던 것 같다.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무덤으로 돌아왔다. 아직도 이른 아침이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구푸려 무덤속을 들여다 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를 두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맡에, 하나는 발치에 앉아 있지 않겠는가!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왜 우느냐?” 하고 물었다. 그래서 마리아는 “누가 내 주님을 가져갔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요한복음 20:11-13 KLB

무덤이 동산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천사들을 동산지기로 생각했을 것이다. 게다가 마리아는 너무나 상심해 있었는지라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마리아가 심한 슬픔에 잠겨 울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의 대화가 진행되었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예수님이 거기 서 계셨으나, 마리아는 그 분이 예수님인 것을 몰랐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여자여,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 관리인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분을 가져갔으면 어디에 두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내가 모셔 가겠습니다.”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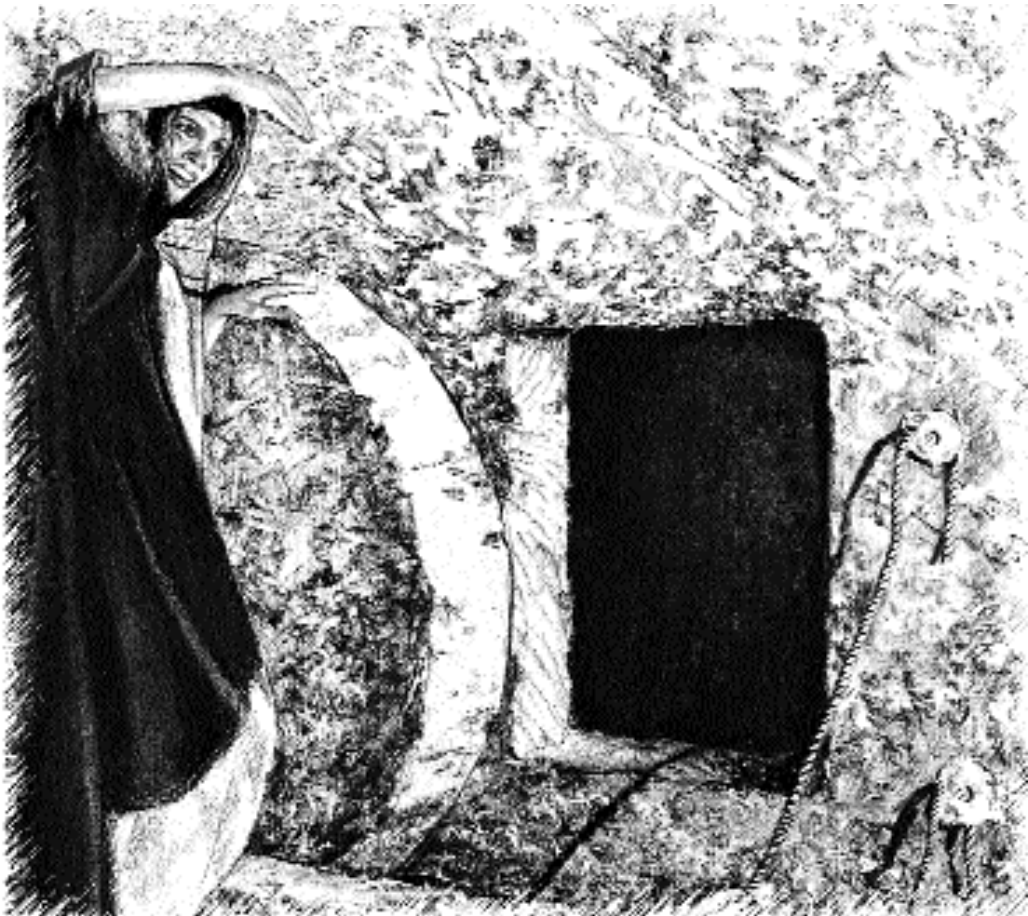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시자...

요한복음 20:14-16 KLB

사랑하는 사람과의 소중한 기억을 되살리려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불러 본 적이 있는가? 예수께서 마리아를 그렇게 부르셨을 것이다. 마리아는 그 목소리를 단번에 알아들었다.

요한복음 20:16 KJV

그녀가 돌이켜 그분께, “랍보니여!” 하니, 이것은 곧, “선생님이여!” 라는 말이다.



이제 마리아는 다른 이유로 울고 있었다. 마리아는 아마 그 당시 풍습에 따라 두 팔로 예수의 발을 감싸 안았을 것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너는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자기가 주를 보았다는 것과, 주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였다.

요한복음 20:17,18 KSV

경비병들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 경비병들은 대제사장을 찾아 나섰다. 그들은 이 상황으로는 도저히 빌라도 총독의 얼굴을 대면할 수가 없었다.

여자들이 가는데, 경비병들 가운데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였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집어 주고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 갔다” 하여라.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 너희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그들은 돈을 받고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마태복음 28:11-15 KSV

명예와 자존심이 강한 로마 군인들로 하여금 “사실은 우리가 잠을 자고 있었노라”고 말하도록 하는 데는 많은 돈이 들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사탄은 두말 할 여지 없이 자기가 패배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오래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신 약속 그대로 여자의 자손, 곧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께서 이렇게 사탄의 머리를 부수셨다.

부활하신 예수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의 몸이 다시 살아나셨다. 사흘 동안 예수의 몸은 무덤 속에서 영혼과 분리된 채 죽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 예수는 생명으로 부활하셨다. 하나님만이 나타내실 수 있는 능력으로 예수께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다.

예수는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 여러 번 예언하신 바 있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나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기 때문이다. 나는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아무도 내게서 목숨을 빼앗을 사람이 없고 다만 내 스스로 생명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세도 있고 그것을 다시 찾을 권세도 있다.”

요한복음 10:17,18 AEB




왜 예수는 죽으셔야 했는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누구나 당하는 평범한 그런 죽음이 아니었다. 모든 사람이 당하는 죽음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결과, 즉 죄에 대한 형벌이다. 그러나 예수는 죄가 없이 태어나셨고, 어떠한 죄도 없이 사셨다. 예수는 죄가 없으므로 죽으실 아무런 이유가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하면 죄가 없는 예수는 영원히 사실 수 있었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 죽으셨을까?

실상을 말하자면, 사탄은 하나님으신 예수를 죽일 능력이 없다. 유대인도 로마인도, 즉 사람들은 더 더욱 그런 능력이 없다. 예수는 기꺼이 죽음을 택하신 것이다. “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음 장에서 들을 것이다.

그 날 새벽에 일어난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 후 예수는 40일 동안 세상에 머물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다.

세상의 역사를 바꾼 72시간

목요일	제자들이 유월절을 준비하다. 유월절 만찬을 드시다.
	겻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다 동산에서 체포당하시다. 제자들은 도망치다 유대인의 금요일
금요일	첫 번째 재판 - 대제사장의 장인 안나 앞에서 두 번째 재판 - 대제사장과 산헤드린에서 세 번째 재판 - 산헤드린에서 (절차를 합법화하기 위해)
오전 6시 30분	네 번째 재판 - 빌라도 앞에서 다섯 번째 재판 - 헤롯 앞에서 (조롱당하심) 여섯 번째 재판 - 빌라도 앞에서 (채찍질당하심)
오전 9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다.
정오	
오후 3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다. 성전 휘장이 갈라지다.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시다. 군병이 두 강도의 다리를 부러뜨리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몸을 청구하다. 무덤에 묻히시다.
	유대인의 토요일
토요일	
	무덤에 로마 경비병을 세우다. 무덤을 봉하다.
	유대인의 일요일
일요일	지진 - 천사들이 돌을 굴러놓다. 경비병들이 기절하다. 여자들이 무덤에 가다. 마리아와 살로메에게 나타나시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시다.

(*유대인의 하루는 해질 때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이다.)



14장

- 1 그 사람의 이야기
- 2 아담에서 노아까지
- 3 아브라함에서 율법까지
- 4 성막에서 늦밤까지
- 5 십자가와 부활까지

1 그 사람의 이야기

바로 그 날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11킬로미터쯤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면서 최근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서 그들과 동행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길을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슬픈 표정을 지으며 멈춰 섰다. 누가복음 24:13-17 KLB

이 두 사람은 열두 제자 중의 하나는 아니었지만, 그들도 역시 함께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었다.

그 때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최근에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르고 계십니까?”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하고 다시 물으시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행동이나 말씀에 능력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주어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박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해 주실 분이라고 잔뜩 기대했었는데 말입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지 사흘이나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돌아와서 천사가 나타나 그분이 살아났다고 말하더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도 무덤에 가 보고, 여자들이 말한 것이 사실임을 확인했으나 예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4:18-24 KLB

그들은 낯선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한 채, 그 날 일어났던 일을 설명해 주었다. 예수는 그들의 말을 조용히 듣고 계셨다. 예수께는 그들에게 들려주실 말씀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정말 미련하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구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자기에 관해서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누가복음 24:25-27 KLB

예수는 그들에게 메시아, 곧 언약의 구원자가 고난과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두 제자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선뜻 이해하지 못했다.

예수는 말씀을 멈추지 않고, 구약의 첫부분으로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이르기까지 하나씩 단계적으로 이야기를 풀어 가며 그리스도, 곧 자기 자신에 대해 가르쳐 주셨다. 그것은 참으로 대단한 강의였을 것이다.

그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갔을 때, 예수님이 더 가시려고 하시자, 그들이 강력하게 권하며 “저녁 때가 되어 날이 이미 저물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묵었다가 가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묵으려고 따라 들어갔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자 예수님은 순식간에 사라져 보이지 않으셨다. 그들은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속에서 뜨겁지 않더냐?” 하고 서로 말하였다.

누가복음 24:28-32 KLB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깨달음의 빛을 비추어 주셨다.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져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그들이 곧 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누가복음 24:33 KSV

기쁨에 찬 두 사람이 열한 제자를 만나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의논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 길은 오르막이었지만 그들은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들에게는 빨리 전해야 할 기쁜 소식이 있었다.

열한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말하기를 “주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 하였다.

*열두 제자 중 가롯 유다는 자살했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 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그에게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니,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고 하였다.”

누가복음 24:33-44 KSV

전날 엠마오 길에서 두 제자에게 하셨듯이, 예수는 이 때도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에 대해 성경구절을 풀어 설명해 주셨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율법서와 시가서(시편) 그리고 예언서로 나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성경의 각 부분이 어떻게 자신에게 적용되었는지를 보여 주셨다.

그 때에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너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일의 증인이다.”

누가복음 24:45-48 KSV

예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장례와 부활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했던 사건임을 말씀해 주셨다. 또 이 이야기는 매우 기쁜 소식(복음)이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세상 구석 구석까지 전해져야 한다고 하셨다.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한 번 살펴보자. 즉, 율법과 시편과 예언서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그 흐름을 추적해 보자.

왜 예수는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면, 왜 굳이 고난 받고 죽임을 당하셔야 했는가?

십자가의 참혹한 경험은 슬쩍 건너뛰고, 그냥 사람들에게 예수 자신을 믿으라고 하시면 안 되는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과 부활은 각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추어야 할 순간이다. 이 내용들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퍼즐 맞추기를 끝내고, 곧 전체 그림을 한 눈에 보게 될 것이다.

2 아담에서 노아까지

“왜 예수는 죽으셔야 했는가?” 이 질문의 답을 알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태초의 장면을 다시 살펴보자.

아담과 하와의 선택

첫사람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특별한 사랑의 관계였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할 의지가 있는 완전한 존재로 지으셨다. 마치 아들이 순종하기를 선택하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듯이,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또 사람은 모든 필요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고 있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행복을 책임지셨고 또 그들의 친구로서 함께 걷고 대화 하셨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고의로 무시하고 불순종함으로써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시험했다. 이 사건은 성경 전체 퍼즐의 시작으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성경은 이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 우리의 이해를 도와 주고 있다.



길을 잃음



하나님의 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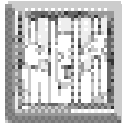
나는 어디로?



죄의 종

- 사람은 자신에게 무엇이 유익한지를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 때부터 사람의 영혼은 영적인 광야를 헤매기 시작했다. 사람은 길을 잃어버렸다.
-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대신 사탄을 신뢰했다. 사람은 사탄의 반역에 가담하여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 죄를 지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의 관계는 끊어졌다. 죄로 인해 사람은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다. 하나님은 아주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되었다.
- 사탄은 사람에게 하나님 같은 좋은 친구가 결코 아니었다. 사탄은 자기의 사악한 목적을 위해 사람을 교묘하게 조종한다. 사람은 죄의 종, 즉 사탄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

마귀에게 속은 사람은 순전히 자신의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곧 법을 어겼다. 법을 어기면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 그때부터 사람은 모든 저주와 고통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다.



유죄 선언

- 하나님은 사람을 향한 사랑의 옷을 벗어버리고 재판관의 옷을 입으셨다. 재판관이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에게 유죄를 선언하셨다.



빛 진자

- 하나님은 판결과 함께 빛 문서를 작성하셨다. 사람은 빛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빛진 자)로 확정되었다. 죄의 빛을 갚는 길은 오직 죽음뿐이었다.



죽음



단절

- 모든 사람은 육체적으로 죽게 되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영 이별을 해야 한다.

- 사람 세상 전체가 오염되었고 하나님은 사람을 떠나셨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다. 이것은 죽음의 또 다른 국면이다.



영원한 형벌

-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피할 수 없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 사람은 하나님과 그 사랑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죽음을 맞게 되었다. 사람은 사탄과 그 부하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 못에 던져진다. 이것이 가장 비참한 고통, 영원한 죽음이다.

죽음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사람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고, 사람은 이 죽음에 대해 속수무책이다. 사람에게 죽음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두려움에 떨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대해 성경은 명확하게 말한다.

“각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에 따라 죽어야 한다.”

역대하 25:4 AEB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결과, 그 후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채 죄 속에서 태어나게 되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류에게 가장 오래된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다.

“어떻게 해야 죄의 결과(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의(義)”를 얻어 다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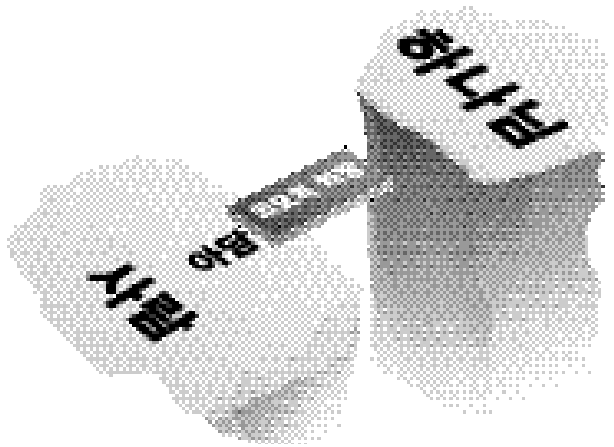
절망에 빠진 사람들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의 죄를 가리려고 했던 일을 기억하는가?

하나님은 사람의 그러한 노력을 거부하셨다. 그러나 사람을 절망 속에 그대로 버려두지도 않으셨다. 오히려 하나님은 ...

“방책을 베푸셔서, 비록 내어쫓긴 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사무엘하 14:14 KSV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칙을 가르쳐 주시려고 다음의 사건들을 사용하셨다.

하나님이 받아 주심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겉모습을 가린 것으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었듯이, 우리도 겉모습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 모습이 어떠한지를 다 아시기 때문이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셨다. 그 길은 나뭇잎으로 겉을 덮어 가리는 사람의 방법과 전혀 달랐다.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 주셨다. 창세기 3:21 KSV

성경의 다른 부분이 설명해 주지 않았다면, 이 짧은 구절의 중요성은 지나쳤을지도 모른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셨을까?

죄인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면 죽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했다. 그들이 가죽 옷을 입었다는 것은 어떤 짐승이 그들을 위해 죽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기 위해 예수께서 대신 죽으셨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방법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생각이다. 오직 이 길만이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는 길이다.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짐승을 죽게 하셔야 했을까? 더 좋은 나뭇잎으로 아담과 하와를 입히시면 되지 않았을까? 다른 길은 없었는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장면을 기억하는가? 죄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방법에는 두가지 측면이 있다.



마음의 상태 : 가인과 아벨은 각기 자신의 생각으로 선택을 결정해야 했다.



나타난 증거 : 무엇이 죄를 없게 한다고 믿고 있는지를 나타내보이는 증거가 필요했다.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왔다. 가인은 땅에서 얻은 결실을,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죽여 그 피와 기름을 가져왔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셨고, 아벨의 제물은 기쁘게 받으셨다. 왜 그러셨을까?

가인



마음의 상태 : 가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는 죄를 덮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 생각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제멋대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때로는 자기 취향에 맞는 신(神)을 만드는 것을 오히려 더 멋진 일로 생각하기도 한다.



나타난 증거 : 가인은 자신의 생각을 따라 자기 방법대로 했다. 그 증거로 가인이 가져온 제물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과 전혀 무관한 것이다. 채소나 곡식은 피를 흘릴 수 없다. 가인은 '피 흘림이 없는 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고 하신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다.

히브리서 9:22 KRV

가인이 가져온 제물은 죄를 가릴(속죄할) 수가 없었다. 성경은 말하기를 “가인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고 하신다.

요한일서 3:12 KR

아벨

반면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



마음의 상태 : 아벨은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 주실 것을 믿었다. 바로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으라는 음성을 계속 듣고 있다.



나타난 증거 : 그 증거로 아벨이 가져 온 제물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일의 예표이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

❖ 그 제물은 대신 형벌 받는 것을 보여 준다 : 대속 (代贖)
죄 없는 짐승이 아벨의 죄를 대신해 죽은 것 같이, 죄 없는 예수께서 사람의 죄를 대신해 죽음의 형벌을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18 KR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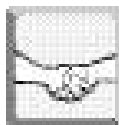
❖ 그 제물은 죄를 가리는 것을 보여 준다 : 속죄 (贖罪)
아벨이 자기 죄를 희생제물의 피로 가렸던 것과 같이, 예수의 피가 희생제물로 드러짐으로써 사람은 죄를 용서받게 되었다. 불순종으로 인해 깨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회복된 것이다. 성경은 말한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골로새서 1:21,22 KRV



하나님의 원수

-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원수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관계의 회복

-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해결했다는 것까진 이해하겠소.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의롭게 된단 말이요?”

이 문제도 역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분리될 수 없는 동시적 관계이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동시에 '의로움'의 문제도 함께 해결하셨다.

노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다. 그들은 노아를 보고 “저 노인이 미쳤나?” 했을 것이다. 그들은 인생이란 다만 현재 육체의 삶뿐이며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믿었다. 대다수 사람들이 잘못된 인생철학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취소하지는 않으신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사람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 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시편 53:1: 14:1 KSV

‘자기의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

잠언 28:26 KJV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행위는,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잠깐 허용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람의 운명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영적 현실에 맞닥뜨리게 된다. 그것은 영원한 죽음으로 죄의 빛을 갚아야 하는 실제 상황이다.

노아와 그 가족이 방주 안에서 안전했던 일을 기억하는가? 대홍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준비된 구조선은 단 한 척의 방주뿐이었고, 방주에는 문이 단 하나밖에 없었다. 하나의 방주와 하나의 문,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단 하나의 길이다.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방주 안의 멸망으로부터 안전했듯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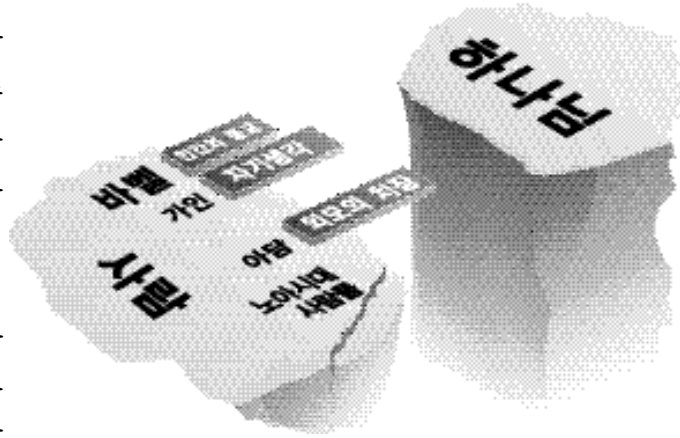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

요한복음 14:6 TKV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오로지 하나 뿐이다. 그 길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사람은 대홍수의 경고를 외면한 사람들과 같은 운명을 맞는다.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바벨의 탑

사람이 조직한 종교의 첫 번째 작품이 바벨탑이었던 것을 기억하는가? 그때 사람들은 스스로 하늘에 닿는 탑을 쌓으려고 했다. 이것이 종교의 시작이었다. '종교'라는 말은 하나님께 이르려는 사람의 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바벨에서 사람들은 하늘에 이르는 탑을 쌓기 위해 벽돌을 굽고, 타르를 바르며 노예처럼 고된 일을 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만든 종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쉬지 않



고 일하도록 강요하는 노예감독과 같다. 종교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비롯해 모든 잡신, 혼령, 우상들까지 기쁘게 하라고 더 많은 수고를 요구한다.

사람의 종교와는 대조적으로,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말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셔서 스스로 그 길이 되셨다. 그 길이, 곧 진리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깨진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셨다.

하나님의 계획이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예수 안에서 성취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의 눈은 흥분으로 반짝였을 것이다. 오랜 세월을 두고, 사람들은 죄의 심판에서 구원 받을 날을 기다려왔다.

3 아브라함에서 율법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던 일을 기억하는가?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죽게 되었다. 실제로 이삭이 죽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그도 역시 죄인이었기 때문이다. 이삭은 결박당했고 자신이 어찌해 볼 수 없는 무력한 가운데 제단 위에 올려졌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러하다. 이삭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던 듯이, 우리 모든 사람들 또한 죄로 결박 당해 있으며 죄의 결과로부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들이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외아들 이삭을 칼로 찌를 수 있었는가? 그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음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하고 불러 멈추게 하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할 제물로 숫양을 마련해 주셨다.

사람을 대신하는 희생 제물 (대속물: 代贖物)

이삭을 대신해서 숫양이 죽었듯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 우리가 죄로 인해 마땅히 심판 받아야 할 것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심판 받으셨다. 예수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것이다.

숫양이 대신 죽지 않았다면, 이삭이 죽어야 했다. 예수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각각 자기의 죄의 빚을 갚아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고 말한다. 로마서 4:3 KJV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매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갖고 있는 빚 문서를 기억하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그의 빚 문서에 ‘의(義)’를 넘치도록 넣어 주셨다. 이는, 그의 죄의 빚이 완전히 갚아졌음을 확인해 주신 것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일을 미리 보고 믿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셨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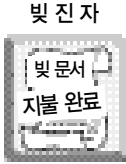
로마서 4:23,24 KRV



*로마서 6장 23절을 그림으로 설명한 것



- 모든 사람은 각각 죄의 빛, 곧 빛문서를 갖고 있다. 그 빛을 갚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영원한 죽음이다.



빛을 다 갚음

- 그러나 예수께서 오셨다. 예수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사람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의 빛을 완전히 갚아 주셨다. 그리고 예수는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다. 모든 빛이 갚아졌음을 선언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대신 빛을 갚으신 결과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로마서 4:24 KRV

성경에서 ‘믿음’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 믿음, 신앙, 신뢰, 확신 등의 말로 본질적으로 같은 뜻이다.

둘째, 진정한 믿음은 명백한 ‘사실’에 근거한다 (예 :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사실). 즉 믿음은 어떤 ‘느낌’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다 (예 : 용서 받은 것 같은 느낌).

셋째, 성경적인 믿음이란 진리에 대해 단순히 동의하는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명확한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갖고, ‘마음 깊이 신뢰하여’ 그 증거를 자발적 의지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처럼 믿음이란 사람의 분명한 선택을 말하는 것이다 (예 : “나는 예수께서 내 죄의 빛을 갚으신 것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참으로 좋은 소식이었을 것이다. 물론 우리에게도 더할 수 없이 좋은 소식이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15:4 KJV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는 제자들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였다. 그들이 어린 시절부터 많이 들어온 이야기지만, 이제야 처음으로 그 이야기의 전체 그림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지금 제자들의 눈과 귀는 그들과 함께 계신 언약의 구세주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유월절 어린양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재앙들을 내려 파라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기억하는가? 마지막 재앙은 이집트 내의 모든 처음 난 것(장자)의 죽음이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따르면 이 재앙에서 구원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양을 어떻게 제물로 드렸는지를 기억해 보자. 성경은 바로 예수가 우리의 어린양, 희생제물이시라고 말한다.

예수께서 그 출생부터 양과 같이 여겨지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 없다. 예수는 양들이 쉬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첫 번째로 예수를 방문한 사람들은 양 치는 목자들이었다. 예수께서 태어난 도시 베들레헴은 성전 제사에 쓰일 양을 기르는 곳이었다. 세레(침례) 요한은 예수를 가리켜 이렇게 말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요한복음 1:29 KLB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양으로 불린 것은 참으로 합당한 것이었다.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보자.

1. 유월절 어린양은 흠이 없어야 했다. 예수는 죄가 없으셨다.
 2. 어린양은 숫양이어야 했다. 예수는 남자였다.
 3. 유월절 양이 죽은 것은 처음 난 것을 대신하는 죽음이었다. 예수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4. 어린양의 피를 집의 문 기둥과 인방에 칠해야 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집 안에 있어야 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신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또 그 믿음 안에 있어야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있다.
 5. 죽음의 천사가 그 피가 칠해져 있는 집을 보면 넘어 지나갔다(유월: 逾越).
-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심판이 우리들을 넘어 갈 길을 마련해 주셨고, 우리가 당할 모든 심판은 예수계로 옮겨졌다.
6. 하나님은 유월절 양을 먹을 때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고 명하셨다. 예수의 뼈는 하나도 로마병사들에 의해 꺾이지 않았다.

군인들이 가서 ... 예수께 와서는 이미 숨을 거두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

요한복음 19:32,33 KSV

두 제자는 예수의 말씀을 한 마디도 놓칠 수가 없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날이 바로 유월절 아닌가! 어린양이 죽어야 하는 날이 바로 그 날이었다. 예수는 그 날 죽으셨을 뿐 아니라, 또 그 시각까지도 성전에서 양을 바치는 저녁 제사 시간인 제9시(오후 3시)에 죽으셨다. 예수는 성경에 예정된 대로 시간까지 정확하게 모든 것을 이루셨다.¹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으므로’ 고린도전서 5:7 KLB



율법

십계명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에는 십계명이 지키기 쉬운 것이라고 생각했다.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도 자신이 십계명 정도는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다시 말해서 단 한 가지의 계명을 어겨도 그 사람은 죄인인 것이다.

야고보서 2:10 KRV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므로 십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과 자신의 깨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20 KRV

‘율법’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또다시 동전의 양면을 생각하게 된다. 사람이 전혀 원하지 않는데도 누구나 갖고 있는 것, 그것은 ‘죄(罪)’이다.

이와 반대로, 꼭 필요로 하면서도 결코 가질 수 없는 것, 그것은 ‘의(義)’이다.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21,22 KRV

예수는 율법과 상관 없이 인류에게 의로우심을 보여 주셨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이 직접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이 의로우심을 얻기 위해서 할일은 오직 믿는 일뿐이라고 말한다. 아주 간단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믿는 일이 간단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많은 일을 하셔야 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못 본 체하고 그냥 지나치실 수 없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죽음만이 그 대가이다. 사람들은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계속 짐승을 희생제물로 드렸는데, 그것은 다만 임시로 죄를 가릴 뿐이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0:4 KJV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함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른 해결책은 없을까? 누군가가 내 죄를 위해 대신 죽는다면 해결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그 사람은 첫째, 죄가 없어야 하고, 둘째, 자원해서 그 죽음의 형벌을 당해야 한다. 그런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있는가? 남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 줄 사람도 없거니와,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 너나 할 것 없이 사람은 모두 다 자신의 죄로 죽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떠나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로마서 3:25 KRV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완벽하게 충족되었다. 예수의 죽음으로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의 빛이 완전히 갚아진 것이다. 하나님은 그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아시므로 죄 많은 사람들을 즉시 심판하지 않고 오랫동안 기다리셨다. 성경은 예수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3:26 KRV

“의롭게 여기심(칭의 : 稱義).” 이 말은 당시에 법정에서 사용되던 법률용어였다. 에덴동산에서 사람이 죄를 범한 사건을 기억해 보자. 그 때 하나님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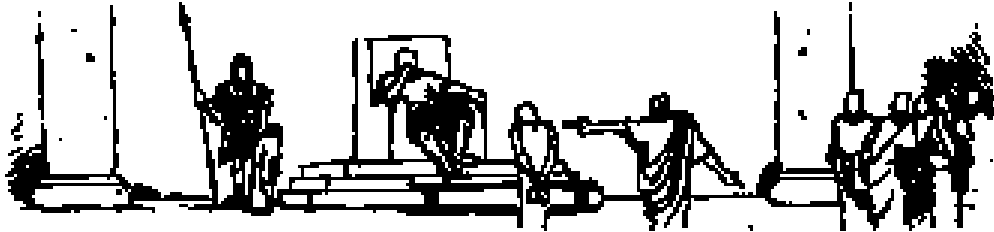
사랑의 옷을 벗고 재판관의 옷을 입으셨다. 하나님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재판관으로서 사람에게 유죄 선언을 하셨다.



유죄 선언

-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대적하는 '죄'를 보셨고, 사람은 완전한 하나님의 법정에서 범죄자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것은 영원한 죽음의 선고였다.



그런데 보라! 하나님께서 이제 재판관의 옷을 벗고 다시 사랑의 옷을 입으셨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하늘을 떠나 사람으로 오셔서 피고석의 사람들 속에 함께 앉으셨다. 하나님-예수는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의 죄 값을 대신 치르는 한 가지 목적을 갖고 사람으로 오셨다. 오직 죄 없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다.²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께서 죄인들 대신 죽으심으로 죄의 형벌을 완전히, 또 영원히 치루어 주셨다.

죄의 대가는 치루어졌지만,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의(義)를 필요로 하고 있다. "아, 아브라함처럼 의롭다고 인정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는 우리의 더러운 죄를 떠맡으시고 (참 감사한 일이다), 동시에 우리에게 순결하고 깨끗한 옷, 곧 예수 자신의 완전한 거룩함의 의를 입혀 주셨다(참 놀라운 일이다).



의롭다 하심

- 재판관석의 하나님께서 사람 하나하나를 바라보실 때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의 하늘법정에서 이 사람은 참으로 완전하다!" 전능하신 재판관 하나님께서 판결봉을 쿵쿵! 내리치며 선언하신다. "이 사람은 의롭다!"

'의(義)로 여기신다'는 말은, 곧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선언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일은 오직 예수께서 자기 대신 죽으셨음을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성경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한다.

로마서 3:28 KRV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1 KRV

그렇다. 십계명, 곧 율법으로는 사람을 의롭게 만들 수 없다. 갈라디아서 3:11 KJV
“하나님의 눈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23 KRV
그러나 율법에는 선한 목적이 있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라. 성경은 율법이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서 구세주가 필요함을 가르쳐 주는 교사라고 말한다.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24 KJV

모든 사람들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는 자신이 죽으신 이유를 말씀해 주셨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은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우선 우리가 그런 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도 예수께서 반드시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만약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공의’만을 적용하시면, 우리는 죄로 인해 죽는 것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사람이 죽도록 내버려두실 수 없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사랑’만을 적용하시면 우리 죄를 모른 척하시면 된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죄인을 용납하실 수 없다. 반드시 죄인을 심판하신다.

우리는 하나님 본성의 양면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충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절대적 공의와 무한한 사랑이 동시에 완전히 균형을 이룬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너희는... 곧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5:13,14 KRV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8 KRV

4 성막에서 늦밤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도록 명하신 일을 기억해 보자. 성막은 하나님과 사람의 깨진 관계가 회복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여 주는 시청각 교재였다. 성막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심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여 주셨다. 이제는 구름이 성막의 지성소 안의 속죄소 위에 머물러 있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 주신다.

단 하나의 문

성막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맨 처음 보게 되는 것은 성막을 두른 담이다. 그 담에는 문이 하나 밖에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오직 하나 뿐임을 기억하게 한다.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

요한복음 14:6 TKV

늦제단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보이는 기구는 희생제물을 드리는 늦제단이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첫 단계가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임을 가르쳐 준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주신 예수를 통하는 길 밖에 없다.

늦제단과 십자가, 둘 다 죽음의 장소이다. 이 두 장소를 비교해 보면, 예수께서 성막 제사에서 나타난 예표들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것을 알 수 있다.

늦제단		십자가
희생제물	=	예수
양 또는 소	=	하나님의 어린양
수컷	=	남자
흠이 없음	=	죄가 없으심
사람을 대신해 죽음	=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
사람의 죄를 가리는 방법	=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
(레위기 1:2-5) 희생제물(피)	=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피)

금 촛대

하나님은 모세에게 순금으로 촛대를 만들어 성소를 밝히도록 명하셨다. 이 촛대 또한 예수를 묘사한 것이다.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8:12 KSV

예수는 모든 사람이 죄, 곧 흑암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빛인 진리로 인도되기를 원하신다.

진설병(빵) 상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상을 만들고, 그 위에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빵) 열두 개를 놓으라고 명하셨다. 이것 또한 역시 예수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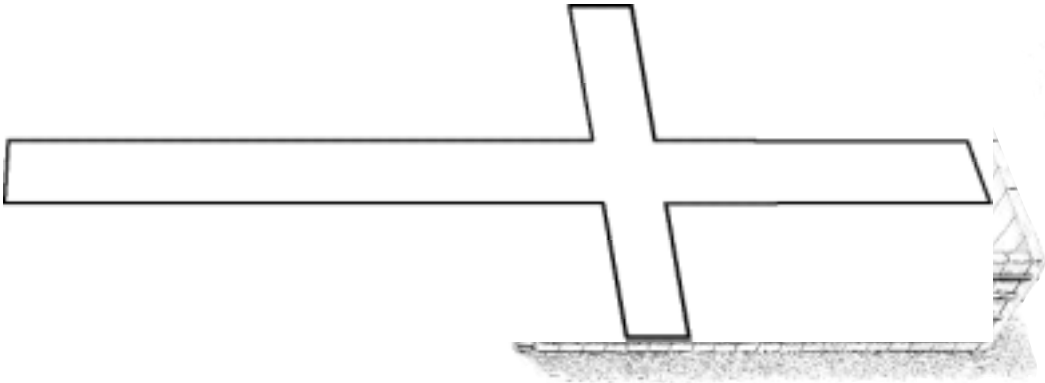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주리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6:35 KSV

열두 개의 빵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한다. 예수는 세상 모든 사람이 먹을 영적 양식으로 자신을 내어 주실 것이다. 예수는 우리를 위한 생명의 양식으로서, 우리가 그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가졌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요한복음 6:47,48 KJV



휘장

하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두꺼운 휘장을 치도록 명하셨다. 죄인인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 계신 거룩한 곳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휘장으로 엄격하게 차단되었다.



나는 어디로?

-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 사랑으로부터 끊어졌다.

이제 예수께서 오셨다. 성경은 휘장이 예수의 몸의 예표였다고 말한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을 때, 성전의 휘장은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다. 누구도 그 휘장을 찢을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몸이 우리를 위해 희생되었음을 보여주시고자 손수 그 휘장을 찢으셨다.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다.

히브리서 10:19,20,22 KRV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13 KRV

우리는 하나님께 억지로 용납된 것이 아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족이 되었다고 말한다. 다른 말로는 입양(入養)되었다고 한다. 오래 전 로마제국에는 ‘입양’이란 법적 의식이 있었다. 오늘날 사회에서는 한 가족에 속한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그 가족의 모든 권리를 공유한다. 그러나 당시 로마에서는 한 남자에게 부인과 첩의 자녀들이 여럿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자녀들은 별도의 의식을 통해 권리를 부여받기 전까지는 정당한 법적 상속인이 아니었다. 자녀들은 합법적 ‘입양’ 의식을 거친 경우에만 정식으로 그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

-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 없는 자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제 떨 수 없는 확실한 사랑의 관계가 된 것을 뜻한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더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갈라디아서 4:6,7 KJV

속죄소(贖罪所)

속죄소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놓인 특별한 덮개를 가리킨다. 대제사장이 일 년에 한 번 속죄일에 피를 가져가 뿌린 곳이 바로 이 속죄소였다. 이 때 흠 없는 양이 흘린 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흘린 피를 통해,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면할 길을 찾게 되었다. 예수께서 친히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양을 죽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예수께서 친히 마지막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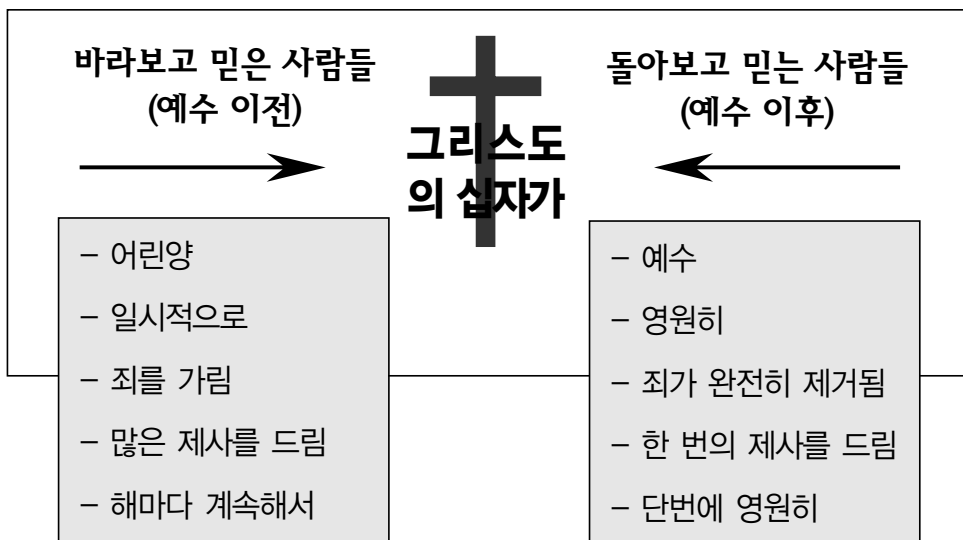
히브리서 10:17,18 KRV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마지막 어린양 희생제물의 죽음이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 세상 모든 죄인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이었다. 어린양의 희생 제사는 예수의 십자가 희생의 예표였다. 사실상 짐승의 피로는 죄를 대신할 수 없었는데, 이제 예수의 피로 죄의 빚을 모두 갚아 버렸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어린양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히브리서 10:10-12 KRV

하나님께서 짐승을 제물로 받으신 것은 장차 예수께서 마지막 희생제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의 희생은 일 년동안 죄를 가리는 짐승의 희생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예수는 하나님의 시야에서 죄를 영원히 지워버리셨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는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는데, 그것은 “마지막 어린양을 찾았다”는 뜻이다.



예수께서 두 제자에게 설명하실 때, 성막의 많은 부분이 자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을 빼놓지 않으셨을 것이다. 성막은 놀랄 만큼 생생한 비유로 가득 차 있는 시청각 교재이기 때문이다.

모세와 놧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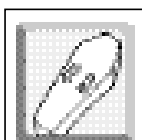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셨던 일을 기억해 보자. 그들은 살려 달라고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놧뱀을 장대에 높이 매달라고 하셨다.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치료를 받고 살기 위하여 할 일은 단지 그 놧뱀을 바라보는 것 뿐이었다. 그 밖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3:14-18 KSV



죽음



단절



영원한 형벌

모든 사람은 영원한 사망 선고를 받은 채로 이 세상에 태어난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역시 죽어 가는 자들이다. 머지 않아 육체는 죽을 것이고, 영혼은 둘째 사망, 곧 영원한 지옥 불 못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빚을 갚으셨다. 그러나 예수는 죽은 자들 속에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없으셨다.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단지 놧뱀을 바라보면 나왔듯이,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또 예수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 영혼도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된다. 성경은 이것을 다시 태어난다는 뜻으로 '거듭남(重生)'이라 한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골로새서 2:13

KRV



영원한 생명

“궁홀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2:4,5 KJV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였으나 이제는 산 자요, 그리고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다.

5 십자가와 부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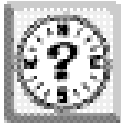
예수께서 두 제자에게 성경 전체의 의미를 하나의 이야기로 가르쳐 주실 때,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을 가르쳐 주셨을 것이다. 이 대목은 두 제자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일이었으므로, 더 큰 관심을 갖고 예수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을 것이다.

선한 목자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모두 목자를 떠난 양들처럼 길을 잃고 헤매며 제멋대로 돌아다녔으나”

이사야 53:6 TKV



길을 잃음

- 사람은 자기의 길을 선택한다고 했으나, 영적으로 볼 때 그 길은 광야에서 헤매는 멸망의 길이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은 길을 잃었다고 말한다.



길을 찾음

- 그러나 예수께서 길 잃은 우리를 찾으러 오셨다. 예수는 길 잃은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만일 너희에게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한 마리가 길을 잃고 들에서 없어졌다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으러 나서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찾으면, 너희는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놓고, 잃었던 양을 찾은 것이 너무

도 기뻐 잔치를 벌일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길을 잃지

않은 아흔아홉 명보다 길을 잃었던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한다.” 누가복음 15:4-7 TKV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 영원히 등을

돌리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

오셨다. 선한 목자가 힘든 것을 마다하

지 않고 잃은 양을 찾으러 나선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요한복음 10:11 KSV

이것이 예수께서 하신 일이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 값을 갚기 위해 죽으셨다. 예수의 그 사랑은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외치셨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가복음 15:34 KRV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 이 때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심은 죄를 짊어진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으셨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가져온다. 그 순간, 성부 하나님은 아들에게서 등을 돌리셨다. 이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순간이었다. 대낮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어두워졌다고 성경은 말한다.

예수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진 어린양으로 기꺼이 죽임을 당하셨다.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을 허용하셨고, 그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신 일이었다. 이제 하나님은 그 계획을 다 이루셨다.

위대한 맞교환

다음의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자.

고린도후서 5:21 KRV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 말씀은 예수께서 죄인이 되셨다는 뜻이 아니다. 이 구절에서 ‘죄’란 말의 뜻은 곧 ‘죄를 갚기 위한 속죄 제물’을 한 마디로 줄인 것이다. 이 뜻을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를 우리 죄를 위해 속죄 제물로 삼으신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을 때, 하나님은 죄에 대한 정당한 분노를 그에게 쏟으셨다. 예수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다.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죄 값을 갚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계속 그 죄 값을 갚고 있어야 할 것이다. 죄를 다 갚았다고 선언할 수 있는 날은 영원히 올 수 없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것을 단번에 다 이루셨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한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21 KRV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되다니! 사실 그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이다. 이보다 더 위대한 교환이 있을까? 우리의 죄를 가리기 위해 더 이상 어린양의 희생이 필요하지 않다. 이제 우리는 거룩하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께서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다.

모순 같아 보이던 질문 하나를 기억하는가? “어떻게 사람이 자기의 죄를 없애며, 동시에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의롭게 될 수 있을까?” 그 질문의 완전한 해답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21 KRV

예수의 부활

예수께서 죽으셨다.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죽음이 예수를 이길 권세가 없음을 예수께서 스스로 증명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나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기 때문이다. 나는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아무도 내게서 목숨을 빼앗을 사람이 없고, 다만 내 스스로 생명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세도 있고, 그것을 다시 찾을 권세도 있다.” 요한복음 10:17,18 AEB

로마 사람들은 예수를 처형했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를 처형하도록 종용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비난을 받아 왔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께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다고 말한다. 하나님이신 예수를 억지로 죽게 만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십자가의 죽음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 자신의 선택이었다. 진실을 말하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은 책임은 ‘세상 모든 사람의 죄’에 있다.

부활은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충족되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다. 죄의 대가는 치러졌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뜻이다. 죄의 빛이 조금도 남아 있지 않았다. 사망이 더 이상 청구할 것이 없었다. 무덤이 더 이상 예수를 붙들고 있을 수 없었다. 예수는 사망을 이기셨다! 예수께서 죄의 사슬을 끊고, 사탄의 권세를 진멸하시고, 사망의 끔찍한 결과를 이기신 것이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히브리서 2:14,15 KRV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사탄은 절망감에 휩싸였을 것이다. 가룟 유다를 피어 예수를 배반하도록 했을 때만 해도 사탄은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을 것 같다. 그러나 사탄이 가장 자신만만해 하던 죽음의 게임에서 그는 지고 말았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사망의 권세가 그 능력을 잃어버렸다.

값을 치르고 풀려남(속량 : 贖良)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사탄의 뜻에 지배당해 온 노예였다.



죄의 종

- 사탄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죄의 영향력으로 사람들을 교묘히 조정하며 다스려 왔다. 그러나 사탄의 영향력이 없다 해도 사람은 완전히 의로운 삶을 살 수 없다. 사람은 죄의 종이다.



자유를 얻음

- 그러나 예수께서 죄와 사탄의 종인 우리를 구원해 자유를 주셨다. 고대의 노예 제도를 비유해 보면, 이 구원의 뜻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어느 부자가 노예 시장에 가서 노예를 샀다. 노예 시장에서는 사슬에 묶인 불쌍한 노예들이 정해진 값에 팔리고 있었다. 그 부자가 값을 지불하고 한 노예를 샀다. 여기까지는 특별히 새로울 것이 없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보기 드문 일이 발생했다. 새 주인이 된 그 부자가 방금 산 노예의 사슬을 풀어 주고 그를 자유롭게 놓아 준 것이다! 노예는 자유인이 되었다. 이 때 우리는 그 노예가 ‘값을 치르고 풀려났다(속량되었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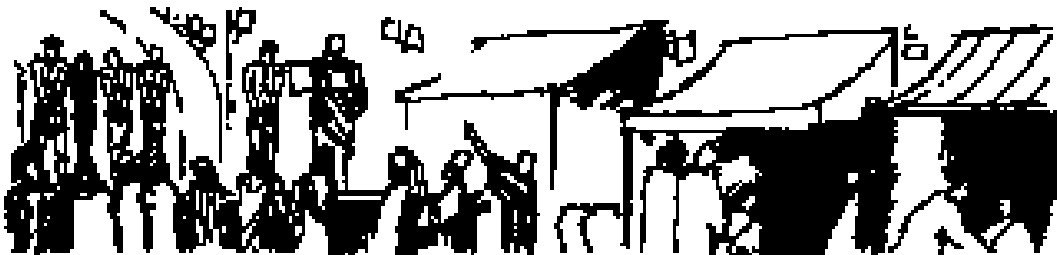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다. 우리 사람들은 인생이라는 노예 시장에서 죄와 사탄의 사슬에 묶여 있다. 노예인 우리들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 그리고 우리를 사슬에서 풀어 자유를 주신 것이다!

“너희 조상이 물려 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18,19 KRV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7 KRV



양 우리의 문

예수는 우리 사람들을 양떼에 비유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떼를 위해 양 우리의 문을 지킨다고 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문이다. 나를 통해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10:9 AEB

양 우리에는 문이 하나 밖에 없다. 예수는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문이시다. 다른 문은 없다.

아벨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하나 밖에 없었듯이 ...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 밖에 없었듯이 ...

광야의 성막에 문이 하나 밖에 없었듯이 ...

양 우리에 문이 하나 밖에 없듯이 ...

예수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어떤 사람들은 다양한 종교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 이르는 다른 길을 인정하지 않는다. 요즘 같은 다원화 시대에 이런 믿음은 너무 편협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거듭 말한다.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12 KRV

우리는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말만 골라 해선 안 될 것이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진실하게 말해야 한다. 사람들이 듣고서도 하나님의 길을 외면하면, 그것은 각자의 선택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완전한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 사람은 각자 선택의 결과를 책임지게 되는데, 그 결과란 자신의 죄 값을 영원한 죽음으로 지불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성경의 메시지를 무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다.

진리는 결코 강압적이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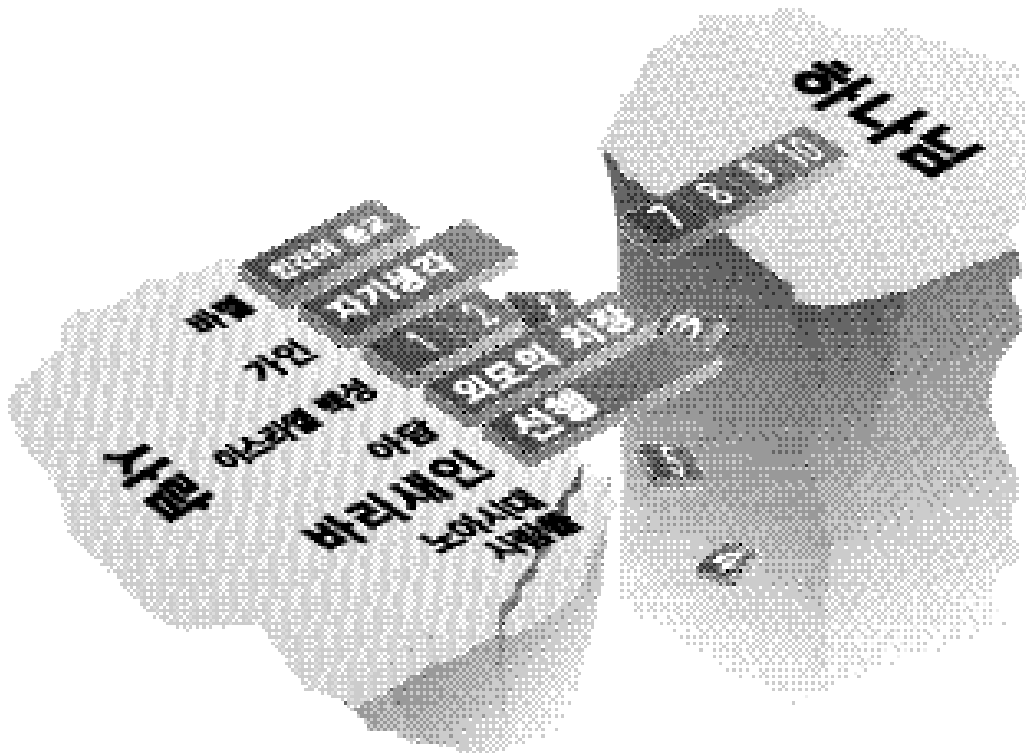
예수는 하나님께 이르는 다른 길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종교에 대한 강압적인 태도도 인정하지 않으셨다. 예수의 방법은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었다. 진리는 빛처럼 숨은 오류들을 드러나게 할 것이며,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다.

당시 제자들은 로마 제국 내에 살고 있었다. 로마 사람들은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믿긴 했지만,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관용을 베풀었다. 만일 제자들이 예수를 하나님께 이르는 '또 다른 길' 정도로 소개했다면, 로마 사람들은 계속 관용으로 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치자, 제자들의 목숨은 위협에 처했다. 역사적 자료에 따르면 열한 제자들 중 사도 요한 외에는 모두 죽임을 당했다. 그들은 믿고 있는 진리를 위해 목숨을 드렸다. 요한은 말년에 유배를 당했다.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흠 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종교적인 사람이었다. 그들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의 목록이 있었다.

오늘날 우리가 갖는 흔한 오해 중의 하나는, 자신이 지금까지 범한 잘못보다 더 많은 선행을 한다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촛불을 밝혀 놓기도 하고, 고행이나 명상도 하고 또 자선 사업이나 기부 행위도 하며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적이 없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 반대로 말한다.



바리새인은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지만, 예수는 그들이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꾸짖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자신을 믿는 것이라고 거듭 말씀하셨다.

일상 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믿음을 따라 살고 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는 믿음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의자에 앉을 수 있는 것은, 그 의자가 무너지지 않고 몸을 지탱해 주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비록 “나는 이 의자가 튼튼함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도 분명히 의자에 대한 믿음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믿음 그 자체는 중립적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느냐 (혹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이다. 의자 다리가 부러지는(우리가 의자를 잘못 믿었다)는 정도면 그리 대수로운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진리에 관한 문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다. 그것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의 빛을 갹으셨음을, 곧 예수께서 그 일을 실제로 행하신 것이 진리임을 믿어야 한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8,9 KRV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는다고 말한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거저 주는 것이다. 선물을 위해 일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다. 구원의 선물은 어떤 종교적 노력이나 선행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선물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면, 그것은 이미 선물이 아니라 대가 또는 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어떤 모양으로도 우리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참된 선물이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선행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만일 그들이 선행으로 구원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행을 더 계속하라고 명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하는 것은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믿음 뿐이다.

“이는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로마서 6:23 KJV

우리의 믿음은,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음을 믿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께서 우리 죄의 빛을 다 갚으셨음을 믿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었음을 믿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입은 예수의 의로움을 보실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심을 믿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요, 성경에 기록된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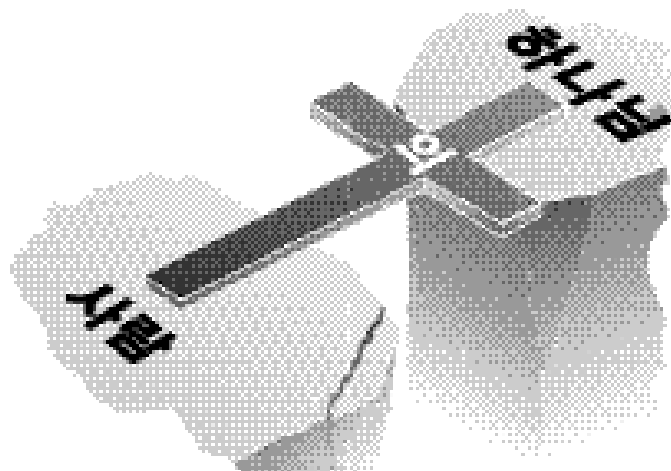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기운'이나 '느낌'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믿음을 양(量)으로 따져 볼 수 있다. 만일 믿음이 많고 적고에 따라 구원이 다르다면,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해하는데 근본적인 혼란이 일어난다.

인명구조원이 물에 빠진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구해줄 것을 믿느냐?”하고 물었다 치자. 그 때 물에 빠진 사람은 얼마나 많이 고개를 끄덕이느냐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인명구조원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다. 만일 물에 빠졌다 살아난 사람이 “내가 고개를 많이 끄덕였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지.”라고 자랑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믿는다. 이 때 믿음의 분량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 17 KRV



물에 빠진 사람의 비유를 좀 더 이야기하자. 먼저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물에 빠져 죽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다. 만일 자신이 물 위에 유유히 떠있는 중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모든 도움을 거절할 것이다. 또 자신이 물에 빠진 것을 알고도 자존심 때문에 구조 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역시 물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 그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도 끝까지 도움을 거부한다면, 어느 누구도 그를 구해줄 수 없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죄로부터 구원 받으려면, 우리는 먼저 자신이 구제 불능의 죄인임을 시인해야 한다. 바로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하다. 우리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부분만을 보았다. 예수는 여기에 언급된 이야기의 대부분을 가르쳐 주시고, 아마 더 많은 이야기도 들려 주셨을 수 있다.

그 때 제자들에게 주어진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과 똑같은 것이다. 우리가 누구를, 혹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우리 자신인가? 우리의 종교인가? 우리의 생각인가? 우리의 선행의 분량인가? 아니면, 예수께서 우리 죄를 갚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실제의 사실 곧 진리를 믿는가?

이제 모든 의미가 분명해진 것 같다. 누가 “예수는 왜 죽으셨는가?”하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제 다음과 같이 대답해 줄 수 있다.

“죄는 반드시 사망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고 또 영원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셔서 죄의 값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대속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또 누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가?”하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다.

“천국에서 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전히 의로워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 죄를 위한 것임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의 의로 옷 입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의로 옷 입은 우리를 완전하다고 하시며 받아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동시에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셨다.



15장

1 어찌하오리이까?

2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1 어찌하오리이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땅에 머물며 여러 날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다.

제자들에게 나타나 자기가 살아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많이 보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셨다.

사도행전 1:3 KLB

그리고 하늘로 올리우실 때가 되어, 제자들을 예루살렘에서 몇 km 떨어진 곳으로 데려가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밖으로 베다니까지 데리고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누가복음 24:50,51

KSV

예수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사람 둘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하고 말하였다.

사도행전 1:10,11 KSV

천사들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예언했다. 성경에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사건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다.¹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언의 말씀을 모두 이루셨듯이 다시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도 또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셨다.

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예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다. 그 제자들은 후에 ‘사도들’이라고 불리었다. 사도들은 나머지 생애를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일관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 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 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았다.

사도행전 6:7 KSV

예수를 죽이는 일에 앞장 섰던 제사장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믿게 된 것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 중에서 예수를 격렬히 미워하던 한 바리새인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다. 그는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했다.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게 가

서 다마스쿠스의 여러 회당에 보낼 공문을 요구하였다.

그것은 믿는 사람이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보는 대로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쿠스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그에게 비쳐 왔다. 그 순간 그는 땅에 쓰러졌는데 그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괴롭히느냐?”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사울이 “당신은 누구십니까?”하고 묻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이다...”라고 대답하셨다.

사도행전 9:1-5 KLB

그 이후 사울에게는 새 삶이 시작되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일을 멈추고 그 자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 예수를 ‘박해하던 자’가 이제는 예수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자’가 된 것이다.

한번은 돌로 쳐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그가 정말 죽은 줄 알고 내다버린 일도 있었다. 또 몽둥이로 반 죽음이 되도록 맞은 적이 세 번 있었고, 심하게 채찍질 당한 적도 다섯 번 있었다. 그런가 하면, 그가 탄 배가 난파된 적이 세 번이나 있었는데, 그 중 한 번은 밤낮을 꼬박 바다 위에 떠있기도 했다.

이 모든 사건은 사울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라는 소식을 전하는 중에 일어났다. 이 사울이 후에 사도 ‘바울’이라 불리는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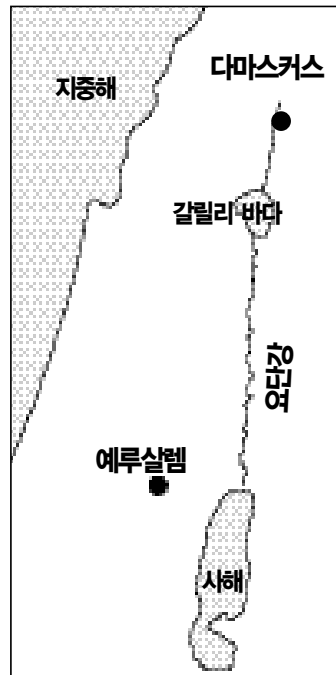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기 위해 질문하시는 장면이 많이 있다. 하나님의 질문은 사람의 마음 속 생각을 분명히 드러나게 함으로써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 현실을 직면하도록 만든다.

사울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았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사도행전 9:4 KLB

하나님은 “사울아, 너는 내 친구가 될 수 있는데 왜 굳이 내 원수가 되려고 하느냐?”고 말씀하신 것이다. 사울의 대답으로 미루어 보아 그는 자기에게 질문을 하신 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 때 사울은 “주여!”라고 대답했다.



만약 사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이 우리에게 생긴다면, 그때도 하나님은 역시 똑같은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지 않을까?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을 대면한 것과 같은 장면이 우리에게서 재현될 가능성은 극히 적다. 성경 전체에서 몇몇 사람만이 그런 만남을 경험했을 뿐이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않을지라도,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면하고 있다. 머리말에서도 이미 언급했지만, 성경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책이다. 바로 그 선택을 분명히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신다.

우리 각자는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헤아려 볼 수 있다.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너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네 죄 값을 치르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느냐?”라고 물으신다.

이 때 아무 생각 없이 대충 대답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 보겠지만, 그래도 생각해 볼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다.

무슨 이유에서든지 “아니오, 나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을 수 없습니다.”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지금 이 『어찌하오리이까?』 단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런 사람은 이 단원을 건너 뛰어 291쪽의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단원부터 읽기를 권한다.

십자가의 메시지를 거부하면서 성경의 다른 부분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 까닭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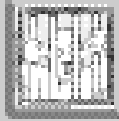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으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고린도후서 4:3,4 KJV

“예, 나도 예수께서 내 죄의 빛을 갚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은 “예, 예수께서 내 죄의 빛을 갚아주셨다고 믿습니다.”라고 대답할 마음이 있다면 이 단원을 계속 읽기 바란다. 성경은 바로 이런 사람을 위해 기록된 책이다.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자.

“예수께서 내 죄 값을 갚으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하신다. 그것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정직한 마음으로 “예!”라고 할 수 있다면, 나는 이미 죄를 용서받았다. 나는 그것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사람



유죄 선언

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범한 죄인이다.



빛 진자

하나님의 법을 범한 자는 죄의 빛이 있다. 나는 그 죄의 빛을 갚아야 한다.



영원한 형벌

내가 그 죄의 빛을 갚는 길은 영원한 죽음, 곧 지옥 불 못의 형벌 뿐이다.



죄의 종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사탄이 자기 뜻대로 나를 조종하고 있다. 나는 죄의 종이다.



나는 어디로?

나의 죄는 나를 하나님과 그의 사랑으로부터 갈라놓았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다.



하나님의 원수

누구나 그러하듯이, 나 역시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태어났다.



길을 잃음

나는 내 생각과 마음대로 나의 길을 택해 왔다. 나는 영적 광야를 방황하며 진리에 목마른 자가 되었다. 나는 길 잃은 양이다.

나는 믿지 않는다.

나의 생각은 이렇다.

“만일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길은 많이 있을 것이다. 예수도 그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누구든지 선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산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사람



완전한 재판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대해 “죄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의롭다 하심

나의 죄의 빛은 십자가 위에서 갠아졌다. 나에게에는 이제 빛이 없다. 나의 죄의 빛은 예수께서 완전히 갠아셨다.



빛을 다 갠음

이제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히 살 천국에서 하나님은 내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

나도 한때 죄의 종이였으나,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 갠을 치르셔서 이제 참 자유를 얻었다. 나는 더 이상 사탄의 종이 아니다.



자유를 얻음

나는 믿는다.

나의 확신은 이렇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의 죄의 빛을 갠으려고 나를 대신해 희생 양이 되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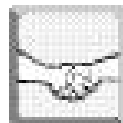
오직 예수만이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은 나에게 자녀가 되는 완전한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자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나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관계의 회복

선한 목자 예수는 나를 찾으셨다. 예수는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나는 삶의 진정한 목적을 알았다. 나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를 그리고 넘치는 축복을 얻는다.



길을 찾음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음을 믿는 것은 곧 내 죄의 빛이 완전히 갱아졌음을 확신하는 것이다.

“전에는 죄와 할레받지 못한 육적인 욕망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²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불리한 율법의 채무증서를 십자가에 못박아 없애 버리셨습니다.”

골로새서 2:13,14 KLB

내 죄의 빛은 2천 년 전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다. 내가 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17 KRV



*로마 6장 23절을 그림으로 설명한 것.

이와 같이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시편 103:11,12 KRV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17 KJV

지금 나를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 아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이 있을 곳이 많이 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한 장소를 마련하러 간
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한 장소를 마련한 뒤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가는 그 곳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

요한복음 14:1-4 AEB

나는 이 세상에 잠시 더 머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확신한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영원히 살 곳을 준비하신다고 가르쳐 주셨
다.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다. 나와 하
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세상에서 내가 육신의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났듯이, 성경은 이제 내가 하나
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고 말한다. 나의 육신의 부모님은 어떤 일이 있
어도 변할 수 없는 부모님이듯이,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아버지이시다. 하
나님과 나는 다시는 분리될 수 없다. 나의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나의 관
계는 영원히 회복되었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이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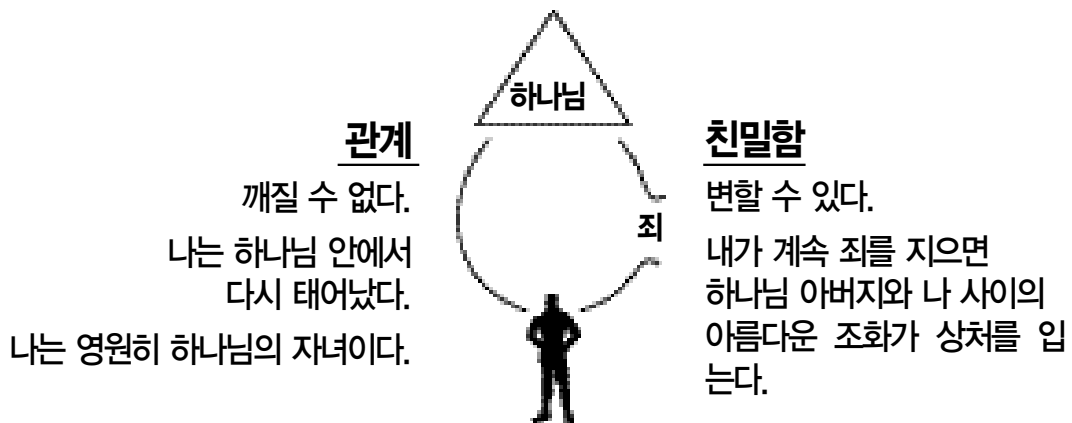
요한일서 5:13 KRV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
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⁴

로마서 8:38,39 KRV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
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변함없는 관계), 육신 속에 있는 동안 여전
히 죄의 유혹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한다. 그러나 내가 죄를 계속 지으
면, 하나님은 나에게 대해 근심하신다 (친밀함의 상처).



‘관계’와 ‘친밀함’은 다르다. 이를테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켰을 때, 아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부자간의 친밀함에는 잠시 틈이 생긴다. 아들은 그 틈이 어떤 것인지 그 자리에서 감각으로 느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부자간의 ‘친밀함’이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다. 성경은 이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해 주고 있다. 혹시 죄를 짓게 되면, 나는 즉시 그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한다. 만일 사람에게 죄를 범한 것이라면 먼저 그 사람과 화해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1서 1:9 KRV

내가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친밀함은 즉시 회복된다.

나의 책임

한 부부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라는 주제에 대해 공부하고 있을 때였다. 그 때 남편이 이런 말을 했다. “내가 구제 불능의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그는 성경의 사건들을 간략히 요약해 보이면서, 자기가 무엇을 한다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구원 받을 수 없음을 이제 깨달았다고 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자기를 위해 이루신 일을 믿는다면 이런 말을 했다. “나에게도 아들이 있지요. 그 아이가 내 아들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내 아들인 것을 믿기만 하면 되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그저 믿기만 하면 되지요. 저는 그것을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아들이 되고 나면 가족의 일원으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도 하고, 심부름도 해야 합니다. 또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고, 가족의 명예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이어서 그가 물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나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통찰력 있는 질문이었다! 성경의 다른 많은 부분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르쳐 주고 있다. 사람의 삶이란, 그가 무엇에 주로 관심을 두느냐, 또는 그가 삶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관심의 초점을 자기 자신에 맞추고 있으면, 나는 당연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된다. 그러나 관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춘다면,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된다.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진리 안에서 다음과 같이 할 것이다.

1. 내가 지금 예수로 인해 갖게 된 것이 무엇인지 (279쪽의 목록)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위치’에 대해 분명한 초점을 갖는다. 내 죄를 용서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일, 곧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실에 대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기뻐하실 것이다.

2. 예수와 더욱 가까워지는 일에 나의 삶의 초점을 맞춘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삶 속에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를 이렇게 말했다. 빌립보서 3:8-10, 12 KRV

“또한 모든 것을 해(害)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주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하면 어느 사이에 자신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는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며 섬기는 일에 관심을 쏟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 주고 싶은 마음과 같다.

3. 나의 모든 상황에서 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초점을 맞춘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들아, 다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마태복음 11:28 KLB

이 진리를 적용하면 나 자신이 ‘영적 어린아이’에서 ‘영적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어떤 극기 훈련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빌립보서 1:6 KJV

어린아이가 자라지 않고 계속 어린아이인 채로 있으면 그것은 비정상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자라지 않고 계속 영적 어린아이로 남아 있는 것 또한 비정상이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영적으로 자라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항상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자라갈 수 있다.

나의 원수들이 있다

나의 초점을 흐리게 하고 나를 망치려는 자들, 곧 원수들이 존재한다.

1. **사람의 본성** : 사람들에게 가장 큰 원수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본성 그 자체일 것이다.⁵ 죄로 가득찬 사람의 본성이 만족되는 적은 절대로 없다. 더 많은 재물, 더 높은 지위, 더 멋진 외모, 더 좋은 것, 더 큰 것 등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다. 일시적 만족이야 있겠지만, 사람의 본성은 한없는 감정과 욕망의 블랙홀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의 본성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 모든 초점을 맞추려 한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갈라디아서 5:16 KRV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좇아 행하는 것인가? 그것 역시 삶의 초점에 관한 문제이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나의 육신의 욕망은 어느 사이에 나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거룩한 열심으로 바뀌게 된다. 이 때 성경은 나의 죄의 본성을 죽은 것으로 여기라고 말해 준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의 지체들을 죽이라.”

골로새서 3:5 KJV

예를 들어보자. 결혼하기 전에 여자친구가 여럿 있던 청년이 있었다. 그러나 그가 결혼하자, 다른 여자들과의 관계는 모두 끝이 났는데, 이 때 그 관계를 ‘죽은 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그에게 부부라는 새로운 ‘살아 있는 관계’가 시작되었다. 그는 아내 한 사람만을 기쁘게 해 주는 것, 곧 아내와의 관계가 삶의 초점이 되어 있다. 혹시 그의 초점이 이전의 여자친구에게로 왔다갔다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이와 같이 나는 이제 믿음으로 내 삶의 초점을 오로지 하나님께 맞출 것이다. 나는 죄의 본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 남을 섬기는 일에 점점 더 집중한다. 이것은 나에게 대단한 기쁨이다. 히브리서 12:1,2 KRV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와 같은 성경의 말씀은 세상의 견해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오늘날 세상의 견해는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각자의 과거를 파헤쳐야 한다고 한다. 억울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든 보상을 받아야 하고, 심한 상처를 입은 것이 있다면, 위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개 이런 주장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 초점을 맞추라는 결론에 이르는데 그 결과는 진정한 기쁨과는 거리가 멀다. 때로는 이미 다 잊어버린 상처를 기억해내야 하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성경은 상처를 입었을 때는, 비록 그것이 좀 힘들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잊으라고 말한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32 KRV

이 충고가 잘 납득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럴지라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보면, 바로 나 자신이 진정한 치유와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억울한 피해로 따지자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한 분은 없을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5:11 KSV

2. 세상 :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삶의 초점을 예수로부터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충동질한다. 세상의 것들이 나의 영적 삶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나에게서 삶의 초점을 흐리게 만드는 생각과 행동을 잘 분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는 구원을 가져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며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이며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라.”

디도서 2:11-13 KJV

3. 마귀 : 사탄이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아직도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몸부림을 친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 해도 그 때부터 마귀라는 존재가 나에게서 영원히 떠나간 것은 아니다. 나는 계속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한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야고보서 4:7 KJV

사탄은 사람의 자기중심적 본성을 교묘히 이용해 나를 유혹하며 나의 삶의 초점을 바꾸어 놓으려 든다. 그 첫 단계로 사탄은 나의 마음에 의심을 불어 넣는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나의 선택까지도 다시 의심하게 만든다. 때로는 믿음이 충분하지 않다든지, 혹은 진정으로 깨달은 것은 맞는지 하는 의심을 갖게끔 질문을 던진다. 기억하자! 사탄은 오래 전에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런 짓을 해 왔다. 나는 이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대로 행한다. 나는 성경에서 그 도움을 찾을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세 가지 원수들의 영향력과 맞서 싸우며 삶의 초점을 지키는 동안에 나의 영적 뿌리가 든든히 자란다는 사실이다.

나의 친구들이 있다

성경은 나의 삶의 초점을 지키는 일을 도와 주는 친구들이 있다고 말한다.

1. 하나님 :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를 믿는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셨다. 그 약속대로 성령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낙심할 때 위로해 주시고, 또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할 때 격려해 주시고, 내가 죄에 빠져 실족할 때 책망해 주신다. 그래서 성령은 ‘보혜사’ 또는 ‘진리의 영’ 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이름들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다.

“내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4:26 AEB

자녀가 힘써 좋은 목표를 달성하거나, 혹은 훌륭한 태도를 갖고 행동하면 그 부모는 대단히 기뻐한다. 나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한편, 나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나의 순종은 바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진실한 표현이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이고, 또 모든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음이니이다.”

요한계시록 4:11 KJV

2. 믿음 :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은 종종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 걷는다는 행동을 분석해 보면 한 걸음씩 발을 옮겨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나는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건 되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골로새서 2:6,7 KJV

모든 믿음은 반드시 실제적, 객관적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어야 한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즉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은 그 때마다 어떤 느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다. 어떤 날은 몸에 열이 나고 아플 때도 있다. 몸이 아프다고 해서 그 가족으로서의 신분에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영적인 삶에도 문제가 있다고 느껴진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이상이 생긴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것 또한

나의 선택이므로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만일 어리석은 선택을 계속하면, 나는 자라지 못하고 그저 ‘영적 어린아이’로 남아 있게 된다. 나는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여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

3. 성경 : 성경은 매일 매일의 삶의 지침서이며 지혜와 능력의 근원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테후서 3:16,17 KRV

성경의 말씀은 흔히 ‘영혼의 양식’에 비유된다. 성경을 깊이 공부하면 할수록, 나는 이 영혼의 양식으로 더욱 강건해진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나의 마음에 말씀하신다.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친밀함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성경을 읽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 잘 아는’ 확실한 길이다. 영혼의 양식을 충분히 공급받지 않으면 영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게 된다.

성경에서 먼저 요한복음을 읽어 본다. 요한복음은 쉬운 이야기를 읽는 듯해서 그다지 어려울 것이 없다. 그 다음에 성경 전체를 놓고 지금 이 책에서 인용된 성경구절을 모두 찾아 본다. 색연필을 이용해 밑줄을 그어 놓으면 나중에 그 구절들을 찾을 때 도움이 된다. 성경구절을 찾는 것이 처음엔 속도가 느린 것 같지만 차츰 빨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을 다시 읽도록 한다. 그 후에는 사도행전과 로마서를 읽는 것이 좋다. 그 중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해도 그 부분에 표시만 해 두고 멈추지는 말자. 계속 읽다 보면, 성령께서 적절한 시기에 깨닫게 해 주신다.

4. 기도 :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주의를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소리 내어 기도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내 생각과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나도 역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내가 속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실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6,7 KRV

기도는 나의 감사와 관심과 고민과 필요 등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5. 믿음의 동료들 : 하나님 말씀을 믿는 동료들과의 좋은 교제는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을 준다. 현실 속에서 이 믿음의 교제는 매우 중요하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24,25 KRV

믿음의 동료와의 교제는 대부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 처음 교회에 나가는 것을 무척 조심스럽게 여기는 사람은 다음의 몇 가지 주의사항을 점검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사탄도 때로는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사실이다. 사탄은 종교적 두려움을 무기로 삼는 것이 특기이다. 우리 주변에 거짓된 목자와 가짜 양 무리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말한다 해서, 그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한다고 무조건 신뢰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진리를 가르치고 행하는 바에 따라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가 있을 수 있다. 성경은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옳고 그른 것을 추려내실 때까지 둘 다 공존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지금은 내가 잘 분별해야 한다. 하나님은 이 일에도 나를 도와주신다.

그럼 다음의 사항들을 점검해보자.

- 그 교회가 성경을 참 진리 곧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가? 또 성경 원본에 아무 오류가 없는 것으로 믿고 있는가? 간혹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말로 성경을 교묘하게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성경은 그 일부에 진리가 포함된 것이 아니라 그 전체가 하나님의 진리이다.
- 그 교회가 성경의 기록을 역사적 사실 그대로 믿는가? 혹시 성경의 어떤 부분을 신화나 옛날 이야기라고 주장하지는 않는가? 성경의 많은 부분이 비유를 통한 추상적 이야기라고 하지는 않는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실제의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 기록대로 실제의 마귀가 있다. 성경의 기록들은 실제적 사실이지 결코 비유가 아니다.).
- 그 교회가 예수께서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역사적 사실 그대로 믿는가? 마리아는 동정녀가 아니었으며, 단순히 젊은 여자에 불과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 그 교회가 예수는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믿는가? 예수는 여러 신들 중의 하나이며, 우리 각자도 또한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예수는 다만 ‘역사적 위인’ 또는 ‘위대한 선생’이었다고 하는 사람도 역시 피해야 한다.

- 그 교회가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심을 믿는가?
- 그 교회가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을 진정으로 믿고 또 그것을 전파하고 있는가? 이에 대해 모호하게 말하거나, 혹은 믿음 외에 세례(침례) 등 어떤 특별한 의식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조심해야 한다.
- 그 교회에 대한 평판은 어떠한가? 기괴하고 무질서한 모임을 갖진 않는가? 재정과 행정 등 사무 처리에 미심쩍은 평판은 없는가?

위의 항목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의심이 가면, 그 교회의 다른 가르침들도 옳은 길에서 벗어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항목들은 더 깊은 문제점의 징후만을 파악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할 수 있으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그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구체적인 대답을 들어보라. 만약 조금이라도 얼버무린다면, 그것을 경고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목사의 외모나 경력이 대단하다든지, 설교를 유창하게 잘 한다든지 등의 선전에 현혹되지 말라.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들 중에도 성경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갑자기 교회에 다니면, 친구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놀림감이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 때도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나를 낮추는 좋은 경험을 기쁘게 생각하라. 나의 자존심이 상처를 입는다고 속상해 할 필요가 없다. '자존심', 곧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교만은 원래 루시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자존심을 포기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와 평화를 얻은 믿음의 동료들을 만나는 것은 더 기쁜 일이다.

믿음의 동료들이 서로 격려와 기쁨이 되어 주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생각이었다. 다시 강조하건대,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준다. 믿음의 동료들은 영적인 순례를 시작하는 나와 함께 걸으며 큰 힘이 되어줄 것이다.

6. 음악 : 다윗왕은 많은 노래(시편)를 지었다. 그 노래들은 수 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있다. 다윗 외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와 노래를 지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음악은 그 영향력이 매우 큰데, 조심해야 할 것은 좋은 음악과 나쁜 음악이 있다는 사실이다. 교회에 대한 분별이 필요한 것처럼 음악에 대한 분별 또한 필요하다. 지금까지 알게 된 하나님의 진리를 토대로 그 노래의 가사가 진리에 속했는지, 거짓에 속했는지 가려낼 수 있을 것이다. 그 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7. **전도** : 예수의 제자들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이 일을 나도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나에게도 엄청난 기쁨이다. 그러나 이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자유로운 선택의 의지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진리의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전해야 하지만, 접근하는 방법과 말하는 태도는 겸손하고 온유할 필요가 있다. 전에 내가 그러했듯이, 그들도 있는 그대로를 자유롭게 듣고 싶어 한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 이라고 했지, ‘그리스도의 변호사’ 라고 하지는 않았다. 변호사에게는 설득을 통해 논쟁을 이겨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러나 증인은 자기가 아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면 된다. 나는 증인이다. 때로는 이 책을 함께 읽는 것만으로도 나는 진리를 증거할 수 있다.

8. **소망** : 성경은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서로 위로하라.”

테살로니가전서 4:13-18 KRV

하나님은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나는 이제 영적 순례의 길을 막 출발했다. 내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내 삶의 초점이다. 이 일은 예수의 제자들, 곧 사도들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어서 많은 시험이 있었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도 있었다. 나에게도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잠시도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자, 이제 나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여행을 시작한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 끌어 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13:20,21 KRV

2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성경을 통해 진리의 내용을 다 이해하고 나서도, 믿지 않기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 이처럼 영원한 멸망의 위험을 선택하는 것은 참으로 비극이다. 그들은 그 선택을 대개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 버린다.
- 성경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박한다.
- 세상 사는 일에 바빠서 잊어버린다.
- 하나님 말씀을 살짝 바꾸어 버린다.

이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성경이 진리가 아니기를 바라는 것이다.

2천 년 전에 헤롯 아그립바도 그런 위험을 선택했다. 그는 헤롯 대왕의 손자이자 헤롯 안디바의 첫째 조카였다. 그는 왕궁에 있으면서 예수에 관한 소문을 많이 듣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수하의 관리들이 세상에 나도는 나사렛의 선지자에 관해 빠짐없이 보고했을 것이다. 그러나 헤롯 아그립바는 진리를 알기 위해 자기 몸을 낮출 생각이 별로 없었다. 그는 노아 시대 사람 들처럼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있을 뿐이었다. 어느 날 그는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의 목을 베어 죽였다. 그러자 갑자기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대중적 인기를 얻게 되었다.

그러자 왕은 정한 날에 왕복을 입고 왕좌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을 하였다. 그 때 사람들은 “이건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고 외쳤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므로, 즉시 주님의 천사가 그를 치자, 그는 벌레에 먹혀 죽고 말았다.

사도행전 12:21-23 KLB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잠시 죄를 용인하시는 것 같지만, 공의로우신 그 분은 정한 때가 이르면 그 죄를 심판하신다. 그 심판은 지금 이 세상에서 시작될 수도 있고, 장래에 저 세상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그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다. 헤롯에 대한 심판은 얼마 후 죽어⁶ 영원한 불 못에 던져지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성경은 그 다음에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말해 준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사도행전 12:24 KSV

그런가 하면, 헤롯 아그립바의 아들로서 헤롯 아그립바 2세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도 역시 예수에 대해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었는데, 한 번은 사도 바울이 무고히 잡혀 헤롯 아그립바 2세 앞에서 증언할 기회가 있었다.⁷ 그 때 바울은 아그립바 앞에서 예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나이다. 아그립바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사도행전 26:26-28 KRV

아그립바는 바울의 말을 듣고 상당히 이해한 것처럼 보인다.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자신이 거의 설득당한다고까지 시인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아그립바는 멸망의 위험을 선택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진리를 이해했다면, 이제 믿음으로 실천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다면, 인명구조원이 자신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확신과 기대를 갖고 손을 내밀어 구조의 손길을 붙잡아야 한다. 인명구조원이 자신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도록 자기 몸을 맡겨야 한다.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린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했다고 할지라도, 그가 눈을 들어 뱀을 바라보는 믿음의 실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었다. 그때 그 뱀을 바라보는 일이 바로 하나님 말씀과 구원의 능력을 믿기로 한 선택의 표현이었다. 나도 믿음의 선택을 표현해야 한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을 믿기로 결정한 표현을 하는 것이다. 누구도 나 대신 나의 선택을 결정할 수 없다. 나에 대한 결과를 대신 책임져 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기로 아그립바는 결국 믿지 않았다. 그는 진지한 이해까지는 도달했으나 믿음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것은 순전히 그의 선택이었다.

또 사도 바울은 벨릭스라고 하는 로마 총독 앞에서도 증언을 한 적이 있다. 바울은 예수가 누구시며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자세히 설명했다.

며칠 뒤에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설명하는 강론을 들었다.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을 두고 말할 때에,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하고 말하였다.

사도행전 24:24,25 KSV

벨릭스도 그 선택을 다음 기회로 미뤘다. 그는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두고 보자고 했다. 그렇게 미루는 것이 잠시는 마음이 편할지 모른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지금이 선택을 결정할 시간이라고 말한다.

고린도후서 6:2 KRV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는 각자의 미래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른다. 언제 그 기회가 다시 있을지도 알 수 없다.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선택을 결정하는 시간이다. 이 때 벨릭스가 두려움에 망설였듯이, 사람들 중에는 두려움에 잠시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염려 정도의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이다. 벨릭스에게 ‘다음 기회가’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우리가 아는 바로 그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다시 없었다.

벨릭스가 그렇게 결정을 미룬 것은, 그의 마음 속에 또다른 엉뚱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라서 바울을 자주 불러 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도행전 24:26 KSV

벨릭스에게는 이처럼 또다른 동기가 있었다. 그에게는 예수에 대한 관심과 금전적 이득의 욕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에 관해 사도 바울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다.

벨릭스도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것이라고 좋게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 주위를 둘러볼 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벨릭스를 닮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들은 성경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성경의 진리를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그런 사람들의 말과 행동의 모순은 쉽게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속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나중에 그런 위선자들에게 속고나서 자기는 절대로 성경의 진리를 믿지 않겠다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잠깐만!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성경 말씀, 곧 진리가 변하는 적이 있던가? 절대 아니다. 글자 한 자도 변할 수 없다. 만약 벨릭스 같은 위선자들 때문에 내가 성경을 거부한다면, 그 결과로 영원히 억울한 피해를 입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

그냥 거부해 버리지 말라. 삶과 죽음에 대해, 곧 영원한 삶과 영원한 죽음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라. 바로 여기에 나 자신의 영원한 생명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의 영원한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생명의 문턱까지 와서 그냥 돌아갈 수는 없지 않은가?



부록

1 용어 해설

2 성경의 선택

3 참고 자료

4 각주

1 용어 해설

- **고백(Confess)** : 동의하거나 시인함.
- **구세주(Savior)** : 남을 구하는 사람. 살리는 사람. 구원자.
- **궤(Ark)** : 상자. 궤. 성경에서는 노아의 방주, 또는 언약궤를 가리킴.
- **그리스도(Christ)** : “기름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의 “메시아”와 같은 뜻 (그리스어).
- **기름 붓다(Anoint)** : 하나님의 일을 위해 따로 구별하는 표로 사람의 머리카락이나 물건에 기름을 붓는 의식. 하나님을 위해 선택됨을 가리키는 말.
- **기원전 (B.C. / Before Christ)** :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점으로 그 이전.
- **기원후(A.D. / Anno Domini)** :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점으로 그 이후 (라틴어).
- **귀신(Demon)** : 사탄의 부하 천사들. 악한 영들로 그 숫자가 많다.
- **내로라(I AM)** :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 “자기 능력으로 존재하시는 분”의 뜻.
- **랍비(Rabbi)** : 선생님 (히브리어).
- **마귀(Devil)** : 참소하는 자. 비방하는 자. 사탄의 다른 이름.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 악령들 가운데 가장 강한 자 (그리스어에서 유래).
- **메시아(Messiah)** : ‘기름 부음 받은 자’ 라는 뜻으로 그리스어의 “그리스도”와 같은 뜻 (히브리어).
- **무소부재(Everywhere at All Times, Omnipresence)** :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신 분이시다 (라틴어).
- **바리새인(Pharisee)** : 하나님의 율법에 사소한 규율을 추가해 엄격히 지키던 유대인 집단.
- **백부장(Centurion)** : 병사 1백 명을 거느린 로마군 장교.

- **번제(Burnt Offering) :**
희생제물을 죽여 태워서 드리는 제사.
- **복음(Gospel) :**
참으로 기쁜 소식.
- **비유(Parable) :**
어떤 내용을 잘 가르치기 위해 사물을 빗대어 설명한 표현이나 짧은 이야기.
- **사도(Apostle) :**
어떤 특별한 사명을 띠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
대개 열두 제자들과 바울을 가리키는 말로 쓰임 (그리스어).
- **사탄(Satan) :**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원수 (히브리어/ 그리스어).
- **산헤드린(Sanhedrin) :**
71명으로 구성된 유대 최고 회의 (히브리어).
- **삼위일체(Trinity) :**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표현하는 말.
- **서기관(Scribe) :**
고대에 손으로 기록된 성경의 필사본을 만들던 사람.
- **선지자(Prophet) :**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 **속량(Redeem) :**
값을 치르고 사서 놓아 줌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 **속죄일(The Day of Atonement, Yon Kippur) :**
대제사장이 일 년에 한 차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해 희생제물의 피를 갖고
지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는 날.
- **시, 시편(Psalms) :**
노래 (그리스어).
- **신앙(Faith) :**
확신과 함께 믿고 의지함.
- **아멘(Amen) :**
확언이나 동의를 표하는 말. “웁습니다!” “그렇습니다!” 또는 “동의합니다!”
(히브리어 / 그리스어).
- **아바(Abba) :**
아버지의 애칭. 우리말의 “아빠”에 해당함 (아람어).
- **안식일(Sabbath) :**
일주일 중에서 일곱째 날. 토요일.

- 언약(Covenant) :
약속. 계약.
- 영광(Glory) :
문자적 의미로는 '무게를 두는 것', 또는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
- 예배(Worship) :
하나님의 존귀하심(가치)을 선언함.
- 예수(Jesus) :
“그가 구원하신다” “구세주” “구원자”의 뜻을 가진 이름 (히브리어의 그리스어 표기).
- 은혜(Grace) :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 의로움(Righteous) :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보임. 삶의 방식을 나타내는 의미로도 쓰임.
선하고 올바른 생활 방식.
- 의롭다 함(칭의(稱義)/ Justification) :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의롭다고 선언하는 법률 용어.
- 인자(人子/ Son of Man) :
예수께서 자신의 인성(人性:사람으로 오심)을 강조하기 위해 자신을 가리켜사용하신 말.
- 입양(Adoption) :
아들로서의 합법적 지위와 함께 아들의 권리와 의무를 완전히 부여하는 의식.
- 임마누엘(Immanuel) :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는 말 (히브리어 / 그리스어).
- 자비(Mercy) :
심판 받을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불쌍히 여김.
- 저주(Curse) :
재앙을 일으키거나 불러오는 것.
- 전능(全能 : All-Power, Omnipotence) :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틴어).
- 전지(全知 : All-Knowing, Omniscience) :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라틴어).
- 절대 주권(Sovereignty) :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심으로 권한과 능력을 나타낼 때에 한해서 사용되는 표현.
- 제단(Altar) :
흙이나 바위로 만든 단으로 그 위에 제물을 올려 놓아 하나님께 바침.

- **제사장(Priest)** :
성막이나 성전에서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
- **제자(Disciple)** :
가르침을 듣고 따르는 자.
- **죄(Sin)** :
이 말의 원래 문자적 의미는 ‘표적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간 화살’이다. 즉 하나님의 거룩함을 목표로 했지만, 그 목표에 이르지 못했음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그 말씀을 외면하거나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된다.
- **죄성(Sin Nature)** :
죄의 본성. 죄의 상태에 있음을 의미함.
때로는 사람의 본성 또는 아담의 본성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 **지극히 높으심(Supremacy)** :
유일한 창조주만이 가장 높으시며 존귀하심을 나타낼 때에 한해서 사용되는 표현.
- **창세기(Genesis)** :
시작 또는 기원의 뜻. 성경의 첫 책 (그리스어).
- **천사(Angel)** :
사자. 심부름꾼. 하늘에 있는 피조물. 영적 존재들 (그리스어).
- **축복(Blessing)** :
하나님의 은혜를 주거나 받음.
- **파라오(Pharaoh)** :
이집트의 정치 지도자. 왕에 해당함.
- **허물(Transgression)** :
죄의 다른 표현. 행위를 중심으로 한 죄.
- **회개(Repent)** :
마음과 태도를 바꾸는 것.
- **회당(Synagogue)** :
회당. 모임이나 건물을 지칭하는 말 (그리스어).

2 성경의 선택

성경은 각 시대마다 상용 언어로, 즉 듣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기록되었다.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성경은 그리스어 및 아랍어로 기록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사회적 배경이나 지위와 관계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중세 시대에는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 밖에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일부 성직자만이 성경에 접근할 수 있었다. 더욱이 그 때까지만 해도 손으로 성경을 필사해 보관해 왔기 때문에 성경의 보급도 극히 제한적이었다. 이 시대에서는 보통 사람이 혼자 성경을 읽거나 깨우치려고 하는 노력을 커다란 범죄 행위로 간주하여 엄하게 처벌했다. 이 시대는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성직자의 옷자락 뒤로 감추는 데 성공한 것처럼 보이던 때였다. 그래서 중세 시대를 암흑 시대(Dark Age)라고도 부른다.

그러다 14세기 말부터 자기들 말로 성경 곧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는 노력이 여러 나라에서 시작되었다. 15세기 이후에 들어서는 인쇄술의 보급과 함께 성경을 자국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본격화되었다. 독일에서는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다. 영국에서는 윌리엄 틴데일(William Tyndale)이 성경을 일상적인 영어로 번역했는데, 그는 이 일을 막으려는 어느 성직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조금만 더 허락하시면, 밭에서 쟁기질하는 청년이 당신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게 되는 날을 볼 수 있을 것이오.”

틴데일은 당시 교회와 정치권력으로부터 모진 탄압을 받았다. 배가 난파되어 성경 번역 원고를 분실하고, 비밀 요원들에 의해 추적당해 죽음의 위협을 받고, 가까운 친구가 배신하기도 했다. 갖은 고난을 겪은 끝에, 그는 마침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틴데일은 그 나라의 모든 사람이 읽도록 성경을 번역했다는 죄목으로 옥에 갇혀 사형을 선고받고, 결국 화형을 당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880년대부터 여러 선교사들에 의해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되기 시작해, 1920년대에 들어서 한 권으로 공인된 신구약 성경이 읽혀지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이 여러 종류가 있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 같은 번역본 중에도 이해를 돕기 위한 관주 성경, 고대 관습에 대한 설명, 지도 등을 포함시킨 성경, 또는 다양한 주석을 붙여 출판된 성경도 있다. 어떤 종류의 성경이든

지 대체적으로 유의하다. 이 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설명이나 주해, 주석들은 어디까지나 성경 본문에 대한 사람의 설명일 뿐이며, 하나님 말씀 그 자체는 아니라는 사실이다.

성경을 고를 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어떤 성경이든 반드시 번역이라는 과정을 거쳤다는 사실이다.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하다보면, 메시지 전달의 정확성이나 편의성이 약간씩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 번역은 대단히 꼼꼼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성경 또한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읽기에 좋은 번역과 그렇지 못한 번역은 있을 수 있다. 좋은 번역은 외국어로 읽는 느낌이 들지 않고, 쉽게 이해되며 그 메시지가 마음까지 와 닿는 번역이다. 틴데일 같은 사람은, 자기 나라 사람들이 누구나 마음에 닿는 말로 쉽게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목숨까지 바쳤다.

이 책의 성경구절 인용은 하나님 말씀을 더욱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우리말 성경 중에서 여섯 가지 번역판을 모두 사용했다. 각 성경구절마다 그 내용의 흐름과 표현에 있어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번역판의 성경구절을 인용했고, 그 구절 끝 부분에는 인용한 성경번역판을 약어로 표시했다.

인용한 성경번역판과 표시하는 약어는 다음과 같다.

•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Korean Revised Version)	KRV
•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New Korean Standard Version)	KSV
• 현대어 성경 (Today' s Korean Version Paraphrased)	TKV
• 현대인의 성경 (Korean Living Bible)	KLB
• 성경전서 흠정역 (King James Version)	KJV
• 쉬운 성경 (Agape Easy Bible)	AEB

3 참고 자료

성경의 진리를 그 계시의 순서를 따라 가르쳐 주는 책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 중 다음의 책이 성경의 계시의 순서를 따른 본격적 연대기적 성경교육의 주 교재이다. 그 교재의 자료는 이 책의 내용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다.

‘하나님의 건축 : 창세로부터 십자가까지’ -전고한 기초 편-

(Firm Foundations : From Creation to Christ)

트레버 맥클웨인 저, 낸시 에버슨 편, 엔.티.엠.출판부 간. 이 책은 영어, 중국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인도네시아어, 아랍어 등 20여 개 국어로 번역되어 있다. 어린이들을 위한 별도의 교재도 있다.

여기에서 소개된 책자와 비디오와 잡지와 웹사이트 등의 자료에 대해 따로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의 자료들은 성경과 과학, 창조와 진화 등의 논의에 대해 대단히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웹사이트 : www.AnswerinGenesis.org (Answers in Genesis)

www.icr.org (Institute for Creation Research)

www.creation.or.kr (한국창조과학회)

잡지 : Creation ex nihilo, 어른과 어린이 모두 즐겨볼 수 있는 내용의 과학 잡지이다. 부분적으로 상당히 깊은 내용을 다루기도 한다.

책 : 창조와 진화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면, 다음의 책들이 성경적 시각에서 풍부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An Ice Age Caused by the Genesis Flood, Michael J. Oard, ICR

Bones of Contention : A Creationist Assessment of Human Fossils, Marvin L. Lubenow, Baker Book House.

Creation and Change : Genesis 1:1-2,4 in the light of changing scientific paradigm, Douglas F. Kelly, Christian Focus Publications.

Creation : Facts of Life, Gary Parker, Master Books.

Darwin's Black Box, Michael J. Behe, Touchstone.

Darwin's Enigma : Ebbing the Tide of naturalism, L. Sunderland, Master Books.

Evolution : A Theory in Crisis, New Development in Science are Challenging Orthodox Darwinism, Michael Denton, Adler & Adler, Pub. Inc.

Evolution : The Fossils Still Say NO!, Duane T. Gish, ICR.

Genesis Record, Dr. Henry M. Morris, Baker Book House.

Ice Cores and the Age of the Earth, Larry Vardiman, ICR.

In the Minds of Men : Darwin & the New World Order, I. Taylor, TFE Publications.

Noah's Ark : A Feasibility Study, John Woodmorappe, ICR.

Refuting Evolution : A Response to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 Teaching about Evolution & the Nature of Sciences, J. Safati, Master Books.

The Age of the Earth's Atmosphere : A Study of the Helium Flux through the Atmosphere, Larry Vardiman, ICR.

The Controversy : Roots of the Great Evolution Conflict, D. Chittick, Creation Corps.

The Long War Against God : The History and Impact of the Creation/Evolution Conflict, Henry Morris, Baker Book House.

The Modern Creation Trilogy : Scripture & Creation, (Three Volume Series), Henry Morris, Baker Book House.

The Mythology of Modern Dating Methods : Why million / billion-year results are not credible, John woodmorappe, ICR.

The Revised & Expanded Answers Book : The 20 Most-Asked Questions about Creation, Evolution, and the Book of Genesis, Answered!, Ken Ham. Jonathan Safati, Carl Wieland, Edit. Don Batten, Master Books.

영상물 :

Evidences : The Record and the Flood, Geoscience Research Institute, Rev and HId Pub. Association.

From a Frog to a Prince, Keziah, Institute for Creation Research& Answers in Genesis.

Mount St. Helens : Explosive Evidence for Catastrophe, Steve Austin.

The Genesis Solution, Kem Ham, Films For Christ.

The Grand Canyon Catastrophe : New Evidence of the Genesis Flood, Prod. by Keziah, Distrib. by American Portrait Films.

The Young Age of the Earth, American Portrait Films.

Journeys to the Edge of Creation,(2vol.) Moody Institute of Science.

The Wonders of God' s Creation,(3vol.) Moody institute of Science.

4 각주

제 1 장

1. A Ready to Defence, Josh McDowell. Bill Wilson, Thomas Nelson Publishers. p. 27,28
2. '감동으로(Inspired)' 를 '숨을 불어 넣은(God-breathed)' 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숨을 불어 넣은(God-breathed)' 의 표현이 문자적 번역에 더 가깝다.
3. And they came, bringing to Him a paralytic, carried by four men. 마가복음 2:3 NASB
4. Illustrated Bible Dictionary, Pt 3, IVP, p.1538
5. The Origin of the Bible, Philip W. Comfort, Mark R. Norton, Tyndale House Pub., Inc. Texts & Manuscripts of the Old Testament, p. 151.
6. The Works of Josephus, William Whiston, Hendrickson Publishers, p.776.
7. From God to Us, How We Got the Bible, Norman L. Geisler & William E. Nix, Moody Press, p.7
8. 오늘날 유대인 학자들은 히브리 성경을 율법서, 시가서, 예언서의 세 부분으로 나눈다. 그러한 편집은 BC 2세기에 시작하여 AD 5세기경에 완성되었다. 위의 책 p.77-85

제 2 장

1. 광대한 은하계 전체를 바깥에서 사진으로 찍을 수는 없다. 다만 그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 안드로메다 성운의 사진을 사용했다.
2. 통계 자료는 The World Book Encyclopedia에서 인용했다.
3. 유다서 1:6
4. 누가복음 20:36.
여기서는 육체적 죽음을 말한다. 천사는 영적 존재의 피조물이므로 그 존재가 없어지지 않는다.
5. 마가복음 12:25
6. 루시퍼는 라틴어로 "빛을 지닌 자"라는 뜻이다. 그 어원은 "계명성(새벽 별)"이라고도 부르는 '금성(Venus)' 을 나타내는 라틴어에 있다.

제 3 장

- | | | | |
|-------------|----------|---------|--------------------|
| 1. 비교: | 영어 | 히브리어 | 문자적 번역 |
| 제 1 일 중에서 : | “light” | “or” | “빛” |
| 제 4 일 중에서 : | “lights” | “ma-or” | “빛을 내는 것
(발광체)” |
2. ‘종류대로’ 라는 말은 각기 ‘종(種)’ 이라고 분류되는 집단을 의미한다(예를 들어 늑대, 들개, 코요테 등은 모두 ‘개의 종류’ 에 속한다). 이 종류는 하나의 조상을 나타내는 공통된 유전인자를 갖고 있는데, 그 인자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거나 변형된 적은 없다.
 3. ‘완전한 사람’ 이라 할 때는, 보통 도덕적 행위로 완벽한 사람을 의미한다.
 4. Michael J. Behe 박사의 Darwin’s Black Box, p.307을 참고했다.
 5. 지질 연대학은 대단히 광범위한 내용을 다룬다.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시간 모델과 방대한 자료를 구해 참고할 수 있다.

제 4 장

1. 요한계시록 12:3-9중에서 3,4절은 일반적으로 사탄의 멸망을 가리키며, 7-9절은 미래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본다. 여기서 3-9절까지의 전체를 인용한 것은, 그 후반부 구절들이 우리의 주 관심사인 3,4절의 ‘그 존재’ 에 대한 설명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2. 이 구절은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의지로 했던 선택을 말한다.
3. 자세한 것을 알려면, 로마서 5:12-14 및 이 책의 제 10장 끝부분을 보라.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었다.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된 것이다.
4. Newsweek, 1988.1.11. p.46-52
5. Time, 1995.12.4, p.29

제 5 장

1.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까닭이 가인의 태도 때문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 나중에 가인이 하나님께 악한 태도를 보인 것을 근거로 그렇게 말한다. 가인이 하나님께 악한 태도를 보인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그 시점은 어디까지나 제사 이후에 일어난 사실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아벨이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은 아벨이 가져온 ‘제물’ 에 대해 그렇다고 증거하셨다고 한다. 성경 어느 부분에서도, 그것이 더 나은 ‘태도’ 때문이라고 하는 적이 없다. 그 ‘제물’ 의 문제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일관된 주제, 곧 어린양’ 과 ‘피의 제사’ 라는 주제와도 정확히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가

인에게서 문제가 된 것은, 바로 그가 가져 온 '제물' 이었던 것이다. 그는 합당하지 않은 제물을 가져옴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히브리서 11:4 에 그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다.

2. 누가복음 17:27, 마태복음 24:38
3. 로마서 1:21-32. 이 구절이 노아 시대를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죄악에 가득 찬 세상을 묘사하는 데는 적합한 내용으로 보인다.
4. 송진을 숯가루와 함께 끓여 만든 것으로 추정한다. 역청 타르는 대홍수 이후에 많이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5. 창세기 6:3
6. 베드로후서 2:5
7. 많은 학자들이 방주의 용적을 계산해 보았다. Noah's Ark : A Feasibility Study, John Woodmorappe. p. 306
8.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미국 뉴멕시코 소재)의 지질 물리학자 John Baumgardner 박사가 Catastrophic Plate Tectonics(재앙적 지각 변동) 이라는 창조론적 모델을 제시했다.
9. 욥기 40:15-24, 41:1-34
10. “여호와께서... 강림하셨더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어째서 ‘강림’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성경은 하나님과 관련하여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육신의 눈이 없는 데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신다’ 는 의인적 표현을 쓴다.
11. 유전학에 관해 Carl Wieland 박사의 도움을 크게 얻었다. The Revised & Expanded Answers Book, Ken Ham, Carl Wieland, p.274

제 6 장

1. 홍수 이후 사람의 수명이 급격히 줄었음을 주목하라. 아브라함 때에는 75세된 사람이 벌써 노인으로 여겨졌다.
2. 아브람은 이스라엘과 아랍 각국들의 조상이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의 후손들은 큰 나라를 이루었다.
3. 아브람의 이름은 위대한 이름이 되었다. 지금은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이 모두 그 이름을 공경한다. 바벨 탑을 쌓던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높이려고 시도했던 반면, 아브람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높여 주셨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4. 역사를 살펴보면, 희한하게도 유대인들을 박해한 사람들은 결국 변성하지 못하고 사라져 간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5. 요한복음 8:56

6. 마태복음 17:20

7. “죄의 값은 사망이요(로마서 6:23).” 제4장 죽음에 관한 설명(p.62-67) 참고.

제 7 장

1.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는 곧 야곱의 열두 아들의 자손들이다. 그 중 예외가 된 지파가 있는데, 그것은 레위의 자손과 요셉의 자손이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가 되었으므로 열두 지파의 숫자에 넣지 않는다. 반면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지파를 이루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이루어졌다.
2. 이것은 피를 빨아먹는 진드기 종류로 번역될 수도 있다.

제 8 장

1. 이 내용은 출애굽기 19:5를 간략히 풀어 쓴 것이다.

제 9 장

1.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꼭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 가지 예화로 사용했을 따름이다.
2. 1) 늦제단 : 출애굽기 27:1,2
2) 바다 : 출애굽기 30:18
3) 등대 : 출애굽기 25:31
4) 진설병과 상 : 출애굽기 25:23,30
5) 금제단 또는 향단 : 출애굽기 30:1,3
6) 언약궤 : 출애굽기 25:10,11
7) 속죄소(속죄판, 시은좌) : 출애굽기 25:17-21
3. 구름 기둥이 지성소 위에 머물러 있을 때는, 제사장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었다. 구름이 움직여 그들의 진행을 인도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성막 전체를 정리해 이동해야 했다.
4. 사무엘하 7:12-17
5. 천지창조,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등의 연대에 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은 몇 백만 년 혹은 몇 억년 같이 오랜 연대의 가능성을 일축한다. 성경은 천지창조로부터 시작한 역사적 사건들이 모두 몇천 년이내에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제 10 장

1. 이것을 생물학적 유전과 연관지어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죄의 본성을 DNA에서 찾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 관계는 순전히 영적(靈的)인 측면을 설명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에덴동산에서 사람이 저지른 반역에 대해 책임을 물으셨고, 그 결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된 것’이다(로마서 5:12).

모든 사람에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기에 죄의 본성 또한 반드시 있다. 그러나 예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셨으므로, 죄(罪)의 본성이 아니라 의(義)의 본성, 곧 하나님의 본성이 있다.

2. 예수께서 오시기 5백 년 전, 이미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했음을 주목해 보라.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못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다니엘서 7:13,14 KSV)
3. “주”, “주님”은 구약성경에서 메시아를 나타내는 호칭(시 110:1)으로 사용되었는데, 메시아의 권위, 혹은 다스릴 권한을 강조한다. *The Words and Works of Jesus Christ, Dwight Pentecost, The Zondervan Corporation, p.61*
4. ‘에브라다’라는 이름은, 같은 이름을 가진 나사렛 부근의 또다른 도시 ‘베들레헴’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5. 방향성 향료
6. 예수의 ‘바 미츠바(Bar mitzvah)’ 성인 의식이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 유대인의 기록 탈무드는 이 성인 의식을 사춘기에 이르렀을 때 한다고 되어 있다. 때로는 한 두해 늦게 이 의식을 행하는 경우도 있다.

제 11 장

1. 요한은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디바에 의해 옥에 갇혔다. 요한은 헤롯이 이복 동생의 아내를 취한 죄를 질책한 바 있었다.

제 12 장

1. 성경 그대로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사망과 음부(지옥)도 불뭇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 못이라.”(요한계시록 20:14 KRV)

제 13 장

1. 강조를 나타내는 인칭 대명사 '나(I)'의 직설법 능동 현재형 (“내가 바로 지금 나라고 말하고 있는 나다.”)
2. 재판과 십자가 처형의 전체 과정을 아주 상세히 다루지는 않았다. 이 시점에서는 다음의 사건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좇게 하더라.”(누가복음 23:26 KRV)
3. The Works of Josephus, William Whiston, p.720
4. 예언을 과거 시제로 기록한 것은, 그 사건이 미래에 분명히 일어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본다.
5. 사탄이 실제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단정짓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가 전체 사건의 배후인물로서 어떠한지를 한 번 상상해 본 것이다.
6. The Christ of The Gospels, J. W. Shepard, Eerdmans, p.604
The Words and Works of Jesus Christ, Pentecost, p.487
7. The Bible Knowledge Commentary, John F. Walvoord, Roy B. Zuck, SP Publications p.340
The Words and Works of Jesus Christ, Pentecost, p.487
The Bible Exposition Commentary, Vol.1, Warren W. Wiersbe, SP Publications p.384
8. 1개 대는 병사 3백 명에서 1천 명 정도로 이루어진 부대이다.
9. 부활하신 날 아침에 일어난 사건들의 정확한 순서에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순서를 제시했다.

제 14 장

1.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시각은 오전 9시, 바로 아침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운명하신 시각은 오후 3시, 바로 저녁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었다.
2. 예수의 완전한 삶은, 그가 흠 없는 희생제물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우리의 죄를 갚을 수 있게 한 것은 바로 예수의 죽음이었다. 예수는 오직 자신의 죽음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었다. (마태복음 5:17,18)

제 15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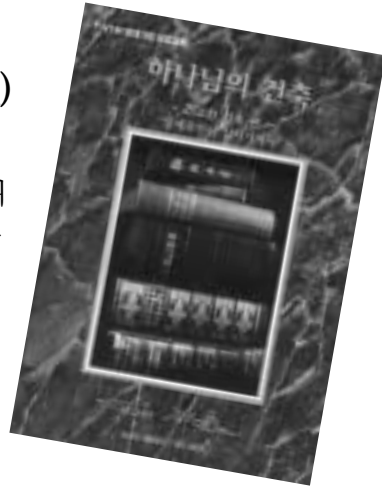
1. 성경 전체의 약 30%는 과거에 이미 성취됐거나, 혹은 장차 미래에 성취될 '예언'에 관한 부분이다.
2. "죄"의 다른 표현.
3.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이요, 위치라고 할 수 있다.
4. 이 동사는 현재형으로 기록되었다. 이것은 지금 이 시간에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5. 성경에서는 사람의 죄의 본성을 나타낼 때도 '육', '육체' 혹은 '육신'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
6. 1세기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도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 기록했다.
7. 유대식 이름 사울(Saul)은 로마식 이름 바울(Paul)로 바뀌었다.

하나님의 건축

창세로부터 십자가까지 (견고한 기초 편)

-트레버 맥클웨인 저, 낸시 에버슨 편-

우리는 성경을 통해 진리의 거대한 흐름을 만납니다. 그 흐름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흐름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그 마지막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부활에 이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이 책은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가르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의 흐름으로 깨닫고, 그것이 믿음이 되도록 가르칩니다. 즉 이 구원의 믿음이 견고한 기초 위에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지어져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각 급 성경교육에서 / 주일학교에서 / 그룹에서 / 가정에서 / 선교지에서 구원의 복음의 기초를 가르치는데 대단히 유용합니다. 이 책은 공부를 진행하면서, 가르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이 책은 영어, 중국어(정자, 간자), 러시아어, 스페인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아랍어, 인도네시아어, 힌두어, 네팔어, 알바니아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키르키즈어 등 24개국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태국어, 일본어, 터키어, 몽골어 등은 곧 나올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건축 어린이 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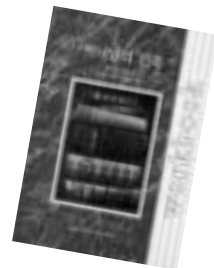
(전 5권, 영어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입니다. 어린이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건축 워크북

하나님의 건축으로 성경을 공부할 때 워크북을 사용하면 노트하며 집중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엔티엠 출판부 02) 2040-6080 / Fax. 02) 2040-6081

어린양 (Lamb)

그리스도의 복음을 읽어 주고 들려 주는 그림책

어릴 때부터 무엇보다 먼저 복음에 대해 들려 주어야 합니다. 십자가 어린양의 이야기는 모든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어린양 이야기는 어린이에게 평생, 그리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될 것입니다. 어린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자라간다면, 그보다 더 큰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이 책은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책 내용 전부를 그대로 들려 주는 음성녹음CD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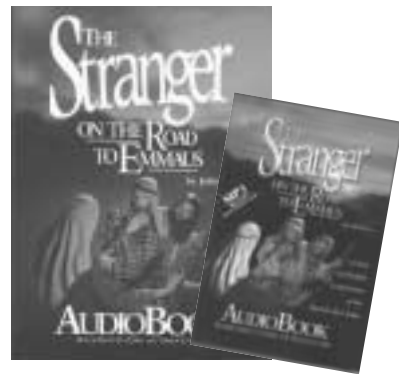
엠마오 길에서 만난 사람

(The Stranger on the Road to Emmaus)

영어 오디오북 (CD)

이 책의 영문판 전문을 성우들이 낭독하여 CD로 음성 녹음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들으면서 읽으면 더욱 집중할 수 있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두 10시간 길이의 분량이며, CD는 WAV와 MP3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저자 John Cross 강의 (DVD/ 영어)

이 강의는 저자가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성경의 진리의 핵심적 내용을 직접 강의하는 장면을 수록했습니다. 이 강의에서 저자는 듣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시청각 자료를 효과적으로 동원합니다. 또 성경이 살아있는 역사임을 설명하기 위해 구약의 여러 장면을 설명할 때는 이스라엘 현지에서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DVD 6장으로 12시간의 분량입니다.



엔티엠 출판부 ntmkorea@unitel.co.kr / www.ntmkorea.org

복음의 씨앗을 뿌립시다.

성경을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이 그 진리를 전하는 것은 커다란 특권이요 책임입니다. GoodSeed International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경적인 방법으로 온 세계 각 나라 말로 전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초교파 복음전파 기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함께 동역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역하기를 원하시거나, 성경의 더 깊은 내용에 대해 문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Goodseed Korea	Tel : 02-2040-6080	info.kr@goodseed.com
미국		
Goodseed USA	Tel: 888-654-7333	info.us@goodseed.com
캐나다		
Goodseed Canada	Tel: 800-442-7333	info.ca@goodseed.com
BonneSemence Canada	Tel : 888-314-3623	info.qc@goodseed.com
영국		
Goodseed UK	Tel: 0800- 073- 6340	info.uk@goodseed.com
오스트레일리아		
Goodseed Australia	Tel : 1-800-89-7333	info.au@goodseed.com

엠마오 길에서 만난 사람(기타 번역판)



독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www.goodseed.com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 주신 것이다.

